

SGRA REPORT

SGRA 보고서 No. 86 한국어판

NO. 86 한국어판

ISSN 1346-0382

제 59 회 SGRA 포럼

제3회 한국 · 중국 · 일본 간 국가들의 대화 가능성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



제59회 SGRA 포럼

제3회 한국·중국·일본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

■ 포럼의 취지와 경위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7월, 제49회 SGRA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知的 공유공간” 혹은 “知的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년 9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1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교수 (도쿄대학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 (복단대학 교수), 조광 교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세 나라의 여러 “국사”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2회 대화에서는 자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년 8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명의 국사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행해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제3회 대화는 보다 시대를 내려와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1600년을 전후로 한 한 세기는 동아시아가 세 번째로 대규모의 전란에 직면한 시대였다. 동아시아에는 중국 시장이 세계로부터 끌어들이고 있던 은을 조선에서 제련 기술을 배운 일본이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구조 속에서 긴밀한 경제관계가 만들어졌다. 한편 경제변영은 지역권 내의 제 민족에게 정치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에 의한 두 차례의 조선침략 및 만주족에 의한 중국에서의 청나라 건국이 그것이다. 경제에서의 상호 의존성 심화와 각국의 패전 쟁탈이 동시에 진행되며 만들어진 대규모의 전란, 그리고 그 이후의 장기안정은 현대 동아시아에 깊은 자성을 불러온다. 다만 이번 회의의 목적은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위에 “대화”에 의해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은 원활한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어 ↔ 일본어, 일본어 ↔ 중국어, 중국어 ↔ 일본어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 원탁회의의 강연록은 SGRA 레포트로 작성해 3개국어로 발행하며, 또 SGRA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SGRA는

SGRA(세그라)는 세계 각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오랜 유학생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과 외국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개인이나 조직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 또는 문제해결의 제안을 하고 그 성과를 포럼, 레포트, 홈페이지 등의 방식으로 널리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연구 테마별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가 연구팀을 편성하고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시켜 다면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SGRA는 어떤 일정한 전문가가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aisf.or.jp/sgr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GRA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이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http://www.aisf.or.jp/sgra/>)에서 자동등록 하시면 됩니다.

제3회 한국·중국·일본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

일시	2018년 8월 24일 (금) ~ 28일 (화)
장소	대한민국 서울 더케이 호텔
주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공동개최	과학연구비 신영역연구「화해학의 창성」, 와세다대학 동아시아 국제관계연구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성	도쿄클럽

개최인사 |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취지설명 |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5

〈세션 1〉 【기조강연】

[사회 : 이 엔민 李恩民 (오비린대학)]

17세기 동아시아사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의 흐름을 17세기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7

조광 趙珰 (국사편찬위원회)

〈세션 2〉 【발표논문 1】

[좌장 : 양 바오 楊彪民 (화동사범대학)]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

13

최영창 崔永昌 (국립진주박물관)

【발표논문 2】

기만인가 타협인가—임진왜란 시기의 외교교섭

33

정 지에시 鄭潔西 (영파대학)

【발표논문 3】

‘임진전쟁’의 강화 교섭

56

아라키 가즈노리 荒木和憲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세션3〉	[좌장 : 이명미 李命美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논문4】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78
	허태구 許泰玖 (가톨릭대학교)	
【발표논문5】	‘호란’연구에서 주의할 점	92
	스즈키 가이 鈴木開 (도쿄대학)	
【발표논문6】	라마의 위상—17세기 티베트불교와 동아시아 정국	102
	치 메이친 祁美琴 (중국인민대학)	
〈세션4〉	[좌장 : 무라 가즈아키 村和明 (도쿄대학)]	
【발표논문7】	일본의 근세화와 토지·상업·군사	118
	마키하라 시게유키 牧原成征 (도쿄대학)	
【발표논문8】	임진왜란~병자호란기 唐糧의 성격에 대한 검토	132
	최주희 崔姪姬 (한국국학진흥원)	
【발표논문9】	청대 전기 종조관계와 ‘동아시아’의 질서 구조	145
	자오 이펑 趙軼峰 (동북사범대학)	
〈세션5〉	[좌장 : 류 지에 劉傑 (와세다대학)]	
【자유토론】	초대토론자: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교토대학), 김보광 金甫桃 (가천대학교) 외 총괄/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165
〈세션6〉	[좌장 : 류 지에 劉傑 (와세다대학)]	
【패널 토론】	화해를 위한 역사가공동연구네트워크의 검증	184
	논점정리/조광 趙琬 (국사편찬위원회) 총괄/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발표자 [일본]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아사노 도요미 浅野豊美 (와세다대학) [한국] 조광 趙琬 (국사편찬위원회), 박훈 朴薰 (서울대학교) [중국·대만] 양 바오 楊彪 (화동사범대학), 왕 윈룽 王文隆 (대만정치대학) 재일연구자 : 단 즈이소 段瑞聰 (게이오의숙대학)	
	맺으며 김경태 206, 무라 가즈아키 村和明 209, 쑨 쑨위에 孫軍悅 212, 류 지에 劉傑 215	
	저자 약력 218	
	관계자 명단 220	

포럼 개최에 앞서서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아쓰미재단의 「국사들의 대화」가 제 3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럼 관계자들은 아시아미래회의에 이 기획을 채용해주신 아쓰미재단과 따뜻한 지원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와세다대학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그리고 도쿄클럽(東京俱樂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1 회 포럼은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렸습니다. 동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이 역사에 관한 대화를 할 때, 각자가 어떤 습관과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특히 자국사를 떠올릴 때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앞으로의 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제 2 회 이후에는 역사인식을 다룰 때 반드시 필요한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러 사건, 그 중에서도 관계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대규모 충돌을 주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정반대의 사태를 검토하고 비교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장소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 2 회 대회의 주제는 「몽골내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였습니다. 한국·중국·일본 뿐만 아니라 몽골공화국과 중국의 내몽골에서도 연구자를 초빙하여, 인류 역사상의 대사건이었던 몽골의 유라시아 석권이, 동아시아에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원나라를 몽골제국사의 일부로 다루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사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점을 둘러싼 토론이 이루어졌고, ‘국사’에서조차 결코 일국사의 틀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몽골의 정복에 동반하여 대규모의 문화혼종이 발생하여, 조선·중국의 사회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남겼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 3 회 회의에서는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6 세기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두 차례 조선을 침공하였고, 조선·명 연합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그 후 이번에는 만주족 홍 타이지가 두 차례 조선을 공격하였고, 종속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아가 중국 본토까지 침공하였고 청조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7세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한 동아시아의 대란, 즉 일본과 신라·당 연합군의 전투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13세기 몽골의 침략에 이어지는 세 번째 동아시아 대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대란을 왜란과 호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연구자들은 두 전쟁을 별개로 논의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왜란과 호란을 동시에 포착하면 무엇이 보일 것인가, 이것이 이번 회의의 첫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세계로부터 대량의 은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먼저 멕시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은을 수입했습니다. 명은 조선에서

제련기술을 받아들여 은을 대량생산 할 수 있게 된 일본에서 많은 은을 수입하여 장성건설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권역내 각국의 경제관계를 긴밀화하고 각국에 번영을 가지고 오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일본이나 만주족에 군사패권 추구라는 야망을 생겨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번영과 대전쟁의 동시진행, 이것이 17 세기의 동아시아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 동아시아 대란에 관하여, 우선 종래의 연구를 기반으로 왜란과 호란이 조선 사회에 가지고 온 타격과 상처를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심각한 대란이 어떻게 종식으로 이어졌는지, 또한 관계 각국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남겼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고 예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각국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국사에서도 이 국제문제를 다루어야만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차이나는 관심사를 가진 역사가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번 포럼의 과제입니다.

「국사들의 대화」는 참가자 사이의 역사인식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公定의 역사는 물론, 개개인이 가진 역사상(像) 사이에는, 주안점에서도 해석에서도 큰 차이와 대립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포럼은 다만 대립만이 주목받는 ‘국사들’ 사이에서 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분들께서는 자신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발표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지견을 발견하고 나아가 학문적 친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발표자 외에도 ‘국사’ 전문가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부디 각 세션의 질문시간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주시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3개국 연구자들의 모임이므로, 언어상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아쓰미재단 멤버들이 도와줄 것이므로 편히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3 회 「국사들이 대화」가 국경을 넘은 역사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동아시아에 지식의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개최 당일에 배부한 『예고집』 「취지설명」을 전재한 것임.)

기조강연



17세기 동아시아사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의 흐름을 17세기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광 (趙珣, 국사편찬위원회)

요지

세계사적으로 17 세기는 위기의 시대로 여겨지고 있다. 아시아사에서도 위기론에 입각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사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와 같은 이론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조선에서는 전란 이후 강한 복구론이 만들어졌다. 정치적, 사회적, 사상사적으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적 사회개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활발한 개혁안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실학’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고민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시대를 이끌며 장기간의 논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다양한 대응 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는 조선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한 동력이었다. 일본사와 중국사의 양상 역시 자국사와 관계사의 시각을 모두 동원하여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보다 발전적인 역사상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세계사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17 세기를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17 세기에 이르러 지구에는 태양의 흑점 폭발로 인해 소빙기를 맞아 섭씨 약 2도 정도가 하강되는 이상저온 현상이 일어났다. 이 이상저온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서는 기근이나 전염병 등 각종 災異가 일어났고, 전쟁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일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를 특별히 ‘17 세기 위기론’으로 부르고 있다.

17 세기 위기론은 유럽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주장되기 시작하여, 아시아

를 포함한 전 지구적 현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17세기 위기론이 동아시아사의 전개 과정에서도 반드시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17세기 동아시아사의 전개과정에서 조선의 역사가 어떠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조선과 명,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 비슷한 시기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세 나라는 서로 ‘조공책봉체제’라는 국제질서 하에서 관계를 맺었다. 세 나라는 14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을 선언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 조선의 통신사를 접견한 후, 조선 국왕에게 명 침략에 협조를 요구했다. 조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전까지의 국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괴적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1592년 4월, 그는 조선을 침략하였다.

조선은 명에 구원을 요청했고, 명은 구원군을 파견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곧 이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강화교섭에 임했다. 명은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에 책봉했다. 히데요시는 ‘책봉’은 받아들였으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조선으로부터 ‘전리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재침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정유재란이다. 정유재란은 그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었다.

한편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여진족 중 한 부족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後金)을 건국했고, 이후 황제를 자칭하며 국호를 청(淸)으로 바꾸었다. 여진족은 조선을 두 차례 침략하는 호란(胡亂)이 일어났다.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조선과 후금은 군신(君臣) 관계를 맺었고, 후금은 마침내 멸망한 명을 대신하여 중원의 지배자가 되었다.

즉, 동아시아에서는 이 시기 明清交替가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 德川幕府가 출현했다. 조선의 경우에도 국가를 再造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이와같이 동아시아의 역사는 격동치고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동아시아 세계의 해체’ ‘중국적 세계질서의 해체’로 규정하거나, ‘17세기 위기론’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시각들은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2. ‘전란의 시대’, ‘양란(兩亂)’과 ‘16-17세기’

한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15세기와 16세기가 조선 전기로, 17세기에서 19세기를 조선 후기로 보는 것이다. 조선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점은 일본의 조선 침략인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여진족의 침략인 정묘호란·병자호란을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과 여진에 의해 각기 단행된 조선침략을 양란(兩亂)으로 규정하여 그 시대구분을 시도한다.

조선사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양란 이전을 조선이 발전하던 시기로, 양란 이

후는 조선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양란의 피해가 실상보다 과장되게 그려지기도 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 피해를 극복하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조선은 근대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내재적 발전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란이라는 명칭이 시대구분을 위해 과연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사이에는 30년 가까운 시차가 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은 그 형태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난다. 즉, 왜란은 10만 이상의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와 조선 전역을 유린했고, 이에 맞서서 조선군과 명의 대군이 맞붙은 ‘전면전(全面戰)’이었다. 반면에, 호란은 단 시간 내에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고, 명과의 전쟁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종의 ‘제한전(制限戰)’이었다. 그러나 ‘양란’이라는 명칭을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 까닭은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임진왜란과 사상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가져온 호란을 동시에 지칭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양난이라는 명칭이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통칭되기는 하지만, 조선사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기점은 대개 임진왜란이다. 이는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획기성을 부여했던 결과였다. 예를 들면, 조선이 왜란으로 인해 당분간 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결과를 보면, 기존에 거론되었던 조선의 피해상에는 실제로 과장된 면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왜란이 종전된 직후에 단행되었던 토지 조사 의 數値는 전란 이후 ‘여민휴식(與民休息)’이라는 정책의 결과로 과소 계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참조할 때, 종래의 임진왜란 연구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한국사의 연구과정에서 17세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당대 정치사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대표되는 봉당체제의 성립 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봉당정치의 확립은 조선왕조적 통치체제의 완비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적 위기를 정치·사상적으로 극복하려 했던 움직임을 유형화한 ‘국가재조론’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이르러 ‘17세기 위기론’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연동해서 조선시대사의 연구에 ‘소빙기론’(小氷期論)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한반도도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기후 현상인 소빙기를 피할 수는 없었음을 전제하고 제시되었다. 사실 당시 한반도에도 기근과 전염병이 성행했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 방면에 걸쳐 병행되고 있었다.

한국사에 있어서 17세기에 주목되는 변화상 중 하나는 ‘가족제도’이다. 17세기 초부터 장자 상속권의 강화와 양반가문에 있어서 4대봉사의 일반화, 입양의 성행, 적장자 중심의 친족질서 확립이 이루어져 갔다. 또한 결혼제도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의 집(처가)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여성의 시집살이가 일반화 되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등이 양반 지배층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역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임과 동시에 그 변화를 추동하는 기제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한편 종래의 시대구분론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16 세기와 17 세기의 동질성에 주목한 견해도 있다. 이른바 ‘조선중기론’ 이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사회구조로서 양반이 조선의 지배층으로 확고히 성립하는 모습에 주목한 연구이다. 임진왜란이라는 비상 국면에서 양반들은 눈부신 활약을 하였고, 따라서 전후복구 과정에서의 주도권은 양반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에 의한 개혁론은 향약 보급,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행과 같은 예치 질서의 확립과 함께 ‘여민휴식(與民休息)’ 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개혁론은 인조반정 이후 잠시 국가주도개혁론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소빙기’ 가 오면서 다시 자율성 확대정책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3. 사상적 변화와 위기 극복

위기에 맞선 조선은 여러 방면에서 복구론을 개발했다. 17 세기 이래 조선의 사상계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예론의 발전이었다. 당시의 예론은 관혼상제 중심의 家禮에 국한되지만은 않았다. 예학자들은 禮의 범위를 국가의 제도를 논하는 데에까지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예론은 국가의 통치질서를 강화하는 기능을 발휘했다.

성리학을 지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던 관료들은 17 세기 대동법 시행, 18 세기 균역법 시행 등 국가제도의 개혁과정에서도 대소의 변통론을 제시하였다. 대변통론은 조선왕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뛰어넘는 근본적 변통 내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소변통론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이 제시하는 원형을 회복함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자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이 성리학은 17 세기 이래 더욱 강화된 통치이념으로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7 세기 조선사회의 각 방면에서는 변화의 양상이 전개되었고, 조선의 사상계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실학사상의 출현으로 대표된다. 새로운 조류의 사상인 실학사상은 조선후기 17 세기 이후의 사회에서 나타난 현실 개혁적 사유형태를 지칭한다. 실학사상은 성리학을 정면으로 배격하지는 않았으나, 종전의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朱子唯一主義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先秦時代의 原初儒學에 입각한 變通論을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했던 변통론은 대체적으로 大變通論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실학사상은 17 세기 이래 조선 사회에서 전개된 사회경제적 변동 및 문화변동의 산물로서, 성리학을 대체하거나 개혁하고자 하는 경세론으로 등장했다.

실학의 발생 배경으로는 먼저 내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사회 · 경제적으로 농촌사회의 변동,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이 요인이 되었고, 무엇보다 성리학을 본위로 한 조선 사상계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17 세기에 이르러 전쟁 이후 드러나게 된 여러 부조리에 대해 성리학적 경세론은 합리적인 수습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조선의 사상계는 성리학의 학풍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주자성리학을 유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벗어나 새로운 기준에 입각한 새로운 개혁적 경세론 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실학발생의 배경에서 외래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은 17 세기 전반 병

자호란에서 참패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측면에서 전개했다. 오랑캐인 청이 명을 대신하여 중원을 지배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조선의 사상계는 전통적인 正統論과 華夷論에 대한 재검토 작업 과정에서 中華繼承意識 내지 朝鮮中心主義가 일어나기도 했다.

조선중심주의적 사고는 실학자들의 자아 각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실학자들도 정통론과 화이론을 재검토하였고, 이는 실학자 자신의 사상이 새롭게 정립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실학자들의 개혁론은 선진유학사상에 입각하여 왕도정치론, 권력구조 개편론, 관료제도 개혁론, 과거제도 개혁론, 군사제도 개혁론, 토지제도 개혁론, 상공업 진흥론, 사회 개혁론 등 다방면에 미쳤다. 그리고 유학사상에 대한 연구나 대외인식과 역사관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4. 17세기 조선의 외교

1598년 11월, 일본군은 조선에서 모두 물러갔다. 1600년 9월 명군도 조선에서 철수했다. 조선은 내적인 재건과 함께 외적인 관계도 새로이 정립해야 했다. 침략 당사국인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이 실권을 잡고 도요토미 정권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있었다. 정권의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로서는 ‘외국’의 정권 인정이 필요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 외교와 사절 파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불과 몇 년 전의 침략국이었던 일본의 외교 요청, 그러나 정권을 잡고 있는 이는 임진왜란 때에 침략군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었다. 조선은 수년 간 고민했고, 또 일본의 정권 향배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1607년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명은 성장한 북방 여진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명은 임진왜란 시기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내세워 조선에 군사적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조선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광해군 정권과 인조 정권 모두 같은 문제로 고뇌했다. 급성장한 후금-청은 조선에 침략하여 먼저 형제관계를 맺었고, 이어서 병자호란을 일으켜 군신관계까지 맺게 되었다. 명과 조선의 관계는 강제로 단절되었다. 1644년 청이 북경에 진입하여 중원의 지배자가 되자, 조선은 이 변화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는 비록 취소하기는 했으나 청과 전쟁을 위해 원군 파견을 제안한 일이 있었다. 조선에서도 趙綱과 같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는 이가 있었다. 시대는 변화했고, 내적인 대응 방식과 외적인 대응은 연동되어야만 했다. 병자호란 중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의 명칭은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에서 ‘통신사(通信使)’로 변경된 바 있었다. ‘위기의 시대’라는 17세기. 이 시기를 각 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는 조선의 양상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선의 대응 방식이 오로지 내적인 요인에만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이미 언급한 바이다. 변화와 이를 추동한 관계, 그리고 그것이 각 국의 내재적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5. 결론

17세기 조선에서는 전쟁이라는 위기 이후 강력한 복구론이 제기되었다. 정치적, 사회적, 사상사적으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적 사회개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활발한 개혁안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실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고민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시대를 이끌며 장기간의 논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다양한 대응 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는 조선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한 동력이었다. 그리하여 17세기는 위기의 시대임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시기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조선의 17세기사는 서유럽의 역사서술에서 드러나는 17세기 위기론과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17세기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연구해야 할 많은 분야가 발견된다. 그리고 역사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17세기사의 개별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사와 중국사의 연구과정에서도 역시 자국사와 관계사의 시각을 모두 동원하여 17세기라는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역사의 진실에 좀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발표논문 1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

최영창 (崔永昌, 국립진주박물관)

요지

16세기 말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한반도를 무대로 조선과 일본, 그리고 조선을 구원한 중국 명나라 등 동아시아 3국의 군대가 참전한 국제전쟁이었다. 7세기 중반 백촌강 전투와 13세기 후반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 등과 같이 이전에도 한·중 연합군 대 일본군의 대결 구도로 동아시아 3국의 군대가 충돌한 전쟁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처럼 조선왕조와 근·현대 한국인들의 역사와 기억에 각인된 사건은 없었다. 근대 일제의 한국강점과 함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과 기억, 국민감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임진왜란이었다.

현대 한국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970년대 민족주의에 바탕한 국난극복사관이었다. 국난극복사관의 영향으로 초기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 관군에 비해, 의병의 활약상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후기부터 꾸준히 현창되어온 이순신 장군은 성웅聖雄으로 자리매김되고 조선 수군의 활약상도 절대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의병과 조선 수군의 승전만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난극복사관에 입각한 임진왜란 이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여기서는 임진왜란의 성격과 원인, 경과 영향, 명칭 등에 대한 한국의 시각을 소개한다.

들어가며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명군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참전함으로써 동아시아 3국의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다. 7년 동안 제주도 제외 한반도 거의 전 지역이 전쟁의 참화를 겪은 임진왜란은 조선후기와 근·현대 한국인들의 역사와 기억에 각인된 사건이 되었으며, 뿌리 깊은 반일 감정 또는 적대적 대일인식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1 이규배, 「조선후기 적대적 對日인식에 관한 고찰-임진왜란~조선후기 말기를 중심으로」, 『군사』 84, 2012.

16세기 말 동아시아 3국이 한반도를 무대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한 · 중 · 일 3국은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임진왜란을 기억 또는 이해하고 있다. 이 전쟁에 대하여 3국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한국), 분로쿠게 이초노에키(文祿慶長の役, 일본), 만력조선전쟁(萬曆朝鮮戰爭) · 항왜원조(抗倭援朝, 중국) 등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부른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조선시대 전쟁 직후부터 ‘임진년의 왜적(壬辰之倭賊)’ 또는 ‘임진년의 변란(壬辰之亂)’ 등으로 표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으로 정착되었다.² 이후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이란 명칭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을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식민지 경험에 따른 반일감정과 역사적 · 정치적 목적 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임진왜란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국난극복사관이다. 일반 국민의 이해나 방송 · 영화 등 대중문화의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바라보자는 주장과 시도가 힘을 얻고 있지만, 민족주의와 국난극복사관에 입각한 임진왜란 이해는 여전히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후기부터 현대까지 한국에서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과 이해를 소개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인식

임진왜란은 정신적 · 물질적으로 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조선정부가 전쟁 직전 파악한 인구(1000만)와 토지(500만 결)가 전쟁 직후에 각각 약 7분의 1(150만)과 10분의 1(50여만 결)로 감소할 정도로 피해를 겪었다.⁴ 인명 피해와 일본에 납치된 피로인의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조선 왕실에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은 일본군이 서울 점령 기간 중 조선의 제 9대 왕 성종과 11대 왕 중종의 능인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파헤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는 ‘한 하늘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不共戴天) 원수’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러한 인식은 구한말까지 지속되었다.

무엇보다 임진왜란에 대한 국난극복사관은 근대 역사학이 도입된 일제강점기를 거쳐 1950~70년대에 확립되었지만, 국난극복사의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의 묘호(廟號)는 원래 선종(宣宗)이었으나, 1616년(광해군 8)에 선조

2 『광해군일기』와 『선조수정실록』에 ‘壬辰倭亂’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광해군일기』가 편찬된 인조(재위 1623~1649) 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오종록, 『여러 얼굴의 전쟁, 임진왜란』, 『내일을 여는 역사』 1, 2000.

4 강응천·한명기 외,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임진왜란』, 『16세기-성리학 유토피아』(『민음 한국사』 조선02), 2014.

로 격상되었다.⁵ ‘조(祖)’는 새 왕조를 창업한 임금에게 쓰는 것으로, 선조를 멸망위기에 있던 왕조를 구한 군주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① 국가 차원의 임진왜란에 대한 추모와 기억만들기

1604년(선조 37)의 호성(扈聖)·선무(宣武)·청난(淸難) 공신 책봉에서⁶ 나타나듯, 조선 조정은 전쟁 직후 임진왜란을 기억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⁷ 호성공신 86명, 선무공신 18명, 청난공신 6명이 책봉되었는데, 선무공신 가운데 무공을 세운 사람은 14명에 불과하였다. 무엇보다 선무공신보다 호성공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은 선조의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⁸

“중국 군대의 힘이 아니면 왜적을 어떻게 물리쳤겠는가. 강토를 회복한 것은 모두 중국 군대의 공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 일이 없다. … 여러 해 동안 방수한 공이야 어찌 감히 전혀 없다고 하겠는가.”⁹

선조는 이처럼 조선의 관군이나 의병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 처음 선무공신 후보는 이순신을 비롯하여 권율·원균·고언백 등 4명에 불과하였다. 선조는 임진왜란 극복에 명군의 공로가 절대적이며, 자신을 의주까지 수행하고 명나라 군대를 불러오는데 공헌한 신하들의 공로가 제일 크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신을 의주까지 호종한 공로로 내시들까지 호성공신에 책봉한 반면, 정인홍·김면·곽재우·김천일·조현 등 의병장들을 제외해 공신책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초래하였다.¹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605년(선조 38)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을 도운 9060명을 선무원종공신으로 녹훈하는 조치를 내렸다.¹¹ 정인홍·김면·곽재우 등은 이 때 선무원종공신 1등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조선 왕조는 성리학적 윤리에 입각한 통치체제 정비를 위해 임진왜란 당시 충신과 효자·열녀의 행적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한편, 이를 알리기 위하여 1617년(광해군 9)『동국신속상감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편찬·간행하였다. 이 책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인물을 대상으로 총 1587건의 충신·효자·열녀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당한 피해 사례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576건이었다.¹² 이 가운데 지역은 임진왜란 당시 주 전쟁터였던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례가 많았고, 신분으로는 양반과 양인의 사례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조선 사회에서 충신과 효자, 열녀로 선정된

5 『광해군일기』 권 106, 광해군 8년(1616) 8월 4일 임인.

6 『선조실록』 권 175, 선조 37년(1604) 6월 25일 갑진.

7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 2012.

8 오종록, 「보통 장수에서 구국의 영웅으로-조선후기 이순신에 대한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18, 2004.

9 『선조실록』 권 135, 선조 34년(1601) 3월 17일 을묘.

10 『선조실록』 권 180, 선조 37년(1604) 10월 29일 을해.

11 『선조실록』 권 186, 선조 38년(1605) 4월 16일 경신.

12 손승철,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통해 본 임진왜란의 기억」,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다는 것은 가문의 위상을 드러내고 확인받는 좋은 기회였다.

인조반정 이후에도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을 추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첫 주갑인 1652년(효종 3)을 시작으로 5주갑인 1892년(고종 29)까지 매 주갑마다 전쟁에서 순절한 장수와 병사, 공신들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후손들에게 벼슬을 주는 한편,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書院)과 사우(祠宇)들을 건립하였다. 금산 칠백의총처럼 임진왜란 때 희생된 군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치제에¹³ 이어 동래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좌수영 소속의 군민으로 싸우다 전사한 이들을 위해 의용단(義勇壇)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특히 순조 · 헌종 · 철종 등 세도정치기에는 그 동안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각 지방의 인물들 대다수를 표창하면서, 임진왜란 때의 충신과 열사 거의 모두가 추모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조선후기 임진왜란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이순신에 대한 평가의 변화이다. 이순신은 19세기 말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웅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이미 영웅으로 대접받았다.¹⁴ 물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에 대한 선조와 조정의 평가는 엇갈렸던 게 사실이다. 선무공신 1등에 이순신과 함께 그의 라이벌인 원균도 함께 책봉된 사실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의심과는 달리, 순국 직후 여수(당시는 순천부)에 세워진 사당(충민사)과 통영의 사당(충렬사)을 시작으로 효종 때 남해 노량의 사당(충렬사)이 중건되고, 숙종 때 지역 유생의 요청으로 이순신의 묘가 있는 아산에 사당(현충사)이 세워졌다¹⁵. 앞서 광해군 때 『동국신속상감행실도』를 편찬하면서 충신전에 수록된 이순신은 1643년(인조 21)에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는데 이어, 효종부터 정조대를 거치며 숭모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효종 대에 『선조수정실록』이 마무리되면서 이순신은 명실 공히 ‘임진왜란 최고 전공자’로 평가받게 되었다. 광해군과 인조, 효종이 이순신을 이처럼 기념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 광해군은 후금의 공격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인조는 청에게 항복한 직후였다. 효종은 병자호란 때의 수모를 갚고자 적극적으로 북벌을 추진하던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위상은 숙종 때 ‘선정(先正)’으로 호칭되면서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로 격상되었다. 선정(先正)은 ‘고인이 된 정신(正臣)’이란 의미로, 이이와 송시열, 송준길 등이 당시 선정으로 불린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어 전라도 고금도에 세워진 관왕묘, 즉 관우의 사당에 조선 장수의 대표로 이순신이 배향되는데, 이로써 이순신은 조선은 물론,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무장이 되었다.¹⁶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 군대와 함께 조선의 중화문화를 수호한 상징적인 인물로 이순신을 재평가 한 것이 이 시기 현창사업의 배경이었다.¹⁷

13 『영조실록』 권38, 영조 10년(1734) 6월 18일 임술.

14 오종록, 앞의 논문, 2004.

15 1795년(정조 19)에 편찬·발간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11 「사원록(祠院錄)」을 보면, 순천충민사(順天忠愍祠) 해남충무사(海南忠武祠) 남해충렬사(南海忠烈祠) 통제영충렬사(統制營忠烈祠) 아산현충사(牙山顯忠祠) 강진유사(康津遺祠) 거제유묘(巨濟遺廟) 함평월산사(咸平月山祠) 정읍유애사(井邑遺愛祠) 온양충효당(溫陽忠孝堂) 착량초묘(鑿梁草廟) 등 조선후기 이순신을 모시는 11개 주요 사당이 기록되어 있다.

16 『숙종실록』 권49, 숙종 36년(1710) 12월 17일 정축.

17 이민웅, 『이순신 평전』, 책문, 2012, 417쪽.

이순신에 대한 숭모는 영조를 거쳐 정조 때에 절정에 달하게 된다. 정조는 1793년(정조 17) 7월 이순신을 영의정으로 추증하는 교서를 내리는 한편,¹⁸ 직접 이순신의 신도비명을 짓고 1795년(정조 19)에 『이충무공전서』를 편찬·발간하였다. 조선시대 왕명으로 신하, 특히 무장(武將)의 문집이 편찬된 예나 왕이 신하의 비문을 지어 내린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예우였으며,¹⁹ 이순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임을 국왕에 의해 확인받게 된 셈이 되었다.

문(文)에서는 송시열을, 무(武)에서는 이순신을 크게 현창한 정조는 『이충무공전서』를 간행하여 명나라 신종황제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 유학자들이 세운 숭명배청의 대의명분을 이어가는 상징으로 이순신을 재평가하였다.²⁰ 『이충무공전서』가 발간됨으로써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활약상은 이후 그의 일기나 그가 보고한 문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순신의 라이벌이었던 원균에 대한 평가는 영·정조 시기를 거치면서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순신의 위상이 격상되어 기념과 추모가 진행되면서, 그의 후손인 덕수 이씨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무반 가문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순신의 후손들이 후금과의 전쟁이나 영조 때 발생한 이인좌의 난에서 보인 충절은 ‘충신의 가문에서 충신이 난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입증하였으며, 이순신이 기념비적 인물로 추앙받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²¹

물론, 이순신뿐만 아니라 동래성 전투에서 순절한 서인계 송상현도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과 송시열에 의해 절의의 상징으로 선양되었다. 그리고 정유재란 당시 안음현감으로 황석산성을 지키다 아들과 함께 순절한 곽준, 승장인 사명당 유정 등도 크게 현창되었다.

② 지역 사회와 개별 문중 차원의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와 기억만들기

조선후기 임진왜란을 기억하려는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를 거쳐 개별 가문으로 확장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중앙 정계에서 소외된 영남 남인 사족의 경우, 의병장의 후손이라는 기억을 조작하여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중앙정치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곽재우가 화왕산성을 방어한 지 137년 후인 1734년(영조 10) 『창의록(倡義錄)』이란 책이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화왕산성에 들어가 함께 고생한 사람들의 명단’이란 의미의 「화왕입성동고록(火旺入城同苦錄)」이 수록되어 있다. 「화왕입성동고록」에는 모두 699명의 성명과 자, 생년, 호,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첫 장에 나오는 19명만 방어사 곽재우 군대의 조직으로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편성되었던 인물이고, 나머지 680명은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창녕의 화왕산성에서 멀리 떨

18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1793) 7월 21일 임자.

19 이태진, 「정조대왕의 충무공 이순신 숭모(崇慕)」,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제2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5.

20 정두희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역사화-4백 년간 이어진 이순신 담론의 계보학」,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202~203쪽.

21 오종록, 앞의 논문, 2004, 161쪽.

어진 안동(115명)과 경주(63명), 서울(55명) 사람들이 많이 수록된 이 명단은 실제 화왕산성 수비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다.²² 임진왜란 이후 진행된 현창사업의 분위기 속에서 영남 제일의 의병장으로 추앙받던 객재우와 자신들의 선조를 연관시키고자 하였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²³ 『창의록』출판을 주도한 객재우의 증손 객원갑과 박윤광은 1736년 영남유생 4000명의 송시열과 송준길 문묘종사(文廟從祀) 반대 상소에 참여했던 인물로, 「화왕입성동고록」은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에 대항하여 영남 남인의 단합을 꾀하기 위해 박윤광 등 영남 남인의 중심인물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⁴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 의병을 총괄했던 김면의 『임진창의시동고록(壬辰倡義時同苦錄)』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좌도와 우도의 의병 관련 인물이 대부분 망라된 『임진창의시동고록』에는 모두 162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19세기는 영남 남인들의 중앙정계 진출이 사실상 막혀있던 시기로, 여기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유력 가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²⁵ 이와 함께 1799년(정조 23) 광주에 살던 고경명의 후손을 중심으로 선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이나, 1831년 진주에서 간행된 진주성전투 참가자들을 기록한 『忠烈錄』의 간행처럼 지역 사회 차원에서 임진왜란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호남절의록』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정묘·병자호란, 이인좌의 난에서 공을 세운 호남출신 인물 1457명의 약전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46명이 임진왜란 관련 인물이다. 정확성과 객관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닌 자료이지만, 조선후기 호남의 사족들에게는 임진왜란 때 활동한 선조를 인정받는 작업이었기에 서로 이름을 올리려고 하였다.²⁶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가지지 못한 개인이나 문중들은 국가의 임진왜란 현창 분위기 속에서 실기(實記)를 편찬하여 선대에 대한 기록의 재생을 시도하였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785년 경상우도 의병장 김면의 『송암실기(松菴實記)』를 시작으로 임진왜란 의병장에 대한 실기와 유고가 간행되었는데, 임진왜란 의병운동에서 뚜렷한 공적이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인 경상좌도에서 많은 실기가 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 실기에는 「동고록」과 유사하게 인명만 나열한 각종 「회맹록(會盟錄)」이 실려 있다. 이는 의병으로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조상을 기록하여 역사적 사실로 만들려는 정치적 노력의 산물이자, 이를 통하여 다시 향촌사회에서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였다.²⁷

22 하영휘, 「화왕산성의 기억-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122~125쪽.

23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 2012, 27쪽.

24 하영휘, 앞의 논문, 126~17쪽.

25 정진영, 「松菴 金沔의 임란 의병활동과 관련 자료의 검토」, 『대구사학』 78, 2005.

26 김강식, 앞의 논문, 35쪽.

27 김강식, 위의 논문, 29~33쪽.

③ 역사소설 『임진록 (壬辰錄)』 을 통해 본 조선후기 민중의 임진왜란 이해

임진왜란이 끝난 뒤, 미증유의 전란을 체험한 민중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역사소설 『임진록』이 등장하였다. 병자호란(1636) 이후 17세기 중반에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 등장한 뒤, 지금까지 한글 또는 한문으로 쓰여진 70여 종의 서로 다른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²⁸ 임진왜란의 경험을 통하여 전승된 배왜적(排倭的)인 전쟁설화가 오랜 구전의 과정을 거쳐 문자로 정착되고 다시 그것이 잇따라 베껴지면서 여러 이본들이 나타났다.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도 있는 반면, 허구로 가득한 판본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판본인 국립중앙도서관본(한문본)의 경우, 허구적 인물인 최일경(崔日景)의 탄생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발발과 전쟁의 경과, 종전 후 상황까지 다양한 설화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판본에 ▲사명당(泗溟堂)이 일본국을 항복받는 설화 ▲김응서(金應瑞)·강홍립(姜弘立)이 일본정벌에 나서는 설화 ▲관운장이 조선군을 음조(陰助)하는 설화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조선의 왕과 신료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도 『임진록』의 특징이다. 특히 종전 후 이어송이 조선 산천의 맥을 끊으려다 태백산 산신에게 질책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내용에서, 일본은 물론 명나라까지 배척하는 조선 민중의 대외감정을 엿볼 수 있다.

『임진록』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이순신과 광재우(郭再祐), 김덕령(金德齡), 정문부(鄭文孚), 조헌(趙憲), 영규(靈圭), 김응서, 논개(論介), 계월향(桂月香) 등이다. 한국인 장수의 영웅화 작업 및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적대 감정의 표출로 특징되는 『임진록』의 내용은 임진왜란이란 기억을 통하여 조선후기 민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배타적인 민족적 일체감을 확인시켜준다.²⁹ 일제강점기 금서(禁書)로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출간이 금지되었던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영웅주의와 일국주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³⁰

2. 일제강점기의 임진왜란 인식

19세기 말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입하면서,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은 국민이 총화단결한 귀감이란 생각이 굳어지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 속에서 임진왜란은 국난극복사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으며, 이후 지배층·피지배층 구분 없이 온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세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이

28 소재영·장경남, 『임진왜란사료총서(문학)』 1, 해제 참조, 국립진주박물관, 2000. 존 B. 던컨은 「임진왜란의 기억과 민족의식 형성-『임진록』 등 민간전승에 나타난 민중의 민족의식」,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에서 『임진록』 판본의 수가 40여 개라고 추정하고 있다.

29 존 B. 던컨, 앞의 글, 154~163쪽 참조. 던컨은 『임진록』의 19세기 중엽 판본인 『흑룡록(黑龍錄)』의 분석을 통하여, “『임진록』에 의해 전해진(또는 조작되기도 하였을) 역사적 기억들은 당시 비양반층 사이에서 자신들이 이웃 나라들과 구별되는 사회적·정치적 집단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30 최원식, 「임진왜란을 다시 생각한다-『수길일대와 임진록』을 읽고」,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2009; 『수길일대와 임진록-망각된 저술가 현병주의 새로운 시각으로 쓴 임진왜란사』(바오, 2016)에 재수록.

순신의 존재감은 20세기 초 다시 고조되며, 관련 저술이 잇따라 출간되었다.³¹

① 이순신 전기의 잇따른 출간 - 국난을 극복한 ‘민족의 영웅’

신채호가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에 연재한 『수군 제일위인 이순신전』을 필두로, 일제강점기에 이순신을 국난을 극복한 ‘민족의 영웅’으로 강조한 전기물이 잇따라 출간되었다. 모두 19장 60쪽 분량의 글에서 신채호는 이순신을 ‘하늘이 우리나라를 위해 낸 성현(聖賢), 나아가 성웅(聖雄)’으로 신격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순신을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하며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난을 극복해 냈다는 점에서 넬슨보다 훌륭하다고 평가하였다.³² 이와 함께 거북선을 세계 철갑선의 원조로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박은식도 1915년 중국 상하이에서 『이순신전』을 집필하였다.³³ ‘고금 수군의 제일 위인, 세계 철함의 발명 시조’라는 부제가 나타내듯이, 이순신의 위대함과 거북선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이순신과 영국의 넬슨 제독을 비교하여 이순신이 더 뛰어난 인물임을 강조한 것은 신채호의 저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³⁴ 어쨌든 20세기 초반 한국을 대표하는 두 학자는 국난을 극복한 영웅 이순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려 하였고, 이들의 역사의식은 20세기 내내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중반 이후 이순신의 성웅화, 나아가 신격화 수준으로 나아간 배경에는 두 학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925년 역사학자 장도빈은 『조선위인전』(고려관)을 출간하였는데, 조선 12대 위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이순신전(李舜臣傳)」에서 이순신을 ‘비상한 애국자’이자 ‘정의인도가(正義人道家)’로 극찬하였다. 같은 해 최찬식도 구활자본 전기물인 『리순신실기(李舜臣實記)』(박문서관)를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1951년 『고대소설 이순신전』으로 제목을 바꿔 다시 출간되었다. 1931년 이윤재는 한 해 전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것을 단행본으로 엮어 『성웅이순신(聖雄李舜臣)』(한성도서주식회사)을 출간하였다. 한글 전용에 활자체도 세련된 국판본으로, 그 동안 출간되었던 어떤 이순신전에 비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인보의 서문이 들어 있다. 이들 책에는 어려운 시대 이순신과 같이 성웅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인물이 우리 역사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려 민족적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³⁵

이윤재에 이어 이광수는 장편소설 형식의 또 다른 이순신전을 발표했다. 1931년 6월 26일부터 1932년 4월 3일까지 「동아일보」에 178회 연재하였던 것을 묶어 1932년 『이순신』(대성서림)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광수

31 이민용, 『이순신 평전』, 책문, 2012, 426~430쪽.

32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충무공이순신기념관 도록 『역사 속의 이순신—그 기억의 어제와 오늘』, 2012.

33 박은식의 『이순신전』은 1921년 상하이(上海) 「사민보(四民報)」에 연재된 뒤 1923년 상하이 삼일인서관(三一印書館)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34 이민용, 위의 책, 426~428쪽.

35 정두희, 앞의 논문, 213~214쪽.

의 소설 『이순신』은 광복 후인 1948년 영창서관에서 다시 출간된 이래, 1968년, 1971년, 1995년에 이어 2004년에도 출판되었다. 이광수는 기존의 역사 학자들이 거북선 제조와 국난을 극복한 영웅으로서 이순신의 면모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이순신의 자기희생적 ‘충의(애국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순신과 유성룡을 제외한 조선 백성들과 신료들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도망치는 무능력하고 게으른 몰염치한 존재 또는 사리사욕에만 집착하는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존재로 표현하였다. 침략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포함한 일본 측의 문제를 거론한 대목은 찾을 수 없다.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을 조선 왕조의 끝없는 부패와 무능에서 찾은 이광수의 시각은 그가 1920년대 「동아일보」를 통하여 발표한 ‘민족개조론’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³⁶

② 잊혀졌던 저술가, 현병주의 『수길일대(秀吉一代)』와 임진록(壬辰錄)]

일제강점기 임진왜란사 연구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 주로 일본의 관 학자들이 주도한 반면, 국내 학자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³⁷ 일종의 교양서로 최남선이 저술한 『임진란』(동명사, 1931) 외에는 본격적인 논문 한 편이 없다. 최남선의 책은 임진왜란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입각한 간략한 개설 서이지만, “임진역(壬辰役)은 부패한 조선에 대한 정화(淨化)의 운명이며 침체한 조선에 대한 분기(奮起)의 시기였건만, 조선 및 조선인은 이 역사적 사명에 있어서 실패자였다.”(50 쪽)고 서술하는 등 퇴행적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³⁸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롭게 발굴된 현병주의 『수길일대(秀吉一代)』와 임진록(壬辰錄)](신구서림, 1928)은 20세기 전반 임진왜란을 다룬 저서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저작이다.³⁹ 『수길일대와 임진록』은 상·하편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00여 쪽(상편 총 88쪽, 하편 총 134쪽)의 분량이다. 1928년 처음 출간된 이후 1935년까지 5판이 간행된 것으로 보아, 당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병주는 상편에서 히데요시의 출생에서부터 전국시대를 평정한 뒤 조선 출병에 나서는 모습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진왜란사를 서술한 하편에서는 조선의 입장만이 아니라,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자료들을 모두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책의 앞부분에서 상·하편의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는데, ▲『선조실록』과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 『이충무공전서』 등 한국 측 기록 10여 종 ▲텐케이(天荊)의 『서정일기(西征日記)』와 제타쿠(是琢)의 『조선일기(朝鮮日

36 정두희, 위의 논문, 214~218쪽 및 이민웅, 앞의 책, 429~430쪽 참조.

37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觀點의 임진왜란사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5, 13~15쪽

38 노영구,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2010, 4쪽.

39 현병주(1880~1938)는 일제강점기인 1910~1930년대 저술활동에 매진하여 45권의 방대한 저서를 펴낸 인물이다. 현병주는 1920년대 말부터 역사소설과 전쟁실기 저술에 집중하였으며, 임진왜란을 다룬 책으로 『수길일대와 임진록』을 비롯하여 『임진명장 이여송 실기(壬辰名將李如松實記)』(1929), 『순정비화 홍도(純情秘話紅桃)의 일생(一生)』 등을 남겼다. 회계학계에 이어 국문학계에서 그의 저작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 『수길일대와 임진록』(바오)이 ‘망각된 저술가 현병주의 새로운 시각으로 쓴 임진왜란사’란 부제와 함께 다시 출간되었다.

記)』, 가와구치 조주(川口長孺)의 『정한위략(征韓偉略)』, 이케우치 히로시의 『문록경장역(文祿慶長の役)』 등 일본 자료 10여 종 ▲ 『명사(明史)』와 『신종실록(神宗實錄)』, 송응창(宋應昌)의 『경략복국요편(經略復國要編)』, 제갈원성(諸葛元聲)의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 등 중국 기록 6종으로, 동아시아 3국의 자료를 두루 섭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병주가 「저자의 변언」에서 밝힌 “가장 사실에 치중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맹랑한 말, 허튼 소리 같은 것을 기록에 넣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말처럼, 사료에 대한 엄격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수길일대와 임진록』은 조선후기 민족적 · 민중적 관점이 투영된 허구성이 강한 소설 『임진록』을 참고하지 않았다. 조선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소설 『임진록』이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과 항상 조선 일국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던 임진왜란 서사에서 벗어나고자 한 저자의 의도가 『임진록』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실제 본문 곳곳의 주석에서 저자는 임진왜란을 일국이 아닌 삼국의 시각, 즉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병주는 책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삼국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주석을 통하여 밝혔다.⁴¹ 그리고 이순신을 비롯한 어떤 장수나 충신열사에 대해 영웅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책의 마지막 글 ‘총평’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이 조선과 명, 일본 모두에 해독을 끼친 점을 지적하면서 그를 단죄만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영웅을 숭배하는 시대에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의 일을 히데요시 한 사람의 허물로 돌려보낸다 하여도 히데요시를 애매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역사를 과학으로 해석한다 하면 시대가 영웅을 산출하는 것이니, 히데요시의 허물은 그때의 시대가 얼마쯤 부담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⁴²

영웅사관을 버리고 ‘과학적’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볼 것을 주장한 현병주의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욕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⁴³

3. 대한민국의 임진왜란 인식

한국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45년 이후부터이다. 19세기 후반 시작된 일본의 임진왜란 연구가 대륙 침략이 본격화한 시점에 맞춰 정치 · 군사적 목적을 강하게 띠면서 이뤄진 것처럼, 한국에서의 임진왜란

40 장연연(張燕燕), 「대중계몽주의자 현병주 - 그의 생애와 계몽담론, 『수길일대와 임진록』에 대하여」, 『수길일대와 임진록』, 바오, 2016, 307~308쪽.

41 장연연, 위의 글, 308~309쪽.

42 현병주, 『수길일대와 임진록 - 망각된 저술가 현병주의 새로운 시각으로 쓴 임진왜란사』, 바오, 2016, 282~283쪽.

43 장연연, 위의 글, 312~313쪽; 최원식, 앞의 글, 325~327쪽.

연구도 격변하는 정치·사회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일본의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의식하면서 진행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① 국난극복사관의 대두와 임진왜란 (해방 ~1950년대)

1945년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을 맞아 한국 사학계가 당면한 과제는 일제 식민사학의 극복이었다. 물론 해방 직후에는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임진왜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1946년 출판된 이윤재의 『성웅 이순신』과 이은상의 『이충무공 일대기』, 1952년에 이무영의 『이순신』 등 몇 종의 이순신 전기가 출간되었다. 1950년 진단학회에서 공동 집필한 『이충무공』을 발간하였는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난극복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을 다시 한 번 역사적으로 부각시켰다.⁴⁵ 이 시기에는 특히 이은상 등이 중심이 되어 부산과 경남 진해·거제·통영, 전남 진도 등지에 충무공 동상이나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신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자인 손진태는 1949년 펴낸 『국사대요(國史大要)』에서 임진왜란 대신 ‘일본과의 7년 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인민군(人民軍)의 쫓기’라는 항목에서 의병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왜란 7년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때 손진태·이인영 등 다수의 신민족주의 역사가들이 납북되면서 이들의 역사 인식이 계승·발전되지 못하였다.

6·25 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 대두된 것이 바로 ‘국난극복사관(國難克服史觀)’이다. 이 사관에 따르면, ‘국난사(國難史)는 국사(國史)의 한 부분으로서 그 동안 우리 민족이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겪은 국난의 기록’이다. 김종권은 1957년 출간한 『국난사개관(國難史概觀)』(범조사)의 「자서(自序)」에서 “인류 역사에서 한민족은 외적의 침해로 유례가 드문 참혹한 국난을 겪었다. 우리 민족사는 국난으로 일관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남선은 이 책에 기고한 「서문(序文)」에서 한민족이 많은 국난을 겪었지만 한 번도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특기하였다.⁴⁶ 그러나 1950년대 까지도 한국사 분야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는 많지 않았고, 통사적 서술에 포함된 임진왜란 기술이 중심이었다.

② 민족주의 흐름 속 국난극복사관의 풍미와 임진왜란 연구 (1960~1970년대)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한국 사학계에서는 일제의 식민체제와 식민사관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함께 이의 대안으로 한국사

44 광복 후 국내에서 이뤄진 임진왜란 관련 연구사를 정리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장희, 「왜란과 호란」, 『한국사연구입문(2판)』, 지식산업사, 1987; 오종록, 「임진왜란~병자호란시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군사』 38, 1999;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2005; 박제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노영구, 「임진왜란의 학술사적 검토」,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2010; 김강식,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38, 2016;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언」, 『군사』 100, 2016 등.

45 이민용, 앞의 책, 431~432쪽.

46 김종권의 『국난사개관(國難史概觀)』(범조사, 1957)에 실린 최남선의 「서문(序文)」과 김종권의 「자서(自序)」 참조.

의 구조적인 발전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함께 나타났다.⁴⁷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이순신 연구와 함께 의병 연구가 활성화된 것이 1960년대 임진왜란 연구의 특징이다.

특히 최영희는 전란이 잦은 한국사에서 다른 민족의 점령 아래 광범위하게 민중이 항쟁에 참여한 사례로서 의병을 주목하고, 의병이 봉기한 사회적 배경과 의병장의 성격, 의병의 변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⁴⁸ 의병을 ‘민족적 레지스탕스’로 규정한 그는 향토 방위의식과 일본 민족에 대한 한국 민족의 감정을 임진왜란 시기 의병의 사상적 기반으로 인식하였다. 1950년대 국난극복사관적인 인식이 일부 나타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의병을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 최영희의 연구는 이후 이재호 · 김윤곤 · 이장희 · 최근목 · 송정현⁴⁹ 등에 의하여 의병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각 지역의 주요 의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 집중적으로 이뤄진 의병 연구는 임진왜란이 일본의 일방적인 승전이었다는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항왜(降倭)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강인함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기도 하였다.⁵⁰ 이를 근거로 ‘이순신 · 명군과 함께 의병이 임진왜란 극복의 주역이었다.’는 의병 중심의 임진왜란 인식이 형성되었다. ‘무기력’한 조선의 관군 대신, 의병이 육상 전투에서 유격전술로 일본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⁵¹

한편,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이형석의 『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상·하)가 있다.⁵²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사료를 수집 · 인용하며 저술한 1900쪽짜리 방대한 저서로서, 전투사를 중심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시도하였다.

1970년대 허선도는 의병 활동을 단순히 향촌 지역의 사족과 농민이 규합한 민족 항쟁으로 이해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의병 활동이 점차 국가의 일정한 조정과 통제를 받았음을 밝혔다.⁵³ 명나라 군대의 파병과 관련된 검토도 1970년대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유구성은 명나라 군의 파병 과정과 명나라 군의 민간인 피해 등의 문제를 정리하였으며,⁵⁴ 명 · 청사 연구자인 최소자는 명군의 파병은 조선의 요청과 함께 전쟁이 명나라 본토로 확대되어 베이징(北京) 일대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⁵⁵ 이를 통하여 임진왜란의 성격을 단순히 일본의 조선 침략과 조선의 응전이라는 민족사적 시각에서 벗어나, 명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이라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47 노영구, 앞의 글, 8~9쪽.

48 최영희, 「임란의병의 성격」, 『史學研究』 8, 1960.

49 김윤곤 「곽재우의 의병활동—특히 조직과 戰術·戰略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33, 1967; 이재호, 「임란 의병의 일고찰—특히 관군과 명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35·36, 1967; 이장희, 「임란 해서 의병에 대한 일고찰—연안대첩을 중심으로」, 『사총』 14, 1969; 최근목, 「임란때의 湖西의병에 대하여」, 『논문집』 9(충남대), 1970; 송정현, 「임진왜란과 호남의병」, 『역사학연구』 4, 1972.

50 이장희, 「왜란과 호란」, 『한국사연구집』 (2판), 지식산업사, 1987, 320쪽.

51 한우근, 『국사』, 을유문화사, 1968, 156~157쪽.

52 이형석, 『壬辰戰亂史』 상·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년. 이 책은 1974년 다시 전3권(상·중·하)으로 증보개정판이 발간되었다.

53 허선도, 「鶴峰先生과 임진의병활동」, 『國譯 鶴峰全集』 (국역학봉전집편찬위원회), 1976.

54 유구성, 「壬亂時 明兵의 來援考—朝鮮의 被害를 中心으로」, 『사총』 20, 1976.

55 최소자, 「임진란시 명의 파병에 대한 논고」, 『동양사학연구』 11, 1977.

계기가 마련되었다.⁵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신정권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의 상황은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었다. ‘국적있는 교육’과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을 강조한 유신정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사교육의 강화와 함께 호국문화 유적의 복원과 정비, 국가주의에 입각한 충효사상의 강조와 교육 등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세적 대남정책과 1975년 남베트남 패망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계기로 국난극복사관이⁵⁷ 재등장하여 풍미하였다. 한민족의 역사를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 보는 국난극복사의 관점에서 전쟁사는 항상 초기 패전에 이어 전 민족의 단합에 의한 항전이라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으며, 이는 임진왜란에 대한 국난극복사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같은 국난극복사류의 인식은 1979년 유신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이후의 임진왜란 연구와 국사, 국민윤리 등 이른바 국정과목(國定科目)을 통해 계속 존속하며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⁵⁸

무엇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이순신에 대한 국가적 현창 사업이 진행되었다. 시조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은상 외에 최영희, 조성도와 같은 역사학자들도 이 사업에 동참하면서 이순신의 성웅화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국가가 주도하여 현충사와 한산도 제승당 등 이순신 관련 유적의 성역화 사업을 펼쳤으며,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세종대왕과 함께 충무공 동상을 건립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순신에 대한 지나친 미화, 성웅화 사업은 이후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다.⁵⁹

③민주화와 새로운 임진왜란 인식의 대두 (1980~1990년대)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민중을 변혁의 주체로 인식하고 역사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는 민중사학론(民衆史學論)이 등장하였으며 임진왜란 연구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1980년 이태진은 조선의 패배로 끝난 것으로 인식된 임진왜란 이해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선 관군의 초기 패배의 원인을 16세기 척신 정치의 폐정(弊政)으로 인한 조선 초기 군사제도의 붕괴에서 찾았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임진왜란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조선과 일본의 전술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였다.⁶⁰ 1985년 허선도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났던 ‘순국사관(殉國史觀)’이나 ‘영웅사관(英雄史觀)’을 지양하고 전쟁사의 입장에서 군제, 군수, 무기, 전술, 관방, 정보 등의 각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임진왜란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¹ 그러나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를 전면

56 노영구, 앞의 글, 13~14쪽.

57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휘문출판사, 1978; 이재호,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서평』, 『역사와 세계』 3, 효원사학회, 1979.

58 노영구, 앞의 글, 15쪽.

59 이민용, 앞의 책, 432~434쪽.

60 이태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몇가지 문제」, 『군사』 창간호, 1980.

61 허선도, 「임진왜란론 - 올바르게 새로운 인식」, 『천관우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였고,⁶² 1980년대 의병 연구에서도 1970년대 국난극복사관의 역사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역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이는 임진왜란 연구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 의병부대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⁶³ 저명한 의병장 연구에서 벗어나 향촌사료를 활용한 소규모 의병 부대 및 의병장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의병의 성격으로 의병(義兵)과 향병(鄉兵)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또 향촌사회사 연구의 일환으로 임진왜란 시기 재지 사족의 향촌지배 체제가 의병의 모집과 활동의 주요 기반이었음을 분석한 연구도 발표되었다.⁶⁴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이 되는 1992년을 기점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졌고 연구 분야도 다양해졌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론』 22호(1992) ‘임진왜란의 재조명’ 특집에서, 기존의 의병 외에 관군의 활동, 명군의 참전, 피로인, 임진왜란 전 조선의 국방실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외정책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였다. 1990년대 들어 임진왜란 당시 일기(日記)를 비롯하여, 향촌과 문중 자료들이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병의 주력이 단순한 농민이 아니라, 관군으로부터 이탈한 ‘포장(逋將)’이나 낙오군병인 ‘산졸(散卒)’이었음이 규명되었다.⁶⁵ 이와 함께 의병의 군량과 무기 등이 관변(官邊)에서 적극 지원되었으며, 이는 당시 의병과 관군의 불가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후 의병 연구에서도 전쟁사적인 시각을 확보하면서 국난극복사관적인 시각의 극복이 시도되었다.⁶⁶ 임진왜란 당시 전쟁 체험과 개인의 생활을 기록한 실기(實記) 자료들이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등 임진왜란 전공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나 관련 자료가 소개되면서 일본 측 자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문중이나 인물 중심의 임진왜란 연구가 계속되었지만, 조선군의 화약병기에 대한 연구,⁶⁷ 조선군의 전략·전술,⁶⁸ 축성⁶⁹ 등 임진왜란을 전쟁사적 시각에서 본 연구들도 나타났다. 특히 수군과 의병 연구에 가렸던 관군과 명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의병과 수군 중심의 임진왜란사 인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쟁이 가지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⁷⁰ 특히 한명기는 본격적으로 명나라군의 참전과 이에 따른

62 노영구, 앞의 글, 18쪽.

63 조원래, 「임란 해전과 홍양수군」, 『남도문화연구』 2, 1986; 나종우, 「임란의병과 장성남문 창의」, 『향토문화연구』 4, 1987; 조원래, 「나주지방 사례로 본 임란의병 연구과제」, 『나주목의 재조명』(목포대 박물관), 1989; 김석희, 「임진왜란과 청도지역의 창의활동」, 『부산사학』 23, 1992 등 다수.

64 정진영, 「임란전후 尙州지방 사족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 1987; 고석규, 「정인홍의 의병활동과 山林기반」, 『한국학보』 51, 1988.

65 이수진, 「月谷 禹拜善의 壬辰倭亂 義兵活動: 그의 『倡義遺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13, 1992.

66 노영구, 앞의 글, 22쪽.

67 박제광, 「임진왜란기 조선군의 화약병기에 대한 일고찰」, 『군사』 30, 1995.

68 이장희, 「왜군격퇴의 戰略·戰術」, 『한국사』 29, 1995; 노영구, 「선조대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군사』 34, 1997; 강성문, 「행주대첩에서의 권율의 전략과 전술」, 『임진왜란과 권율』, 전쟁기념관, 1999.

69 이장희, 「壬亂中 山城修築과 堅壁清野에 대하여」, 『阜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1995.

70 조원래, 「명군의 출병과 임란전국의 추이」, 『한국사론』 22, 1992; 장학근, 「임진왜란기 관군의 활약」, 『한국사론』 22, 1992;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명군 참전의 사회 문화적 영향」, 『군사』 35, 1997; 박제광, 「임란 초기 전투에서의 官軍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 전쟁기념관, 1999.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⁷¹ 임진왜란사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관군과 명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까지의 연구에서 종종 나타나는 ‘(임진왜란 당시) 정규군으로서 관군의 존재가 거의 없었다.’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⁷²

④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의 임진왜란 인식 모색 (2000년대 이후)

1980년대 제기되었던 전쟁사적 시각에서의 임진왜란 연구가 2000년 이후 주된 경향을 형성하게 되었다. 2004년에 출간된 『군사』 51호의 ‘임진왜란의 재조명’ 특집에 임진왜란 시기 조·명 연합군의 기병작전, 거북선, 해전을 통해 본 조·명·일 삼국의 전략전술 비교, 무기체계, 단병기(短兵器), 진주성 전투 등 전쟁사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 유럽 중심의 세계사에서 탈피하려는 이른바 ‘지구사(global history)’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하였던 기존의 한국사 이해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었고, 임진왜란도 한·중·일 3국이 참전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2006년 6월 경남 통영에서 ‘임진왜란:조일(朝日)전쟁에서 동아시아 삼국전쟁’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와 이 때 발표된 논문들을 엮어 2007년 출간된 연구 성과가 대표적이다.⁷³ 이와 함께 15세기 후반 이후 대항해시대의 여파로 포르투갈 및 스페인 세력이 동아시아까지 밀려오고 은(銀)을 매개로 유럽과 중국이 연결되는 유동적인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연구도 나왔다.⁷⁴ 한편 2000년대 두 차례에 걸친 한일역사공동연구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었다.⁷⁵

또한 조선군의 무기력한 대응과 패전으로 인식되던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시도되었다. 노영구는 조선군의 초기 패전을 조선의 군사동원체제의 문제와 군사력 미확보의 측면에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조선군의 초기 대응과 동원체제는 적절히 가동되었으나, 전술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았다.⁷⁶ 또 이전까지 의병 조직의 구성을 사림 주도 아래 향촌의 주민과 천민 등 하층민이 참여한 것으로 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낙오된 관군인 이른바 ‘산졸(散卒)’이 주력이며, 이러한 준관군적(準官軍的) 속성은 이들의 활동 양상이 조선전기 지방 군사체제인 진관체제(鎭管體制)를 바탕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⁷⁷ 이와 같이 의병의 성격

7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72 노영구, 앞의 글, 24쪽.

73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74 한명기,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질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강응천·한명기 외, 「동아시아 7년 전쟁」, 『16세기-성리학 유포리아』(『민음 한국사』 조선02), 2014.

75 제1기 한일역사공동위원회(2002.5.~2005.3.)와 제2기 한일역사공동위원회(2007.6.~2009.11.)는 2005년과 2010년 각각 6권과 7권의 공동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이와 함께 제1·2기 한일역사공동위원회 한국 측 위원회는 공동주제에 대한 심화연구 결과물을 묶어 『한일관계사연구논집』(경인문화사)을 발간하였다. 2005년과 2010년 각 10권씩 모두 20권이 나왔다.

76 노영구, 「壬辰倭亂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和歌山縣立博物館 소장 ‘壬辰倭亂圖屏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31, 2003.

77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金河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2007.

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연구와 함께 기존 임진왜란 관련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도 제기되었다.⁷⁸

그동안 임진왜란 연구사에서 관심 밖에 있었던 왜성과 강화교섭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⁷⁹가 발표되었으며, 2012년 임진왜란 7주갑(420년)을 계기로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를 중심으로 지역 의병장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의병장과 이순신 연구의 경우, 여전히 국난극복사관적인 인식이 엿보이는 것이 21세기 한국 임진왜란 연구의 현주소다.⁸⁰

4. 맺음말

조선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과 연구사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지적하며 맺음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임진왜란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측면이 밝혀졌고 다양한 시각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라는 이름이 흔들림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임진왜란을 국난극복사의 주요 주제로 다루는 풍조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 시기 임진왜란이 국난극복사의 주요 주제로 다뤄진 것과 관계가 깊다. 또한 의병장의 후손들이 현재까지도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경우가 많아, 조상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실상을 은폐한 측면도 적지 않다.⁸¹ 물론 국난극복의 교훈을 임진왜란에서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조선후기부터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위정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난극복을 강조하거나 이용하여 온 측면이 강하고, 무엇보다 국난극복사관은 식민사학 못지않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켜 특정한 역사상을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임진왜란은 조선이 이긴 전쟁이라는 시각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초기 전쟁에서만 패배하였을 뿐, 평양성전투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조선이 승리하였다는 주장이다. 전쟁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지 못하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도는 좌절되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사대교린 관계를 복구시켰다는 점에서 조선이 승리한 전쟁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강조할 때, 조선이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농경지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만 1세기가 걸렸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이 전쟁을 겪

78 정두희·이경순 엮음, 앞의 책, 2007; 정지영, 「『임진왜란』과 『기생』의 기억-한국전쟁 이후의 ‘논개’에 대한 상상과 전유」; 요네타니 히토시, 「사로잡힌 조선인들-전후 조선인 포로 송환에 대하여」; 하영희, 「하왕산성의 기억-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존 B. 던컨, 「임진왜란의 기억과 민족의식 형성-『임진록』등 민간전승에 나타난 민중의 민족의식」; 정두희,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역사화-4백 년간 이어진 이순신 담론의 계보학」 등.

79 나동욱, 「부산왜성에 대한 고찰」, 『博物館研究論集』 19, 2013;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80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는 2010년 제정한 정관에서 “본회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크게 위협당한 임진란의 위기 상황에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하였던 인물 등의 업적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위업을 추모하며 …” 라고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

81 오종록, 「여러 얼굴의 전쟁, 임진왜란」, 『내일을 여는 역사』 1, 2000, 82~84쪽.

지 않았을 때보다 상당기간 지체되었음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임진왜란을 이긴 전쟁으로 보는 관점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방기한 정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임진왜란은 조선왕조가 건국 200년 만에 맞닥뜨린 커다란 위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넘김으로써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은 전쟁이었다.⁸²

셋째, 임진왜란은 조선에서 사대주의를 강화시켜준 전쟁이었다. 사실 명군의 참전은 조선을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이기 보다는 조선을 전쟁터로 삼는 것이 낫고, 평원지대인 요동보다 산악이 많은 조선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전쟁 중 명군의 횡포와 이후 내정 간섭에도 불구하고 조선 지배층 사이에서는 명을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인’으로 높이 받드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임금과 양반 모두 권위에 중대한 타격을 받았지만, 이들은 성리학의 명분론을 강력히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명에 대한 사대의 강조로 두 차례 호란을 겪으며 백성들은 큰 참화를 당하였지만,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는 이를 통하여 강화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1960년대 들어와 일본 내부 사정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한국사 교과서에도 변함없이 실려 있는 ‘16세기 말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 불만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⁸³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1980년대 들어와서 국제 무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1990년대에는 서양문물의 자극 속에 일본이 중국 중심의 사대교린 관계 및 조공무역(책봉과 조공 체제)을 축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자국사에 매몰된 한·중·일 3국의 임진왜란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3국을 아우르는 국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다시 살펴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⁸⁴

그러나 임진왜란을 ‘일국사적(一國史的)인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는 일제강점기 현병주의 저작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학계에서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사료와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활용하여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중·일의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지방의 사료와 각종 고문서도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임진왜란을 다룬 제대로 된 통사 한 권이 없는 실정과도 연결된다.⁸⁵ 이 같은 현실은 한국의 임진왜란 연구가 아직 보편적 역사상을 구축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충실한 일국사적(一國史的)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

82 오종록, 위의 글, 87~88쪽.

83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5판), 천재교육, 2018, 130쪽.

84 강응천·한명기 외, 앞의 책, 2014.

85 정구복, 「임진왜란사 연구와 한·중·일 중요 사료」, 『한국사학사학보』, 2016, 19~20쪽.

체를 지향하는 역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⁸⁶ 또한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동아시아 3국이 공동으로 사료를 정리할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 중 · 일 동아시아 3국의 중요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상세하게 역주하는 기초 작업이 이루어져, 비교사적 인식아래 동아시아적인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⁸⁷

86 노영구, 앞의 글, 28~30 쪽.

87 정구복, 앞의 글, 21 쪽; 노영구, 위의 글, 30 쪽.

주요 참고 문헌

저서

- 이형석, 『壬辰戰亂史』 상·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이형석, 『壬辰戰亂史』 상·중·하, 신현실사, 1974 등으로 증보개정).
-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입문』 (2판), 지식산업사, 1987.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이장희,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이장희, 『개정·증보 임진왜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로 개정·증보).
-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조원래, 『새로운 觀點의 임진왜란사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5.
-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2010.
- 한일문화교류기금,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 이민웅, 『이순신 평전』 책문, 2012.
- 강용천·한명기 외, 『16세기-성리학 유포피아』 (‘민음 한국사’ 조선02), 2014.
-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현병주, 『수길일대와 임진록-망각된 저술가 현병주의 새로운 시각으로 쓴 임진왜란사』, 바오, 2016.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5판), 천재교육, 2018.

논문

- 최영희, 「임란의병의 성격」, 『史學研究』 8, 1960.
- 김윤곤, 「광재우의 의병활동-특히 조직과 戰術·戰略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33, 1967.
- 이재호, 「임란 의병의 일고찰-특히 관군과 명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35·36, 1967.
- 이장희, 「임란 해서 의병에 대한 일고찰-연안대첩을 중심으로」, 『사총』 14, 1969.
- 최근목, 「임란때의 湖西의병에 대하여」, 『논문집』 9(충남대), 1970.
- 송정현, 「임진왜란과 호남의병」, 『역사학연구』 4, 1972.
- 허선도, 「鶴峰先生과 임진의병 활동」, 『國譯 鶴峰全集』 (국역학봉전집편찬위원회), 1976.
- 유구성, 「壬亂時 明兵의 來援考-朝鮮의 被害를 中心으로」, 『사총』 20, 1976.
- 최소자, 「임진란시 명의 파병에 대한 논고」, 『동양사학연구』 11, 1977.
- 이태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몇가지 문제」, 『군사』 창간호, 1980.
- 허선도, 「임진왜란론-올바르고 새로운 인식」, 『천관우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 조원래, 「임란 해전과 홍양수군」, 『남도문화연구』 2, 1986.
- 나중우, 「임란의병과 장성남문 창의」, 『향토문화연구』 4, 1987.
- 정진영, 「임란전후 尙州지방 사족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 1987.
- 고석규, 「정인홍의 의병활동과 山林기반」, 『한국학보』 51, 1988.
- 조원래, 「나주지방 사례로 본 임란의병 연구과제」, 『나주목의 재조명』 (목포대 박물관), 1989.
- 이장희, 「왜란과 호란」, 『한국사연구입문(2판)』, 지식산업사, 1987.

- 김석희, 「임진왜란과 청도지역의 창의활동」, 『부산사학』 23, 1992.
- 조원래, 「명군의 출병과 임란전국의 추이」, 『한국사론』 22, 1992.
- 장학근, 「임진왜란기 관군의 활약」, 『한국사론』 22, 1992.
- 박제광, 「임진왜란기 조선군의 화약병기에 대한 일고찰」, 『군사』 30, 1995.
- 이장희, 「왜군격퇴의 戰略 · 戰術」, 『한국사』 29, 1995.
-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명군 참전의 사회 문화적 영향」, 『군사』 35, 1997.
- 노영구, 「선조대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군사』 34, 1997.
- 강성문, 「행주대첩에서의 권율의 전략과 전술」, 『임진왜란과 권율』, 전쟁기념관, 1999.
- 박제광, 「임란 초기전투에서의 官軍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 전쟁기념관, 1999.
- 오종록, 「임진왜란~병자호란시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군사』 38, 1999.
- 오종록, 「여러 얼굴의 전쟁, 임진왜란」, 『내일을 여는 역사』 1, 2000.
- 노영구, 「壬辰倭亂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和歌山縣立博物館 소장 ‘壬辰倭亂圖屏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31, 2003.
- 오종록, 「보통 장수에서 구국의 영웅으로-조선후기 이순신에 대한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18, 2004.
-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2005.
- 박제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정진영, 「松蔭 金沔의 임란 의병활동과 관련 자료의 검토」, 『대구사학』 78, 2005.
- 한명기,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질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정두희,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역사화-4백 년간 이어진 이순신 담론의 계보학」,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하영휘, 「화왕산성의 기억-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존 B. 딘컨, 「임진왜란의 기억과 민족의식 형성-『임진록』 등 민간전승에 나타난 민중의 민족의식」,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金沔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4, 2007.
- 최원식, 「임진왜란을 다시 생각한다-『수길일대와 임진록』을 읽고」,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2009(『수길일대와 임진록』, 바오, 2016에 재수록).
- 노영구,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2010.
- 손승철,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통해 본 임진왜란의 기억」,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 이규배, 「조선시대 적대적 對日인식에 관한 고찰-임진왜란~조선시대 말기를 중심으로」, 『군사』 84, 2012.
-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 2012.
- 이태진, 「정조대왕의 충무공 이순신 숭모(崇慕)」,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제2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5.
- 김강식,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38, 2016.
-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2016.
- 정구복, 「임진왜란사 연구와 한 · 중 · 일 중요 사료」, 『한국사학사학보』, 2016.
- 장연연(張燕燕), 「대중계몽주의자 현병주-그의 생애와 계몽담론」, 『수길일대와 임진록』에 대하여, 『수길일대와 임진록』, 바오, 2016.

발표논문 2



기만인가 타협인가 —임진왜란 시기의 외교교섭

정 지에시 (鄭潔西, 영파대학)

(원문: 중국어, 번역: 홍명숙, 와세다대학)

요지

임진왜란은 만력(萬曆) 20년(1592) 4월에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시작되었고, 만력 26년(1598) 11년에 일본군이 조·명(朝·明) 양국의 공격으로 모든 전선(戰線)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끝맺었으니, 무려 7년이나 지속되었다. 다만 실제 전쟁을 벌인 기간은 모두 합해서 고작 2년간으로, 4년 동안이나 지속된 화의 교섭 기간(1593~1597)이 더 길었다. 이 기간에 명조(조선을 포함)는 일본과 일찍이 한 차례 외교수단을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 충돌을 조정하여 동아시아 평화의 재구축을 꾀하였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

전쟁 중의 외교교섭에 대한 기존 학계의 보편적인 인식은 양자의 화의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서 결코 타협을 이룰 수 없었지만, 쌍방의 외교집단이 공모하여(본국을) 기만한다는 외교교섭 수단을 사용하여 본국 통치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보고하여 타결을 이루어 냈지만, 결국에는 책봉에 실패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외교활동은 쌍방의 외교 대표를 교섭의 주체로 삼는다. 그 교섭 과정 속에서 발생한 정보는 몇 차례 여과 과정을 거치므로 양국의 고위층에게 전부 전해지기는 어려우니, 일정 부분 기만의 혐의가 존재한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명조나 일본이나 모두 그 실제 교섭 과정 중에서 상대방과 타협하기도 하였다. 명 측은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군하는 것은 물론이고, 줄곧 일본과 “책봉·조공(封貢)”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책봉은 하되 조공하지 않는다(只封不貢)”고 결정하여 원래 허락하였던 “조공(貢)”을 철회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조건이 표면적으로는 더욱 가혹해진 것이지만, 실제 운용하는 면에서는 여전히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일본 측은 외교교섭 과정에서 비록 끊임없이 명과 조선측과 타협하였지만, 여전히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견지하였으니, 그 외교활동은 이미 동아시아 책봉·조공 체제의 외재한 표상으로 되돌아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일본의 국제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한 것이다.

임진왜란은 1592년(만력萬曆 20) 4월에 일본 육군이 부산에 도착한 후에 시작되었고, 1598년(만력 26년) 11월에 일본군이 명과 조선의 연합공격으로 인해 철수할 때까지 거의 7년 동안 지속되었다. 전쟁의 실제 상황은 총 2년이었는데 평화 협상은 4년 동안(1593-1597)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명과 일본은 한반도의 군사분쟁을 조정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외교적 교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전쟁 당시의 외교적 교섭에 관한 기존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서로의 평화조건이 너무 달라서 타협의 여지가 없었지만, 양측 외교 단체가 음모기만(陰謀欺瞞)을 외교적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본국의 통치자에게 거짓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통해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인해 결국 책봉은 실패하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¹는 것이 정설이었다.

물론 양측 외교활동에서 외교대표가 협상주체가 되어 서로의 정보를 몇 번이고 펠터링했으므로 그대로 양국 최고지도자에게 전달되리라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기만(欺瞞)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명일본평화조건(大明日本和平條件)”에서 제기한 평화조건은 몇 차례의 외교교섭과 정보조작을 거쳐 명조 지도부에 ‘책봉’ 요청으로 전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명조를 ‘속인’ 것처럼 보인다. 한편, 명조의 “봉(封)은 허락하지만 공(貢)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대일정책은 두 나라 사절의 여러 해석을 통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책봉체제에 들어간 다음에 감함무역(勘合貿易)을 실현한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여기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속였을’ 가능성은 부정하지 못 한다.

그러나 명, 일본, 조선의 역사자료, 특히 당시의 문서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면, 실제 협상 과정에서 명과 일본이 평화 조건을 조정하면서 서로가 타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 측은 일본군에게 조선 철수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일본과의 ‘책봉’ 관계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었으며, 최종 승인결의안은 “봉은 허락하지만 공은 허락하지 않는다”였다. 원래 약속한 ‘공’은 철회되었고 일본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아직 실용적인 조정의 여지는 남아있었다.

일본 측은 외교 협상에서 명과 조선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을 했지만, 여전히 조선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일본의 외교활동은 동아시아의 책봉체제로 돌아가려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 그러나 명과 조선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아시아 평화문제는 다시 무력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1 周一良:《明代援朝抗倭战》,北京:中华书局,1962年。[日]北岛万次:《秀吉の朝鮮侵略》,东京:山川出版社,2002年。小野和子:《明季党社考—東林党と復社—》,京都:同朋社,1996年,第115-134页。黄枝连:《天朝礼治体系研究(上) 亚洲的华夏秩序 中国与亚洲国家关系形态论》,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4年,第351-390页。张庆洲:《抗倭援朝战争中的明日和谈内幕》,《辽宁大学学报》1989年第1期,第101-104页。Kenneth M. Swoped,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November 30, 2009.

1. ‘병부첩 (兵部帖)’ 과 일본군의 왕경 (王京) 철수

평양전투 이전에 명나라와 일본은 이미 강화교섭을 시작했었다. 1592년 (만력 20년) 8월 29일 명의 간첩인 심유경 (沈惟敬)은 평양 외곽의 마른 언덕 아래에서 평양을 지키던 일본군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 (小西行長)와 협상해서 50일간의 정전협정을 맺었다. 명나라 시각에서 보면 이 협상은 공식협상이 아니었으며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일본군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는 이후의 협상에서도 계속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본과 명 간의 조공문제이다. 일본 측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若許朝貢，且令日本、朝鮮兩國通好，則朝貢之路，欲于朝鮮內往來”².

두 번째 문제는 조선의 영토 문제이다. 일본 측은 “愿退出平壤，以大同江为界”³，즉 평양에서 철수하고 대동강을 경계로 조선을 분단해서 영토 대부분을 가지려고 했다.

세 번째로는 조일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 측은 조선이 일본에게 배신조공 (陪臣朝貢) 형식으로 조공한 적이 있으므로⁴，중일관계는 중번관계 (宗藩關係)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⁵.

심유경은 9월 29일 북경으로 돌아와 일본 측의 조공과 영토 요청을 “내각 (內閣)과 본병 (本兵)”에 보고했다. 이는 명조의 “閣部九卿科道會議” 개최의 계기가 되었다⁶. 일본의 요청에 대한 대책이 회의 후에 ‘병부첩 (兵部帖)’에 기록되었다. ‘병부첩’은 일본과 조선의 조공문제에 대해 “尔国诚欲通貢，岂必假道朝鮮？敕下廷議，若别无情故，必查开市旧途，一依前規，覆請定奪。于时先封諸將或为日本国王，封諸僧或为日本国師，皆未可知，顾尔诚意如何”，일본 측에 ‘성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명조는 ‘정의 (廷議)’를 거쳐 “依前規” (이전처럼) “開市”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는 ‘봉’ (책봉)을 전제로 하여 “先封後市 (貢)”의 순서로 실시하고，명의 성조 (成祖)와 무로마치 막부 (室町幕府) 삼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츠 (足利義滿)가 만든 명조와 일본의 ‘봉공 (封貢)’관계로 복귀하도록 했다.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병부첩’은 일본 측이 “所掠朝鮮王子女，平壤，王京地方俱还朝鮮，罢兵回巢，恭听朝命”라고 정했다. 포로가 된 조선 왕자의 석방문제와 조선영토의 반환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병부첩’이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罢兵回巢”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기를 요구하는 표현이지만，반환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선영토는 ‘평양，왕경 (王京) 지방’에 그친다. 일본 측은 “愿退出平壤，以大同江为界”보다는 전진이 있으나，조선의 영토 전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병부첩’의 틈새를 발견한 일본은 조선의 일부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기대를 했다. 이것은 한강을 경계로 하는 ‘중분조선

2 《药圃龙蛇日记》壬辰年 (1592) 八月二十九日是日条，釜山：釜山大学校韩日文化研究所，1962年，第169页。

3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10《讲明封贡疏》（万历二十一年八月二十九日），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1990年，第885页。

4 [朝鲜]郑瑑著、李渭应译注：《药圃龙蛇日记》壬辰年 (1592) 八月二十九日是日条，第168-169页。

5 关于朝鲜“朝贡日本”问题，沈惟敬向朝方译官秦孝男问求证，为秦孝男所矢口否认。见[朝鲜]郑瑑著、李渭应译注：《药圃龙蛇日记》壬辰年 (1592) 八月二十九日是日条，第168-169页。

6 [朝鲜]申昶：《再造藩邦志（二）》，朝鲜古书刊行会编《朝鲜群书大系》正第9《大东野乘》卷36，韩国京城：朝鲜古书刊行会，1910年，第484页。

(中分朝鮮)’ 설의 토대가 되었다.

같은 해 11월 26일, 심유경은 ‘병부첩’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일본 측과 다시 협상했다⁷. 일본 측은 ‘병부첩’의 ‘구공(求貢)’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愿将平壤, 王京一带还天朝不与朝鲜”(평양, 왕경 지방을 반환하는 문제는 받아들이겠다)⁸.

당시, 일본 침략군이 평양을 함락하고 함경에까지 깊이 들어가 조선을 거의 점령했지만 점령 지역의 통치상태는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에게 “更修隣盟”이라는 제안을 하고 외교교섭을 통해 도(道)를 하나나 둘 조선에 반환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 했지만, 조선 측은 이에 반발했다⁹. 대국인 명을 영토로 유혹하여 조선을 나누려는 계획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명의 “字小存亡”의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거절한 명의 신종(神宗)은 송응창(宋應昌)에게 “相機剿除, 以绝后患”¹⁰이란 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전략하에 명의 지원군이 조선에 들어갔고, 다음 해 1월에 일어난 평양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평양에서 전쟁이 있는 직후에 명과 조선은 일본과 외교협상을 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조선은 심유경에게 일본 측과 협상하여 두 왕자를 반환하도록 설득할 것을 제안했다¹¹. 풍중앵(馮仲櫻)과 금상(金相)이 참획(參画)인 원황(袁黃)의 의뢰를 받아 함경도에서 가토 기요마사와 왕자를 반환하도록 교섭했다¹². 왕종성(王宗聖)은 왕경에 들어가 일본군이 철수할 것을 요하도록 송응창에게 의뢰를 받았다¹³. 이렇듯 심유경은 기용되지 않았고, 풍중앵, 왕종성의 일본군 설득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벽제관(碧蹄館) 전투 후에 양측은 교착단계에 들어갔다. 3월초 고니시 유키나가(高木友光)는 심유경에게 서한을 보내 “懇求封貢東歸”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며¹⁴, 송응창은 심유경을 정식으로 기용하여 세 번째 일본진영 방문을 명령했다.

송응창의 평화조건은 “尽还朝鲜故土, 并还两王嗣以及陪臣等, 归报矣白上章谢罪, 本部即当奏题封尔矣白为日本国王”¹⁵이었다. 앞의 ‘병부첩’과 비교

7 《宣祖實錄(第一)》卷32, 宣祖二十五年(1592)十一月丙戌(三十日)条, 《李朝實錄》第廿七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16页。

8 《明神宗实录》卷255, 万历二十年(1592)十二月己亥(十三日)条, 台北: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4741页。

9 《宣祖實錄(第一)》卷31, 宣祖二十五年(1592)十月乙巳(十九日)条, 《李朝實錄》第廿七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395页。

10 《明神宗实录》卷255, 万历二十年(1592)十二月己亥(十三日)条, 台北: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4741页。

11 《宣祖實錄(第一)》卷34, 宣祖二十六年(1593)正月丙寅(十一日)条, 《李朝實錄》第廿七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40页。

12 《宣祖實錄(第一)》卷34, 宣祖二十六年正月庚辰(二十五日)条, 《李朝實錄》第廿七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54页; 卷36, 三月己未(初四日)条, 第495页。

13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6《与袁赞画书》(万历二十一年二月二十七日), 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 北京: 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1990年, 第524页。

14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7《与李提督并二赞画书》(万历二十一年三月初八日), 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 北京: 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1990年, 第600页。

15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7《宣谕平行长》(万历二十一年三月初八日), 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 北京: 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1990年, 第602页。

해 보면 조선의 왕자반환, 배신(陪臣) 문제에 관한 주장은 같았지만, 아래의 세 조건이 달랐다. 첫 번째는 명조의 봉공문제이다. ‘병부첩’에서는 ‘개시’와 ‘봉’이 제시되었지만, 송응창의 제안에서는 ‘봉’만 있었다. 두 번째는 조선의 영토 문제. 영토요청의 범위는 ‘평양, 왕경지역’에서 조선 전국으로 변경되었고, 일본에 “尽还朝鲜故土”(되도록 빨리 조선 국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는 평화성립의 전제조건으로서 “関白上章謝罪”를 덧붙인 것이다.

송응창은 처음 봉공문제에 관해서 ‘봉’만을 주장했지만, 일본 측과의 교섭을 경험한 심유경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조정하여 ‘병부첩’의 “선봉후시”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題本請旨, 封矢白为日本王, 使之由宁波入贡”¹⁶의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했다. 송응창은 당초 “釜山, 熊川一帶, 原系日本旧据之地, 其民皆系倭户, 自弘治, 正德年间, 朝鲜已置此地于度外”, “故今倭遁于此, 是已归其巢穴”¹⁷라는 사실을 오인했기에 “부산, 웅천”을 일본 영토로 간주하고 조선 남부에서의 일본군의 거점보류를 묵인했다¹⁸. 송응창이 요청한 “尽还朝鲜故土”는 일본군이 조선 남부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일본군은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리한 군사정세에 직면해 있었다. 게다가 조선을 지원하는 명군의 공격을 수로와 육로 양쪽에서 받게 되자¹⁹, 조선 남부 연해 일대로 철퇴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²⁰. 이러한 경위로 일본군의 철병을 둘러싼 합의를 이룰 수가 있었다. 심유경이 일본군과 함께 부산으로 이동하는 한편, 명의 사절인 사용재(謝用梓), 서일관(徐一貫)이 일본을 향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직접 협상을 했다²¹. 두 사람은 그 후 일본의 조공사절을 영파(寧波) 경유 코스로 안내한다. 심유경이 왕경에 들어간 후, 일본 측이 포로가 된 조선의 왕자와 신하를 돌려주고 명은 일본측에게 ‘소장(小將)’을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가토 기요마사는 2만량의 은을 왕자 석방의 몸값으로 징수했다²².

일본군은 4월 19일에 왕경에서 철퇴하였고, 심유경, 사용재, 서일관 등을 데리고 부산으로 남하했다. 그러나 조선의 왕자, 신하를 반환하고 ‘소장’을 인질로 보낸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명은 외교적으로 수동적 입장이 되었다. 사용재, 서일관 등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고, 규슈의 나고야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 ‘대명일본평화조건’을 바탕으로 일본과 정식담판에 나섰다.

16 《宣祖實錄(第一)》卷37, 宣祖二十六年(1591)四月朔乙酉条, 《李朝實錄》第廿七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519页。

17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13《諭示周九功》(万历二十一年十二月初八日), 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 北京: 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1990年, 第1021页。

18 宋应昌这一关于日朝领土分界的看法其实是错误的, 其可能听信了游击胡泽所提供的错误情报。按胡泽在此前曾向宋应昌汇报:“釜山元有倭户, 又有限界石碑, 退离王京, 而以处本地。”事见《宣祖實錄(第二)》卷62, 宣祖二十八年(1595)四月庚戌(初八日)条。

19 [朝鲜]柳成龙:《惩毖录》卷4, 日本关西大学图书馆藏日本元禄八年(1695)刻本。

20 [日]佐岛显子:《豊臣政権の情報伝達について—文禄二年初頭の前線後退をめぐって—》, 《九州史学》第96号, 1989年10月, 第21-37页。

21 两人实际上为宋应昌幕下的策士, 但对日方假称是“大明敕使”。

22 《宣祖實錄(第一)》卷37, 宣祖二十六年(1593)四月庚寅(初六日)条, 《李朝實錄》第廿七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524页。李元翼:《梧里先生续集》卷2《平安道都巡察使时状启(癸巳[1593]四月初三日)》, 《平安道都巡察使时状启(同四月十三日)》,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第56辑, 首尔: 景仁文化社, 1996年, 第433-434页。

2. 기만 또는 타협 : ‘대명일본평화조건’ 을 둘러싼 외교협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명일본평화조건’ 7 항목을 둘러싸고, 심유경의 “七事已曾暗许”(7 항목을 이미 승낙했다)라는 말이 명나라 조정에도 알려졌다²³. 심유경이 독단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평화 조건 7 항목을 받아들여 명나라 조정을 속였다고 여겨졌다. 주공교(周孔教)가 병부상서(兵部尚書) 석성(石星)을 탄핵했을 때, 『亟賜議處欺誤之臣以弭禍亂疏』에서 “乃信沈惟敬之邪說, 許七事而講墮倭術中”²⁴이라고 호소하고, 심유경 뿐만 아니라 석성도 독단적으로 7 항목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인 학자 기타지마 만치北島万次는 명나라 책봉사절 양방형(楊方享)이 책봉 실패 후, 명신종(明神宗)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을 보고했기 때문에 석성과 심유경이 조정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을 숨겼다고 지적했다²⁵. 그러나 당시 협상을 보면 진실은 그렇지 않다.

명의 사절 사용재, 서일관이 5월에 규슈의 나고야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다음 달 21일, 22일의 2일간 필담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교대표인 남선사(南禪寺)의 승려 겐포 레이잔(玄圃靈三)과 정식 담판을 지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집필된 오제 호안(小瀬甫庵)의 『태합기(太閤記)』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5월 24일(일본력 23일)에 두 명의 명나라 사절과 회견하고 외교승려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에게 그들과 비공식 필담을 하도록 지시했다. 필담은 그림에 관한 이야기기로부터 시작됐고 이어서 명과 일본의 평화조건에 언급했다. 겐소는 필담으로 일본의 조선 출병에 대해 “조선이 일본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즉, 조선은 일본의 “중국과의 관계 수교”의 의사를 중국에 전한다고 승낙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속을 어겼다. 일본의 조선 출병은 명을 침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겐소는 명과 인척관계를 맺고 싶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을 강조하고, 명과 ‘속국의 조약’을 맺고 싶다는 일본의 의사를 전했다. 게다가 “為先驅伐鞑靼”, “粉骨碎身, 欲酬大明皇帝”라고도 덧붙였다²⁶. 즉, 타타르의 구제에 조력하는 것과 몸을 바쳐 대명황제에게 공헌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화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겐소는 밝히지 않았다. 명의 사절은 처음에는 “貴國欲通中國”의 ‘통상’ 요청이라고 이해했지만, 담판이 진행됨에 따라 겐소가 이야기한 ‘화친’이 혼인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뒤에 제기한 ‘대명일본평화조건’²⁷의 “大明皇帝之賢女, 可備日本之后妃事”의 효시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의 왕녀를 신부로 함으로써 일본이 명의 사위국이 되는 것을 꿈꿨다. 동아시아의 조

23 蕭大亨:《刑部奏議》卷2《沈惟敬招由疏》,名古屋市蓬左文庫藏明刻本。

24 周孔教:《周中丞疏稿·西台疏稿》卷1《亟賜議處欺誤之臣以弭禍亂疏》,《續修四庫全書》第481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年,第194頁。

25 [日]北島万次《秀吉の朝鮮侵略》,東京:山川出版社,2002年,第78頁。

26 [日]小瀬甫庵:《太閤記》卷15《大明より使者之事·唐使へ五月廿三日御對面之事》,《新日本古典文學大系》60,東京:岩波書店,1996年,第434-442頁。

27 關於日方在當時提出的和平條件文書標題,《南禪舊記》和《續善鄰國寶記》均以漢文作《大明日本和平條件》,小瀬甫庵的《太閤記》則以日文作《大明被遣御一書》,但內容幾乎完全一致。此處依據的材料為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的《南禪舊記》版《大明日本和平條件》。

공 시스템에 있어서, 명이 타국과 혼인관계를 맺은 전례가 없었으므로, 일본이 그 처음 사례가 되면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하고 명의 다른 속국보다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명일본평화조건’은 늦어도 6월 21일 담판 당일에 명나라 사절에게 제시되었다. 겐포 레이상의 담판기록『文祿二年癸巳玄圃和尚大明勅使筆談記録』에 의하면, 화평 조건은 전부 7항이었고, 그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필로 쓴 후 두명의 명사절에게 넘겨졌다. 그 원본과 등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틀간의 담판기록에 의하면, 이 화평 조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7일 후에 이시다 미쓰나리, 마스다 나가모리, 오타니 요시즈구, 고니시 유키나가 4명에게 건네준 주인장관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조선 영토문제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²⁸. 논술의 편리를 위해서 주인장관의 ‘대명일본평화조건’과 담판 당시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을 동일시한다. 먼저 주인장관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의 내용은 이하와 같다.

- 一, 和平誓約無相違者, 天地從[縱]雖盡, 不可有改變也, 然則, 迎大明皇帝之賢女, 可備日本之後妃事;
 - 一, 兩國年來依間隙, 勘合近年斷絕矣, 此時改之, 官船、商舶可有往來事;
 - 一, 大明, 日本通好, 不可有變更旨, 兩國朝權之大官, 互可題誓詞事;
 - 一, 于朝鮮者, 遣前驅追伐之矣, 至今彌為鎮國家、安百姓, 雖遣良將, 此条目, 伴伴[件件]于領納者, 不顧朝鮮之逆意, 對大明割分八道, 以四道并國城, 可還朝鮮國王。且又前年從朝鮮差三使, 投本[木]瓜之好也。余蘊付與四人口實;
 - 一, 四道者既返投之, 然則朝鮮王子并大臣一兩員為質, 可有渡海事;
 - 一, 去年朝鮮王子二人, 前驅者生擒之, 其人非凡間不混和平, 為四人度與沉[沈]游击, 可皈舊國事;
 - 一, 朝鮮國王之權臣, 累世不可有違却之旨, 誓詞可書之。
- 此旨, 趣四人向大明敕使縷縷可陳說之者也。

이 ‘대명일본평화조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곱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화친’. 명나라 황제의 왕녀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 2, 조공 관계의 회복. 무로마치 막부와 명의 공식조공, 민간의 호시관계 회복. 3, 명과 일본의 공식관계의 재구축. 4, 조선의 개시, 경상, 전라, 충청, 강원 4도를 일본에 할양. 5, 조선 왕자, 신하가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 6, 조선 왕자의 귀환. 7, 조선의 요직에 있는 고관들은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다 (조선은 일본에게 복종하는 것).

7가지 항목 중 일본측의 의무로 정해진 여섯 번째를 빼면 일본이 타국에 대하여 권익을 요청한 것이다. 앞의 3항목은 명에 대한 것이며, 뒤의 4항목은 조선

28 丰臣秀吉在最初写给明使谢用梓、徐一贯的《大明日本和平条件》中提议明日两国“中分朝鲜”, 但明使却表示强烈反对。因为明使不肯通过瓜分领有朝鲜北方领土, 所以丰臣秀吉对和平条件又作了调整, 其在写给石田三成、增田长盛、大谷吉继、小西行长四人的朱印状《大明日本和平条件》中将语意修改为“对大明割分八道, 以四道并国城, 可还朝鲜国王”, 提议以朝鲜南方四道属日本, 北方四道属朝鲜, 但要求明朝居中主持此事。

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담판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명의 사절에게 이 평화조건을 조선 국왕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을 명확히 요청했다.

7가지 항목 중,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는 담판 단계에서는 서로의 공통 인식이었다. 조공 관계의 회복을 검토하고 있는 명에 대하여 겐포 레이상은 “乃知天朝不弃之情，感激无他，伏乞准照旧例通朝贡商船” (천조(天朝)가 우리들을 버릴 일 없고, 대단히 감격이다. 관례대로 조공 상선의 운항 재개를 기원한다)고 대단히 정성스럽게 말했다. 일곱 번째는 다섯 번째의 보충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조선은 일본에게 복종할 것. 단지 이것에 대해서 담판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담판은 주로 화친, 조선 남방의 4도 할양, 조선 왕자와 각료의 인질문제 등 3항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명의 사절은 이 조건이 “정리(情理)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여 복수 항목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특히 화친의 항목에 강하게 반대해 그것이 조정에 알려지면 담판이 실패한다고 보아 명나라 조정으로의 보고를 거부했다. 조선 남방 4도의 할양에 대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초 명과 일본 양국이 조선 팔도를 양분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에 대하여 명의 사절은 “所示中分八道，岂我大明利其土地乎？朝鲜既为属国，则八道土地，皆我大明所属矣，欲中分之，则置朝鲜国王于何地” (조선은 명의 속국인 이상, 그 토지는 모두 명의 속지다. 양분하면 조선 국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명사절의 반대에 직면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남방 4도가 일본에 속하고 북방 4도를 조선에 반환하자며 명의 황제가 중립의 입장에서 그 실시를 감독하자는 새로운 안을 제기했다. 조선 왕자, 각료가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의 사절은 “质朝鲜王子者，此在朝鲜未敢必也，待二使回答经略，议而行之”라고 회답하고, 송응창에게 보고하여 상충부에서 검토하게 했다.

일본 측은 상기의 3항목을 반드시 모두 승낙하게 할 작정은 없었으므로, 담판 당시 3가지 중 2가지를 고르는 것을 제안했다. 1일째 담판에서, 겐포 레이상은 조선 북방 4도의 행방에 관해서 명의 칙령에 응해 반환하고 나머지 남방 4도의 행방은 명의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했다. 만약 명이 조선 왕자, 신하 2, 3명이 인질이 되는 것과 일본 왕녀를 시집보내는 것을 승낙해 주면, 일본이 조선 남방 4도를 포기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명 사절은 겐포의 제안, 특히 화친에 강하게 반대했고, 또 그것을 조정에 보고하는 것을 거부했다. 첫날 담판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다음 날 겐포 레이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조선 왕자, 신하의 인질문제를 보류로 하고 화친과 조선 남방 4도의 할양을 계속 다루었다. 화친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조선 남방 4도의 할양을 반드시 대명황제 아래서 실현하는 것. 할양의 공식문서에 대명황제의 금인을 누르는 것이 조건이었다. 명이 승낙하지 않을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팔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다시 군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군사침략을 시사했다.

일본 측은 당초 담판으로 화친과 조선 왕자, 신하의 인질문제에 대해 두 조건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명의 사절은 이를 반대했다. 명 사절은 외교교섭을 통해 화친과 조선 남방 4도 어느 한 쪽을 취한다는 일본

측의 최저 라인을 분명히 했다. 명 사절은 일본 측의 화친 요청을 거세게 거절했을 뿐 아니라, 조정으로의 보고도 거부했다. 그 대신에 명 사절은 일본 측의 영토할양 요청을 조정에 보고하는 것은 동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화친 요청을 포기하는 대신에 조선 영토의 할양을 견지하게 되었다²⁹.

명 사절 사용재, 서일관이 일본에 건너간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명일본평화조건’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6월 21일, 22일의 이틀에 걸친 담판을 통해 명과 일본의 조공 관계, 공식관계의 수복, 조선 왕자의 귀환은 서로의 공통 인식이 되었다. 조선의 요직에 있는 고관들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조선 왕자, 각료가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도 보류되었다. 명 사절은 2일간의 외교교섭을 통해 일본 측의 화친 요청을 물리쳤다. 한편, 조선 남방 4도의 영토요청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지만 명 조정에 보고하는 것은 동의했다. 이 외교교섭은 명 사절이 일본 측의 강제요청을 멀리하고, 담판의 화평 조건을 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킨 점에서 결실이 있었다. 일본 측의 7 항목을 넘지시 승낙하고, 심유경, 석성 등이 명 조정을 속였다는 사실은 없었다.

3. 명과 조선에서의 ‘대명일본평화조건’ 수용과 교섭 조건의 변화

나고야성 담판으로 화친, 조선 남방 4도의 두 항목이 크게 주목되었지만, 조선 왕자와 신하의 인질문제는 보류되었다. 명의 사절 사용재, 서일관은 2일간의 외교교섭을 통해 일본측의 화친 요청을 뿌리쳤다. 나고야 성 담판 후 ‘대명일본평화조건’의 교섭조건은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명일본평화조건’을 둘러싼 여러 전문(傳聞)들이 이후 조선과 명에 퍼지는 상황이 일어났다.

사용재, 서일관이 조선으로 귀환하기 전에, 일본에서의 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심유경은 부산에 집결한 일본군 사관으로부터 들은 ‘대명일본평화조건’의 일부 내용을 7월에 경략 송응창에게 보고했다. 그 내용은 “讲贡一年三次, 剖与全罗一道, 银二万两”(한 해에 세 번 조공을 하고, 전라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은 2만량을 일본에 배상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세 조건을 지키면 조선 왕자와 3명의 신하의 귀환이 처음으로 가능해진다고³⁰. 이 ‘조공’, ‘전라도의 할양’, ‘왕자와 3명의 신하의 귀환’은 모두 ‘대명일본평화조건’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항목이지만, 3군데에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공의 주기. ‘대명일본평화조건’에서는 조공의 주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심유경의 보고에서는 그것이 ‘한 해에 세 번’으로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는 영토할

29 以上六月廿一日的谈判笔录内容出自《日明和平谈判笔记》其一《南禅旧记玄圃和尚笔(文禄二年六月廿一日)》(《法学协会志》第15卷, 1885年); 六月廿二日的谈判笔录内容出自《文禄二年癸巳玄圃和尚大明勅使笔谈记录》(《南禅旧记》, 日本国立公文书馆藏抄本)。按当时的谈判笔录记载于日方谈判者南禅寺僧玄圃灵三的《文禄二年癸巳玄圃和尚大明勅使笔谈记录》。但现存于日本国立公文书馆的两种《南禅旧记》均只有六月廿二日一天的谈判笔录, 而六月廿一日的笔录在十九世纪八十年代日本帝国大学(今东京大学)汇编《帝国史料编年》时收录, 后来的《史学协会杂志》第15卷亦将之收录, 其出处亦为《南禅旧记》, 但此本《南禅旧记》目前未见。

30 《宣祖實錄(第一)》卷40, 宣祖二十六年(1593)七月壬戌(初十日)条, 《李朝實錄》第廿七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588页。

양의 범위. ‘대명일본평화조건’은 조선 남부의 경상, 충청, 강원 4도를 영토할양의 범위로 하지만, 심유경의 보고에서는 그것이 전라 1도로 되어 있다. 당시 경상도는 이미 일본군의 점령지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은2만량’의 조선 왕자, 신하의 몸값. 이것은 가토 기요마사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의가 아닌 것 같다. 심유경의 발자취가 부산에서 멈췄고, 사재용, 서일관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직접 교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 내용은 ‘대명일본평화조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상황과 다른 점이 있었다.

같은 해 7월, 명에 항복한 일본인 포로 우우지느(兀兀吉奴), 니슈느(尼嚙兀兀)는 송응창에게 일본 측의 화평 조건이 “四道让天朝, 四道属日本, 方转回巢. 总[纵]许封贡, 亦要攻破全罗”(4도가 하늘 천조에, 4도가 일본에 속하는 것. 조공 관계가 회복해도, 전라도의 점령을 목표로 한다)³¹라고 했다. 조공과 조선분할의 두 가지 항목은 ‘대명일본평화조건’ 당초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같은 해 11월 ‘화친(和親)’, ‘할지(割地)’, ‘구혼(求婚)’, ‘봉왕(封王)’, ‘준공(准貢)’, ‘망용의(蟒龍衣)’, ‘인신(印信)’의 7항목 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여기서 ‘화친’은 ‘화평친선’을 가리키고, ‘대명일본평화조건’에 쓰여 있는 명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이루자는 항목에 해당한다. ‘구혼’은 앞서 언급한 ‘화친’이며, 즉 혼인관계의 확립을 가리킨다. ‘할지’와 ‘준공’은 ‘대명일본평화조건’의 조선 남방 4도의 할양, 명과 일본의 조공, 호시관계의 회복을 가리킨다. ‘봉왕’, ‘망용의’, ‘인신’은 책봉을 가리키지만, 모두 ‘대명일본평화조건’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7항목 설은 ‘화친’ 등의 전문을 포함한다.

다음해(1594년) 4월, 제독 이여공(李如松)이 마음대로 ‘화친’을 인정했다고 속사(塾師) 제용광(諸龍光)이 고발하는 일이 북경에서 일어났다³². 5월 복건 순안(福建巡按) 유방예(劉芳譽)가 일본에 간 상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심유경이 독단적으로 명의 왕녀를 일본에 보내는 것을 약속했다고 조정에 고발했다³³. 심유경이 이로 인해 ‘화친’ 제안의 장본인으로 여겨졌다. 만력 24년(1596년) 4월 일본의 화평 조건이 ‘화친’, ‘할지’, ‘납질(納質)’, ‘통상’의 4항목이며 ‘화친’의 우선 순위가 가장 높다고 하는 정보가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책봉 공식 사절인 이종성(李宗城)의 귀에 들어갔다. 한편, 나고야 담판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사재용, 서일관은 담판의 처음 단계에서 일본의 화친 조건을 멀리했다. ‘화친’ 설은 소문으로서만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이 전문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다고는 할 수 없다. 허실반반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유정(惟政)과 이겸수(李謙受) 등의 조선의 외교담당자가 부산 서생포(西生浦)에 주재한 일본군 사령관 가토 기요마사와의

31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9《檄李提督》(万历二十一年七月二十六日),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1990年,第794-795页。

32 《明神宗实录》卷271,万历二十二年(1594)四月丙子(二十八日)条,台北: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1966年,第5055页。[明]沈德符:《明》沈德符:《万历野获编》卷17《兵部·日本和亲》,北京:中华书局,1959年,第438页。

33 《宣祖實錄(第二)》卷55,宣祖二十七年(1594)九月丙戌(十一日)条,《李朝實錄》第廿八册,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1年,第148页。

거듭되는 외교교섭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가, 나고야 담판 이후 ‘대명일본평화조건’의 교섭 조건의 변화를 전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신빙성이 크다.

만력 22년(1594년) 4월, 유정 등은 처음으로 서생포의 가토 기요마사 군영에 들어갔다. 기요마사가 유정 일행에게 “与天子結婚(천자와 인척관계를 맺는다)”, “割朝鮮属日本(조선의 영토를 일본에 할양한다)”, “如前交隣(종래대로의 국가관계를 유지한다)”, “王子一人入送日本永住(왕자 한명을 일본에 보내고 일본에서 영주시킨다)”, “朝鮮大臣大官入质日本(조선의 각료 고관을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시킨다)”라는 5항목을 제기했다. “与天子結婚(천자와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앞에서 언급한 ‘화친’에 해당한다. “割朝鮮属日本(조선의 영토를 일본에 할양한다)”는 조선 남방 4도의 할양을 가리킨다. “王子一人入送日本永住”, “朝鮮大臣大官入质日本”는, 왕자, 각료를 인질로 일본에 체류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如前交隣”는 가토 기요마사의 생각이며, 즉 조선이 일본에 속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의 조선의 각료 고관들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왕자, 각료의 인질 항목에 보태졌다고 보아도 좋다. ‘조공’, ‘호시’를 제외하고 유정이 제기한 5항목은 ‘대명일본평화조건’ 기본방침과 일치한다. 유정이 실패가 없는 5항목을 내민 것은 명과 일본의 화평 협의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³⁴.

3개월 후, 유정이 다시 기요마사의 군영에 들어갔을 때 기요마사가 건넨 화평 조건은 “四道中割给二道, 送王子质之(4도 중 2도를 할양하고 왕자가 인질로서 일본에 보내진다)”의 2항목으로 줄어들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영토할양 문제에서 약간의 양보를 한 것이다. “送王子质之(왕자를 보낸다)”에 관해서는, 기요마사의 부장 기하치가 유정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汝国若取他人之子年可八九者, 假称王子而入送, 则事当速成(8, 9세의 어린이를 왕자라고 말해서 보낸다.)” 이 속임수의 제안에서 알 수 있듯이 왕자의 인질문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실시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화평 조건에 변화가 생긴 것은 기요마사가 고니시 유키나가를 대신하여 화평 협의를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³⁵.

같은 해 12월, 기요마사는 재전(在田), 천우(天佑)의 두 승려에게 조선 외교대표 이겸수와 의 외교교섭을 의뢰했다. 그 때 기요마사는 “天朝许封虽美, 于矢白之心不好(천조의 약속은 좋은 것이지만 관백(關白) 심정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책봉 외에 “前五条内, 有一事成之, 则必合于矢白之心(전반에 5항목 중 반드시 1항목을 실현시키는 것. 관백의 바람을 이루어 준다)”라고 토로했다. 기요마사는 앞에 5항목에 있어서 1항목을 실현시킨다고 하는 새로운 화평 조건의 최저 라인을 제시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화평 조건은 여전히 순화군(順和君) 등 2, 3명의 각료를 일본에 보내는 것이며, 그리고 5항목 중 한명의 왕자를 일본에 영주시키는 것과 조선 각료 고관이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었다. 왕자의 일본 체류 대신에 기

34 [朝鮮] 惟政: 《甲午四月入清正营中探情记》, 惟政著、申维翰校: 《松云大师奋忠纾难录》, 韩国国立中央图书馆藏李朝英宗十五年(1739) 刻本。

35 [朝鮮] 惟政: 《甲午七月再入清正阵中探情记》, 惟政著、申维翰校: 《松云大师奋忠纾难录》。

요마사가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서 조선 측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³⁶. ‘대명일본평화조건’ 제기 후에 명과 조선에서는 다양한 전문이 나돌았지만 모두 거짓과 사실이 반반이었다. 유정, 이겸수 등의 조선 외교담당자가 가토 기요마사와 외교교섭을 거듭했다. 그때마다 일본 측의 화평 담판 조건이 바뀌었다. 이 세 번의 화평 조건은 어느 정도 나고야성 담판 후의 ‘대명일본평화조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4.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항표(降表), ‘3 항목’의 약속과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 (大明朝鮮日本平和条目)’

나고야성 담판 후, 명과 일본은 평화협상을 계속했다. 만력 23년(1595년) 1월, 명은 최종적으로 책봉의 자세한 사항을 정했다. 명의 책봉 확정 전후의 교섭 조건은 만력 21년(1593) 12월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항복표, 만력 22년(1594년) 12월 일본측의 청봉사(請封使) 나이토 조안(内藤如安)과 명의 ‘3 항목’을 둘러싼 약속, 만력 23년(1595년) 5월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인장(朱印狀)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의 세 가지 대표적 문서와 필담 자료로부터 알 수 있다.

송응창의 『선유평행장(宣諭平行長)』에 언급된 “관백상장사죄(關白上章謝罪)”가 이후 외교교섭으로 실행되었다. 심유경이 만력 21년(1593) 6월에 일본의 조공사절 나이토 조안을 부산에서 데리고 왔을 때 『왜회주본(倭酋奏本)』이라고 하는 책을 지참했다. 이 책에서 “年年来进, 岁岁来朝(매년 조공을 한다)”이라고 명언하고 있었는데, 명으로의 조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말쓰임에 문제가 있어 규범으로부터 이탈했다고 여겨졌다³⁷. 명이 그 후 심유경을 다시 부산에 보내 항복표의 재제출을 요구했다. 만력 21년(1593) 12월에 완성된 새로운 항복 조문은 이하의 내용이다.

万历二十一年十二月日, 日本前矣伯臣平秀吉, 诚惶诚恐, 顿首顿首, 谨上言称谢者。伏以上圣普照之明, 无微不悉; 下国幽隐之典, 自求则鸣。兹沥卑悰, 布于天听。恭惟皇帝陛下, 天佑一德, 日靖四方。皇建极而舞干羽于两阶, 圣武昭而来远人于万国。天恩浩荡, 遍及遐迩之苍生; 日本献微, 咸作天朝之赤子。屡托朝鲜以转达, 竟为秘匿而不闻。控诉无门, 饮恨有自。不得已而构怨, 非无谓而用兵。且朝鲜诈伪存心, 乃尔虚渎宸听; 若日本忠贞自许, 敢为迎刃王师? 游击沈惟敬忠告谕明, 而平壤愿让; 豊臣行长等输诚向化, 而界限不逾。诈谓朝鲜反间, 构起战争, 虽致我卒死伤, 终无怀报。第王京惟敬旧章复申, 日本诸将初心不易。还城郭, 献刍粮, 益见输诚之困; 送储臣, 归土地, 用伸恭顺之心。

36 [朝鮮] 惟政: 《甲午十二月復入清正營中探情記》, 惟政著、申維翰校: 《松云大師奮忠野難錄》。

37 《宣祖實錄(第一)》卷41, 宣祖二十六年(1593)八月甲申(初三日)條, 《李朝實錄》第廿七冊, 東京: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617頁。

今差一将小西飞弹守,陈布赤心,冀得天朝龙章恩赐,以为日本镇国恩荣。伏望陛下,廓日月照临之光,弘天地覆载之量,比照旧例,特赐册封藩王名号。臣秀吉,感知遇之洪休,增重鼎吕;答高深之大造,岂爱发肤?世作藩篱之臣,永献海邦之贡。祈皇基丕着于千年,祝圣寿延绵于万岁。臣秀吉,无任瞻天仰圣激切屏营之至,谨奉表以闻。³⁸

이 항복표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쟁책임. 일본이 명에 대하여 “천조(天朝)의 적자(赤子)”가 되는 뜻을 조선에 전하고 표명하려고 했지만, 조선은 그것을 은닉했다. 일본은 “不得已而构怨(할 수 없이 토벌을 했다)”. 조선이 사기를 치고 이간질을 한 결과 명과 일본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항복표는 모든 전쟁책임을 조선 측에 씌우려고 했다. 두 번째는 책봉을 요구하는 것. 일본은 “天朝龍章賜(천조부터 용龍의 장章을 받는다)”, “以為日本鎮國恩榮(일본 나라를 다스리는 은혜와 번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조공 관계의 수복을 요구하는 것. 일본은 명에게 “世作藩籬之臣,永獻海邦之貢”이며 영원히 바다의 나라로서 헌상한다고 맹세했다.

일본은 항복표로 조선의 전쟁책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명 측과의 봉공관계 재확립 요청을 주장했다. ‘대명일본화평조건’의 ‘공시’로부터 항복표의 ‘봉공’으로 변한 것은 명 측에 “先封後貢(책봉을 한 후, 조공 관계를 확립)”이라는 의사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항복표는 학계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유경의 공모로 위작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³⁹.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가 계요 총독(薊遼總督) 손광요(孫鑛遼)에게 답한 『답계요총독(答薊遼總督)』에서는 “书内又疑先日表文不真, 似为过当。盖不知有国有君有礼有法者, 文书印信岂容假借? 理无假借, 复何辨哉”⁴⁰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은 “有国有君有礼有法”이기에 문서와 인감, 편지는 절대로 위조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다. 항복표는 확실히 형식상 정돈된 것이며 그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항복표의 ‘봉공’ 문제는 명 조정에서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장 먼저 심유경에게 ‘조공’을 제안했다. 명 측이 『병부첩』에서 “先封後市(貢)”이라고 회답하고 있다. 송응창이 『선유평행장(宣諭平行長)』에서 ‘봉’만을 언급한 후⁴¹, ‘봉공’ 양쪽에 응했다⁴². 송응창의 ‘봉공’ 주장이 조정에서 많은 비판을 초래했기 때문에 “且与之封, 使其归国, 贡则封后二三年, 视其顺逆若何, 另行议处”로 바뀌고 “先封後貢” 쪽으로 바뀌었

38 《宣祖實錄(第二)》卷48, 宣祖二十七年(1594)二月庚申(十一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22页; 卷51, 五月辛丑(二十四日)条, 第78页。

39 [日]北岛万次:《秀吉の朝鮮侵略》, 东京: 山川出版社, 2002年, 第68页。

40 [明]慎懋赏:《四夷馆记(中)》不分卷《答薊辽孙总督》(万历二十二年十二月初六日), 《玄览堂丛书》2辑21, 台北: 正中书局, 1985年, 第182页。

41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7《宣諭平行长(万历二十一年三月初八日)》, 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 北京: 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1990年, 第602页。

42 《宣祖實錄(第一)》卷37, 宣祖二十六年(1593)四月朔乙酉条, 《李朝實錄》第廿七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519页。

다⁴³. 송응창 다음에 조선의 군무를 이어 받은 계요 총독 고양겸(顧養謙)은 “封貢并許” 외에도 “開市寧波”를 주장했다.

고양겸은 “封貢并許”로 십년간의 평화를 보증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렇지 않으면 “封貢并絶(봉공의 양쪽을 그만 둔다)”가 되고 조선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쪽에서 압록강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封貢并許”과 “開市寧波”의 주장이 조정에서 맹렬히 반대를 당했기 때문에 고양겸은 이를 그만둔다고 전했다. 명의 신중이 “封貢并罢”라는 명령을 내렸다⁴⁴. 그 후 신중이 “不許貢但往市”의 안을 제시했고, “封貢并罢” 후에 ‘호시’의 실시도 검토했다. 병부상서 석성이 “不敢輕議”라 하고⁴⁵, 병과급사중(兵科給事中) 오문재(吳文梓)가 “不宜輕開”라고 했기 때문에⁴⁶ 신중은 자신의 제안을 단념했다.

명이 최종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책봉한다고 결정한 것은 조선 국왕이 일본의 책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⁴⁷. 나이토 조안이 만력 23년(1594년) 12월에 북경에 가서 필담을 통해 명과 ‘3항목’의 약속을 주고 받았다. 이 ‘3항목’은 명이 “釜山倭众尽数退归(부산의 일본 주둔군이 모두 철퇴하는 것)”, “一封之外, 不許別求貢市(봉의 이외의 공시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 “修好朝鮮, 共为属国, 不得輕肆侵犯(조선과 수교하고 서로 명의 속국이 되며 조선을 침범하면 안된다)”⁴⁸의 화평 조건이었다.

항복표에 있었던 ‘봉공’ 요청 중 명으로부터 승낙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봉’ 뿐이었다. “封貢并罢”보다는 어느정도 완화되었지만 이전에 명이 약속한 “先封後市”도 “封貢并許”와 비교하면 대단히 엄격한 것이다.

나이토 조안의 기술에 의하면, 그가 명과의 사이에 ‘3항목’의 약속을 주고 받은 것은 “前日行長有稟帖上孫老爺, 一一听命, 不敢有违天命。此系大事, 秀吉有命行長, 行長有书小的, 方敢如此对答”⁴⁹, 즉 고니시 유키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나이토 조안 사이에 “매월 20 일마다 서간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통신기간에 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⁵⁰, 나이토의 이야기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이토가 명과 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계요 총독 손광에게 서간을 보내고 명 측이 요청한 ‘3항목’에 대하여 명확한 회답을 했

43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14《辯明心迹疏(万历二十二年四月十二日)》, 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 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1990年, 第1108页。

44 《明神宗实录》卷272, 万历二十二年四月甲寅(初六日)条, 台北: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5045-5046页。杨廷撰:《顾襄敏公年谱》万历二十二年三月条, 北京图书馆编《北京图书馆藏本年谱丛刊》第52册, 北京:北京图书馆出版社, 1999年, 第286-288页。《万历邸钞》万历二十二年甲午卷4月条, 扬州:江苏广陵古籍刻印社, 1991年, 第830页。

45 《明神宗实录》卷277, 万历二十二年(1594)九月甲申(初九日)条, 台北: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5124-5125页。

46 《明神宗实录》卷277, 万历二十二年(1594)九月庚寅(十五日)条, 台北: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5128-5130页。

47 《明神宗实录》卷277, 万历二十二年(1594)九月己丑(十四日)条, 台北: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5127页。

48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后附《兵部等衙门题为仰奉明旨以定东封事》, 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 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1990年, 第1200-1201页。

49 [明]宋应昌:《经略复国要编》后附《兵部等衙门一本钦奉圣谕事》, 吴丰培主编《壬辰之役史料汇编(下)》, 北京: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1990年, 第1206-1207页。

50 《宣祖實錄(第一)》卷45, 宣祖二十六年(1593)闰十一月甲申(初四日)条, 《李朝實錄》第廿七册, 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698页。

다.

第一件, 撤兵归国。先兵屯王京, 沈游击一言之约, 退至釜山千有余里, 今釜山相去对马半日之程, 果有天使来, 不难尽撤。

第二件, 不得因封又求贡市。封者, 天朝之恩, 贡者, 小邦之礼, 今但施恩而不责礼, 更为体恤。

第三件, 一封之后, 不得后犯朝鲜。然兵出朝鲜求通上国, 今得封矣, 复犯何为? 此皆可以听命者也。⁵¹

손광(孫鑣)은 “大约称三事尽皆听命, 惟留从倭数队等候封使, 据其辞意, 似近恭顺”⁵²라고 하며 일본측이 제출한 3항목이 명의 뜻을 따르고 어의도 정중하다고 생각했다. 게이테쓰 겐소가 같은 해 12월 22일에 기초(起草)한 서간의 내용은 앞의 한 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蒙差叶参军, 沈、叶二镇抚赉榜文来宣谕准封的信, 实小邦大幸也。向因沈游击讲说朝鲜为天朝属国, 所以不敢再与为仇, 故尽退还城郭、地土, 送回王子、陪臣, 自王京至釜山, 共遗粮二十余万石, 尽行送与天朝, 退居海角, 自运粮草用度, 只所吃是朝鲜野水而已, 不敢复有他意。蒙许封事, 久不见妥, 而来论又教尽数收兵过海, 蕞尔小邦, 焉敢不从? 即当令大众还国, 止留兵马二三千在此通信, 迎接天使, 并不扰害朝鲜地方。若将兵马尽数过国, 又恐朝鲜反要乘机执仇, 故不得已羈留异域, 淹淹待命。伏望仁慈作主转奏, 早赐敕命, 速得杜绝归国, 感恩激切。余付回使舌端。⁵³

겐소가 기초한 이 통지는 일본군 철퇴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봉공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를 접한 손광은 걱정을 품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연락은 “似可信(신용할 수 있다)”, 게이테쓰 겐소의 연락은 “이후의 포석(布石)이 될 것 같은” 의도를 비친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책봉을 받은 후 요구가 점차 공시(貢市)에 미치는 것이 아닐까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⁵⁴

손광의 걱정에는 근거가 있었다. “既封之后, 必渐及贡市”는 일본 외교담당자들의 외교수단이다. 명이 책봉의 상세한 내용을 정한 후 심유경이 만력 23년(1595년) 4월 하순에 다시 부산에 오고 일본 주둔군에게 3항목에 관한 명조 신종의 책봉칙유를 선고했다⁵⁵. 고니시 유키나가는 곧 일본에 되돌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51 [明]慎懋赏:《四夷馆记(中)》不分卷《答朝鲜孙总督》(万历二十二年十二月初六日),《玄览堂丛书》2辑21,台北:正中书局,1985年,第181-182页。

52 [明]孙鑣:《姚江孙月峰先生全集》卷2《薊辽奏议·钦奉圣谕疏》,北京大学图书馆藏清嘉庆十九年(1814)刻本。

53 [明]孙鑣:《姚江孙月峰先生全集》卷2《薊辽奏议·直陈倭情疏》,北京大学图书馆藏清嘉庆十九年(1814)刻本。

54 [明]孙鑣:《姚江孙月峰先生全集》卷2《薊辽奏议·直陈倭情疏》北京大学图书馆藏清嘉庆十九年(1814)刻本。

55 《宣祖實錄(第二)》卷63,宣祖二十八年(1595)五月壬午(初十日)条,《李朝實錄》第廿八册,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1年,第301页。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는 『대명조선여일본화평조목』⁵⁶의 주인공이다. 이 지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외교대표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데라사와 마사나리를 명령의 수취인으로 같은 해 5월 22일에 발행되었다. 그 내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명, 조선, 일본 세방의 화평조건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다.

- 一, 沈游击到朝鲜熊川, 自大明之条目演说之云云, 依大明钧命, 朝鲜国于令恕宥者. 朝鲜王子一人渡于日本, 可侍大阁幕下, 然则朝鲜八道之中四道者可属日本者, 前年虽述命意, 王子到本朝近侍, 则可付与之. 朝鲜大臣两人为轮番, 可副王子之事;
- 一, 沈游击与朝鲜王子同车马至熊川, 则自日本所筑之军营十五城之中十城即可破之事;
- 一, 依大明皇帝恳求朝鲜国和平赦之, 然则为礼仪赉诏书, 大明敕使可渡于日本. 自今以往, 大明, 日本官船, 商舶于往来者, 互以金印勘合, 可为照验事.

앞서 나온 ‘대명일본화평조건’과 달리 이 주인공은 『대명조선여일본화평조목』이라고 표제가 바뀌었다. 교섭 대상은, 명뿐만 아니라 조선도 포함되었다. 2년전의 화평 조건과 비교하면 크게 조정되었다.

1, 영토문제. 조선 남방 4도를 포기하는 대신 조선 왕자, 신하가 인질로서 일본에 체류할 것을 건지했다. 즉 영토문제를 인질문제로 바꿔 넣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이 왕자를 일본에 보내면 조선 남방 4도를 돌려주고 속지의 형식으로 조선 왕자에게 하사할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화친 요구가 거부되고 조선 남방 4도의 영토요청도 지지를 얻을 수 없었기에, 조선왕자와 신하를 인질로 하고 조선과의 중주국 관계의 확립을 하려 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은 명 다음에 조선의 두번째 중주국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2, 인질과 철병문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인질과 영토를 바꾼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왕자와 심유경이 웅천의 일본군병영에 도착하면 일본이 곧 15개 왜성(倭城) 중 10개 왜성을 부순다고 말했다. 사실 조선이 일본에 왕자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예정대로 대부분의 왜성을 폐기했다. 이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의있게 군 철퇴에 열을 올렸고 그리고 왕자, 신하의 인질문제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조선에서 완전히 철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봉공문제. 명의 ‘봉’에 대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특히 이의를 말하지 않았지만 대명칙사가 책봉의 예(禮)와 조서(詔書)를 일본에 가지고 오는 것을 요청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청한 “금인감합(金印勘合)”은 분명히 ‘봉’의 범주를 넘고 있다. 소위 ‘금인’은 명이 속보의 형식으

56 该朱印状原以“大明日本和亲议条”为题,但以“谕朝鲜差军将小西摄津守、寺沢志摩守大明朝鲜与日本和平之条目”开篇,故此朱印状一般被称为《大明朝鲜日本和平条目》。因小西和寺泽两家在后来的政治斗争中败亡,该朱印状原件下落不明,但有誊文录于《江岳和尚对马随笔并云崖和尚续集》(简称《江云随笔》)。《江云随笔》原藏建仁寺大中院,东京都立大学和东京大学史料编纂所均藏有复印本。此处所用文本为东京大学史料编纂所藏复印本。

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일본국왕’의 금인을 하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책봉을 통해서 ‘일본 국왕’의 이름을 얻는 동시에 ‘감합’을 실시하고 양국의 ‘관선, 상선’의 ‘왕래’가 합법화되고 공식적으로는 ‘조공’과 민간의 ‘호시’의 회복을 도모하려고 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신종의 칙유 내용을 보고할 때 “一封之外, 不许别求贡市”를 회피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공시’ 회복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데라사와 마사나리에게 사후에 ‘공시’를 실현시키려고 지시했다.

사실 신종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로의 칙유에서 책봉 후의 조공 문제에 언급하고 “至于贡献, 固尔恭诚, 但我边海吏惟知战守, 风涛出入, 玉石难分, 效顺既坚, 朕岂责报, 一切免行, 俾绝后衅”이라고 함께 이야기 했다. 즉 명의 해방병사들은 방어에 임무를 지고 바람과 물결이 강한 동해를 경유하는 일본의 조공 단체에 잘못하여 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두 통행 금지로 하고 있었다⁵⁷. 실제로 일본측이 제기한 조공경로는 해로가 아니라 조선경유의 육로였기 때문에 칙유 거부 이유의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명 병부는 일본이 책봉완성 후에 사은사(謝恩使)를 명에 파견할 때 “除使臣外, 人不得过三百, 船不得过三只, 先到对马岛, 候旨定数进京”⁵⁸라고 정했다. 조선 경유의 육로가 사은사의 경로로 정해졌다. 이것이 조선이 “虽不许贡, 而贡在其中”⁵⁹이라는 인식을 가진 원인이었다. 한편 명 외교관료들은 일본측에 “後求貢(봉의 뒤에 공을 요구한다)”책을 강구했다. 예를 들면 유격 진운홍(遊擊陳雲鴻)이 만력 23년(1595년) 1월에 부산의 일본군 병영에 들어간 후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准封则不必要贡, 当慢慢请之, 未为不可。既封之后, 尔国当遣使奉土宜称谢, 因此而恭谨请之, 则天朝无不允之理。何必忙忙一时要之乎”라고 이야기하고, “天朝无不允之理(천조가 허가하지 않을 리가 없다)”⁶⁰. 게요 제독 손광도, 심유경이 일본 측과 교섭했을 때 “令其谢恩时以巧术求贡市”라고 지적했다⁶¹.

『대명조선여일본평화조목』은 “조선 국왕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여겨진 ‘대명일본화평조건’과는 달리, 명과 일본만이 아니라 조선도 교섭 대상이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에 대하여 명의 책봉을 요구할뿐만 아니라 사후에 ‘공시’ 관계의 확립도 요구했다. 이것은 항복표의 방침과 일치하고, 손광의 “既封之后, 必渐及贡市”의 걱정과도 부합한다.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대하여, 남방 4도를 포기하는 대신에 “조선 왕자, 신하가 인질로 일본에 온다”를 견지했다.

위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항복표 제출, 나이토 조안과 명 사이의 ‘3항

57 南炳文·吴彦玲辑校:《辑校万历起居注》万历二十三年(1595)二月初九日条,天津:天津古籍出版社,2010年,第1311页。

58 《宣祖實錄(第二)》卷78,宣祖二十九年(1596)八月丁巳(二十二日)条,《李朝實錄》第廿八册,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1年,第569页。

59 《宣祖實錄(第二)》卷61,宣祖二十八年(1595)三月丁丑(初四日)条,《李朝實錄》第廿八册,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1年,第263页。

60 《宣祖實錄(第二)》卷60,宣祖二十八年(1595)二月癸丑(初十日)条,《李朝實錄》第廿八册,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1年,第243页。

61 [明]孙鑛:《姚江孙月峰先生全集》卷5《薊辽兵札·奉沈阁下书二十三年三月初四日》,北京大学图书馆藏清嘉庆十九年(1814)刻本。

목의 약속' 을 거쳐 명이 최종적으로 “只封不貢(봉만을 허하고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 하는 정책을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종의 책봉척유를 알게 된 후, ‘대명일본화평조건’ 을 ‘대명여조선일본평화조목’ 으로 바꾸고, 이미 철회한 화친 요청에 더해서 조선 남방 4도의 포기도 표명했다. 그 대신에 공시의 회복, 조선 왕자와 신하의 인질문제라는 두 조건을 유보했다. 그동안 조선 왕자와 신하의 인질문제의 실시에 관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명, 조선과 교섭을 했지만, 공시의 재개는 책봉완성 후 사은사의 베이징 파견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5. 배신(陪臣)의 일본 파견을 둘러싼 교섭

『대명조선일본화평조목』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같은 해 5월 22일에 고니시 유키나가와 데라사와 마사나리에게 조선왕자, 그리고 신하의 방일알선을 명했다. 고니시 유키나가 5월 26일에 출발 후 한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소환되었다⁶². 그 원인은 상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니시 유키나는 조선에 되돌아온 후 곧 명, 조선과의 교섭에 착수하지 않고, 그 대신 일본군의 철퇴와 명의 책봉사를 받아들이 준비에 착수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한 정식교섭은 명조봉책사 이종성이 부산의 일본군 군영에 들어간 후에 시작한 것이다. 명조봉책사의 동향을 보고하러 일본에 돌아간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의 최신정보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화평 조건을 “須煩朝鮮二三陪臣(조선에 2~3명의 신하)”⁶³이 방일하고 “面修旧好, 永相和睦(구교를 회복, 영원한 화목을 꾀한다)”⁶⁴고 조정했다. 『대명조선일본화평조목』 원본에서는 조선 왕자, 신하의 방일이라고 정했지만,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부산에 돌아왔을 때, 신하만이 명조봉책사와 함께 방일하고, 구교를 회복한다고 수정되었다. 이전의 가토 기요마사 표현에서는 전체 5항목 중 1항목의 실현이 요구되었다. 그 중 조선 신하의 인질로서의 방일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아마 이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소한의 요청이었다고 생각된다. 단 그 때의 요청 대상은 보통 관료가 아니라 지위가 높은 조선 신하였다. 신하의 레벨에 대해서 명과 일본의 화평과는 각자 주장을 전개했다. 심유경은 “不須大官, 只收出一武官, 将就送去亦足(무관 한명으로 좋다)”⁶⁵, 그러나 게이트스 겐소는 해당 관료의 레벨은 명조육부상서 두 명 ‘판서’ 또는 ‘총병’에 상당하는 것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⁶⁶. 이 교섭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62 《宣祖實錄(第二)》卷64, 宣祖二十八年(1595)六月丙寅(二十五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323页。

63 “陪臣”一词系明朝对朝鲜官员的称呼。按朝鲜官员对朝鲜国王来说是“臣”, 但因为朝鲜是明朝的藩属国, 朝鲜国王为明朝皇帝的“臣”, 故朝鲜官员相对明朝来说是隔了一层关系的“臣”, 故称“陪臣”。

64 《宣祖實錄(第二)》卷70, 宣祖二十八年(1595)十二月丁卯(二十九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26页。

65 《宣祖實錄(第二)》卷70, 宣祖二十八年十二月丁卯(二十九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26页。

66 《宣祖實錄(第二)》卷71, 宣祖二十九年(1596)正月戊辰朔,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27页。

그 후의 외교교섭은 조선 신하의 방일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일본과 조선의 교섭외에, 명 측의 외교관료도 몇 번이나 교섭에 합류했다. 심유경이 조선 국왕의 의사를 확인한 뒤⁶⁷, 그것을 병부에 보고했다⁶⁸. 명 책봉사의 이종성, 양방형(楊方享)은 조선측에 이를 받아들여기를 권했다⁶⁹. 조선 측은 시종 강한 태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명 병부는 조선이 신하를 일본에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병부는 답변으로 “其陪臣修好之说, 待封事后谢恩之日经过朝鲜, 或于对马岛, 或于釜山, 会约证盟, 亦无不可. 如朝鲜即差陪臣随册使渡海, 又当听便, 固不可绝, 亦不可执 (신하의 파견은 사후 사은 때라도 좋다)”⁷⁰고 쓰고, 책봉 뒤 조선의 부산이나 일본의 대마도에서 조선의 신하가 일본의 사은 사절과 ‘회약증맹(會約証盟)’ 하면 좋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선이 일본의 신하 파견을 스스로 하려고 하면 “又当听便(그래도 괜찮다)”고 했다. 조선은 처음 신하의 일본 파견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명과 일본의 외교관료의 거듭되는 설득에 의해, 레벨이 낮은 황신(黃愼)의 사절단(통칭 조선통신사)을 파견하기로 하고, 명의 책봉사와 함께 일본에 간 것이다.

6. 인질로서의 왕자 방일을 둘러싼 교섭

만력 24년(1596년) 9월 2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에서 명 사절 양방형, 심유경에 의해 책봉을 받았다. 책봉식전 전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 차례나 화를 냈다. 명의 책봉은 사실상 실패했다.

첫 번째 분노는 책봉 전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마즈 효고노카미(島津兵庫頭)(시마즈 요시히로, 島津義弘)에게 보낸 서간 및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가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보낸 서간(모두 9월 7일의 날짜)에 의하면, 조선 왕자의 방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예상과 다른 결과에 격노했다⁷¹. 조선 왕자를 파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事事轻我甚矣(조선이 일본측을 가볍게 본다)”고 조선을 비판하고 조선통신사와 만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⁷². 그러나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진술에 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전부터 조선 왕자가 방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보고를 받았고 그후에도 변화는 없고 원래 예정대로 조선 통신사와 ‘速見(짧은 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변심은 책봉의례 직전에 일어났다⁷³. 두 번째 분노는 책봉의례 종료 후 얼마 안 될 때였다.

9월 2일과 9월 3일, 심유경은 조선과의 응어리를 버리자고 두 번에 걸쳐 도

67 《宣祖實錄(第二)》卷70, 宣祖二十八年十二月丁卯(二十九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25-426页。

68 《宣祖實錄(第二)》卷71, 宣祖二十九年(1596)正月朔戊辰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27页。

69 《宣祖實錄(第二)》卷74, 宣祖二十九年(1596)四月庚子(初四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81-482页; 卷76, 六月庚戌(十四日)条, 第535页。

70 《宣祖實錄(第二)》卷73, 宣祖二十九年(1596)三月丙申(二十九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475页。

71 [日] 鹿儿岛县维新史料编纂所编《鹿儿岛县史料 旧记雑録后编三》, 鹿儿岛: 鹿儿岛县, 1982年, 第41-42页。

72 [朝鲜] 黄愼: 《日本往还日记》万历丙申(1596)闰八月二十九日条, 韩国首尔大学校奎章阁韩国学研究院藏写本。

73 [朝鲜] 黄愼: 《日本往还日记》万历丙申(1596)九月初六日条, 韩国首尔大学校奎章阁韩国学研究院藏写本。

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진언했지만, 도요토미의 불쾌감을 초래했다⁷⁴. 9월 5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봉행(五奉行)의 한사람인 마에다 겐이(前田玄以)에게, 사카이에게 향하고 심유경과 사은표 문장의 작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심유경이 이때 조선에 주재하는 모든 일본군의 철퇴를 요청했다. 이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격노를 초래했다⁷⁵.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명의 권위에 승복하고 명과 결렬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천조별폭(進天朝別幅)』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前年自朝鮮使節來享之時，虽委悉下情，終不達皇朝，爾來無禮多多，其罪一也；朝鮮依違約盟，征討之軍中，二王子并婦妻以下虽生擒之，沈都指揮依傳敕命寬宥之，即先可致謝禮者，分之宜也，天使過海之後歷數月，其罪二也；大明，日本之和交，依朝鮮之反間經歷數年，其罪三也。为使本邦之軍士生勞苦，久送光陰者，初知為皇都計略也。朝鮮后于天使來，以是觀之，悉知朝鮮謀詐。件件罪過不一，自大明可有征伐耶？自本邦可征討耶？盖又可隨敕命者也。⁷⁶

『진천조별폭』은,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의 명과 일본의 ‘공시’ 문제에 언급하지 않고, 공격방향을 조선을 향하게 해서 책봉의 실패를 조선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진천조별폭』은 조선의 “세 가지 죄”를 제기하고 조선을 처벌하도록 명에 요청했다. 그와 동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으로의 사은사 파견을 보류하고 “必先通朝鮮后，次可遣使天朝”⁷⁷라고 칭하며 명측에 외교 압력을 가했다. 동시에 조선을 다시 침공하려는 준비를 갖추도록 다이묘들에게 지시했다⁷⁸.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야기한 “선통조선(先通朝鮮)”은 일본과 조선의 양자관계를 잘 대처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이 일본에 왕자를 파견하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위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 원본에도 같은 주장이 있었다.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부산에 되돌간 후 “二三陪臣同渡，面修旧好(2, 3명의 신하가 방일하고 구호(旧好)를 회복한다)”고 바뀌고, 그 이후의 외교교섭은 신하의 방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왕자가 인질로서 방일하는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야나가와 시게노부에 의하면 책봉식 전후의 급변은 “不知谁人谗间而中变(누군가에 의해 이간되어 급변이 일어났다)”⁷⁹는 것이었다. 데라사와 마사나리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今此事与行长辈，终始力

74 [日]松田毅一監译《十六・七世紀イエズス会日本報告集》第I期第2卷，第320页。[朝鮮]黃慎：《日本往還日記》萬曆丙申(1596)九月初四日条。

75 [日]松田毅一監译《十六・七世紀イエズス会日本報告集》第I期第2卷，第321-322页。[朝鮮]黃慎：《日本往還日記》萬曆丙申(1596)九月初六日条，韩国首尔大学校奎章閣韩国学研究院藏写本。

76 《宣祖實錄(第二)》卷82，宣祖二十九年(1596)十一月壬寅(初十日)条，《李朝實錄》第廿八冊，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1年，第627页。

77 《宣祖實錄(第二)》卷83，宣祖二十九年(1596)十二月癸未(二十一日)条，《李朝實錄》第廿八冊，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1年，第660页。

78 [日]鹿儿岛县维新史料编纂所编《鹿儿岛県史料 旧記雜録后編三》，鹿儿岛：鹿儿岛县，1982年，第41页。

79 [朝鮮]黃慎：《日本往還日記》萬曆丙申(1596)九月初六日条，韩国首尔大学校奎章閣韩国学研究院藏写本。

主, 毕竟乖违若此。天朝及朝鲜, 必以我輩, 为饰诈相欺, 我輩何面目见之乎? 男儿生世间, 受此丑名, 宁欲死于此也”⁸⁰. 데라사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의적으로 바뀌어 신용을 잃고 사기의 오명을 초래했다고 인식했다.

왕자의 인질문제를 둘러싼 이후 교섭 단계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王子一往则更无它事矣(왕자만 오면 모두가 해결된다)”⁸¹, “只令来谢, 放还之意可也(다만 와서 지난번에 돌려주었던 일을 사례하면 좋겠다)”⁸²고 이야기하고, 즉 왕자가 방일만 하면 좋다, 방일후에 즉시 조선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심유경에게 왕자의 인질문제의 알선을 의뢰했다. 심유경은 겐으로는 일본측에 “我当替尔禀天朝请罪朝鲜, 必将有以处之(여러분들 대신에 조선을 처벌하도록 천조 조정에 보고한다)”⁸³고 하면서 조선측에는 “我则在这里死不辞, 到京里死亦不辞, 朝鲜王子, 岂有许遣之理? 此则决不可成, 我不敢谎说也(조선 왕자가 파견될 까닭이 없다)”⁸⁴고 표명했다. 심유경은 명 정치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명이 조선 왕자의 일본 파견을 동의할리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사실 명의 속국으로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 조정은 명의 조공 시스템의 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측은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天朝必令遣大臣, 王子”⁸⁵라고 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었다. 명 측에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 병부는 조선이 “礼文当修”이지만 그것은 “令陪臣举行”, 즉 신하를 가게 하면 충분하다는 견해였다. 그 최저 라인인 조선의 신하가 일본에 가서 수교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王子必不可遣(왕자를 파견하면 안된다)”, 일본이 “王子必不当索(왕자의 파견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었다⁸⁶.

다음 해 (1597년) 1 월초 신종의 대치안은 다음과 같다.

该部(兵部)便行文与日本国王撤还釜兵以全大信, 又行文与朝鲜国王即差陪臣以修交好, 谢恩表文还令日本使臣同杨方亨先来复命, 沈惟敬待两国事完回还⁸⁷

명의 신종은 조선이 일본에 왕자를 파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대신에 조선의 신하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과 수교한다는 절충안을 조선 측에 제시했다. 명이 일본측의 왕자인질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조선측에게 일본에 신하를 보내어 일본과 수교할 것을 지시한 것은 대일화평조건으로 타협한 결과다.

80 《宣祖實錄(第二)》卷83, 宣祖二十九年(1596)十二月癸未(二十一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658页。

81 [朝鲜] 黄慎: 《日本往还日记》万历丙申(1596)十二月初八日条, 韩国首尔大学校奎章阁韩国学研究院藏写本。

82 《宣祖實錄(第二)》卷83, 宣祖二十九年(1596)十二月癸未(二十一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659页。

83 《宣祖實錄(第二)》卷83, 宣祖二十九年(1596)十二月癸未(二十一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657页。

84 《宣祖實錄(第二)》卷83, 宣祖二十九年(1596)十二月癸未(二十一日)条, 《李朝實錄》第廿八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657页。

85 《宣祖實錄(第三)》卷84, 宣祖三十年(1597)正月甲寅(二十三日)条, 《李朝實錄》第廿九册,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1年, 第10页。

86 《明神宗实录》卷306, 万历二十五年(1597)正月丙申(初五日)条, 台北: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5722页。

87 《明神宗实录》卷306, 万历二十五年(1597)正月丙申(初五日)条, 台北: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5722页。

신종의 성지가 하달되고 얼마 안 되어 1월 중순에 일본군 가토 기요마사가 7천명을 인솔해 조선에 상륙하여 조선에 군사위협 태세를 전개했다. 반달 후, 일본군의 동향이 베이징에 전해져 명의 구경과도회의(九卿科道會議)가 열렸다⁸⁸. 조정의 논의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이 주류가 되고 평화해결을 주장하는 세력은 점차 힘을 잃었다. 신종은 조선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⁸⁹. 그 후 외교 활동에 있어서 일본의 외교관료가 표면상으로는 자국이 명의 조공 시스템하의 ‘소국’ 이라고 하는 억제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한쪽에서 명이 일본과 조선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명에게 요구했다. 이를 명이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나가며

이상의 실증고찰을 통해 전쟁 중에 ‘기만외교’가 생겼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학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의 외교교섭 문제는 주로 명과 일본, 일본과 조선의 양자관계에 존재했다.

명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측은 명과의 혼인관계의 체결을 통해 자국의 국제지위의 향상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측의 의도가 처음 단계에서 나고야에 간 사용제,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했다. 일본 측의 또 하나의 요구는 ‘구공(求貢)’이며 즉 무로마치 막부시대와 명의 ‘봉공’ 관계로의 복귀다. ‘봉공’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명은 최종적으로 ‘봉’만을 인정했고, ‘조공’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때까지의 ‘봉공’ 양쪽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방침보다는 완화되었지만 ‘봉’을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공’의 실시로 이어지는, 또는 ‘봉’과 ‘공’ 양쪽을 인정한 이전의 교섭 단계의 승낙과 비교하면 대단히 엄격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명조선일본평화조목’으로 ‘봉’을 받아들였지만, 책봉 후에 명과의 조공 관계의 확립을 바랐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관해서는, 명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개입하기 전 일본은 이미 조선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다. 일본은 명에게 몇 번이고 영토 요구를 했다. 혼인관계의 요청이 명 측에게 거부당한 후 일본 측은 조선 영토의 획득을 통해서 이를 보상받으려 했지만, 전부 명의 승인을 얻을 수 없었다. 명의 신종의 책봉척유를 얻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일조선일본평화조목』을 발표해 평화조건으로 타협의 자세를 보여 조선 영토요구의 철회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한편 조선 왕자, 각료의 인질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함과 동시에, 조선 남방 4도를 왕자의 속지로서 조선에 반환하고 일본이 명에 뒤잇는 조선의 또 하나의 종주국이 된다고 하는 요청은 양보하지 않았다.

88 《明神宗实录》卷307, 万历二十五年(1597)二月丙寅(初五日)条, 台北: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5732-5733页。

89 《明神宗实录》卷307, 万历二十五年(1597)二月壬申(十一日)条, 台北: 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 1966年, 第5736-5737页。



일본의 외교활동은 명의 조공 시스템에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조선에 대한 우위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을 내재하고 있었다. 명의 조공 시스템하의 일본과 조선의 관계 조정은 명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명은 책봉실패 후 일본에 신하를 보내고 관계 수복을 도모하려는 지시를 조선 측에 전했을 뿐, 왕자를 인질로서 보내라고 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일본이 군사위협을 비추면 명은 즉시 군사적 대항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일본과 조선의 관계 조정이 어려운 것 외에, 현행 조공 시스템 안에서 일본이 조선에서의 우위적 입장을 갖는 것을 명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것이 명과 일본 쌍방이 새로운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던 큰 요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평화문제는 결국 다시 무력에 호소하게 되었다.



‘임진전쟁’의 강화 교섭

아라키 가즈노리 (荒木和憲,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원문: 일본어, 번역: 유영무, 와세다대학)

요지

‘임진전쟁’의 종결(1598년)에서 조일 국교회복(1607년)까지의 과정을 쓰시마 - 조선 간의 외교 교섭의 전개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조·일(朝·日) 간에 오갔던 외교문서 서계(書契)의 내용을 분석하고, 어떠한 언설, 논리가 강화(講和)를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예를 들면, 1601년 조선은 쓰시마의 소 요시토시(宗義智)에게 서계를 보내어, ‘성인(聖人)의 마음’, ‘왕자(王者)의 도(道)’를 말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지향하고 과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표명하고, 강화의 조건으로서 일본 측의 성의와 반성을 요구한 것이다. 어제까지의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적과 맺는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유교적 논리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외지(外地)인 쓰시마를 ‘내지(内地) 적자(赤子)’와 동등한 존재라고 표현하여 일본측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측은 쓰시마와의 기미지배(羈縻支配) 회복을 전쟁 종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호응하듯 쓰시마 측도 ‘동번(東藩)’의 입장을 표명하는 국면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조선의 기미 정책과 관련하여 조선 - 쓰시마 간 뿐만 아니라 북방의 ‘번호(藩胡)’(여진족)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 예를 들어 조선은 ‘번호’를 회유하기 위해 1600년에 한성(漢城)이 아닌 함흥(咸興)에서 교역을 임시로 허가하였고, 1604년에는 쓰시마에 대해서 부산포(釜山浦)에서 교역을 임시로 허가하였다. 후자는 일본인의 한성 상경의 금지 및 부산포에서 외교·무역이라는 근세 조일관계의 기본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이는 ‘번호’와 ‘동번’의 경제적 욕구에 동일하게 대응하려고 한 기미정책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머리말

본 보고는 임진전쟁(1592-98, 「분로쿠·게이초의 역」 「임진·정유왜란」 「만력의 역」 [鄭·李 2008] 후에 전개된 일조강화교섭(1598-1607)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강화교섭에 관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왔는데, 도요토미정권의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 이탈하여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강화교섭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있다. 1607년 강화를 결정케 한 조선 국서가 쓰시마 다이묘 소씨에 의하여 개찬된 것이라는 설 [田代1983] 을 제기함으로써 해당기 강화교섭에 대한 도쿠가와 정권의 관여가 저평가되었다. 한편 위서설에 반대하는 견해 [高橋1985] 가 제기되어 1604년까지는 소씨가 강화교섭을 주도하였으나, 그후에는 도쿠가와 정권이 주도하였다는 의견 [閔1994] 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현존 조선국서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과학적인 분석결과 역시 개찬(改竄)된 것이 증명되었고 [田代2007], 국서에 첨부된 예조참판의 서계(書契)도 개찬되었다는 것이 논증되었다 [米谷1995].

이러한 국서·예조 서계의 개찬은 소씨가 도쿠가와 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강화교섭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소씨 독자적인 입장에 의거한 교섭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도쿠가와 정권의 외교창구로서의 입장에 의거한 교섭인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 일본의 정보가 여러모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정보의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일본 측 사료로서 《통항일람(通航一覽)》 등의 편찬물이 중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통항일람》은 막부의 다이가쿠노가미(大學頭) 하야시 아키라가 1853년에 편찬한 외교사료집이다. 편리한 사료이기는 하나 선행 편찬물에 의거하여 편찬된 것이므로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사료나 동시대성이 강한 이차사료에 근거하여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에서는 조일간의 왕래외교문서인 서계(‘국서’는 장군-조선국왕의 왕래서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당기 서계 원본 중 현존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게다가 개찬된 것이다. 한편 《조선왕조실록》, 《통항일람》과 쓰시마 번(藩) 외교문서집 《조선통교대기》(松浦允任編) 등에 수록된 서계의 기록문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외 쓰시마 외교문서집 《선린통서》(阿比留恒久編), 쓰시마의 외교승 게이데쓰 겐소의 문안집 《仙巢稿別本》 등에 다수의 서계가 수록되어 있다. 해당기 서계는 현재 필자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110통에 달하며, 쓰시마-조선간 왕래 서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서계를 이용한 연구는 [米谷2002] 의 연구 뿐인데, 기존 서계와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강화교섭은 서계 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전선에서의 구두 전달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흥정인 이상 서계 문면에도 의도적으로 과장 허위가 혼재하므로 초고본·사본 취급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성은 있으나 서계를 통시적·망라적으로 분석하여 쓰시마 소씨·조선정부 쌍방 주장의 저류를 형성하는 의도와 논리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는 쓰시마-조선간 왕래서계 및 일본 측 일차사료나 《조선왕조실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요토미·도쿠가와 정권 동향, 조선왕조를 둘러싼 국제환경을 고려하면서 강화교섭 과정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의 관여정도 및 쓰시마 소씨의 자율성 정도를 밝히고자 한다.

1. 명군 주둔기 강화교섭 (1598 년 10 월 -1600 년 9 월)

(1)1598 년 (게이초 3 · 선조 31 · 만력 26)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8월 18일에 사망하자 9월 5일 도요토미정권의 다이로 (大老) 도쿠가와 이에야스 · 마에다 도시이에 · 우키타 히데이에 · 모리 데루모토는 일본군 철퇴 전 조선에 재진 (在陣) 중인 고니시 유키나가 · 소 요시토시에 게 연서를 보냈다. 그 취지는 “가토 기요마사가 담당하지 않아도 좋으니 급히 무사 (강화) 가 되도록 조절하라. 강화에 관하여 조선 왕자가 오면 좋으나 무리 라면 조물이라도 좋다. 일본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물의 다소는 상관없다” 는 것이었다. 시마즈 요시히로 · 구로다 나가마사 등 조선 재진 중인 다이묘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명령이 일시에 보내졌다 [中野 2006] . 하지만 강화교섭은 좌절됐고, 순천 · 사천 · 노량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일본군 철 퇴가 끝난 것은 11 월 하순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장 유정 · 모국기에 의하여 일본 측에 보내진 인질 49 명 중 2명이 해방되면서 부산 '적진' (왜성) 으로부터 '왜장' 의 서계를 가지고 왔는데 (宣祖實錄<이하 宣祖>31 · 12 · 壬戌<11>), 이 '왜장' 은 시마즈 요시히로였다 [洪 1995] . 서계 내용은 무사히 철퇴한 것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宣祖 32 · 1 · 辛丑<20>), 이를 가지고 온 사람은 '선주 야스치카' 였다. 후세의 사서 (史書) 는 '야스치카' 를 가케하시 시치타유로 추정하고 있다. 가케하시 시치타유는 쓰시마 다이묘인 소 요시토시에 종속되어 있는 특권장인이었는데 전시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통역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미포 (米布)' 를 이전처럼 '세사 (歲賜)' 할 것을 청하였다 (1 · 辛丑) . 전쟁 전 조선국왕은 쓰시마 등 통교자에게 쌀과 콩을 매년 사급하였는데 대일외교 매뉴얼인 《해동제국기》 (1471 년) 에도 세사미두 (歲賜米豆) 로서 명문화되어 있다.

이 무렵 쓰시마와 나고야의 '왜장' 즉 소 요시토시와 데라사와 마사나리가 조선에 수호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간파쿠 (關白)’ 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피로인 증언이 있다 (4 · 丙寅<17>). 도쿠가와 정권으로서는 여전히 '체면' 을 지킬 수 없다면 강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소 요시토시는 시마즈 요시히로의 서계를 명장에게 보내는 기회를 이용하여 쓰시마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강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전쟁 전의 기득권익을 부활시켜 전쟁에 의하여 황폐화된 영지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다만 야스치카는 그대로 구속되어 명나라로 보내진다 (7 · 甲子<17>).

(2)1599 년 (게이초 4 · 선조 32 · 만력 27)

2 월, 조선에서는 일본이 다시 쳐들어 온다는 설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宣祖 32 · 2 · 甲子<14>). 이때 명나라는 조선의 '통왜 (通倭)' 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즉 조선은 명의 '번리'이기 때문에 '왜노'와 '사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통왜' '호시'는 화근의 근원이기에 허락할 수 없으니 명나라에 대한 사대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였다 (2·己巳<19>).

전년도에 명나라의 참획(參畫) 정응태가 조선과 일본이 결탁했다고 날조하여 신종(만력황제)에게 상주(上奏)하였다. 이 무주(誣奏)사건의 여파로 《해동제국기》사본과 생각지도 않던 《해동기략》의 존재가 밝혀져 (2·己巳)⁽¹⁾ 건국 이래 명나라의 문책을 두려워하고 있던 일본과의 '사교(私交)' [木村 2011]가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선조는 일본을 '기미(羈縻)' '하면서 명나라에 '공순(恭順)'하여 왔다고 변명했다 (2·己巳). 조선은 일본(중양정권)과의 교린관계와 쓰시마와의 기미관계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閔 1994·孫 1998], 일본은 기미 대상이 아니었지만 무주사건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교린'이라는 단어 봉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무주사건 이후 명나라가 조선 대일외교를 규제했다는 견해 [李 1997]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鈴木 2011]. 또 명나라는 조선 대일외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기본자세였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閔 1994]. 명나라가 '통왜(通倭)'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이 특이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통왜'가 허락되지 않고 교린을 봉인한 상황에서 조선이 모색할 수 있는 옵션은 기미 뿐이다. 그 후 조선이 쓰시마와의 기미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대응인 것은 물론, 이러한 명분상의 문제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3월에는 '왜자(倭子)' 10명이 부산에 도착하여 (3·丙戌<7>) '수호'의 '회복'을 요청했다 (亂中雜錄 己亥·3). 그들이 지참한 서계에는 '왕자' '배신(陪臣)'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실행되지 않은 것을 질책하고 '재범(再犯)'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조선 측은 “悖慢之語”이 많다고 반발하였다 (위 인용 3·丙戌). 전년 9월에 내놓은 도요토미 정권의 방침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사신은 요시조에 사촌이었다. 그는 소 요시토시에게 봉사하는 이료(吏僚)² 이므로 소 씨의 의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요동도사가 관할하는 광녕(廣寧)에 보내진다 (宣祖 32·4·庚午<21>).

5월, 조선의 정의(廷議)는 영의정 유성룡을 중심으로 강화론이 우세했다 (5·壬戌<15>). 북방 여진(육진번호·건주여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강화는 현실적인 옵션이었다. 그러나 명분론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대간(台諫)의 맹렬한 탄핵이 있어 선조는 강화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인다. 또 유성룡은 정응태무주사건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 북경에 사신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다.

1 閔仁伯의 문집『苔泉集』卷3·龍蛇追錄 및 卷4·撫言에 의하면, 丁應泰는「申叔舟海東紀」「海東諸國紀」를 근거로 해서 무주(誣奏)했다고 한다.

2 「歩行御判物帳」中村儀右衛門所持文書 4通 중 1通은, 1600년에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中村善吉·中村智正에게 발급한 것인데, “高麗有用所、其方父左近助差渡候之處、彼地へ被相留”(조선에 용건이 있어서 당신의 부친 左近助를 파견했는데 현지에서 억류되었다.) 라고 하여 쌀 5石 금부하였다. 또한, 다른 1通은, 1590년에 요시토시가 中村智正의 근친인 吉副左近助에게 立右衛門尉智元の 이름을 하사했다. 이 2通에서 보면, 中村智正의 “父左近助”는 吉副左近助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6-7월 일본의 사신 도시자네(智実)가 인질인 명의 장수 하응조 외 5명과 정희득 외 포로 20명을 송환하였다(7·辛酉<14>). 후세 사료는 도시자네를 유타니 이야스케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소씨의 이료를 배출하는 유타니씨(柚谷氏)라고 본다. 그가 지참한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서계는 7월 14일에 한성에 회송되었다(7·辛酉). 서계는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후계자로서 전대와 변함없이 정권은 반석위에 있다고 하면서 명장과 약속한 '일개 사신'이 일본에 오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측을 질책하고, '사신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태평기책'이라고 다그치고 있다. 또 지난해 요시라(고니시 요시로)·야스치카의 억류에 대하여 “小人之事” “不寬仁之道”라고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강경한 주장을 늘어놓으면서도 양국이 강화하면 쓰시마에 있는 포로를 송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조선의 왕자가 아니고 사절이 일본에 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톤다운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타협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교압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도요토미 정권의 동요를 감추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 측이 “흉적의 공갈(兇賊恐喝之言)”이라고 맹반발하여(7·甲子<17>) 선조는 7월 23일자 자문(咨文)에서 명나라 경리조선군무도찰원에 그러한 사정을 보고하였다(事大文軌). 그리고 변장인 부산첨사의 이름으로 답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첨사가 예조(외교를 관할하는 중앙관청)에 상신(上申)할 생각이 없다고 문전박대하는 내용이었다(위 인용 7·甲子).

또 시게노부의 서계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신 도시자네는 “前日賜米”도 요구하고 있었다(宣祖 32·7·癸亥<16>). 이는 전술한 바 있는 세사미두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쓰시마 측은 도요토미 정권으로부터 강화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서, 종래의 독자적 입장과 권익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8월 도시자네 등은 조선에 거절당한 사절이었지만 명장의 판단에 의하여 한성에 상경하였다. 조선은 경략 만세덕에게 항의하였는데 도시자네 등의 처우를 둘러싸고 분규가 발생하고(8·壬辰<16>, 癸巳<17> 등), 결국 구속되어 명나라에 보내졌다[洪 1995]. 여하튼 조선은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쓰시마 측에 대한 대응으로서 강화는 명나라에 자문하지 않고 '자천'(자주적 판단)할 수 없다는 방침을 표면상으로는 이어가고 있었다(9·庚戌<4>).

(3)1600년(게이초 5·선조 33·만력 28)

전년 말부터 조선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입'했다든가 '관백지임'을 '섭행'(대리)하고 있다 '집정'하고 있다 등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宣祖 32·12·壬辰<17>, 33·1·戊申<3>, 壬子<7>). 그러한 와중에 2월 9일 피로인 김유성(김유평이라고도 함) 등을 태운 배 두 척이 경상도에 도착했다. 그는 '가라츠의 섬 왜적'(테라자와 마사시게)에게 억류되어 있었는데 가라츠를 방문한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4명과 협상하여 송환을 결정하고 화의(和議)를 담당키로 하였다고 한다(사대문계 만력 28·3·20 선조자문안). 사절 억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유성에게 서계와 그 외 피로인(159명)을 부탁하는 방책을 취하였을 것이다. 그에게 부탁한 서계는 소 요시토시·야나

가와 시게노부의 서계 4통(예조 앞, 동래·부산 앞, 요시라 앞) 및 고니시 유키나가·데라자와 마사시게 연서서계(예조 앞)였다. 같은 달 24일에는 일본에서 귀환한 방연룡이 경략 만세덕에게 요시토시·시게노부가 강화를 바라고 있으며 '조선국사신 한명'과 '칙서 한장'(선조의 국서)이 오면 명장으로부터 맡고 있던 질관(質官)을 송환하고 조선의 피로인을 순차적으로 송환할 예정인 것 같다고 보고하고 있다(宣祖 33·2·戊戌<24>).

그리고 4월 '왜선' 2척이 조선에 도착하여 명나라 질관 왕건공·진문동을 포함한 40여명과 피로인 20여명을 귀환하였다(4·甲申<11>). 시마즈 요시히로가 직접 복건으로 소환한 질관 모국과 및 객사한 유만수를 제외하면 질관·질자 전원이 송환된 것이다.

이때 요시토시 사신인 '왜장'이 지참한 것이 3월 28일자 요시토시 서계와 시게노부 서계(예조앞) 및 유키나가·마사시게 연서서계였다(4·丁亥<14>). 요시토시 서계에 의하면 '왜장'의 이름은 시게쓰구인데 후세의 기록은 이시다 진 자에몬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시다 시게쓰구는 쓰시마의 특권장인으로서 전시에는 요시토시의 통사를 담당하였다⁽³⁾. 서계에서 요시토시는 조선 측으로부터 회답이 없는 것, 전년 사신을 억류한 것, 조선 사절이 바다를 건너지 않는 것 등을 비난하고 속히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종전의 실현에 필요하고 그것이 “太閤遺命”(히데요시가 남긴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게쓰구 서계에서는 “太閤相國”의 '유명(遺命)'을 받은 이에야스가 히데요리를 보좌하고 있으므로 정권은 반석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이사(二士)”(왕건공·진문동)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유키나가·마사시게의 서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피로인 소환에 대하여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상신하였는데 히데요리가 요시토시에게 송환을 명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진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에야스의 정권장악 정보가 조선 내에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키나가·마사시게로서는 종전대로 외교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야스는 어디까지나 도요토미 정권의 일원이고 정권이 반석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권이 도요토미가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뜻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中野 2008].

유키나가·마사시게는 회답이 늦어지면 또다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화를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다. 조선과의 강화는 쓰시마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요시토시의 장인 유키나가 사적인 입장에서 강화를 서두르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지만 마사시게가 관여하고 있기에 어디까지나 도요토미 정권 일원 입장에서 확실히 한 것이라고 본다. 정권의 균열이 깊어져 미증유의 내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쓰시마의 공격 가능성[洪 1995·中野 2008]을 품고 있는 명군의 존재는 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때문에 명군의 조기 철퇴가 이루어지도록

3 「歩行御判物帳(かちごはんもつちょう)」(1687)에는 長留甚左衛門(ながどめじんざえもん)이 소지한 1600년(慶長5) 3월 이후의 문서 5통이 수록되어 있다. 1608년 문서에 의하면, 소 요시토시가 “石田甚右(ママ) 衛門尉”에게 九郎右衛門尉(くろうえもんのかみ)·智力(としかた)라는 官途(かんど) 名·実名(じつみょう)(諱)을 하사하고 있으므로 石田調次와 동일인물로 여겨진다. 甚左衛門(尉)·調次는 선대 宗義調로부터 하사받은 이름인데, 새롭게 요시토시로부터 九郎右衛門尉·智力을 하사받은 것이다. 원래는 부내(府内)의 町人인데, 通詞·使者로서의 공적으로 調次(智力) 또는 그 자손이 下級城下士인 ‘歩行’ 격의 신분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록 조선과의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완전 철퇴를 목전에 둔 명군도 철퇴 시에 일본이 후방을 재공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타이밍에서 질관 · 질자의 송환이 실시된 것은 일본 측과 명군 측의 속셈이 일치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서계는 조선 변장이 아닌 명장이 접수하여 경리에 상정된 후 조선정부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수속을 걸쳤으므로 조선정부로서는 정식회답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4 · 己丑<16>). 조선으로서는 북방 여진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군의 완전 철퇴를 주시하면서 일본과의 강화를 현실적인 옵션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회답서계를 보내 강화의 포석으로 삼았는데 서계의 접수를 둘러싼 수속론은 강화반대파를 누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5월 조선은 요시토시 · 유키나가 · 마사시계를 예조참의 (정3품) 과 적례 (대등), 시계노부를 예조정랑 · 좌랑 (정5품 · 정6품) 과 대등하다고 정하고 참의 이름과 정좌랑의 이름으로 회답서계 소안을 비변사가 준비하였다 (5 · 甲寅<12>). 그러나 사신인 이시다 시게쓰구 등이 이미 부산에서 출항하였기 때문에 군관 · 김달, 교정 · 박희근, 통사 · 이만유 등이 쓰시마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5 · 乙卯<13>, 6 · 丙戌<15>).

이때 김달이 지참한 서계 중 유키나가 · 마사시계 앞으로 보낸 예조참의 서계의 초고본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존재한다⁴⁾. 그것에 의하면 강화에 대한 의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일본 측 강화 의사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더욱이 명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강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조선은 명나라의 위세를 빌리는 '차증지계' 및 강화를 뒤로 연기하는 '천취지계'를 모색한다 [李1997].

9월 1일 요시토시 · 시계노부 서계 (김달의 쓰시마 내도 후 송부된 것) 에 대한 회답서계 문안을 비변사가 작성하였다. 쓰시마 측이 “節次致書 (계절마다 보내는 서계)” 를 보낸 것은 성의가 있다고 어느 정도 긍정하고 피로인 전부를 송환하여 “竭誠自效 (스스로 성의를 포함)” 하면 조선도 “自新之路” 를 선택하겠다고 하고 있다 (9 · 辛丑<1>). 피로인 송환만이 성의의 증표이고 그 추진이 강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역으로 제시한 셈이었다.

그러한 조선 측 판단의 배경에는 경략 만세덕이 출국하고 명군의 완전 철퇴가 완료하는 반면, 조선의 '자강지계'가 금방 시작된 군사적 공백상태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9월 15일 도요토미정권을 양분하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발발하였는데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였다. 종래의 강화창구였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서군 수모자로서 배어지고 유키나가의 사위 요시토시도 서군에 가담하였다. 한편 또 다른 창구인 데라자와 마사시계는 동군에 가담하였다. 요시토시

4 对馬藩에서 편찬된 『朝鮮通交大紀』 (松浦允任編) 와 『善隣通書』 (阿比留恒久編, 17세기 말~18세기 초 성립) 에 수록되어 있다. 둘 다 출처를 『靑陸集』 이라고 하며, 후자는 “和好第一番書 石田甚左衛門返翰 出靑陸集” 이라고 한다. 『靑陸集』 이라는 것은 金德謙의 문집인데, 同書卷六·揭帖·日本回書에 同文(案) 이 수록되어 있다. 즉, 松浦允任 또는 阿比留恒久이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조선의 책 『靑陸集』 에서 발견한 것이 된다. 그 서계 一節에 “有問不答亦云非礼、茲布遠情、以報 惠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의 답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礼曹參議의 回答書契(案) 라고 보아도 무난할 것이다. 다만, 문중에 “貴島” 이 아닌 “貴邦” 라고 되어 있으므로 쓰시마의 義智 혹은 調信에게 보낸 것은 아니다 [洪1995]. 따라서 1월 27일부 行長·正成連署書契에 대한 礼曹參議回答書契의 초고본이라고 생각된다.

는 이에야스의 문책을 모면하였지만 조선과 강화를 서둘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中野 2008] .

2. 명군철폐 후 강화교섭 (1600 년 10 월 -1604 년 4 월)

(1) 1601 년 (게이초 6 • 선조 34 • 만력 29)

2월 조선정부는 일본사절이 7개월 간 도래하지 않은 것에 의심을 품게 되고 일본 국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다는 정보가 나돌았다 (宣祖 34 • 2 • 庚午 < 1 >) . 전년 8월쯤 소 요시토시의 사절과견을 마지막으로 사절이 끊어졌다. 이것은 세키가하라 전투의 영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월 '왜자' 1명과 '도환인' 11명이 조선에 도착하여 '일본국중란'이 발생했을 때 고니시 유키나가의 패사를 전달하였는데 (4 • 庚午 < 3 >) , 특히 강사준은 세키가하라 전투 전후의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4 • 壬辰 < 25 >) . 즉 요시토시는 오사카에 있고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쓰시마를 '총령' (정무 지휘) 하고 있는 점, 요시토시는 강화가 성립되면 피로인을 모아서 송환할 예정이라는 점 등이었다. 일본 대란과 유키나가의 패사라는 중대한 정보를 접한 조선정부는 '도환인'의 증언에는 회의적이고 일본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침으로 기울어진다.

그런 복선이 깔려 있던 6월 '왜인' 10명이 부산에 착안하고 남창원과 피로인 250명을 송환하였다. '왜인'이 지참한 시게노부 서계와 마사시게의 서계 등은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위협'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패만지어'는 없었다고 한다 (6 • 甲午 < 28 > , 7 • 丁酉 < 2 >) . 또 남창신의 증언에 의하면 요시토시 • 시게노부는 오사카에 올라가서 작년의 '박희근지래서' (전년 5월 요시토시 • 시게노부에게 보낸 서계)의 취지를 이에야스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亂中雜錄 • 辛丑 6월) . 그 진위는 상세하지 않으나 일련의 강화교섭에는 데라시마 마사시게도 관여하고 있으므로 요시토시 • 시게노부 등은 '도요토미' 정권 일원으로서 이에야스의 의향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⁵.

한편 조선정부에서는 회답서계의 문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7 • 己亥 < 4 >) . 요시토시 • 시게노부의 요구가 이에야스의 진의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였으나 쓰시마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를 양포하고 있으므로 거절하기가 어렵다” , “병력이 적으니 기미에 의하여 쓰시마의 책동을 제지하여야 한다” , “기미를 함에 있어서 먼저 쓰시마의 혁명사죄가 필요하다” 등 쓰시마를 기미하라는 주장이 대세였는데 쓰시마를 기미할 경우 명나라에 대한

5 1603년, 禮賓寺奴의 朴守永가 調信으로부터의 정보라고 증언한 것을 생각하면, 秀頼와 家康은 諸大將을 모아서 회의를 열고 강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義智의 “築城之役”을 全免했는데 이미 4년이 경과했으므로 올해 봄까지 결착이 나지 않는다면 義智은 서둘러서 오사카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宣祖 36 • 3 • 庚辰). 진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강화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정권이 諸大名에게 부과한 普請役을 특례로서 면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설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구도 있었다 (7 · 己亥 < 4 >). 이렇게 쓰시마 기미가 공론화 되고 정식 방침으로 결정된다 [閔2002 · 河2002]. 왜구의 재발 방지 [洪1995] 는 물론 쓰시마를 완충지로 하여 일본의 재공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한 논쟁을 거쳐 작성된 8월자 요시토시알 · 시게노부알 예조참의 정엽의 서계가 『続善隣国宝記』 등에 수록되어 있다. 먼저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서계에 의하면 요시토시의 서계에는 삼한정벌을 시사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 측은 신라 · 백제이래 변경에서 우발적인 트러블이 있었긴 하나 그것은 島嶼間에서 약탈을 하는 자들 짓에 불과하니 나라를 기울여 군사를 일으켜 부당하게 침공하여온 '임진 · 정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반론하고 있다. 그리고 명나라는 정병 20여만을 팔도에 배치하여 둔전 · 교련하고 있으니 천장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선'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뉘우쳐서” '후복'을 바라는 것이라면 수록제장은 천조에 보고할 것이니 “양국의 행운” 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시토시 측은 '도요토미정권'을 배경으로 하여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조선 측도 '거짓말' (宣祖 35 · 1 · 己酉) 을 열거하면서 '차증지계' '천취지계'를 모색하였다. 그러한 흥정을 하면서도 조선은 요시토시에게 “재앙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뉘우칠 것” 을 요구하고 쓰시마와의 강화 의사를 전하였다.

조선의 쓰시마와의 강화를 위한 논리는 시게노부에게 보낸 서계에 응축되어 있다. 즉 200년 이래 쓰시마인을 '내지의 적자'로 여기고 '조빙'(의제적 조공) 하여 오면 '상사'를 두텁게 하여 쓰시마에서 번성하고 있는 초목에 이르기까지 전부 '국가'가 '함육'하여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쓰시마에 대한 기미를 강조한 것으로 '족하의 힘'으로 '일본의 병'(전쟁)을 제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으로서는 쓰시마를 기미하여 완충지대로 삼음으로써 남방의 국방을 견고히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 장래를 응시하여 '기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성인지심'이고, '허인각면'(상대를 용서하고 태도를 고치는 것)이 '왕자지도'라고 하고 나서 일본의 '성신'과 쓰시마의 '참회'가 '충곤한 것'이라면 조선이 이를 '천장'에게 보고하여 천장이 '천조'에 보고할 것이므로 '천'도 강화를 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천'을 최상위에 놓고, '천조'의 책봉을 전제로 하여 일본 · 쓰시마 등과의 교린 · 기미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분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정부 내에서는 태간을 중심으로 강화 반대파가 일본을 '불공대천'의 '구적'으로 단정하는 명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때문에 강화추진파의 명분론은 아마도 반대파의 언설을 누르기 위한 대내적인 의미를 띄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11월이 되니 요시토시는 '도시마사'를 조선에 파견하여 강화를 요청하였다 (宣祖 34 · 11 · 戊午 < 24 >, 辛酉 < 27 >). '도시마사'는 쓰시마의 특권장인인 이데 도시마사(본명 타치바나 이야로쿠자에몬노조)를 말하는데, 전 시에는 아사노 나가마사의 통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조선어에 능숙하여 이후 강

화교섭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⁶. 그가 지참한 요시토시 서계는 전번 이조 서계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의를 표한다”는 문언을 인용하고 나서 이에야스가 늘 철병을 간언하고 있고, '일본'(도요토미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고 강화를 청하고자 하며”, 강화가 이루어지면 '양국의 행운'이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 측에서는 그 내용을 “강화를 재촉하는 공갈 위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11·戊午<24>), 적어도 문면상 강경자세는 사라져 있고 마지막 문언도 종래의 '황공돈수근언'에서 '황공불선돈수근언'으로 바뀌어 한층 더 저자세가 되었다. 그리고 선조는 요시토시·시게노부 진상품에 대하여 호피·표피·궁자 등을 회사하고 도시마사에게는 입쌀 40석을 포상으로 사급하였다(11·戊午、12·壬辰<29>). 이러한 국왕의 사물(회사·특사)은 전쟁전까지는 전통적인 관행이었다. 요시토시 등이 진상품을 준비한 것은 조선 측의 강화의사를 확신하였기 때문이고 [洪1995], 조선 측도 쓰시마와의 기미관계 재개를 즉물적인 형식으로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요시토시·시게노부에게 보내는 예조의 회답서계가 12월 1일자로 작성되었다. 전자는 요시토시의 '권권지의'(충성)를 인정하고 '왕자는 기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다시 명시하고 '혁명개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요시토시는 '혁명개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피로인 송환에 주력하게 된다.

(2)1602년 (게이초 7·선조 35·만력 30)

전년 12월 말부터 2월에 걸쳐 조선정부는 탐적사의 쓰시마 파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인선(人選)에 있어서 유정(송운대사)은 일본인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정이 명나라 안에 있는 경리 슬하에 있다고 속이고 군관 전계심이 유정의 이름으로 된 서계를 쓰시마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 일본사정에 정통한 손문옥 외 '군문시후'로 위장한 통사 김효순을 수행하게 했다. 그런데 유정은 실제로는 하양현(경상도)에 있었기 때문에 쓰시마 측에게 공작이 들키는 것을 우려하여 유정의 스승 휴정(보진, 서산대사)의 이름으로 서계를 보내기로 하였다(宣祖 34·12·壬辰<29>, 35·1·庚戌<17>, 2·丙寅<3>). 다만 휴정은 전시 의병장이었지만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중별이 내려져 있었다(宣祖 25·5·戊辰). 이것은 나라의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승려를 이용한 정찰공작이었다. 이때 경략 만세덕은 쓰시마와의 강화책을 지지하고 그 당부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태도였는데, 조선 측은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확인을 얻지 못 할 경우 종래와 같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中野2008].

전계신이 쓰시마에 간 후인 5월, '왜인' 2명이 이에야스의 명이라고 하면서 피로인을 송환함과 동시에 서계 5통을 지참하였다. 그 응접은 김계신이 담당하였다(宣祖 35·5·乙丑<4>, 丙寅<5>). 5월자 요시토시 앞 예조참의 송준의 서계는 요시토시의 '충성'을 인정하고 사자에게 '상미'를 주었다. 또 6월자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예조참의 송준의 서계에 의하면 그 사자는 이데 도시

6 1583년, 井手弥九가 義智(당시는 昭景)으로부터 “弥六左衛門尉”의 官途名을 하사받았다. 그후 義智로부터 “智正”의 諱를 하사받았을 것이다. 해당문서가 『馬廻御判物帳(うまわりごはんもつちょう)』(1687年)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井手智正 혹은 그의 자손이 城下士の 最上位에 해당하는 ‘馬廻’ 격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사이고 상사의 내용은 '미포(米布)'였다. 게다가 6월자 시게노부에게 보내는 전계신의 서계는 쓰시마에서 '관접'(성의있는 접대)을 받아 손문옥도 그 사정을 명나라에 보고했다고 하면서 명장·휴정에 관한 허설을 엮으면서 가라츠어민(唐浦漁民)의 약탈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것이 강화 성립의 장애라고 시게노부를 책망하고 있다.

7월쯤 시게노부는 도시마사 등 9명을 파견하여 피로인 104명을 송환하였다(宣祖 36·6·甲午). 이때 도시마사는 조총 10자루·산달피·16장·단목 15근·오징어 70단을 상품으로 지참하고 있다. 조선 측은 밀무역과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가(公家)'가 '도매(都売)'한다, 즉 모든 물량을 공무역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宣祖 35·7·己巳<10>). 규모는 작지만 부산에서 공무역이 사실상 재개된 것이다. 1471년 이후 공무역(관청과의 무역)·사무역(특권상인과의 무역)의 장소는 기본적으로 한성이었고, 포소(浦所)에서의 사무역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長 1997·荒木 2017]. 그런데 전후 강화교섭 과정에서 공무역 장소가 한성에서 부산으로 옮겨지자 사무역 장소도 필연적으로 부산으로 옮겨지게 된다. 근세 일조무역의 기본 틀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8월에 들어 '왜인' 14명이 피로인 229명을 송환하자 조선은 '미석(米石)'을 지급하였다(宣祖 35·8·壬辰<3>). 8월자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예조참의 송준의 서계에 의하면 사자 도시마사가 피로인 172명을 송환하니 '귀도의 공손지심'을 인정하여 '미곡'을 지급하고 있다. 피로인 수에서 57명의 차이가 생기는데 도시마사와는 다른 배로 도래한 '왜인'에 의하여 송환된 것이라 본다. 나중에 서술하는 1603년 2월 시게노부 서계에는 '작년 가을 토모히사 귀일'로 되어 있으니 그 '왜인'은 도모히사(타치바나 도모히사)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7-8월에 종래보다 대규모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피로인 송환이 실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11월에도 이테 도시마사 등 20명이 피로인 129명을 송환하였는데, 그가 지참한 서계는 11통에 달했고 '적추심안도'(고니시 유키나가의 여당, 수령명은 사쓰마노카미라고 한다)의 서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종래와는 다른 서계 준비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강화교섭 일체를 요시토시에게 위임하고 1년 내에 강화를 성립시킬 것을 명하였다고 하면서 내년 봄에 '통신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宣祖 35·12·壬辰<5>, 36·6·甲午<9>).

이때 시게노부가 손문옥에게 보냈다고 추정되는 서계에서 '귀국의 작년가을 서계 취지'를 이에야스에게 보고 했다고 하는 것이 주목된다. 즉 전년 8월자 예조참의 정엽의 서계의 취지(강화 의사)가 이에야스에게 보고되었고 이에야스는 강화의 '성불성(成不成)'을 속히 결정할 것을 명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야스의 관여 정도인데, 이 해에는 이에야스로부터 요시토시에게 서장이 보내졌다[德川 1983]. 그것은 12월 30일자 것으로 '고려의 일'은 '별지'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 시게노부가 실제로 정엽 서계의 취지를 이에야스에게 보고했다는 것인데, 서계를 받고 보고하기까지 약 1년간의 공백이 있는 셈이다.

즉 1601년 가을부터 1602년 겨울 사이에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강화에 강한 관심을 표하게 된 것이고, 그 때문에 1602년 4월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요시토

시를 앞지르고 강화를 성립하게 하려고 한 '기요마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요시토시는 강화교섭의 진전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에야스에게 보고할 필요가 생겼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 이에야스의 관여는 적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되고 도쿠가와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강화에 강한 의욕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601년 요시토시 등이 쓰시마 이외의 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피로인을 모으기 시작하여 1602년 이후 조선에 송환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이에야스의 권력 장악 과정과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洪1995]. 후세의 자료로부터 이끌어 낸 견해이기는 하나, 1602년 가을-겨울에 일어난 피로인의 집중적인 송환은 송환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쓰시마 측은 도요토미 정권의 지시하에 '사신과견'을 요청하였는데, 1602년에 처음으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洪1995] 주목할 만하다. 도요토미 정권은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 측으로부터 강화를 청하는 사절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명분이 '통신사'인지 아닌지는 2차적 의미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쓰시마 측이 굳이 '통신사'를 지정한 것은 그 사절단의 규모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연도(沿道)의 다이묘들에게 대규모 사절단의 응접·호송을 분담케 하는 것은 도쿠가와 정권의 다이묘 통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쿠가와 정권은 그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신사를 '조공' 사절로 보이게 하여 장군의 '위광'을 내외에 알리는 데먼스트레이션으로서 이를 이용했으며 그 정권의 성격은 '보이는 왕권' '보여주는 왕권' 이었다고 한다 [토비2008]. '통신사'의 파견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야스의 장군 선포 후 신정권이 수립되기 약 3개월 전의 일이니 역시 도요토미 정권이 요구하고 있는 사절과는 그 뜻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통신사' 지정이 이에야스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요시토시의 발안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정권 수립과 타이밍이 맞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조선 측은 시게노부에게 보낸 손문옥 서계에서 전계신 등의 쓰시마 시찰사의 응접이 '은근 친절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기요마사건'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또다시 시찰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에야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 또 신임 경략인 건달이 강화에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주적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洪1995].

(3)1603년 (게이초 8・선조 36・만력 31)

1월 손문옥과 이데 도시마사의 문답기록이 한성에 보내지고 도시마사는 3월에 재래할 것을 예고하고 귀도하였다 (宣祖 36・1・己未<2>). 그리고 2월 12일 이에야스가 정이대장군 선포를 하여 도쿠가와 정권(바쿠후)이 탄생하였다.

3월쯤 도시마사는 2월 12일자로 추정되는 요시토시 서계와 시게노부 서계를 지참하고 피로인 88명을 송환함과 동시에 강화를 요구하였다 (3・庚辰<24>, 仙巢稿別本). 한편 도시마사는 동을 지참하고 있어 조선정부는 경상도

가 전부를 구입하게 하였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절반을 구매하기로 하고 (3 · 庚辰), 도시마사에게는 상미 60석을 주었다 (4 · 丁亥 < 1 >). 공무역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고 요시토시 서계는 '군문'(경략)에게 보내는 것과 예조에게 보내는 2통이었는데, 신임 경략 건달을 교섭상대로 하고 '내신 이에야스'가 작년에 휴정 서계를 '일람'하였다고 전하며 예조에게 그 후 응대를 요구하고 있다. 건달에 대해서는 시게노부가 '왕경'(수도)에 가서 '내신 이에야스'가 작년에 휴정 서장을 '일람'한 것을 전하고 피로인 송환과 강화요구는 '일본'의 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게노부 서계는 예조앞 · 휴정앞 · 유정앞 · 전계신에게 보내는 4통인데 모두가라츠어민 약탈사건에 대한 변명과 '기요마사건'에 대한 반론을 말하고 있다. '기요마사건'은 같은 해 4월에 가토 기요마사의 사자가 복건에 도착하여 피로인 87명을 송환함과 동시에 '왜서' 2통을 제시하며 조선과의 강화를 요구한 사건이다 (明神宗實錄 万曆 30 · 4 · 12). 이에 대하여 조선 측에서는 이원외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었다 [河 2002 · 貫井 2002]. 시게노부는 강화의 장애요인이 되는 이러한 사안을 해소하여 통신사의 조기 파견을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그가 전계신에게 보낸 서계가 주목된다. 즉 도요토미 정권에서는 "여러 다이묘가 조선과의 강화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강화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이에야스가 국정을 히데요리에게 물려주면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신하로서 따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에야스는 '가이몬'(내대신)을 사임하고 '류영(바쿠후)을 지키기로 하였다. 우리는 배를 준비하여 강화 '성불성'의 통지를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다. 강화교섭이 늦어지면 이에야스의 정권수립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 하는 흥미로운 기술이다. 이것을 그대로 다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강화교섭 지연이 도요토미정권 내에서 이에야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신정권의 수립을 지향하는 이에야스가 스스로 정권을 위하여 강화 성립과 통신사 파견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조선 측은 4월자로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예조참의 이철의 서계에서 '충성심'을 인정하고 '순리수성'(도리에 따라 귀순하다)하면 '천'은 강화를 허락할 것이라고 하고, '기요마사건'은 '악의적인 장난'이라 하며 그 이상의 언급은 피하였다. 또 4월 22일자로 시게노부에게 보내는 손문옥의 서계에서는 군문 건달에게 '죽하가 순리수성한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전하고 있다.

6월 다치바나 도모히사가 조선에 건너가 이에야스가 독촉하고 있다고 하면서 통신사 초빙에 대하여 교섭하였다 (6 · 己亥 < 14 >, 10 · 甲辰 < 22 >). 그가 지참한 요시토시 서계 (6 · 己亥)는 강화교섭 명령을 받은 자는 요시토시 외에 존재하지 않음을 이에야스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진위는 불명확하나 요시토시로서는 '기요마사건'을 없던 일로 하고 조선과의 강화교섭 루트를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월자 시게노부(도요토미 평공) 앞 이조 참의 이철의 서계에서는 '귀도 서계의 내용'을 경략에 급히 보고하였으니 회답을 기다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종래 · 시게노부는 도요토미 성을 부르고 있었는데 이철의 서계를 마지막으로 왕래서계에서 도요토미 성이 사용되

지 않고 요시토시와 시게노부가 강화교섭을 '히데요시가 남긴 명'이라고 칭하는 일도 없어졌다. 이것은 도쿠가와 정권이 명실공히 성립된 후 도요토미 성을 칭하기보다 이에야스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쓰시마 측 외교공세에 대하여 비변사는 강화를 “헛되이 지연”한지가 이미 3년이 지났고 현재의 개시도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금후의 조약 체결을 목적으로 의논을 개시하였다.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찬성파에 한해서도 역시 명나라가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8 · 辛卯 < 8 >, 9 · 丙辰 < 3 >). 그래서 경략 건달에게 자문하였는데 '왜노'가 와서 무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해안 방비에 힘쓰라는 회답을 얻고 있다 (10 · 甲辰 < 22 >). 쓰시마와의 강화 · 개시에 관하여 건달은 용인하는 자세를 표명하였다.

11월 피로인 김광이 귀한하여 그에게 보낸 시게노부 서계와 게이테쓰 겐소의 서계를 지참하였다. 전부 전쟁 전부터의 역사적 경위에 대하여 언급한 시게노부 서계에는 '왕자 일건'(1597년의 강화조건)을 되풀이하는 문언도 보여진다. 다만 겐소의 서계는 강화가 실현되지 못하면 요시토시 · 시게노부는 죄를 면하지 못할 것, '신사가 도해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김광의 조선에 대한 충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발신자에 따라서 문언에 강약은 있으나 요시토시 · 시게노부의 서계는 전부 겐소가 기초(起草)한 것이었다. 의도적으로 서계 문안을 따로 써서 강약을 엮으면서 '신사의 도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4)1604년 (게이초 9 · 선조 37 · 만력 32)

2월, 김광은 이에야스가 또 조선을 공격할 작정이라 하고 요시토시 · 시게노부가 강화를 서두르는 것은 세키가하라의 전투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힘을 실어주어 “同党之禍”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宣祖 37 · 2 · 戊申 < 27 >). 경상도좌수사는 요시토시 · 시게노부는 김광과 말을 맞추고 있으며 본심은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김광에게 일부러 전쟁재발의 가능성을 말하게 하여 조선 측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 (3 · 乙卯 < 5 >). 김광의 증언을 듣고 조선정부는 또다시 쓰시마 시찰에 대하여 의논한다 (2 · 庚戌 < 29 >). 이것이 쓰시마와의 강화(허화)가 성립되는 계기가 되고 [閔1994], 통신사의 파견요구를 중요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洪1995]. 그리고 3월에 이데 도시마사가 도래하여 강화요구를 하자 조선 측은 쓰시마 시찰 요구를 도시마사에게 전하였다 (3 · 壬戌 < 12 >, 乱中雜錄 · 甲辰春)

3. '명나라 간섭' 해소 후 강화교섭 (1604년 5월 - 1607년 5월)

(1)1604년 (게이초 9 · 선조 37 · 만력 32)

조선이 쓰시마 강화 여부를 명조정에 자문하였는데, 5월에 '강신수목(講信修睦)'에 대하여 스스로 정하라는 공식회답이 있었다. (宣祖 37 · 5 · 辛未

<21>) 이에 일본과의 강화교섭 나아가서는 '사교' '교린'의 회복에 명나라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랜 걱정이 사라졌다. 종래 강화교섭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왔는데 이후는 사후보고로 끝내기로 하였다 [閔1994] . 이것으로 조선 측의 강화교섭이 가속화된다. 6월에는 유정 · 손문옥 · 김효순 · 박대근의 쓰시마 파견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데, 그들 일행은 7월에 이데 도시마사에 동반하여 쓰시마에 도착했다 (6 · 戊子 < 9 >, 事大文軌 万曆33 · 6 · 4 宣祖咨文案) . 이 사행의 목적은 쓰시마에 대하여 '허화'(강화를 허하다)의 의사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閔1994] .

7월자 요시토시 앞 예조참의 성의문 서계에 의하면 도모히사가 피로인 50명을 송환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경략 건달도 쓰시마의 성의를 인정했다고 알리고 있다. 그리고 조선도 쓰시마가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 조선을 우러르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만일 일본에 과실이 있다고 해도 쓰시마와 절교할 도리가 없으므로 '왕래교역'을 잠정적으로 허락한다고 전하고 있다(아직도 잠정적 조치라 함은 조약 체결 전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쓰시마가 성의를 계속 표명하면 '제왕이 이를 대하는 도'는 관대한 것이고 '천조'도 영원히 절교하는 일은 없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마와의 강화와 일본과의 강화를 구별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기미의 논리를 전면에서 세우고 있다. 또 유정은 7월 11일자 쓰시마 앞 예조의 유서를 지참하고 있다. 사문서 양식 문서가 아니고 관문서 양식 '유서' (하행문서) [崔1989] 를 발하여 쓰시마에 대한 기미 자세를 명확하게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쓰시마가 “혁신하여 나라에 향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조선 측은 '기아'로 고통받는 쓰시마를 '교시(交市)'에 의하여 지원해야 하고 쓰시마 측은 '귀화지심'을 “스스로 새롭게 할 것”이며 만일 쓰시마의 사자가 '물화'의 '교역'을 요구한다면 '개시' (사무역)를 허락하도록 경상도 관찰사 · 부산 절제사에게 지시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조선은 일본인이 한성에 상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산에서 무역할 것, 그리고 서계의 왕래도 변경의 문무관(동래부사 · 부산첨사)을 창구로 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북방의 육진번호에 대한 개시와 비슷한 관계다. 1599년 번호(藩胡)가 상경 · 진상 · 수상을 청하였는데 (宣祖32 · 6 · 丙午), 이듬해 조선은 상경을 허락하지 않고 함흥(함경도)에서 잠정적으로 진상 · 수상 · 연향 · 개시를 결정하였다 (宣祖33 · 1 · 辛未). 또 1595년 건주여진 누르하치도 통교와 상경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압록강 상류 남해안의 만포(평안도)에서 개시와 서계 교환을 하기로 하였다 [桂2008] . 그러므로 비변사가 북방과 남방의 기미정책을 상호연관적으로 책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건주여진의 세력확대와 청조의 건국에 의하여 북방의 기미는 없어지지만 남방에서는 부산의 왜관을 무대로 근세의 조일통교가 장기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기본틀이 이때 정해졌다.

(2)1605년 (게이초 10 · 선조 38 · 만력 33)

유정일행은 전년도에 쓰시마를 출발하여 교토에서 신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2월 20일(명력 19일)쯤에 후시미성에서 유정은 이에야스와 회견하였는데, 쓰시마 측의 공작에 의하여 조선 측에서 강화를 요구하여 온 것처럼 분장하였다

[米谷 2002] . 이때 유정이 지참한 예조참의 성의문의 서계는 쓰시마번 사서류(善隣通書·朝鮮通交大紀)의 기록문이 아니고 도쿠가와 바쿠후 계통의 모본과 사본의 존재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야스에게 실제로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문언을 비교하면 바쿠후 계통본에는 "다행히 이 뜻을 상세히 내부공에게 말하고" "보진대사 제자 송운" 등 쓰시마번 계통본에는 없는 문언이 추가되어 있다. 즉 요시토시·시게노부 등은 급히 유정 등을 후시미 성으로 급하게 안내한 것으로 보아, 이것이 쓰시마 측의 공작이 아니고 조선 측의 당초 의향임을 꾸미기 위해 성의문 서계를 개찬하였던 것이다. 종래 요시토시 등은 서계 취지를 보고하는 것으로 끝냈는데 이에야스와 회견시에 서계를 제출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개찬을 결심하였다.

어쨌든 이에야스는 이를 일단 강화의 성립이라고 보고 그 은상으로써 대하여 요시토시에게 히젠 타시로(肥前田代) 영지 2800곡을 가증하였다[荒野 1998] . 이때 발표되었다고 추정되는 5월 23일자 요시토시 앞 이에야스 고나이쇼(하달문서)에는 "무사히 강화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라"고 되어 있다(九州国立博物館所藏文書) .

요시토시는 이데 도시마사에게 유정을 조선까지 호송하라도 명하였는데, 유정은 5월 상순에는 귀환하고 있다(宣祖 38·5·乙酉<12>, 丁酉<24>) . 유정이 가지고 온 3월자 예조앞 요시토시 서계(5·乙酉)에 의하면 작년 가을에 손문옥이 와서 '허화강호'(和好)한 것에 대하여 "아주 감격했다"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또 요시토시·시게노부 연명의 별폭(중품목록)에도 '화호' 성립에 대한 감사말 및 피로인 1390명 송환이 부기되어 있다(5·丁酉) . 전년도 가을 유정일행의 방문이 쓰시마와 조선의 강화 성립을 의미하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본국'과 강화하지 않으면 후일 근심거리가 된다고 하는 견제 문언도 보인다. 게다가 시게노부가 예조참의 성의문의 서계를 이에야스에게 전하자 이에야스는 이를 '일람'하고 조선 사절을 후시미에 안내하면 '성심껏' 대하겠다고 하고 속히 "和好之驗(강화의사의 증표)"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5·戊子<15>) 이것은 앞의 이에야스 하달문서의 취지와 부합된다.

조선 측은 '和好之驗'을 통신사로 해석했다. 그리고 선조는 쉽게 통신사를 파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왕자'는 '이적'을 영구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통신사의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5·무자<15>) . 이러한 '왕자'의 논리는 1601년 이래 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후 7월과 10월에 피로인 240명이 송환되고(善隣通書 3,17) , 11월이 되어 노부야스(본명 미나모토 관명 요자메몬,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피관)가 강화 여부에 대한 회답을 재촉하였다. 그는 10월 13일자 요시토시 서계와 야나가와 도모나가(시게노부의 아들) 서계를 지참하였는데, 전자는 피로인 123명 송환하는 것, 9월 29일에 시게노부가 사망하고 '조선과 일본의 강화'를 유훈으로 남겼다고 전하였다. 후자는 망부 노부시게의 유훈에 대하여 말하면서 '신사'를 요청하고 쓰시마는 귀국의 '동변'이라고 표명하며 아주 저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동변'의 표명은 원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사용되었는데[關 2002] , 이는 남북 기미의 회복을 지향하는 조선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

한 수단이 되는 단어였다. 이에 대한 12월자 요시토시 앞 예조참의 서계는 “귀도가 나라를 향하는 성의를 높이 치하한다”고 전하는데 (海行錄 乙巳·12·15), 조선 측의 쓰시마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드러워졌음을 보여준다.

(3) 1606 년 (게이초 11 · 선조 39 · 만력 34)

이에야스가 둘째 아들 (히데타다)에게 간파쿠 (장군직)을 물려준다는 정보가 떠돌고 또 시게노부 사망 후의 쓰시마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조선 정부는 또다시 쓰시마 시찰 당부를 의논하였다 (海行錄 丙午·1·26、宣祖 39·1·壬辰<23>, 乙未<26>). 다만, 시게노부는 임진전쟁시 선봉이었기 때문에 차관의 명목으로 조위하는 것은 명분론에 의한 반대가 강하였으나, 이것은 조선이 '자강지도'를 찾는 수단으로써 어쩔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4·癸卯<5>).

2월 이데 도시마사가 1월 25일자 예조 앞 요시토시·도모나가 (가게나오) 서계 (海行錄 丙午·3·1 등)를 지참하고 조선에 도래하였다. 그 내용은 올봄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강화를 하려는 증표'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4월 도시마사와 통사 박대근이 부산에서 이에야스에게 보내는 국서의 양식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4·乙卯<17>). 도시마사는 이에야스가 둘째 아들에게 국정을 물려주고 關東에 돌아갈 작정이라고 하고 그 때문에 '信使'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재촉했다 (海行錄 丙午·4·15). 그 와중에 노부야스가 요시토시서계·가게나오서계를 (예조 앞, 동래·부산 앞, 송운 앞, 손문옥 앞)으로 지참하고 강화 여부에 대하여 조속히 회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宣祖 39·4·壬戌<24>). 가게나오 서계는 망부 시게노부에게 보낸 부물 (목면 20필·정포 20필 창미 20석)을 '황은'으로 표현하고 전년도보다 더 낮은 자세를 관철하고 있었다.

5월 조선은 예조판서 이름으로 '일본국집정대신'에게 보내는 서계안을 작성하고 일본과의 강화조건으로서 '범릉적 (犯陵賊)'의 인도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5·己卯<12>, 庚辰<13>). 그리고 5월자 요시토시 앞 예조참의 성이문 서계 (善隣通書 17 등)에서 '귀국 집정'에게 '차관 (差官)'을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6월 8일 고자에몬 (관도명) 등 8명이 조선에 도착하여 동래부사·부산첨사 앞 서계를 지참하였다 (6·乙卯<18>). 18일에는 부산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eh모마사가 쓰시마를 향해 출발하고 조선은 상미 100석과 과해량 (過海糧)을 지급하고있다 (6·戊午<21>). 과해량은 《해동제국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쟁전 일본인 통교자에게 지급되었던 것이다.

도시마사와 손문옥·박대근 간 협의내용을 정리한 문답별록을 토대로 조선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도시마사는 이에야스 국서의 요구에 관하여 “제일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으로는 이에야스가 구적 (仇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의'를 적은 서에 '일본국왕'을 명기만 하면 사절을 파견할 수 있다고 응하였다. 게다가 1590년 통신사는 일본으로부터 먼저 '국왕의 사절'이 오기 때문에 회답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도시마사도 이에 납득하였다. 다만 도시마사가 차관의 파견에는 반발하였

으므로 차관이 도시마사와 동행하는 것은 보류되었다 (6 · 戊午 <21>, 癸亥 <26>). '일본국왕' 칭호에 대한 요구는 물론 조선국왕과의 명분상의 대등성을 표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閔1994]. 다만 '일본국왕' 칭호를 고집하는 것이 17세기 전기의 특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 및 '천조'의 책봉을 전제로 하는 교린·기미의 회복을 대일강화의 명분론적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상 '일본국왕' 칭호가 강하게 요구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시마사와 엇갈리면서 24일에는 요시토시·도모나가의 사자 노부히사(본성 후지와라 야나가와의 피관) 등 12명이 조선에 도래하여 예조 앞 서계 2통, 동래·부산 앞 서계 1통 손문옥·박대근 앞 서계 4통을 지참하였다 (7 · 辛未 <4>, 癸酉 <6>). 노부야스가 부산에 도착한 후에 도달했다고 보는 6월 23일자 예조앞 요시토시 서계(海行錄 丙午 · 7 · 4)에서는 도시마사에게서 부탁받은 '두 건의 어려운 문제' 중 이에야스에게 국서를 요구하는 건은 힘들다고 말한 후에 이전 구두로 약속한 8월 중에 '왜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의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손문옥 등과의 교섭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까. 어쨌든 후지 노부히사는 15일 내에 회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 · 癸酉).

7월 4일 조선정부가 차관의 파견중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예조 회답 서계안을 검토하였다. (宣祖 39 · 7 · 壬申 <4>, 海行錄 丙午 · 7 · 4) 이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7월자 요시토시 앞 예조참의 성의문의 서계는 조선 측은 '스스로 먼저 통호할 도리'가 없고 이에야스의 '선치서'(먼저 국서를 보내다)와 '범륜적'(왕릉도굴범)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신자에몬이 조선에 도래하여 이에야스의 국서가 쓰시마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海行錄 8 · 14). 그가 지참한 동래부사·부산첨사앞 요시토시 서계에 의하면, 금월 24일(7월 24일)에 이에야스 국서가 쓰시마에 도착한 것, '飛船'(早船)을 보내니 예조에게 빨리 상신을 부탁하는 것, 예조로부터 답서가 오면 바로 도시마사에게 이에야스 국서를 호송하게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급전개가 있어서 부산에 체류 중인 전계신·손문옥·박대근 등이 17일에 출항하여 이에야스 국서를 확인하러 향했다. 그리고 하순에 쓰시마 부중에서 요시토시·시게노부·켄소 등과 협의하여 이에야스 국서의 '불손'·'위격'을 지적하였다. 요시토시 등은 '개서'의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그에 응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9 · 己卯 <13>, 庚辰 <14>).

한편 조선 정부 내에서는 강화가 '제왕의 대이지도(제왕의 오랑케를 기다리는 도리)'에 맞는 것으로 일본 측이 두가지 조건에 응하기만 하면 회답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우세를 점하게 되고, 강화 후 조약체결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즉 전쟁 전까지는 깊은 곳에 있는 왜(쓰시마 외의 지역에 있는 일본인)와의 통교권을 삭감한 것, 일본사절의 접대 장소를 한성·부산 두 장소가 아니고 부산에 한정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8 · 己未 <23>, 9 · 己巳 <3>). 후자는 1604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9월 13일 손문옥으로부터 급보가 한성에 도달하였다 (9 · 己卯 <13>). 17일 조선정부는 도모마사의 내방에 대비하여 응접소를 급히 지을 것을 결정하고 이에야스의 국서에 대한 반서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9 · 癸未 <17>). 그

리고 10월 2일에는 회답사로서 정사·부사·종사관에 여우길·경섬·정호관이 결정되고 (10·丁酉<2>), 그후로는 사절단의 구성이나 증여품의 선정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된다. 5일, 전계신로부터 요시토시가 이에야스의 국서를 고쳐 왔다는 급보가 왔다 (10·庚子<5>). 이 때문에 7일에는 국서 접수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산에서의 국서 접수는 선례가 없으므로 경관을 접위관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10·辛丑<6>). 한편 11일에는 '범릉적'의 '헌포(獻俘)' '곡묘(告廟)'의 의식을 둘러싼 의견 청취가 진행되었다 (10·丙午<11>, 戊申<13>, 辛亥<16>).

11월 2일에 도시마사가 조선에 도래하여 이에야스 국서와 '도왜서계'를 전달함과 동시에 11월에 '강화사절'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였다 (11·乙亥<10>, 丁丑<12>). 도시마사가 지참한 9월 7일자 이에야스 국서 (海行錄 丙午·11·12)에는 '배복(拜復)'이라는 회신 용어가 있었다. 그에 앞서 이에야스 국서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사헌부는 선조로부터 이에야스에게 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왜 '배복'을 하여왔는지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10·庚申<25>), '배복'이라는 문언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었다. 또 도시마사가 지참한 9월 26일자 예조앞 요시토시 서계 (海行錄 丙午·11·12)에서는 이에야스가 개서에 응하므로 도시마사에게 시켜서 국서와 '범릉도적' 2명을 배달할 것, 도모나가(가게나오)가 이에야스에 대하여 '각하보장'(7월자 예조 참의 성의문 서계)을 '증표'로 '강화 사절'이 올 겨울 바다를 건넌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지연되지 않으면 '국가의 행운'이라고 전하였다. 더욱이 동래부사·부산첨사 앞 요시토시 서계 (仙巢稿別本)에서는 "귀국의 신사가 농월 중순에 바다를 건너는 것"은 '행사'이고 "다년간 진심을 다하여 이제 길한 소식을 듣는다"라고 기쁨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음서'(도쿠가와 정권 문서)가 도착하였으니 도모나가가 5일에 왕경 '교토'에 들어가 18일에 간토(에도)로 향했다는 것, 토모나가는 멀지 않아 쓰시마에 도착하니 속히 '신사해람지계'를 취하고 싶다는 것을 전하였다.

한편 조선정부는 17일 '범릉적' 2명의 사정 청취를 하였는데, 그들이 '범릉적'으로 위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11·壬午<17>). 21일에는 쓰시마 앞 회답서계안에 성실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토되는 한편, 이에야스에게 보내는 답서에는 '범릉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제왕대이지도'라고 인식했다. 조선 측은 국서위조와 '범릉적'의 위장을 간파는 하였지만 겉으로는 강화의 명분이 주어졌다. '제왕대이지도'라는 절대적인 논리를 준비한 이상 '이'가 행하는 위계는 어떤 지장도 받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12월 22일 이에야스와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답서안이 검토되었다 (12·丙辰<22>).

(4)1607년 (게이초 12·선조 40·만력 35)

정월 4일에 조선에서는 '회답쇄환사'라는 명칭이 책정되었고 2월에 사절 일행은 쓰시마에 도행하였다 (海槎錄 万曆35·2·29). 이때 정월 날짜로 이에야스 ('일본국왕') 앞 선조국서, '일본 집정' 앞 예조판서 오억령 서계, 요시토시 앞 예조참의 성의문 서계, 사이쇼 죠타이 앞 유정 서계 등 4통을 지참하였다 (海槎錄 1·12). 성의문 서계에서는 '범릉적' 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신

의'에 의해 용서한다고 했다.

요시토시 등은 사절에 수행하여 윤 4월에 에도에 도착하였다. 5월 6일에 사절은 에도성에 올라 장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와 면회하고 선조의 국서를 봉정하였다. 이때 봉정된 국서는 요시토시·도모나가 등이 통사 박대근과 결탁하여 개찬한 것으로서, 답신 문언의 '봉복'을 '봉서'라고 고치거나 이에야스가 전쟁에 관하여 사죄를 한 듯한 문언이 삭제되어 있었다 [田代1983]. 이 개찬 국서는 근년의 조사에 의하여 용지가 죽지와 저지를 붙인 조잡한 것이고 문자도 단정한 글씨가 아니고 종이에 얼룩도 있었다고 판명되었다 [田代2007]. 또 집정 (혼다 마사노부) 앞 예조판서 오백령 서계도 개찬된 것이었다 [米谷1995]. 형식상으로는 완전히 조선 서계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었는데 외교경험이 적은 도쿠가와 장군은 그것이 위서라는 것을 간파할 수 없었다.

결국 쇼군 히데타다는 이것을 강화의 성립이라고 보고 국서 (답서)를 사절에게 맡겼다. 또 5월 11일자 오역령 앞 혼다 마사노부 서계 (海槎錄 6·20 등)에는 히데타다가 "멀리 있는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피로인에게 "귀환에 대하여 엄명을 내리므로" 그 '관유지명'에 보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시토시·도모나가는 5월 2일자로 예조 앞으로 서계를 보내고 사절 일행이 4월 12일에 상락하여 에도에서 히데타다와 면회한 일, 5월 6일 에도를 출발한 일을 속보하고 있다. 그에 맞추어 노부야스는 나가도에 재류 중인 피로인 12명을 송환시키고 있는데 피로인 송환에 관한 바쿠후의 명이 쓰시마 이외의 지역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이었다.

6월에도 요시토시·시게노부는 예조 앞으로 서계 (善隣通書 8 등)를 보내는데, '귀 사절은 양국 강화교섭의 증표'로서 금후도 꼭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더욱이 쓰시마는 옛부터 '귀국의 동변'이라고 하면서도 '귀찮지 않은 일' (간단한 일)만 '국왕에게 빙입하는 것'은 이름만 '동변'일 뿐이고, 실은 '동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조일 강화의 성립을 조기에 이끌어내기 위하여 표명한 '동변' 언설은 강화 성립 후 이번에는 새로운 조약 (무역협정)의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언설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8월 28일자 요시토시 앞 예조참의 박동설 서계에서는 회답쇄환사의 파견에 따른 '귀도 반행의 정성'과 '칸파쿠 접우의 정성'을 치하하면서도 '양국화호'는 일본 측의 '성신'에 달렸다고 하며 쓰시마와의 신조약 체결에 대하여 이 단계에서는 회답을 피하고 있다. 요시토시는 비 정례 사절 파견에 따른 부산에서의 무역 (공무역 사무역)을 허가 받았으나 새 약조를 체결 (1609년)하고 항상적 세견선 (연간 무역 회수의 보정)을 부활 시키는 데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였다.

맺음말

강화교섭에 있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관여와 쓰시마 소씨의 자율성에 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598년-1600년 전반'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정권의 '다이로'로서 강화에 관여하였는데, 정권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 사절이 일본에 올 것을 요

구하였다. 요시토시는 그 지시를 받고 사절을 요구함과 동시에 쓰시마 기득권익의 부활을 교섭하였다. 한편 조선은 명나라의 완전 철퇴가 진행되는 와중에 남북으로 군사적 대응에 몰려 여진과 쓰시마를 대상으로 하는 기미의 회복에 착수하였다.

'1600년 후반-1601년' 도쿠가와 정권이 분열되고 세키가하라의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혼란을 종식시키고 패권을 확립하여 가는데 강화교섭에 관한 관여정도는 적었다. 한편 조선은 '제왕대이지도'라는 강화 명분을 구축하고 쓰시마에 대한 기미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요시토시는 성의의 증표로 삼기 위하여 피로인 송환을 더 추진하게 되었다.

'1602년-1603년' 신정권의 수립을 지향하는 이에야스가 강화 교섭에 본격적으로 관여하였고 요시토시는 도쿠가와 정권을 위하여 '통신사' 초빙을 교섭하였으며 피로인 송환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선은 쓰시마에 대한 기미의 일환으로 부산에서의 공무역에 잠정적으로 허가하였다.

'1604년-1605년' 조선인 피로인 김광의 증언을 계기로 대일 강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명나라로부터 강화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얻었다. 그리고 유정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정례에 없는 사절의 내항에 따른 부산에서의 무역(공무역·사무역)을 허가하였다.

쓰시마 측은 이를 쓰시마-조선간의 강화 성립이라고 인식하고, 유정을 후시미성까지 유도하여 이에야스와 면회하게 하였다. 유정이 일본에 온 목적은 일본 측의 논리로 바뀌었고 예조의 서계도 개찬되어 쓰시마의 정보 조작이 개재하고 있었다.

'1606년-1607년' 이에야스는 정식 조선 사절을 초빙하도록 요시토시에게 명령을 내렸다. 요시토시는 조선 '동번'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선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였다. 조선은 이에야스의 국서와 '범릉적'의 송치를 조건으로 사절 파견에 응하였다. 요시토시는 국서를 위조하여 도내 죄인을 '범릉적'으로 위장하여 대응하였다. 조선은 위계를 간파하였으나 일단 명분은 섰기 때문에 '제왕대이지도'라는 논리에 의하여 대일 강화를 결정하고 회답 쇄환사를 파견하였다. 요시토시는 조선 국서를 개찬하는 것으로 이에야스 국서를 위조한 사실을 숨기고 이에야스·히데타다는 강화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조선은 쓰시마에 대하여 기미 재개를 선언한 후 종래의 권익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흐름은 1609년 기유조약 체결로 이어지고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데 1604년 부산에서의 무역 허가가 강화의 성립인 것으로 조선·쓰시마 양쪽 다 인식하고 있었다. 쓰시마 측은 이렇게 제 권익의 부활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면서 1602년 이후는 도쿠가와 정권의 지시를 받아 '통신사' 초빙에 동분서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모순은 국서위조라는 위계로 뛰어 넘었고 조선 측도 '제왕대이지도'라는 논리로 묵인하였다. 조일 강화 교섭에 있어서 도쿠가와 정권의 관여는 표면적인 것이었고, 쓰시마의 소씨가 행하는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고드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 荒木和憲 2008 「対馬宗氏の日朝外交戦術」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編『地球的世界の成立』吉川弘文館)
- 荒木和憲 2017 「粉粧粉青沙器の日本への流入経路に関する一試論」 (『海洋文化財』10)
- 荒野泰典 199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 長節子 1997 「一五世紀後半の日朝貿易の形態」 (中村質編『鎖国と国際関係』吉川弘文館)
- 河宇鳳 2002 「国交再開期における松雲大師の活動とその意義」 (仲尾宏・曹永祿 2002)
- 木村拓 2011 「朝鮮王朝世宗による事大・交隣両立の企図」 (『朝鮮学報』221)
- 桂勝範 2008 「壬辰倭乱とヌルハチ」 (鄭杜熙・李璟珣 2008)
- 洪性徳 1995 「壬辰倭亂 직후日本の對朝鮮講和交渉」 (『韓日關係史研究』3)
- 洪性徳 2013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41)
- 鈴木開 2011 「丁応泰の変と朝鮮」 (『朝鮮学報』219)
- 崔承熙 1989 『増補版韓国古文書研究』 (知識産業社)
- 関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孫承喆 1998 『近世の朝鮮と日本』 (明石書店)
- 高橋公明 1985 「慶長十二年の回答兼刷還使の来日についての一考察」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92・史学31)
- 田代和生 1983 『書き替えられた国書』 (中央公論社)
- 田代和生 2007 「朝鮮国書原本の所在と科学分析」 (『朝鮮学報』202)
- 田中健夫 1975 『中世対外関係史』 (東京大学出版会)
- 鄭杜熙・李璟珣 (編著) 2008 『壬辰戦争』 (明石書店)
- 徳川義宣 1983 『新修徳川家康文書の研究』 (吉川弘文館)
- 仲尾宏・曹永祿 (編) 2002 『朝鮮義僧将・松雲大師と徳川家康』 (明石書店)
- 中野等 2006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吉川弘文館)
- 中野等 2008 『文禄・慶長の役』 (吉川弘文館)
- 中村栄孝 1969 『日鮮関係史の研究』中 (吉川弘文館)
- 貫井正之 2001 『豊臣・徳川時代と朝鮮』 (明石書店)
- 貫井正之 2002 「義僧兵将・外交僧としての松雲大師の活動」 (仲尾宏・曹永祿 2002)
- 関德基 1994 『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関係』 (早稲田大学出版部)
- 三宅英利 1986 『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文献出版
- 米谷均 2002 「松雲大師の来日と朝鮮被虜人の送還について」 (仲尾宏・曹永祿 2002)
- 米谷均 1995 「近世初期日朝関係における外交文書の偽造と改竄」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41・第4分冊)
- 李啓煌 1997 『文禄・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 ロナルド・トビ 1990 『近世日本の国家形成と外交』 (創文社)
- ロナルド・トビ 2008 『「鎖国」という外交』 (小学館)

(감사의 말)

이 보고는 2017년도 인간문화연구기구 젊은축파견 프로그램 및 2017년도 기당 한국연구기금(재단법인 한일문화교류기금)에 의한 연구성과의 일부임을 밝힌다.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허태구 (許泰玖, 가톨릭대학교)

요지

이 논문은 병자호란 전후 조선의 대응을 ‘禮의 실천’이란 관점에 주목하여 재검토한 연구이다.

淸은 남한산성을 포위한 이래, 자국의 전력이 속속 강화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갔다. 主和派의 주장대로 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조선이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남한산성 농성시 講和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영토의 할양이나 전쟁 배상금 등의 문제가 아니라 國書의 형식과 항복의 절차였다. 淸은 稱臣을 표기한 國書, 인조의 出城 항복, 斥和派의 압송을 집요하게 조선에 요구하였다.

당시 강화 협상에 임한 조선의 君臣이 끝까지 고민하였던 문제는 항복의 여부라기보다, 禮를 통해 구현되는 항복의 형식이었다. 대다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對明義理라는 大義와 稱臣을 표기한 국서의 형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斥和派는 戰勢가 확연히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대명의리의 고수를 외치며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였다. 이들이 우려하였던 것은 明의 問罪나 보복이 아니라, 대명의리의 포기가 상징하는 도덕과 문명의 붕괴이자 天下와 後世의 평가였다.

1. 당대의 맥락에서 병자호란 보기

인조 15년(1637) 1월 30일¹ 丙子胡亂은 국왕의 出城 항복이라는 조선 왕조 개창 이래 유례없는 사태와 함께 막을 내렸다.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커다란 失敗의 反面敎師로서 인식하면서, 병자호란 연구를 통해 외교적²·군사적³·정치사상적⁴ 교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⁵ 병자호란이란 주제의

1 본고의 날짜 표기는 음력 날짜를 사용한다.

2 대표적 연구로는 韓明基,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3 대표적 연구로는 柳在城, 1986,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4 대표적 연구로는 金容欽, 2006, 『朝鮮後期政治史研究Ⅰ: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和 變通論』, 해안

5 위의 세 연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병자호란 발발과 참패의 원인으로 집권 세력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집권 세력을 포함한 군 지휘관들의 무능과 비겁을 패전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는 해석은 『仁祖實錄』을 비롯한 『丙子錄』(羅萬甲) 등의 당대 기록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록들 대부분이 현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광해군과 최명길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성상, 관련 연구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라는 현재적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흔히 참조되기도 한다.

전쟁 전후 대외 교섭과 戰況의 개략적 전개를 究明한 선행 연구의 업적은 크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쟁의 敗因과 斥和論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척화론자들을 포함한 당대인에 대한 전반적 오해를 拂拭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오해는 패전의 원인 또는 책임론과 결부되어 對明義理⁶란 事大主義의 가치에 매몰되어 국제 정세를 오판한 척화론자들, 이른바 崇明排金이라는 仁祖反正의 몽상적이고 무책임한 명분에 사로잡혀 나라를 敗亡 직전까지 몰고 간 무능한 국왕 仁祖와 집권 세력이라는 통념적 이해를 존속시켰다.⁷ 반면, 광해군과 최명길은 三田渡의 굴욕을 미리 내다보고 방지하기에 힘썼던 극소수의 先知者이자 국가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예외적인 정치가로서 높게 평가되었다.⁸ 병자호란의 어이없고 참담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해석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전쟁을 수행한 당사자들이 지금의 우리와는 매우 다른 신념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평가이다.

異民族의 침입에 대한 韓民族의 항쟁이란 시각에서 본다면, 병자호란의 戰史에서 긍정적 교훈을 줄 만한 인물, 자랑스러워할 만한 승전 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 한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1592~1598년의 임진왜란, 1619년의 사르후 전투(薩爾滸之戰)⁹ 1627년 정묘호란이란 연이은 안보적 위기를 겪은 후 10여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반복된 병자호란의 참패와 척화론의 沸騰, 대명리론의 존속이란 현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對明義理를 결사적으로 고수하려 했던 조선시대인들을 성급하게 비판하기에 앞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면,¹⁰ 17세기 전반을 살았던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당대의 사료와 현상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管見이지만, 병자호란의 역사성과 당대인의 내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의 실마리는 그들의 中

6 明에 대한 義理. 對明義理論에서 따온 것. 대명리론은 조선 후기 사료에 흔히 보이는 ‘明에 대한 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類의 주장을 지칭하는 근대 학자들의 助語이다. 학자들에 따라 大明義理論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 대명리론의 전개에 대해서는 劉奉學, 1988, 「18·9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清意識의 推移」 한신논문집 5, 한신대학교; 李泰鎮, 1994, 「조선 후기 對明義理論의 변천」 『아시아문화』 1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鄭玉子, 1998, 「조선 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00~116쪽 등 참조. 단, 필자는 대명리론이 명이 멸망하는 1644년 이후 對清復讐論과 함께 제기되었다는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정옥자, 1998, 앞의 책, 15쪽). 後金(淸)과의 화친을 반대하는 斥和論의 목적은 다름 아닌 明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척화론은 대명리론에 포섭되는 개념이 된다.

7 이러한 시각에 대한 비판은 吳洙彰, 2005, 「淸淸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시민강좌』 36, 일조각, 102~112쪽 참조.

8 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광해군 중립 외교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도 이미 학계에 제출된 바 있다(吳洙彰, 2005, 앞의 논문, 109~112쪽; 桂承範, 2005, 「조선감호론 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 노선 논쟁」 『朝鮮時代史學報』 34, 조선시대사학회, 27~29쪽).

9 명과 후금이 광해군 11년(1619) 遼寧省 蘇子河 유역에서 遼東 지역의 패권을 놓고 벌인 전투. 조선은 이때 명의 요청으로 정예 鳥銃兵 1만 명 이상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朝·明 연합군은 후금군에 의해 격파 당하였고, 조선군 사령관인 都元帥 姜弘立은 패잔병과 함께 후금에 항복하였다.

10 물론 이같은 필자의 시도가 척화론을 견지하였던 인조를 포함한 당시 사대부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은 아니다. 병자호란의 피해는 당시의 백성들, 특히 노약자와 부녀자들에게 집중되었다. 인조정권에 대한 爲政者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평가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밀하게 究明되어야 한다.

華¹¹ 인식과 밀접히 연관된 ‘禮의 실천’이란 쉼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다.

2. ‘禮의 실천’을 둘러싼 조선과 淸의 갈등

조선과 후금은 정묘호란 이후에도 歲幣의 수량, 조선인 포로의 刷還, 開市 무역, 요동에서 도망한 漢人 난민의 수용, 평안도 철산 앞바다 巨島에 주둔 중인 明軍에 대한 지원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긴장과 갈등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다. 조선이 근본적으로 명과의 ‘君臣之義’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인식한 반면에, 후금은 궁극적으로 명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재 충돌은 불가피하였다.¹²

충돌의 방아쇠를 격발시킨 것은 홍타이지 (Hongtaiji)의 황제 즉위였다. 인조 14년 (1636) 2월 후금은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여, 황제 존호 進上에 형제국 조선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은 조선 朝野의 격렬한 반발만 불러 일으켰고, 후금의 사신단은 쫓기듯 漢陽을 떠나야만 하였다. ‘하늘 위에 두 태양이 뜨지 않듯이 하늘 아래 황제는 大明의 황제만 존재한다’는 것이 당시 조선 士大夫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 믿음이었다. 척화론자였던 洪翼漢은 上疏를 올려 후금의 汗이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것은 알 바 아니지만, 존호를 올리는 데 조선이 참여하는 것은 절대 不可하다고 주장하였다.¹³ 홍타이지를 황제로 인정하는 것은 先代王을 포함하여 天下 사람들과 後世에 부끄러움을 남기는 행위이며, 對明事大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명의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자신의 내재적 · 당위적 기준에 의해 주장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같은 해 3월 1일 인조는 척화의 뜻이 담긴 下諭를 내리며 “強弱과 存亡의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正義로써 결단을 내려 그 글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⁴ 이 글이 바로 귀환하던 후금 사신단이 탈취하여 병자호란 開戰의 빌미로 삼았다는 유명한 敎書로서, 존호 진상에 동참을 요청한 후금의 사신이 아무 성과 없이 漢陽을 떠난 직후에 반포되었다. 인조는 후금 사신단이 압록강을 넘어간 직후인 3월 20일에도 求言의 敎書를 내리면서 다시 한 번 “強弱을 따지지 않고 義에 의거하여 배척하여 끊었으므로, 전쟁의 禍가 조만

11 中華는 본디 황하 유역에서 중국 고대 문명을 이룩한 華族(또는 夏族)의 자기우월적 인식에서 기원하였다. 이후 중화 인식은 배타적 자기 정체성으로도 기능하여, 중화와 夷狄의 구분, 즉 華夷의 구분을 낳게 되었다. 중화의 3대 요소로는 ① 漢族이라는 인종, ② 중국 또는 中原이라는 지역, ③ 儒敎 이념에 바탕을 둔 禮敎 문화가 언급된다. 한편 중화 문화를 일찍부터 수입하여 발전을 도모하였던 주변 민족이나 국가는, 자신들을 중화 또는 小中華로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자부심을 갖는 패턴을 고대로부터 보여 왔다. 17세기 조선인의 중화 인식은 對明義理 또는 對明事大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12 본 장은 필자 박사학위논문의 2장 1절과 3절과 이후 발표한 여러 논문들을 조합하여 서술하였다(許泰玖, 2009,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3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2월 丙申(21일)

14 『仁祖實錄』 권32, 仁祖 14년 3월 丙午(1일) “上下諭于八道曰…今者此虜 益肆猖獗 敢以僭號之說 託以通議 遽以書來 此豈我國君臣所忍聞者乎 不量強弱存亡之勢 一以正義斷決 卻書不受…”

간에 닥칠 것이다.” 라고 예고하였다.¹⁵ 앞의 두 敎書에서 인용된 부분에 주목하면, 인조정권이 국제 정세와 자국의 군사력을 오판하여 아무런 대비 없이 전쟁을 자초하였다는 일반의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앞서 보았듯이, 인조대 대외 정책의 배경에는 척화와 대명의리에 기반한 국내 여론의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였다. 이것을 부정할 경우 야기될 체제 위기의 폭발력은, 이른바 중립 외교가 초래한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과 이를 틈타 擧兵에 성공한 仁祖反正이 반증한다.

전운이 더욱 고조된 인조 14년(1636) 11월, “방어할 준비를 하고자 하면 형세가 이와 같고 (농사회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쟁 준비가 완벽하지 않고: 인용자), 羈縻할 방책을 세우고자 하면 이름 있는 선비의 무리가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다. 적은 오고야 말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¹⁶라는 인조의 한탄은 당시 조선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¹⁷

마땅한 군사적 대안이 不在하였던 조선은, 후금 사신단의 귀환 이후에도 羅德憲과 李廓을 瀋陽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양국 관계를 이전처럼 형제 관계로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파견은 오히려 홍타이지의 조선 親征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인조 14년(1636) 4월 11일, 황제가 된 홍타이지의 즉위를 선포하는 의식이 瀋陽故宮 밖 南郊의 天壇 주변에서 열렸다. 나덕헌과 이확 역시 황제 즉위를 축하하는 신하들의 행렬에 강제로 끌려 나갔지만, 구타를 당할지언정 拜禮만은 끝내 행하지 않았다.¹⁸ 이튿날에는 東郊에 강제로 끌려가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조상들에게 고하는 제례에 나갔으나 끝내 배례를 행하지 않았다.¹⁹ 홍타이지는 이들을 처형할 경우 자신이 먼저 丁卯年の 盟約을 어겼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나덕헌과 이확을 그대로 되돌려 보냈다.

이들은 淸太宗 홍타이지가 인조에게 보낸 國書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서의 형식과 내용이 참람하였으므로 국경 근처인 通遠堡에 도착했을 때 그 국서를 몰래 雜物 속에 버려두고 나왔다. 그들은 국서의 내용만 베껴 가지고 귀국하였다. 청 태종의 국서는 大清의 皇帝를 자칭하고 조선을 ‘爾國’이라 호칭하였으며, 국서 말미에 찍은 印文도 後金國 汗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⁰ 다시 말해, 청의 국서는 前例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前禮를 위반한 것이었다. 조선의 사신단이 곧이 眞本 국서를 두고 필사본을 갖고 온 것을 살펴보면, 皇帝號를 僭稱한 국서가 당대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은 물론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좀 더 나아가 대명

15 『仁祖實錄』 권32, 仁祖 14년 3월 乙丑(20일) “敎書曰…噫 丁卯之變 羈縻之計 蓋出於不得已也 十年之間 恐喝日甚 今乃以不忍聞之說 託以通議而嘗我 我不計強弱 據義斥絕 兵革之禍 迫在朝夕…”

16 『仁祖實錄』 권33, 仁祖 14년 11월 壬子(12일) “…上曰 欲爲守禦之備 則形勢如此 欲爲羈縻之策 則名士輩皆曰 不可 賊來而已 將如之何”

17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명의 援兵 파견 요청을 거부했던 광해군은 물론이고, 인조반정의 집권 세력도 後金(淸)의 군사적 위협과 조선의 전력 열세를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어책을 집권 초기부터 고민하고 추진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不備와 군비 확충에 따른 民心 이반의 우려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을 끝내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한다(許泰玖, 2012, 「인조대 對後金(對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1, 조선시대사학회 참조).

18 『淸太宗實錄』 권28, 天聰 10년 4월 乙亥(11일); 羅萬甲, 『丙子錄』, 「記初頭委折」

19 스즈키 카이(鈴木開), 2017, 「丙子の「直前の朝淸交渉について(1634-1636)」, 『駿台史學』 159, 駿台史, 52~54쪽 참조.

20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4월 庚子(26일)

의리와 연관된 당시 조선 사회 일반의 절대적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귀국 이후, 이들은 청 태종의 僭越한 국서를 받은 즉시 개봉하여 수정을 요청하거나 당당하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罪目으로 오히려 탄핵까지 받고 유배길에 올라야만 했다. 備邊司마저도 ‘拜禮하지 않은 것은 정상을 참작할 만하지만, 이들이 義理에 의거하여 자결하지 않은 점은 놀랍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여야만 할 정도였다.²¹ 나덕헌과 이확이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는 지금과 확실히 달랐던 것이다.

여하튼,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배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청 태종의 황제 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상징적으로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滿 · 蒙 · 漢의 모든 신하들이 찬동하였지만, 형제국 조선만 동의하지 않은 셈이 되었다. 홍타이지는 황제 즉위 과정에서 이렇게 비워진 한 조각의 퍼즐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親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잠시 ‘禮의 실천’이라는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홍타이지가 병자호란에 직접 참전할 경우 그 궁극적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인조의 배례, 즉 三拜九叩頭²²가 되리란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조선 사신단의 귀환 이후에도 조선은 청과 교섭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청은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기정사실화한 채 조선과의 교섭에 임하였다. 아울러, 조선에 王子와 斥和臣을 인질로 보내지 않으면 出兵할 것이라 협박하였다.²³ 그러나 조선은 끝내 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 내의 격렬한 척화론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병자호란은 이러한 조 · 청 양국 간의 정치적 · 의례적 갈등이 끝없이 폭주하다가 도달한 마지막 종착역이었다.

3. 南漢山城 농성과 講和 협상의 쟁점들

병자호란 開戰²⁴ 직후 청군 선봉대의 기습으로 漢陽에서 江華島로 가는 길을 차단당한 인조는 인조 14년(1636) 12월 14일 저녁 무렵에야 가까스로 남한산성의 남문을 통과하였다. 곧이어 인조의 뒤를 따른 청군의 선봉대가 12월 16일 남한산성에 도달하여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청은 조선 전역에서 인조를 구원하러 온 勤王 부대를 모조리 격퇴하였다. 아울러, 후속부대의 증원으로 자국의 전력의 속속 강화됨에 따라 농성 중인 조선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갔다. 인조 15년(1637) 1월 중순에 이르면 양국 간 戰力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전쟁의 승부는 이미 결판난 것이나 다름없었고, 明軍을 포함한 외부

21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4월 庚子(26일)

22 청측 사료에는 三跪九叩頭로 나온다.

23 趙慶男, 『續雜錄』 丙子年 11월 23일

24 장사꾼으로 가장한 청군 선봉대 중 일부가 압록강을 건넌 날짜는 丙子年(인조 14) 12월 8일이었다. 청군의 본대는 병자년(인조 14) 12월 10일에 압록강을 건넜다. 두 날짜를 현재 사용하는 西曆으로 환산하면 전자는 1637년 1월 3일, 후자는 1637년 1월 5일이 된다(丘凡眞, 2012,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17쪽 참조).

의 지원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²⁵

흥미로운 점은 남한산성 농성시 양국간 講和 협상의 쟁점이 영토의 할양이나 전쟁 배상금 등의 문제라기보다 國書의 형식과 항복의 절차 등이었다는 사실이다. 대청제국의 수립을 儀禮의 절차에 의해 확인받으려고 한 청은 ① 稱臣을 표기한 조선의 國書, ② 斥和臣의 압송, ③ 국왕 인조의 출성 항복을 강화 성립의 전제 조건²⁶으로 내세워 조선을 집요하게 압박하였다. 金瑬와 崔鳴吉을 비롯한 극소수의 主和派 신료들이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이 전제 조건을 부득이 받아들여자는 입장인데 비하여, 金尙憲과 鄭蘊을 비롯한 다수의 斥和派 신료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역설적인 사실은 주화론을 주장한 이들이 주로 비변사에 포진한 大臣들이었음에 비해, 척화론을 주장한 이들은 주로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言官이나 전·현직의 하급 관료, 在野의 儒生들이었다는 점이다. 예상과 달리, 척화론을 끝까지 견지하였던 자들은 인조반정을 일으킨 西人系 功臣 세력이 아니었다.²⁷ 오히려, 남한산성의 농성 말기에 접어들자 조정에 포진한 인조반정의 공신 세력들은 인조에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음을 상기시키며 출성항복을 집단적으로 건의하였다.²⁸

한편, 청은 농성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남한산성을 함락시킬 충분한 전력을 완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공략을 자제하였다. 출성만 면제해 준다면 영토나 歲幣 등의 물질적 보상을 마음껏 쟁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은 인조의 자진 출성을 시종일관 집요하게 요구하여 끝내 관철시켰던 것이다. 청 태종은 이로써 조선과의 군신 관계를 온 천하에 확인시키고, 자신의 관대함과 인자함을 보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⁹ 후일, 청은 이때의 기억을 일명 ‘三田渡碑’ (정식 명칭: 大清皇帝功德碑)에 새겨 영원히 역사에 남겼다.

講和 협상 과정의 검토를 통해 새로이 부각되는 사실은 청신을 표기하는 국서의 형식에 대한 조선 君臣의 태도이다. 이들은 고립무원의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對明義理 또는 對明事大를 상징하는 의례 가운데 하나인 국서의 형식을 쉽사리 변경하려 하지 않았다. 인조 15년(1637) 1월 18일에 작성되어 다음 날 청 태종에게 전달된 조선 측의 국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을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³⁰ 이 국서는 앞으로 조선이 藩國으로서 文書와 禮節을 이에 맞게

25 본 장에서 서술한 남한산성 농성과 조선 君臣의 대응에 대해서는 許泰玖, 2010, 「병자호란 講和 협상의 추이와 조선의 대응」, 『朝鮮時代史學報』 52, 조선시대사학회에 주로 의거하였다.

26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명 황제에 대한 조선 국왕의 의리,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신하에 대한 국왕 인조의 의리와 관련되었다. 척화의 동기가 대명의리를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후자 역시 명에 대한 의리로 환원되는 것이며, 결국 세 가지 모두 대명의리의 실천과 관련되는 사안이었다.

27 대명의리와 척화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 때문에 인조반정의 집권 세력이 ‘崇明排金’을 舉兵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송명배금’은 인조반정 집권 세력만의 명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 조선 사대부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桂勝範, 2008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南冥學研究』 26,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院 南冥學研究所, 451~453쪽 참조).

28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丙寅(26일)

29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庚申(20일) “遣李弘胄等 持前書如虜營 受其答書而還 其書曰… 命爾出城而朕者 一則見爾誠心悅服 二則樹恩於爾 復以全國 示仁信於天下耳 若以計誘 則朕方承天眷 撫定四方 欲赦爾前愆 以爲南朝標榜 若以詭計取爾 天下之大 能盡諂詐取之乎 是自絕來歸之路矣 斯固無智愚之所共識者也”

30 1월 18일에 발송된 국서는 반송되었으며, 1월 19일야 청이 일단 접수하였다(『承政院日記』 55책, 인조 15년 1월 戊午(18일) “洪瑞鳳等 爲虜所却 不得傳國書 而自上招見 鳴吉啓曰 今又不捧國書矣 上曰 何以爲之耶 曰 臣等先通則龍胡出來 蓋先爲來待 而托稱將帥招之而去矣 俄而金芝屎出來言 馬夫夫不來 日且已暮 還爲入去云云矣”; 『清太宗實錄』 권33 崇德 2年 1월 己未(19일) “朝鮮國王李倧 遣其閣臣洪某尙書崔某侍郎尤某 齎書至營請成 書曰 伏奉明旨…”).

행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인조의 출성 조건을 완화하여 성 위에서 望拜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³¹ 조선은 이 국서를 통해 청이 요구한 군신 관계를 국서의 형식을 통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최초로 밝혔다. 척화파 김상헌이 울며 찢어 버리고, 주화파 최명길은 웃으며 다시 붙였다고 膽炙되는 유명한 국서가 바로 이것이다. 많은 논란 끝에 ‘폐하’라는 두 글자는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끝내 삭제된 채 발송되었지만, 청은 다시 국서를 보내 척화파의 압송과 인조의 출성을 조선측에 요구하였다.³² 인조 15년(1637) 1월 21일, 조선은 결국 稱臣을 표기한 국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 “朝鮮國王臣李倧, 謹上書于大清國寬溫仁聖皇帝陛下”로 시작되는 이날의 국서에는 청의 崇德 연호도 기입되었다.³³ 『清太宗實錄』에는 당시 접수한 국서의 全文이 실려 있는데, 그 서두에 “이날 조선국왕 이종이 신하를 칭하며 奏文을 올려 당도하였다. 그 글에 말하기를…(是日 朝鮮國王李倧稱臣 以奏書至 書曰…)”이라고 강조하였다.³⁴ 이상의 정황은 당대인들에게 ‘稱臣’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이것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확인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농성 말기 조선은 江華島의 함락과 청군의 맹렬한 紅夷砲 공격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저항 의지를 상실하고 청의 무조건 항복 제의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47일 간의 남한산성 농성은, 1637년(인조 15) 1월 30일 藍色으로 물들인 平服³⁵차림의 국왕 인조가 남한산성의 西門³⁶을 나와 三田渡 근처의 受降壇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사죄와 臣屬의 의미인 삼배구고두의 배례를 올림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병자호란의 항복은 청과 조선이 兄弟 관계에서 君臣 관계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 위상의 변화는 후일 양국 간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 현안의 처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겠지만, 평소에는 다양한 외교 의례를 통해 반복되고 확인되는 구조였다. 예를 들면 국서의 용어와 형식, 年號와 正朔의 사용, 使臣의 자리 배치와 접대 예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례 가운데 국가간의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국왕의 삼배구고두례였다. 이상의 儀禮는 모두 조선의 事大處가 명에서 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명에 대한 義理³⁷를 부모에 대한 의리와 같다고 비유하곤 하였던 조선 君臣들의 의식 세계에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31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戊午(18일) “其書曰 朝鮮國王謹上書于大清國寬溫仁聖皇帝【此下有陛下二字爲諸臣所爭 而抹去】伏奉明旨…今之所願 只在改心易慮 一洗舊習 舉國承命 得比諸藩而已 誠蒙曲察危懼 許以自新 則文書禮節 自有應行儀式 講而行之 其在今日 至於出城之命 實出仁覆之意 然念重圍未解 帝怒方盛 在此亦死 出城亦死 是以瞻望龍旌 分死自決 情亦戚矣 古人有城上拜天子者 蓋以禮有不可廢 而兵威亦可怕也”

32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庚申(20일)

33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辛酉(21일) “遣李弘胄等 奉國書如虜營 其書曰 朝鮮國王臣姓諱 謹上書于大清國寬溫仁聖皇帝陛下 臣獲罪于天 坐困孤城 自分朝夕就亡…”

34 이 국서가 『清太宗實錄』에는 1월 20일 기사에 실려 있지만, 이것은 청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때문으로 보인다(『清太宗實錄』 권33 崇德 2년 1월 庚申(20일) “是日 朝鮮國王李倧 稱臣以奏書至 書曰 朝鮮國王臣李倧 謹上書于大清國寬溫仁聖皇帝陛下 臣獲罪于天 坐困孤城 自分朝夕就亡…”).

35 청의 입장에서 보면 인조는 죄를 지은 몸이기 때문에 袞龍袍를 입을 수 없었다.

36 원래 君主는 城의 南門으로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문을 통해 인조가 나아간 것 역시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37 義理는 당대의 용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당위를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인간이 의리를 지켜야 하는 근거가 어떤 은혜나 이득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의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나를 잘 길러 주신 부모의 은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천리(天理: 보편적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또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인조가 출성 항복을 끝까지 회피하고자 했던 동기에는 국왕의 위엄이 손상된다는 수치심, 인질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禮의 실천’이라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도 國是와 다름 없이 광범위하게 지지받았던 대명의리를 명백히 부정하는 삼배구고두의 배례를 만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왕 자신이 직접 행해야만 한다는 고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의례의 형식과 행위자의 내면을 지금의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 분리해서 사고하기 쉽지 않았던 당대인들에게, 인조의 출성 항복은 잠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회성의 부득이한 행위로 용납되기 어려웠다. 반면, 청 태종은 삼배구고두례를 포함한 삼전도 降禮 전반의 儀式을 통해 황제가 된 자신의 권위를 청과 조선의 많은 신하들이 보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으려고 했었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인조는 청신을 표기한 최초의 국서(1월 21일 발송)에서 만약 자신이 출성항복을 한다면 향후 조선에서 임금 노릇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청 태종에게 호소하였다.

臣에게 딱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陛下에게 아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박절하고 까다로워 예절이 가혹할 정도로 꼼꼼합니다. 임금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常도와 다르면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며 괴이한 일로 여깁니다. 만약 이런 풍속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마침내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丁卯年 이후로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 사실 다른 논의(= 척화론: 인용자)가 많았으나, 그것을 힘써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대뜸 질책하지 못했던 것은 대체로 이러한 점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성 안에 가득찬 모든 官員과 士庶가 위태롭고 급박한 事勢를 목격하여, 귀순하자는 의논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은 말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城에서 나가는 한 조목에 대해서만은 모두들 “高麗朝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죽는 것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고 나가지 않겠다. 만약 大國의 독촉이 그치지 않는다면, 후일 얻게 되는 것은 쌓인 시체와 텅 빈 성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조만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발언한 바가 이와 같은데, 더구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나라가 망한 이유가 오로지 적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설사 폐하의 은덕을 입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人情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臣을 임금으로 기꺼이 받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밀줄은 인용자).³⁸

농성 당시 金尙憲과 鄭蘊을 비롯한 척화파 신료들은 국가의 존망보다는 대명의리의 준수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곤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청을 물리칠 뚜렷한 군사적 대안을 갖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들은 병자호란 이전이나 이후에도 내내 ‘正論’으로 조

38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辛酉(21일)

선에서 인식되었으며,³⁹ 宋時烈과 같은 척화론의 계승자가 조선후기 역사의 승리가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상헌이 “비록 無益할 줄 알면서도 할 만한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일 (=稱臣한 국서를 보내는 일: 인용자)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뢰었다. 임금이 “무익하지만 할 만한 일은 어떤 일인가?” 라고 물었다. 김상헌이 “저들이 만약 王子와 大臣을 인질로 청하면 이는 할 만한고, 歲幣를 올리고 땅을 떼어 달라고 하면 그 또한 할 만합니다. 지금 그들이 출성을 요구하는데, 한 번 굴복한 뒤에 만약 君臣의 의리를 고집하며 멋대로 명령을 내리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아뢰었다. 임금이 “혹 그러하더라도 天心이 화를 내린 것을 후회한다면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 會稽의 災厄⁴⁰도 이 방법으로 벗어났으니,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

김상헌이 “...온 성의 臣民들이 화친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강화를 이르는 것이니, 만약 강화보다 굴욕적인 항복이라면 民心이 모두 분개할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온 성의 신민들은 혹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至尊(=仁祖: 인용자)께서는 결코 보전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아뢰니, 임금께서 “경은 출성을 염려하는 것인가? 결단코 출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⁴¹

위의 사료에서 보이듯이, 당대인들에게 人質 · 歲幣 · 割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君臣之義를 상징하는 국서의 형식이었고, 이때의 군신지위는 대명의리와 직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홍익한과 같은 척화론자들이 진정 우려하였던 것은, 명의 문책이나 보복이라기보다 대명의리의 포기할 경우 받게 될 歷史와 後世의 비난이었다. 척화의 논의에서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고려하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이었다. 좀 더 과감히 말해보자면, 당시 강화 협상에 임한 조선의 君臣이 끝까지 고민하였던 문제는 실질적 항복의 여부라기보다, 禮를 통해 구현되는 항복의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대다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명의리라는 大義와 청신을 표기한 국서의 형식 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척화론자와 비슷한 心性은 종교 상징을 대하는 현대의 종교인들에게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종교 상징을 통한 종교 의례의 실천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해당 종교인에게 단순한 예배 절차라기보다 자신의 존재 이유 및 삶의 가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상징의 훼손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으로 해석되어 폭력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종교의 역사를 훑어보면, 殉教者와 背教者를 구분할 때 聖像이나 聖圖와

39 『仁祖實錄』권15, 인조 5년 1월 丁酉(29일) “尹昉曰 國家危亡 在此一舉 雖欲親呈 何可不從 李蔡曰 何忍親受乎 上曰 雖是正論 彼若怒去 則更無可爲矣 李貴曰 不和則已 和則不可不從”; 『仁祖實錄』권33, 인조 14년 12월 丁亥(17일) “上泣曰 年少之人 思慮短淺 論議太激 終致此禍 當時若不斥絕彼使 則設有此禍 而其勢必不至此矣 僉曰 年少淺慮之人 誤事至此 上泣曰 此論實是正論 予亦不能拒絕 以至於此 實關時運 何可咎人(밑줄은 인용자)” 등.

40 春秋時代 越王 句踐이 吳王 夫差와 싸우다가 패하여 會稽山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한 일. 구천은 후일 수모를 참고 국력을 길러, 오 나라를 멸망시키고 부차를 自決시켰다.

41 『承政院日記』55책, 인조 15년 1월 戊午(18일)

같은 종교 상징이 동원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 때문이다. 유사한 현상으로, 특정 종교와 연관된 여성 가림 복장의 고수 또는 舊韓末 단발령에 대한 반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17세기 조선의 척화론자가 전력의 열세를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과의 강화를 끝까지 반대한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그들이 명에 대한 굴종적 · 의존적 의식 때문에 국제 정세를 무시 · 오판했다고 이해하기보다, 순교자적 맥락에서 재 고찰하는 것이 당대의 실상에 좀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두 개의 對明認識을 통해 본 새로운 전망

본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수렴되는 당대 조선인이 견지하였던 척화론, 대명의리론, 중화 인식 전반의 성격을 정리해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조선사회 전반의 對明義理나 對明事大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당대의 맥락에서 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斥和論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하거나 明의 지원이나 問責을 의식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⁴²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明에 대한 事大主義나 淸에 대한 韓民族의 투쟁이란 시각에서 바라본다⁴³면 척화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당대인의 對明認識에 두 가지 차원의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이것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특정 국가로서의 明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 문명인 中華를 상징하는 明에 대한 인식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흔히 명이 멸망한 이후 朝鮮中華主義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후자가 분리 · 출현 ·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였다.⁴⁴ 그러나 필자는 명에 대한 이 두 가지 인식이 명 · 청 교체기 이전부터 이미 조선인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틀 속에서 명과의 관계도 유지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선을 개국한 新進士大夫들은 明을 중심으로 하는 中華 질서 속에 제후국으로서 조선의 위치를 자각하면서,⁴⁵ 조선의 禮制와 文物을 中華의 기준에 맞추어 개편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들에게 禮制는 중화 질서 편입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들은 중화 문명의 표준으로 인식되었던 明의 예제와 문물을 선별하여 조선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中華의 이상을 조선 땅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이 明의 禮制와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한 시도는 명의 압력이나 권고를 의식한 것이라기보다는 中華 문명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한 결과

42 당시, 명과 청의 엄청난 국력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당대 조선인들이 명·청 교체를 상상하기란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명·청 전쟁의 추이와 상관없이 명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43 光海君과 三學士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학계와 대중의 분위기는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44 劉奉學,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57~63쪽 참조.

45 『高麗史』 편찬 과정에서 고려 諸王의 역사를 本紀가 아닌 世家로 편입한 것은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려사 편찬에 따른 難題와 창의성에 대해서는 崔鍾奭, 2012, 「『고려사』 세가 편목 설정의 문화사적 함의 탐색」 『韓國史研究』 159, 한국사연구회 참조.

였다.⁴⁶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明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예측의 심화로 규정할 수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明으로 상징되는 中華 문명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 즉 中華 인식이 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⁴⁷ 中華의 禮敎 질서가 조선에서 고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사회 내부에 이러한 中華의 예교 질서를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광범위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⁸

고려말 조선초 중화 인식의 질적 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조선초 禮制 개편의 맥락을 自主·事大의 이분법을 탈피하여 재해석한 최근의 논의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고려말 이전의 事大와 中華 文物의 수용에 따른 禮制 개편이 당대인들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진 데 비해, 고려말 이후의 사람들에게 예제의 개편은 보편적 中華 질서 속에서 자신의 分義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것은 당대 조선인들에게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았고, 明의 시선과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올바른 일로 여겨졌다. 예제 개편 및 그것의 함의가 性理學을 사상적 토대로 하는 당시 신진사대부들의 지향에 부합하였을 것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선전기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심화된 中華 인식⁵⁰은 특정 국가로서의 明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속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명의 정치·제도·학술·인심을 비판하는 당대 조선인의 기록은 명에 대한 긍정적 서술만큼이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⁵¹ 물론 이러한 기록이 중화 문명의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자주독립의 선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선조 7년(1574)년의 北京 使行에서 趙憲이 중화 문명에 대한 뜨거운 동경을 표출함과 동시에 중화의 이상과 괴리된 명의 현실에 분노를

46 이것은 조선이 명의 확인이나 간섭이 불가능한 지방 城隍祭를 『洪武禮制』에 근거하여 개편하려 한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崔鍾奭, 2008, 「조선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高麗 이래 질서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韓國史研究』 143, 한국사연구회 참조).

47 崔鍾奭, 2017, 「고려 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의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등 참조.

48 고려에서 가장 華夷論의 시각을 가진 성종조자 皇帝國 제도를 적극 도입했는데, 박재우는 이것이 王과 皇帝의 차이에 대한 고려 화이론자들의 이해가 깊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음을 지적하였다(朴宰佑, 2005, 「고려 君主의 국제적 위상」 『韓國史學報』 20, 고려사학회, 53~55쪽 참조).

49 崔鍾奭, 2016,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를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교질서』 (박종천 외 10인 共著), 소명출판 참조.

50 한명기는 ‘再造之恩’에 대한 보답 또는 명에 대한 부채 의식을 한중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킨 주요 動因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韓明基, 1999, 「임진왜란과 한중 관계」, 역사비평사, 353~406쪽;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150쪽). 필자 역시 당대의 무수한 사료에서 보이듯이 척화론이 ‘재조지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척화론이 ‘재조지은’이 없었다면 제기 불가능한 담론이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許泰玖, 2017, 「丁卯·丙子胡亂 전후 主和·斥和論 관련 연구의 성과와 전망」 『史學研究』 128, 한국사학회, 196~203쪽 참조).

계승범은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對明 事大에 대한 절대적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중종대의 변화상에 주목하였다(桂勝範, 2006, 「과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大同文化研究』 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참조).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역시 과연 중종대에 ‘새롭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 요구된다. 中華 인식의 질적인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麗末鮮初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도 나왔다(崔鍾奭, 2010, 「조선 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朝鮮時代史學報』 52, 조선시대사학회). 각각의 제안은 전환의 시기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인이 갖고 있었던 중화 인식의 본질과 형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 성리학의 확산과 중화 인식 심화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

51 특정 국가로서 명의 현실에 대한 조선인의 비판적 시선은 吳恒寧, 1992, 「17세기 전반 서인산림의 사상—김장생·김상헌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 한국역사연구회, 52쪽; 曹永祿, 1996, 「朝鮮의 小中華觀—明清交替期 東亞三國의 天下觀의 變化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149, 역사학회, 116~117쪽; 禹景燮, 2012, 「朝鮮中華主義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 『韓國史研究』, 한국사연구회, 253~254쪽 등 참조.

표출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⁵² 이와 같은 현상은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조선인이 체득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의해 비판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조선은 禮制를 비롯한 명의 문물 제도를 자발적으로 이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명에서 유행하고 명나라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라 해도 陽明學처럼 자신들이 설정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완강히 거부하였다.⁵³

조선과 명의 事大·字小 또는 朝貢·冊封 관계는 분명 禮制上 上下位階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명의 요구나 지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관철되는 것은 현실에서만 아니라 그 원리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웠다.⁵⁴ 양국의 관계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義理와 名分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제후국의 分義 못지않게 천자국의 分義도 양국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독자의 강역과 인구를 다스리는 外藩 제후의 통치권은 침해받지 않는 것이라고 당대인들은 생각하였다.⁵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만, 재조지은의 형성기인 임진왜란 당시 발생한 조·명 양국의 수많은 외교 현안과 갈등,⁵⁶ 天子가 책봉한 조선의 국왕을 다름 아닌 철저한 中華 이념의 소지자로 알려진 이른바 ‘純正性理學者’들이 反正을 통하여 축출한 사실 또한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중화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명이 보편이라면 특정 국가로서의 명은 특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편의 틀 안에서 특수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따라서, 호란기의 斥和論 역시 명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맹목적 종속 또는 국제 정세에 대한 오관에서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명이 상징하는 중화 문명에 대한 가치를 당대의 조선의 君臣과 士大夫가 모두 공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방증하듯이, 척화론자들이 진정 우려하였던 것은 명의 사후 問罪 또는 보복이 아니라 대명의리의 포기를 통한 윤리와 도덕의 붕괴였으며,⁵⁷ 歷史와 後世의 비난이었다.⁵⁸ 척화의 논의에서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고려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화·척화의 문제는 외교적 진로의 선택이 아닌 문명과 야만, 인간과 짐승을 택하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였다. 외교적 현안에 대한 강경론(매파)과 온건론(비둘기파)의 대립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대개의 경우 그 본질이 國家의 안전 또는 國益의 추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노선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주화·척화 논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對明義理의 고수를 위해서는 국가가 망해도 어쩔

52 후마 스스무(夫馬進)著·鄭台燮 외 4인 共譯, 2008, 제1장 「만력 2년 조선사절의 ‘중화’ 국 비판」,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참조.

53 尹南漢, 1982, 『朝鮮時代의 陽明學 研究』, 집문당, 177~180쪽 참조.

54 權善弘, 2010,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 책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20~126쪽; 2014, 「유교의 예(禮) 규범에서 본 전통시대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56~160쪽 참조.

55 崔鍾奭, 2013, 「조선조기 국가 위상과 ‘聲教自由」,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19~23쪽 참조.

56 예를 들어, 재조지은의 가장 큰 수혜자인 宣祖조차 명의 講和 추진에 앞장서 반발하였던 일을 상기해보자.

57 『仁祖實錄』 권39, 인조 17년 12월 戊申(26일) “前判書金尙憲上疏曰…自古無不死之人 亦無不亡之國 死亡可忍從 逆不可爲也 有復於殿下者曰 人有助寇讐攻父母 殿下必命有司治之 其人雖善辭以自解 殿下必加以王法 此天下之通道也 今之謀者以爲 禮義不足守 臣未暇據禮義以辨 雖以利害論之 徒畏強隣一朝之暴 不懼天子六師之移 非遠計也”

58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10월 丁丑(6일) “玉堂…仍上筮曰…噫 我國之於天朝 名分素定 非若羅麗之事唐宋也 壬辰之役 微天朝則不能復國 至今君臣上下 相保而不爲魚者 其誰之力也 今雖不幸而大禍迫至, 猶當有殞而無二也不然 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乎”

수 없다’는 척화론자들의 발언도 이해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무력적 타개를 포함한 여타의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주화파의 주장대로 화친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러나 兩次的 胡亂 당시 척화론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조선이라는 국가라기보다 (명이라는 특정 국가도 아닌) 명으로 상징되는 中華라는 보편 문명이었다.⁵⁹ 정묘호란 당시 李貴에게 國은 오랑캐와의 화친을 통해서라도 보존해야 하는 것이었다면,⁶⁰ 張維에게 不義로 보존된 國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었다.⁶¹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척화론자들에게 國이란 그것이 中華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고 실천하고 있었을 때에만 유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⁶²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만, 중화 문명에 대한 이해 수준과 수용 양상이 조선과 달랐던 베트남과 일본이 명 · 청 교체 전후에 보인 (조선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무덤덤하거나 實利 추구적인 반응이 優劣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당대의 비교사적 맥락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⁶³ 아울러 청군의 北京 점령은 별다른 저항 없이 맞이하던 명의 遺民들이, 이후의 髮令에는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청이 만약 체발을 조선에 강요했다면, 그 저항의 강도는 훨씬 더 격렬하고 지속적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1637년의 출성 항복과 1644년의 북경 함락을 명 · 청 교체와 華夷 질서의 변동이란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당대인들이 받아들인 보편 문명으로서의 中華의 위상은 조선 내에서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상의 의례와 대상은 비록 漢族 왕조인 명에서 滿洲族 왕조인 淸으로 전환되었지만,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념 · 수사 · 외교 절차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만, 조선후기 大報壇 및 萬東廟 祭禮의 시행도 새로운 해석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조선인들의 中華 인식이 심화된 결과, 당대인들의 對明 인식 속에 ‘두 개의 對明 인식’ - ① 특정 국가로서의 명에 대한 인식, ② 보편적 중화 문명을 상징하는 명에 대한 인식 - 이 존재함을 斥和論과 對明義理論이

59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北伐論의 첫 번째 의리(第一義)가 명을 위한 복수보다는 春秋大義의 고수에 있다고 송시열이 생각했다는 제자 權尙夏의 회고는 매우 시사적이다(宋時烈, 『宋子大全』 부록 권 19, 「記述雜錄-尹鳳九」 “鳳九曰 聞淸愼春諸先生 皆以大明復讎爲大義 而尤翁則加一節 以爲春秋大義 夷狄而不得入於中國 禽獸而不得倫於人類 爲第一義 爲明復讎 爲第二義 然否 (先師=權尙夏: 인용자)曰 老先生之意 正如是矣”).

60 『仁祖實錄』 권 15, 인조 5년 2월 丁未(10일) “貴曰 不和則亡 何爲此言”

61 『仁朝實錄』 권 15, 인조 5년 2월 丁未(10일) “維曰 國雖亡 豈以不義圖存乎”

62 최명길의 주화론 역시 대명의리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보면 척화론과 對極의 위치에 있는 주장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國亡 직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독자의 영토와 백성을 가진 ‘外服 諸侯國 조선이 명에 대한 義理를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며 지켜야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척화론자들과의 견해가 크게 달린 것뿐이었다. 대명의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이 시기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파생된 딜레마는 ‘과연 외복 제후국 조선은 어떻게, 어느 선까지 희생하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 기준 설정과 실천의 문제였다(許泰玖, 2013, 『崔鳴吉의 主和論과 對明義理』, 『韓國史研究』 162, 한국사연구회 참조).

63 劉仁善,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작과 비평사, 228~233쪽; 로널드 토비 지음·許恩珠 옮김, 2013, 『일본 근세의 ‘채국’이라는 외교』, 창해, 160~164쪽 참조(原書는 Ronald Toby, 2008, 『鎖國』という外交, 小學館).

64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홍성구 옮김, 『대청제국 1616~1799』, 145~149쪽, 휴머니스트(原書는 石橋崇雄, 2000, 『大清帝國』, 講談社).

제기되는 맥락을 통해 試論적으로 입증해 보았다.⁶⁵ 이러한 가설을 정밀한 논증 아래 조선시대의 對明·對淸 관계 전반에 적용시켜 본다면, 기존의 自主와 事大라는 이분법으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현상들이 ‘두 개의 對明 인식’ 또는 ‘두 개의 對淸 인식’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이 설명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65 대명여리의 성격 규정 또는 중화 인식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對明 인식을 필자와 유사한 취지에서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李用熙·申一澈 對談, 1977, 「事大主義-그 現代의 解釋을 중심으로-」, 『韓國民族主義』, 서문당; 禹景燮, 2006, 「송시열의 華夷論과 朝鮮中華主義의 성립」, 『震檀學報』 101, 진단학회 등). 예를 들어, 이용희는 조선의 對明事大를 명분에 의한 사대와 힘에 의한 사대로 구분하면서, 당대인들은 전자가 아닌 후자에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설명하였다. 우경섭은 당대인의 대명인식을, 혈통과 왕조를 초월해 존재하는 문화적 진리, 즉 道의 담지자를 상징하는 ‘관념적 중화로서의 명나라’와,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명나라’로 구분하였다.



‘호란’연구에서 주의할 점

스즈키 가이 (鈴木開, 도쿄대학)

(원문: 일본어, 번역: 홍성민, 와세다대학)

요지

“호란”이란, 한반도에서는 청나라 홍타이지의 두 차례에 걸친 조선 침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호란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태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관련자료가 명, 청, 조선왕조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또한 그 자료들이 중국어, 만주어, 몽골어 등 복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중국사, 한국사와 같은 틀에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것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최근 주로 만주어사료를 이용한 청조사연구의 발전으로 이러한 과제는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호란의 실태 해명은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의 한국에 있어서의 호란연구를 소개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호란 이해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제 1 차 침략시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정묘화약”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외교관 박관영의 제 2 차 침입시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개의 문제는 어느 것이나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호란연구에 있어서의 자료의 중층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의점을 이해하기 위한 최상의 재료를 제공해 준다.

들어가며

‘호란’이란 청 태종 홍타이지가 두 차례에 걸친 한반도침략에 대한 조선 측의 호칭으로 1627년의 정묘호란, 1636~7년의 병자호란을 가리킨다. 이 ‘호란’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왜란’ 연구 등과 비교한다면 압도적으로 뒤쳐져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관련 자료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점, 또 그 자료가 한문, 만주어, 몽골어 등 복수의 언어로 적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한국사’ 혹은 ‘한국’ 자료만을 이용한 접근으로는 심화된 역사적이해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호란’ 연구는 오랫동안 정체되었고 ‘호란’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였지만, 한명기가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2009), 『역사평설 병자호란』(2013)을 비롯한 저작을 발표하여 새롭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한명기 연구의 의의는 크게 평가해야 하지만, 반면에 한명기의 연구에는 기존 연구를 답습한 부분이 많고, 새로운 견해는 많지 않다. 또한 전술한 각국에 편재한 자료의 활용이나 만주어, 몽골어 자료의 해독 등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명기가 주로 의거한 유재성의 연구¹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또 만주어사료를 비롯한 명측, 청측 사료의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² 향후 이러한 동향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리라고 예상된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로, 종전의 이해 즉 조선과 청의 관계를 책봉관계만으로 파악하고 이 틀 안에서 ‘호란’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해도 여전히 존재한다.³

여기서는 처음에 열거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관련자료의 편재성이라는 문제밖에 다룰 수 없지만, 현재 ‘호란’ 연구에서 남겨진 과제의 일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용문 속의 소괄호 () 안은 인용자가 주기(注記)한 부분이고 대괄호 [] 안은 인용자가 삽입한 부분이다.

1. ‘정묘호란’은 있었는가?

한명기는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제 2장을 ‘정묘화약의 균열과 병자호란의 발생과정’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정묘화약’이 체결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양국 관계는 파열음을 내었다”고 서술하였다.⁴ 그리고 2017년의 논문에서는 ‘정묘화약의 파탄 과정’에서 1633년 후금(後金)에 귀순한 공유덕(孔有德)·경중명(耿仲明) 등을 조선군이 공격한 사실을 가지고 “후금이 조선의 ‘본심’을 확인하여 정묘화약이 사실상 끝나는 순간이었다”고⁵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한명기의 어느 저작을 보더라도 이 ‘정묘화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 ‘정묘화약’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유재성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유재성은 “정묘호란은 이 해(1627년) 3월

1 柳在城, 『丙子胡亂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6.

2 丘凡眞·李在璟, 「丙子胡亂 당시 淸軍의 構成과 規模」, 『韓國文化』 72, 2015; 張禎洙,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韓國史研究』 173, 2016; 李在璟,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軍史』 103, 2017 등.

3 예를 들면 홍성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최근 연구동향을 잘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1637년 이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조공 의례와 조공국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적었으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洪性鳩, 「청질서의 성립과 조청관계의 안정화: 1644~1700」, 『東洋史學研究』 140, 2017, 168쪽을 참고.

4 韓明基, 『丁卯·丙子胡亂과 東아시아』, 푸른역사, 2009, 90쪽. 이 밖에 153쪽도 참고.

5 韓明基, 「明清交替 시기 朝中關係의 추이」, 『東洋史學研究』 140, 2017, 68쪽. 또한 66~67, 71쪽도 참고.

3일에 성립한 정묘화약을 통해 일단 전쟁상태를 종식시켰다” 고⁶ 매우 명확하게 기술하였고, 한명기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반드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예컨대 김성균이 3월 3일에 인조가 피난처인 강화도에서 ‘강화서약’을 맺었지만 내용에 불만을 품은 총사령관 아민 Amin이 귀로 중에 평양에서 ‘평양서약’을 맺었으니, 양 쪽 다 정식적인 서약이었다고 이해하였다.⁷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巖吉)는 ‘강도서문(江都誓文)’과 평양에서 맺었던 ‘맹세’에 대해서 서술하고 평양에서 맺었던 “서약문의 요령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강도서문과 비교하여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양자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다.⁸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떠하였을까?

강화에서 맺은 맹약을 홍타이지에게 보고하기 위해 쿠르찬 Kūrcan이 심양으로 향한 뒤, 아민은 “조선왕(朝鮮王)은 맹세를 하였겠지만 우리들은 아직 맹세하지 않았다. 병사를 되돌리면서 포로[俘虜]를 붙잡고 약탈을 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사흘 간 약탈을 하면서 평양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 곁에 있었던 조선의 항복사절 이구(李玖), 이홍망(李弘望)과 평양에서 다시금 天地에 강화를 맹세하였다. 여기에서 읽고 태운 문서에는 ①인조가 홍타이지에게 보내야 할 물건을 보내지 않았을 때, ②후금의 사절을 명의 사절과 동등하게 존경하지 않을 때, ③후금에게 악의를 품고 성곽을 견고히 하고 군대를 정비하였을 때, ④여진이 붙잡아서 머리를 깎은 자가 조선으로 도망갔어도 반환하지 않았을 때, ⑤인조가 “멀리 떨어진 명과 친하게 지내기 보다 가까이에 있는 후금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말을 어겼을 때에는 조선을 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조선이 후금에게 보내는 예물(①), 후금 사절 맞이하기(②), 군비의 금지(③), 도망 포로의 송환(④), 명과 단교(⑤)를 맹세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전부 강화도에서 맺었던 맹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아민의 독단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된다.⁹

그리고 이는 조선 정부도 충분히 파악하여, 아마도 아민 본인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항의를 위해 작성한 문서도 남아 있다.

서한을 받은 바, 무사히 대동강을 건넌음을 알았는데, 게다가 맹세문[誓文]을 제시해 주었으니 매우 다행이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강화도에서] 선서하였을 때, 맹세문을 기초하였고, 귀국과 여러 차례 사절을 보내서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뒤에 하늘에 고하여 서약하였다. 이 맹세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두 나라는 이미 화평을 맺었다. 금후 양국은 서로 맹세를 지키고,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으며,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 나라가 금국에 대하여 복수의 기회를 엿보아 강화를 어기고 거병하여 침략한다면 황천[皇天]이 재앙

6 柳在城, 『丙子胡亂史』, 1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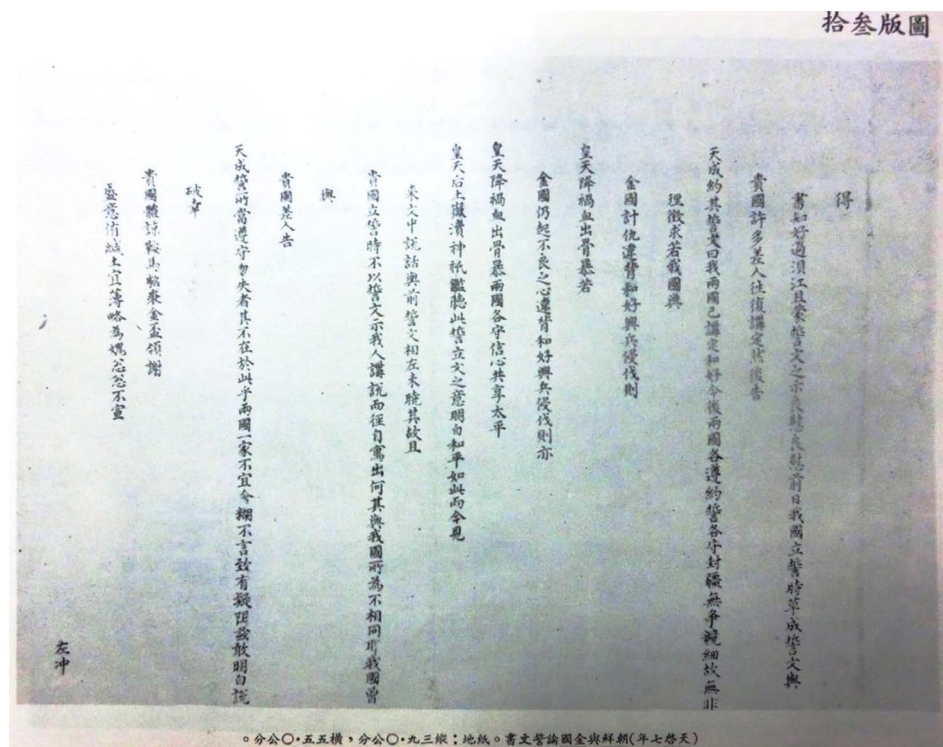
7 金聲均, 「初期의 朝清經濟關係交渉略考」, 『史學研究』 5, 1959, 12쪽; 同, 「朝鮮中期의 對滿關係」, 『白山學報』 24, 1978, 21~22쪽 등.

8 稻葉巖吉, 『清朝全史』 上, 早稻田大學出版部, 1915, 226~228쪽. 駕淵一, 「清初に於ける『鮮關係と三田渡の碑文(下の一)』」, 『史林』 13-3, 1928, 46쪽도 ‘강도(江都)의 맹세문[誓文]’에 덧붙여서 “또한 이 밖에 청의 사절[使者]과 조선의 재신(宰臣) 사이에는 사적인 맹세가 교환되었는데, 상세한 조목의 협정이 정해진 듯하다”라고 하였다.

9 이상은 拙稿, 「朝鮮丁卯胡亂考」, 『史學雜誌』 123-8, 2014, 21~22쪽.

을 내려서 피를 흘리고 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만약 금국이 여전히 불순한 마음을 품고 강화를 어기고 거병하여 침략한다면 또한 황천이 재앙을 내려서 피를 흘리고 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양국은 각각 신의의 마음을 지켜서 함께 태평을 누리지 않겠는가? 天地도 산천의 신도 이 맹세를 보시옵소서.” 이 문서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게 화평이다. 그러나 이번에 보내온 서한 속에는 먼저 [강화도에서 맺은] 맹세문과 비교하여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귀국(貴國)이 선서하였을 때, 맹세문을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측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자 곧장 이를 적었다. 어찌하여 우리 나라가 행한 것을 똑같이 행하지 않는가? 우리 나라는 일찍이 귀국과 함께 사람을 파견하여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였다. 바야흐로 [맹약을] 준수하여 과실이 없도록 주의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양국이 한 집안이 되고부터는 말을 애매하게 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하여 의혹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감히 명백하게 설파하여 귀국의 이해를 얻었으면 한다. 鞍馬, 貂의 毛皮, 金杯 [를 하사하시니], 친절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나 답례로 보내는 토산품이 보잘것없어서 부끄러울 따름이다.¹⁰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이 강화도에서 맹약을 맺었을 때 맹세한 내용임은 명백하



「도판 30 朝鮮與金國論誓文書」

(李光濤 編『明清檔案存真選輯』初集,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59年, 70页)

10 “得書、知好過浪江、且蒙誓文之示、良慰良慰。前日我國立誓時、草成誓文、與貴國許多差人往復講定、然後告天成約。其誓文曰、我兩國已講定和好。今後兩國各遵約誓、各守封疆、無爭競細故、無非理徵求。若我國與金國計仇、違背和好、興兵侵伐、則皇天降禍、血出骨暴。若金國仍起不良之心、違背和好、興兵侵伐、則亦皇天降禍、血出骨暴。兩國各守信心、共享太平。皇天后土、嶽瀆神祇、鑑聽此誓。立文之意、明白和平如此。而今見來文中說話、與前誓文相左、未曉其故。且貴國立誓時、不以誓文、示我人講說、而徑自寫出。何其與我國所為、不相同耶。我國曾與貴國、差人告天成誓。所當遵守勿失者、其不在此乎。兩國一家、不宜含糊不言、致有疑阻。茲敢明白說破、幸貴國體諒。鞍馬貂裘金盃、領謝盛意、侑絨土宜、薄略為媿。忿忿不宜。左冲。”

니, 평양에서 맺은 맹세는 이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 문서가 청조에서 보관되어 자료집에 채록된 사실은 후금 측이 이 문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 현재로는 이에 대해서 아민과 홍타이지가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사료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후의 교섭에서 홍타이지가 강화도에서 맺은 맹약에 반발하여 평양 맹약을 제안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후금 측에서는 평양에서 맺은 맹약을 조선 조정에게 이행시키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후금 측에서 이 평양 맹약을 근거로, 예를 들어 조선에서 후금으로 보내는 예물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명과 조선의 접촉을 책망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민이 정묘호란에서 독단전행(獨斷專行)한 일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1630년 6월에 실각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어찌하였든 강화도 맹약과 평양 맹약 간의 내용차이, 그리고 전자를 정식적인 맹약이라고 보는 인식은 조선에서도 후금에서도 공유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묘호란 이후의 조선과 후금의 관계도 단지 후금이 조선에게 정치적 압박을 강요해 가는 과정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 강화도 맹약을 기점으로 어떻게 교섭이 진행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강조해 두고자 하는 점은 정묘호란 시기에 맹세한 맹약을 ‘정묘화약’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3월 3일에 맺은 것을 강화도 맹약, 3월 18일에 맺은 것을 평양 맹약이라고 불러서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후 조선과 후금 간의 교섭은 강화도 맹약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니, 평양 맹약에 어떠한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후금 내부의 의견 불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평양 맹약에도 일정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두 가지 맹약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양자를 혼동할 여지가 있는 ‘정묘화약’이라는 용어를 채용하기는 어렵고, 그 ‘균열’이나 ‘파탄’을 말하는 것보다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이다.

2. 박난영의 죽음에 대하여

정묘호란 이후, 최초의 회답사(回答官)로서 파견된 이래 적어도 여덟 차례, 사신으로 심양을 왕래한 박난영(朴蘭英)은 최후의 춘신사(春信使) 박노(朴魯)와 동행하던 중 청군에게 붙잡히고 마푸타Mafuta의 노예움을 사서 살해당하고 만다. 한명기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1636년] 12월 16일, 심집(沈輯) 일행은 청군 진영으로 들어갔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심집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청군 진영에 가기 전에 “나는 평소 에 말을 진실되게 하였으니, 오랑캐라고 해서 속일 수는 없다”라고 자신의 ‘속 마음’을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마푸타[馬夫大]가 왕제와 대신의 진위(眞僞)를 묻자, 겁을 먹은 심집은 숨길 수가 없어서 자신과 능봉수(綾峯守)가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능봉수는 자신이 왕제(王弟)임을 강변하였지만, 심집의 말을 들은 청군 지휘

부는 믿지 않았다. 당시 역관(실제로는 무관) 박난영이 청군 진영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마푸타가 박난영에게 ‘심집의 말이 사실인가’ 라고 힐문하였다. 박난영이 ‘능봉군의 말이 맞다’ 고 대답하자, 분노가 치밀어 오른 마푸타가 박난영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¹¹

이 기술은 나만갑(羅萬甲) 『丙子錄』 12월 16일 조를 따랐다고 생각되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오랑캐 진영[虜陣]으로 출발하자 심집은 “나는 평소에 충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만맥(蠻貊)이라고 할지라도 속여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이에 마푸타[馬胡]에게 “나는 대신이 아니다. 임시로 높은 관직을 지닌 자이다. 능봉군(綾峯君)은 종실이지만, 국왕의 피를 받은 왕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¹²

한명기는 나만갑이 ‘왕자’ 라고 한 부분을 ‘왕제’ 로 바꾸어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회보(李回寶)에 따르면, 심집이 당초에 ‘왕자’ 가 아니라 ‘왕제’ 를 인질로 삼으려 한 사실을 마푸타가 문제제하자, 다시금 ‘왕자’ 가 상중이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게다가 마푸타는 청과 조선이 이미 ‘형제’ 이기 때문에, ‘왕자’ 가 상중이라고 해도 ‘큰 아버지’ 를 만나지 않는 도리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고 한다.¹³

그리고 석지형(石之珩)은 심집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청 장수가 심집에게 “이 왕제(王弟)는 진짜인가?” 라고 말했다. 심집은 “어찌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묻는가?” 라고 말했다. 청인이 노여워하여 “나는 원래 왕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반드시 왕자를 보내오라. 그렇게 하면 병사를 물리겠다.” 라고 하였다. 심집이 돌아와서 이를 보고하자 비변사에서는 심집의 대응 실패를 비난하였다. 심집은 “말은 충직하고 믿음직해야 하고, 행동은 도탑고 공손해야 한다. [이는] 만맥(蠻貊)의 나라라고 해도 바뀌어서는 안된다. 내 대응이 옳다.” 고 말했다.¹⁴

현 시점에서는 이 석지형의 기술이 착종하는 여러 정보를 가장 정합적으로 설

11 韓明基, 『역사평설 병자호란』 2, 푸른역사, 2013, 101·104쪽.

12 “馬胡請送王子大臣. 朝廷以綾峯陸秩爲君, 刑曹判書沈誥假衛大臣, 出送虜陣, 則沈誥言, 我本平生所言忠信, 雖蠻貊不可欺. 謂馬胡曰, 我非大臣, 乃假衛也. 綾峯君宗室, 非親王子也. 綾峯君曰, 沈誥之言非也. 此實大臣, 我實王子也. 先是, 朴簠朴蘭英征往瀋陽, 中路爲馬將所執, 來在陣中. 馬胡問蘭英曰, 此言如何. 答曰, 綾峯君之言是也.”

羅萬甲『丙子錄』은 완성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의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보이는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을 참고하였다. 丁奎福·高憲植, 「〈山城日記〉의 文獻學的 研究」, 『教育論叢』 12, 高麗大學校教育大學院, 1982도 참고.

13 이상, 李回寶, 『石屏先生文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續25) 卷5, 「丙子南漢日記」 12월 16일條, “賊問曰, 此王子, 果眞王子耶. 沈答曰, 眞假何須問. 只要在結好而已. 此則乃王弟也. 胡曰, 我本意求王子也. 沈曰, 我則聞求王子, 故如是耳. 且聞來得王子弟云. 我國不分弟與子, 而同稱子弟. 故以王弟來耳. 胡曰, 必得王子, 然後可還. 沈曰, 王子時未閱服〈時中殿賓天〉, 不可遠行. 且我國禮法, 子若居喪, 則自稱罪人, 仰不見天見人. 何心何顏, 出見乎. 賊曰, 我與兩國, 既爲兄弟. 王子雖居喪, 豈無出見伯叔之理乎.”

14 石之珩, 『南漢解圍錄』 (서울大學校奎章閣 所藏) 丙子12월 16日條, “清將向沈曰, 此眞箇王弟否. 沈曰, 安問其眞假爲. 清人怒曰, 吾元來不求王弟. 必王子而後可. 沈歸告其說. 廟堂責沈失對. 沈曰, 言忠信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吾以是耳.”

명해 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마푸타는 심집 등이 데려 온 자가 왕자가 아니라 왕제인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고, 왕제의 진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칭(李偁)이 진짜 왕제가 아닌 사실은 마푸타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한명기가 “오랑캐라고 해서 속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석한 심집의 ‘만맥(蠻貊)’ 관련 발언은 ‘청군 진영에 가기 전’이 아니라 ‘갔다 온 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나만갑은 왜 이칭을 가짜 ‘왕자’로 기록하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조선 조정은 왕자를 파견하지 않아서 이 때의 교섭은 결렬되었고, 그 결과를 알고 있던 나만갑이 자세한 경위를 생략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된다.

이제 다시 박난영이 살해된 시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나만갑 『병자록』의 해당 부분에서는

그 뒤, 마푸타가 속았음을 알고 박난영의 거짓말을 이유로 그를 참수하였다.¹⁵

라고 하였다. ‘그 뒤’라고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곧장 참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지호(鄭之虎)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오랑캐가 마침내 난영을 죽이고나서 “세자를 보내라. 그래야만 화평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¹⁶

또한 김상헌(金尙憲)은

노추(虜酋)가 노여워하여 곧바로 난영과 인질을 죽였다.¹⁷

라고 하여, 가해자를 홍타이지로 보았고 그 자리에서 박난영과 이칭이 살해당했다고 하였다. 이는 그의 『남한기략(南漢紀略)』 12월 21일 조에 기록되어, 남한산의 ‘성이 처음으로 포위되었을’¹⁸ 때의 일로 회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식적 측면도 포함하여 실태를 충분히 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사료에 따라 박난영이 죽은 사정에 관한 기술이 어긋났기 때문일까, 『인조실록』에서는 “오랑캐가 크게 노여워하여 마침내 난영을 죽여버렸다”¹⁹라는 모호한 기술이 되었다.

남원에서 있었던 전쟁 상황을 주시하였던 조경남(趙慶男)은 홍타이지가 실제로 소현세자, 봉림대군 등과 만나서 박난영의 증언이 허위임을 확인한 뒤에

15 “其後馬胡，知其爲見欺，以蘭英賣言斬之。”

16 鄭之虎, 『霧隱先生文集』(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 卷五, 雜著下, 「南漢日記」 丙子12月16日丙戌條, “虜遂殺蘭英, 因言曰, 出送世子, 然後方可議和云.”

17 金尙憲, 『南漢紀略』 丙子12月21日條, “虜酋怒, 即殺蘭英及質子.” 金尙憲 著, 申海鎮 역주, 『南漢紀略』(博而精, 2012年) 가 있다.

18 “城之初受圍也.”

19 『仁祖實錄』 14年 12月 丙戌(16日) 條.

박난영을 살해하였다고 하여, 살해당한 날을 인조 15년 (1637) 정월 30일로 보았다.²⁰ 이렇게 해석을 할 정도로 다양한 정보가 뒤엉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하였든 “마푸타가 박난영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한명기의 기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명기처럼 조선 조정이 가짜 왕자를 보냈고, 울곤은 성격을 지닌 심집의 대응으로 그 거짓이 발각되어 박난영이 죽임을 당했다는 해석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태는 이처럼 극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마푸타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심집이 데려온 자가 왕자가 아니라 왕제라는 점으로, 심집과 이칭은 어쨌든 귀국하였고 박난영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한명기의 기술은 조선 조정이 명과 맺은 사대관계를 고집하여서 청의 침략을 조선 스스로 초래하였다는 종래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서술이 되었다. 여기서는 조선 조정 대응의 이상한 점이 강조되었고, 또 청 측의 내부사정 등에 대해 다른 부분은 매우 적다.

이 장면에서 박난영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면, 조선의 비극성은 더욱 명료해진다고 생각한 한명기가 이렇게 기술하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나만감과 김상헌 등에 의해 병자호란 직후부터만 들어졌다는 점도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에 들어간 다른 대신의 기록에서는 인질로 왕자를 보내야 할지, 왕제를 보내야 할지라는 형식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각대로 교섭을 진전시키지 못한 심집은 남한산성으로 귀환한 뒤, 조정 내에서 대응의 미숙함을 추궁당했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의 대응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교섭에 진지하게 임하려고 하였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박난영의 죽음에 대한 한명기의 해석은 이러한 연구 방향성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박난영은 언제 죽임을 당했을까? 조성교(趙性敎, 1818~1876)가 지은 시장(諡狀)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심집과 종실[李僞]이 동시에 도착하였다. 적은 이들을 붙잡고는 “그대는 정말로 대신인가? 그는 정말로 친왕자(親王子)인가?”라고 하였다. 심집은 “나는 가짜 대신이고 그는 가짜 왕자다.”라고 하였다. 적은 크게 노여워하면서 공(박난영)에게 자신을 속였다고 하면서 칼을 빼 들고 노려보았지만, 공은 안색 하나 바뀌지 않았다. 적은 곧장 [심집과 이칭 들을] 돌려보냈다. [중략] 적은 진군해서 남한산성에 이르렀다. 공을 군전으로 끌어내서 자신을 속인 열 가지 죄를 열거하였다. 공은 당당한 자세로 매섭게 욕설하기를 “네 아버지가 생전에 [조선과] 교린할 것을 정하였는데, 죽은 뒤에 이를 거역하였으니, 불효라고 할 수 있다. 정묘[년]에 화평을 약속하였을 때,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까닭도

20 趙慶男, 『續雜錄』四, 丁丑 春正月 30日條, “從汗分付, 上只與隣平率清衛還宮. 留置世子及嬪鳳林與夫人于清陣. 汗前問沈緝大臣眞假於朴蘭英, 英以眞對. 至是知其假, 以爲欺罔. 出蘭英斬之.”

없이 하늘을 거스르면 이는 불의 · 불효이다. 의롭지 못하면 하늘은 반드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러 호인이 그의 충직함을 애석하게 여겨서, 이를 용서하고자 공에게 “살고 싶다면 그대로 있어라. 죽고자 한다면 일어나거라.” 라고 하였다. 공은 곧바로 일어났다. 배하의 역관(譯官)이 울면서 “만약 한 말씀하여서 스스로 해명한다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공은 분연히 “주군이 옥보이면 신하는 죽는 것을 직무로 할 뿐이다. 왜 구태여 살고자 하는가?” 라고 하였다. 남한산성 쪽을 향해 네 번 절을 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12월 29일이었다. 향년은 62 세였다.²¹

조성교는 심집과 이칭의 기술에 대해서는 나만갑의 기술을 따른 것 같다. ‘적(敵)’에게 ‘네 아버지가’ 라고 표현한 점을 볼 때, 그 ‘아버지’는 누르하치, ‘적’은 홍타이지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 아버지를 거역하였고, 게다가 정묘호란 시기에 맺은 맹약도 어겼으니 불의이고 불충이라는 상당히 각색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포로가 된 이래, 후금과의 관계 구축에 부심하였던 박난영이라면 홍타이지에게 직접 두 번째의 침략을 항의하였다는 사실은 충분이 있을 법하다. 홍타이지의 한성 입성은 늦어도 12월 29일이라고 생각되는데,²² 또한 남한산성 방향을 향해 네 번 절을 하였다는 점에서 아직 남한산성에 도착하지 않았다. 마푸타는 한성 교외에서 홍타이지의 도착을 기다렸고, 그의 판단을 기다린 뒤에 참수를 집행하였다. 그 날은 12월 29일로, 집행한 자도 역시 마푸타였다고 생각된다.

시장(諡狀) 말미에는 ‘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趙性教撰’이라고 적혀 있다. 조성교가 우참찬이었던 시기는 1871 ~ 1872년 이므로 찬술도 이 무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포함하여 기술의 신빙성에 의심 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족보」에 실린 이 기술을 당분간은 따르고자 한다.

맺으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여 ‘호란’ 연구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개관해 보았다.

우선 정묘호란 시기에 ‘정묘화약’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정묘호란 시기에는 두 가지 다른 맹약이 체결되었고, 이 둘은 장소도 주체도 내용도 달랐다. 두 맹약에 관한 이해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 이 둘을 혼동시킬 수 있는 ‘정묘화약’이라는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왜 두 맹

21 『高靈朴氏世譜』(國立中央圖書館所藏, 高靈朴氏譜所, 1918年) 卷首「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資憲大夫知中樞府事公贈忠肅公諡狀」“沈諱與宗室偕至. 敵執之曰, 汝果大臣, 彼果親王子乎. 諱曰, 我乃假大臣, 彼乃假王子. 敵大怒, 謂公欺己, 露刃睨之, 公顏不變. 敵即還. [中略] 敵乃進迫南漢. 曳公出軍前, 數以欺己十罪. 公揚揚大罵曰, 爾父在時, 定爲隣交, 死則背之. 可謂不孝. 丁卯約和時, 指天爲誓. 無故違天, 是爲不義不孝. 不義天必殃爾. 諸胡惜其忠, 欲貸之謂公曰, 欲生在, 欲死起. 公即起立. 票下譯官泣謂曰, 若一言自解, 可不死矣. 公忿然曰, 主辱臣死職耳. 何生之可圖. 向南漢四拜, 遂遇害. 即十二月二十九日也. 享壽六十二.”

22 拙稿, 「丙子の乱と朝清關係の成立」, 『朝鮮史研究會論文集』55, 2017, 58쪽.

약이 체결되었는가라는 점은 청의 정치체제와 깊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유재성, 한명기와 같이 전부 사상(捨象)시켜서는 안된다. 이는 또한 두 사람의 연구가 여전히 ‘한국사’의 범주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조청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박난영의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의 죽음은 병자호란에서 조선측 교섭담당자의 잘못에 의한 바가 크다. 이 때문에 과도하게 비극적으로 묘사되었고, 또 이로 인해 ‘침략을 당한 조선왕조라는 나라’ 그 자체의 비극성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청의 동향과 이에 따른 조선의 대응이라는 ‘호란’의 실태를 해명하려는 관심을 사전에 차단해 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명기가 박난영을 시종일관 ‘역관(譯官)’으로 오인한 점은 이러한 실태를 해명하려는 관심이 거의 없음을 상징한다.

검토한 두 문제에는 관련된 여러 자료의 조사부족, 실태에 맞는 역사상을 그려내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한 점이 공통되게 나타난다. 명, 청, 조선의 여러 자료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당시의 국제정세가 어떠하였고 조선이 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 과정을 밝히는 일이 향후 ‘호란’ 연구에서 필요하다.



라마의 위상

—17세기 티베트불교와 동아시아 정국

치 메이친 (祁美琴, 중국인민대학)

(원문: 중국어, 번역: 박현, 교토대학)

요지

16 세기 후반에 북원(北元) 몽골국이 정치적으로 분열한 역사로 인해 불교가 몽골 지역에 재차 부흥하였고, 1578년에 티베트 황교(黃敎)의 지도자 소난가쑤가 알탄 칸과 회견하면서, 이후 수 백년 동안 라마교가 몽골을 정복하고, 몽골, 티베트, 명·청 조정 및 동아시아의 정국에 영향을 끼친 역사가 시작되었다. 17 세기 초에, 온 동아시아의 정국이 동요하였는데, 명과 몽골의 대립은 명과 후금(後金, 淸淸) 간의 국운을 건 투쟁으로 바뀌었고, 티베트 황교의 위기는 5 세 달라이 라마의 구시 칸 초청을 이끌었다. 내외 몽골의 여러 부(部)가 분열하거나 통일하거나 청조(淸朝)에 귀부하는 가운데 재차 대규모의 전쟁을 거쳤다. 청조는 북경으로 천도한 후에도 티베트, 준가르 및 대만 정성공 세력, 삼번(三藩)과 같은 여러 정치집단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왕조교체, 정권 간의 승부, 민족 간의 투쟁 속에서, 라마의 모습이 그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수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라마교 세력이 대항 혹은 영합, 주동과 피동이라는 다양한 관계 속에 어떻게 거대한 정치적 역량을 쏟을 수 있었는가, 라마교가 ‘번을 제어하는 도구(馭藩之具)’가 되면서도 또 어떻게 역사의 ‘주역’이 되었는지, 17 세기 동아시아의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를 조성하였는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7 세기, 유럽사회는 종교적, 정치적 변혁을 거쳐 신속하게 민족국가의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종교적 신권정치는 무대의 뒤편으로 물러났다. 같은 시기, 동방세계 역시 거대한 사회적 지각변동을 겪고 있었다. 명조, 후금(淸), 내외 몽골의 각 부(部), 준가르, 티베트 및 정 씨(대만), 삼번 등 여러 정치집단들이 잇따라 역사무대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왕조교체, 정권쟁탈과 민족충돌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역사적 현상이 바로 라마들의 활약이다. 특히 총카파(宗喀巴, Tsong Kha Pa)가 창시한 황교집단은 이 시기 동아시아 정치지형의 형성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티베트, 몽골과 청조를 둘러싼 17세기의 정치상황이 보여주는 고도의 종교화 추세를 검토함으로써 달라이 라마 5세를 위수로 한 황교집단이 이 시기 역사에서 보여준 역할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라마 등장의 서막 : 게룩파 (格魯派, Gelug) 집단의 티베트정치 장악

13세기 이르러 티베트는 이미 승려와 세속의 일체화, 정치와 종교의 합일화를 이룩하고 안정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였다. 정교합일의 티베트 봉건농노제도가 가지는 특징으로 통치세력의 교체가 각 파 종교세력의 전환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본교 (苯教, Bon)와 티베트불교 간의 세력다툼에서 시작하여 카담파 (噶當派, Bka Gdams), 사카파 (薩迦派, Sa Skya)에서 카규파 (ཀུགཡུ, Kagyu)에 이르기까지 흑모 (黑帽)에서 홍모 (紅帽)로 바뀌고 다시 게룩파의 황모 (黃帽)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종교 변천사일 뿐만 아니라 전반 라마왕조의 흥망사이기도 하다.

15세기, 게룩파의 굴기와 활불전세 (活佛轉世) 제도의 확립으로 인하여 티베트의 정치 “종교화”는 전례없이 강화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대라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세제도는 티베트의 봉건농노제도가 라마교를 의지하게 되는 근본원인이자 후일 몽골 각 부족들이 라마교를 접수하게 되는 내적원인이었다. 북원과 명나라 시기의 몽골초원은 “황금씨족”의 권력세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전쟁에 휘말려 있었고 각 부족들이 할거하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 역시 정치, 경제와 신앙 등 면에서 통치집단 내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통치집단을 결속시킬 수 있는 권위로서의 종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578년, 게룩파 교주 소남 가초 (索南嘉措, Sonam Gyatso)와 알탄 칸 (俺答汗, Altan Khan)의 청해에서의 역사적 회견은, 황교 수령으로서의 달라이 라마의 지위를 확립하였을뿐더러 황교가 티베트와 몽골에서 정치종교로 군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알탄 칸은 소남 가초에게 “성스럽고 모든 것을 깨우치는 와치르다라 달라이 라마” (聖識一切瓦齊爾達賴喇嘛)라는 칭호를 주었으며 이때부터 이 칭호는 티베트불교의 최고 존칭으로 되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황교집단과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에서 정치종교적 지위를 획득한 것과 막남 몽골 (漠南蒙古)이 황교를 접수한 것은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1588년, 소남 가초가 죽은 뒤, 황교 내부에서는 일제히 알탄 칸의 증손을 “전세영동” (轉世靈童)이라고 인정하였는데 그가 바로 달라이 라마 4세 용텐 가초 (雲丹嘉措, Yonten Gyatso)이다. 용텐 가초는 역대 달라이 라마 중 유일하게 티베트인이 아니었는 바 이는 당시 황교집단이 몽골의 군사적 지지에 대해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보여주며 이 또한 달라이 라마가 17세기의 정치무대에 등장하는데 군사적, 정치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1602년, 달라이 라마 4세 용텐 가초는 라싸에 진입하였으며, 몽골인 달라이 라마의 출현은 후일 모든 몽골인들이 황교를 신앙하고 티베트의 정교분쟁에 개입하고자 하게 된 원인으로 되었다. 당시 카규파의 징샹 (辛廈巴, Zhingshak Tseten) 가문은 시가체를 본거지로 티베트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황교집단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1616년, 용텐 가초는 라싸의 테봉사(哲蚌寺)에서 죽는데, 전하는데 의하면 징삭 가문의 평취남제(彭錯南傑)가 사람을 파견하여 암살하였다고 한다.¹ 1618년, 징삭 가문은 정식으로 테식창파(第悉藏巴, Sde Srid Gtsang Pa) 지방정권을 건립하였으며 양측의 충돌을 더욱 심화된다. 1636년, 청해의 몽골 수령 토르바이크(圖魯拜琥, 즉 구시 칸[固始汗, Güshi Khan])는 달라이 라마 4세의 전세영동인 달라이 라마 5세와 황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청해의 카르카 처트 타이지(喀爾喀綽克圖台吉)에 주둔하게 된다. 당시 이 지역은 테식창파와 연합하여 황교를 소멸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1639년, 구시 칸은 티베트 서부에 진군하여 본교를 신앙하며 황교에 대적하는 간제 지역의 버리 토사(甘孜白利土司, Bon King of Beri)를 격파하고 돈요 도르지(頓月多吉, Donyo Dorje)를 잡아 죽였다. 1642년, 구시 칸은 군사를 이끌고 티베트에 진입하여 황교의 마지막 적수인 테식창파 지방정권을 무너뜨리고 티베트 전체를 장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황교도 티베트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²

황교집단은 호쇼트(和碩特) 부의 구시 칸과 연합하여 창파 칸(藏巴汗)을 격파한 뒤, 달라이 라마가 집정하는 새로운 정권 “간덴포장”(甘丹頗章, Ganden Phodrang)을 건립하였다. 이로부터 티베트 및 전반 티베트불교 세계의 역사는 “황교집정”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달라이 라마 계 활불을 수령으로 하는 라싸의 정교합일 권력체계는 티베트로 하여금 종교적 정치사의 정점에 올라서게 하였다. 몽골과 티베트 지역에서는 “종교법”이 “조정”의 권력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종교적 신성을 통하여 통치지역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 카르카 투시트 칸(土謝圖汗, Tusheet Khan)의 말을 빌리면, “여태 나라에 불교가 없어 우매함을 깨치지 못했으나, 나의 증조부 때부터 달라이 라마를 알현하고 예로써 대접을 받으며 와찰라 사인 칸이란 칭호를 받았으니, 이로써 이 땅에 불법이 해와 별과 같이 빛나도다”³ 라고 하는 바와 같다. 이때부터 “라싸 종교조정”은 주동적으로 동아시아 정치집단 간의 관계구축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반 17세기를 관통하게 된다.

2. 티베트 라마집단이 몽골 정세에 대한 영향

17세기의 동아시아 정치형세로 놓고 볼 때, 몽골 각 부 즉 막남몽골, 막북 카르카 몽골, 막서 오이라트(衛拉特) 몽골, 청해 호쇼트 몽골은 제각기 독립적인 정치집단이었다. 몽골 내부의 연합과 분열의 직접적인 결과로, 몽골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통합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륙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명말청초의 중원왕조와 티베트, 중앙아시아 지어는 러

1 王輔仁, 索文清 편저, 『藏族史要』, 四川民族出版社, 1982, p.107.

2 해당 역사사실에 관하여서는, 黃奮生 편저, 『藏族史略』, 民族出版社, 1989, pp.206-2013 도 참조할 수가 있다. 앞의 책 『藏族史要』에 비하여 다른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대조를 통하여 참고로 삼을 수 있다.

3 [清]溫達 등, 『親征平定朔漠方略』 권4, 강희 26년 정월 을사. 중국어 원문은, 「國中向無佛教, 是以愚迷, 自我曾祖往謁達賴喇嘛, 得蒙優禮, 加以瓦察喇賽音汗之號, 於是地佛法, 炳如日星。」

시아와의 상호관계 형성에 깊이 참여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 몽골의 정치변혁 과정에서 황교 라마집단은 몽골 각 부족의 정세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작용하였다.

16세기 중반, 막북몽골의 수령 알탄 칸(阿勒坦汗, 俺答汗과 동일 인물)과 달라이 라마 3세가 회담을 가지고 나서 알탄 칸이 불교에 귀의하며 총카파가 창시한 황교를 지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력전륜법왕(大力轉輪法王) 알탄 칸, 세속과 종교 두 정치를 평등하게 치리한다”⁴라는 명분을 크게 내세웠다. 그 뒤를 잇는 몽골 각 부족 수령들도 모두 그의 이러한 통치이념을 본으로 삼아 따랐다. 심지어 1582년(만력 10년)에 알탄 칸이 죽어 명조가 사신을 파견하여 문상할 때에도 “대도(大都)로부터 대라마를 위수로 하는 여러 관원을 파견하였고”, “중원의 제도에 따라 끊임없이 불경을 숭독하면서 (죽은 자의) 복과 선을 기리었으며”⁵, 짙은 종교적 색채를 연출하였다. 알탄 칸의 유해는 1587년에 화장되었으며 『알탄칸전』의 저자는 그를 직접 “호투투 칸”(呼圖克圖, Hotogtu)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⁶ 1588년, 달라이 라마 3세가 現 내몽고 정남기(正藍旗) 경내에서 원적한 뒤, 이듬해 現 내몽고 상두현(商都縣) 차한취얼(察罕淖爾)에서 출생한 알탄 칸의 증손이, 3년 뒤(1592)에 티베트 3대사원의 고승들로부터 일제히 달라이 라마의 전세영동으로 인정받아 “용텐 가초”라는 이름이 지어진다. 1593년 정월, 막남몽골은 흑호트에서 성대한 기도법회를 개최하여 “호투투 달라이 라마의 미명이 사방 주변에 널리 퍼질 때에 모든 사십만 몽골은 일제히 신앙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모든 것을 깨치는 달라이 라마의 명을 좇는다”⁷라고 하였는데, 달라이 라마 4세가 황금씨족에 환생하였다는 사실은 전체 몽골인들이 라마교를 신앙하는데 있어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02년, 티베트 3대사원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용텐 가초를 티베트에 모셔다가 정식으로 계승의식인 좌상(坐床)을 거쳐 수계하고 불경을 익히게 하였다. 비록 달라이 라마 4세는 1616년에 원적하게 되지만, 용텐 가초의 티베트 진입은 몽골사회에 대한 라마교 영향력 확립의 표징으로 되며 후일 몽골의 왕공 귀족들이 계승하여 달라이 라마 5세(용텐 가초의 전생)를 지지하고 존송하도록 하였다. 이는 몽골-티베트의 정교적 뉴대가 이미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던 몽골 각 부족들은 달라이 라마 5세를 공동한 정신적 수령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달라이 라마 5세로 하여금 1640년 이후부터 몽골의 주요 세속권력을 장악하고 몽골의 정세를 좌우지하는 힘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속권력은 구체적으로 회맹, 관호의 수여, 접견 및 정치사무의 처리 등 면에서 나타난다.

(1) 회맹

회맹은 몽골사회의 전통적인 정치적 통치형태이다. 무릇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맹이란 방식을 통하여 협상하고 해결하곤 한다. 17세기의 몽골 정치

4 『阿勒坦汗傳』, 珠榮嘎 역주, 內蒙古人民出版社, 1991, p137.

5 위의 책, p.142. 중국어 원문은「自大都派其大喇為首諸官員」「按其漢制不斷誦經薦福追善」

6 위의 책, p.156.

7 위의 책, pp.167-168.

형세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다름아닌 각 부가 개최한 회맹이었다. 예를 들면 1640년의 카르카-오이라트 회맹, 1686년 각 부에서 소집한 후른빌치르(庫倫伯勒齊爾, Huren Bilchir) 회맹, 1691년 강희제와 외몽골 각 부 수령들이 모인 돌론노르(多倫諾爾, Dolon Nor) 회맹 등이 있었다. 이러한 회맹의 소집 과정에서 황교집단의 라마들은 혹은 주동자로 혹은 주최자로서 그 역할을 발휘하였다.

1640년의 회맹과 같은 경우는, 카르카와 오이라트 몽골 각 부의 수령들이 카르카 자삭트 칸(札薩克圖汗, Zasagt Khan)의 영지에 모여서 개최한 “동맹”의 성격을 띠는 “카르카-오이라트 회맹”으로서 “몽골-오이라트 법전”을 제정하고 각 부에서 공통으로 준수하기로 하였다. 이 회맹에 참석한 부족 수령은 총 28명으로서 “하나같이 칸, 홍타이지(洪台吉, Hong Taiji) 혹은 집정노얀(執政諾顏, Noyan) 급의 인물들이었으며 그 휘하에 역시 수많은 작은 수령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중국 학자 치광(齊光)의 주장으로는, 1640년의 “카르카-오이라트 회맹”은 몽골의 수령들이 새로운 “왕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달라이 라마야말로 ‘카르카-오이라트 회맹’의 최고 권위자인 커칸이었다. 고수례(叩首, 즉 회맹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달라이 라마의 대변자인 와치단라 라마[瓦赤怛喇嘛]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하였다는 것은 몽골 각 수령들이 이로부터 몽골사회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세속권력을 인정하고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⁸

필자는 달라이 라마가 “몽골 커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치광의 관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의 연구에서 달라이 라마 5세 시기, 라마교가 몽골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그 소급 범위가 광범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몽골 각 부와 티베트, 청조 및 러시아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여러 정치세력들의 각축과 관계 형성에 깊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1686년의 후른빌치르 회맹은 달라이 라마와 청조가 부추기고 카르카 부의 자삭트 칸과 투시트 칸 등 좌우익 왕공들이 서로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이다. 하지만 회맹 과정에 투시트 칸 측의 접준담바(哲布尊丹巴, Jebtsundamba)가 달라이 라마 측의 대표인 갈단 시라드(噶爾璽席勒圖)에게 “실례”를 범함으로써 그 뒤 갈단(噶爾丹, Galdan)이 카르카 몽골에 출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갈단의 카르카 침입은 직접적으로는 막북몽골이 청조에 귀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나아가 중가르 칸국과 청조의 직접적 충돌로 이어졌다.

1691년의 강희제와 카르카 몽골 각 부 수령들 간의 돌론노르 회맹은 접준담바가 내린 선택이었다. 카르카가 “멸망”하여 가는 관건적인 시점에서 왕공들이 북상하여 러시아에 귀순할 것인지 남하하여 청조에 귀순할 것인지를 상의할 때, 접준담바는 “군사를 피하여 러시아에 가게 될 경우, 러시아는 여태 불교를 믿지 아니하고 풍속 또한 우리와 다르니 우리들을 언어와 복식이 다른 외인으로

8 齊光, 『大清帝國時期蒙古的政治與社會』, pp.26-38. “일부 선행연구에서, 17세기 특히는 1640년 이후 달라이 라마가 몽골사회에서의 이러한 커칸 지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몽골의 전통적 정권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정치법과 종교법의 이원 이론’의 의미를 곡해한 바가 있다.”

대할 것이요 장구지책이 아니다. 모두를 이끌고 강희황제에게로 가면 만년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⁹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카르카의 청조 귀순은 막북몽골 황교집단이 내린 정치적 결단임을 알 수 있다. 돌론 회맹은 내외 몽골의 모든 지역이 청조의 세력범위로 되었음을 상징한다.

위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달라이 라마와 황교 수령들은 17세기의 몽골 지역에서 회맹을 조직하고 회맹에 참가하여 정치형세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몽골 각 부에 대한 권위를 수립하여 갔으며 회맹 중에서 채택된 『법전』과 상호관계 처리원칙의 정립을 통하여 몽골에 종교법을 핵심으로 한 법률체계를 세움으로써 세속적 봉건주를 넘어선 종교집단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관호의 수여와 접견

달라이 라마 5세는 1622년의 좌상 의식 이후부터 연달아 몽골 귀족들에게 관호를 수여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중요한 것들을 예로 들자면 호쇼트 부의 구시 칸, 다얀 칸(達延汗, Dayan Khan), 달라이 칸(達賴汗, Dalai Khan), 중가르 부의 오치르트 세첸 칸(鄂齊爾圖車臣汗, Ochirtu Secen Khan), 갈단의 보숙트 칸(博碩克圖汗, Boshugt Khan), 카르카 부의 세첸 칸(車臣汗, Secen Khan), 자삭트 칸 등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들에게 칭호를 내리는 동시에 인감과 칸복까지 함께 주었으며 지어는 일정한 의식까지 거행할 때도 있었다. 몽골 각 부 중에서 황금씨족의 칸 칭호를 제외한 기타 귀족들의 칭호는 달라이 라마가 수여한 것이 아니면 모두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¹⁰ 이로부터 각 부 몽골귀족들의 정치적 지위의 합법성은 달라이 라마로부터 오게 되었다.

이시하마 유미코는 “달라이 라마가 칸 칭호를 수여하는 것은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¹¹ 치광은 1640년 이후 즉 17세기 후반에 “달라이 라마 5세는 당시의 몽골사회에서 줄곧 커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 으며, 오이라트와 카르카의 여러 왕들은 목지 분배, 관위 계승 등 중요사안에 있어서 모두 달라이 라마의 명령을 좇은 증거들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카르카의 관위 계승절차는 “1. 먼저 당사자가 달라이 라마에게 정황을 보고한다; 2. 달라이 라마가 접준담바, 투시트 칸에게 지령을 하달한다; 3. 접준담바, 투스트 칸 등 수령들이 명을 받들고 영주들을 소집하여 당사자를 책봉하여 관직을 내린다” 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¹²

달라이 라마는 관호의 책봉을 통하여 책봉 받는 자의 종교적, 세속적 지위를 결정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응당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였다. 『달라이 라마가 에르크도르지에게 내리는 책봉문』(達賴喇嘛賜額爾克綽爾齊封文)을 예로써 달라이 라마의 지대한 권력을 엿볼 수 있다.

9 松筠, 『綏服紀略』.

10 張雙志, 「五世達賴喇嘛對清初蒙古地區穩定的貢獻」, 『中國藏學』, 2008-2.

11 石濱裕美子, 『チベット仏教世界の歴史的研究』, p126. 齊光, 『大清帝國時期蒙古的政治與社會』, p.27로부터 2차 인용.

12 齊光, 앞의 책 pp53-54.

상태평제(上太平帝)의 칙지를 받들어 이르노니 지금강(持金剛)이 지존의 권력을 세상에 내리도다. 또한 대몽골의 넓은 지역에서 알탄 칸 역시 권력을 받아 달라이 라마 와치르다라의 명령을 널리 전파할 지어다. 첼포나무(詹布樹)를 상징으로 하는 그의 넓은 지역은, 몽골의 40대 호쇼트, 4대 오이라트, 특히 중가르와 호쇼트와 연관되는 승계(僧界), 속계(俗界), 칸, 칸 왕비, 귀족, 초논(濟農), 타부낭(塔布囊), 안상(安桑), 대신 및 대부분 씨족을 분별하지 않는 민중 전체보다 훨씬 뛰어나다. 자야반디다(札雅班第達)는 몽골 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학원에 와서 수행하고 학습한 사람이다. 데풍사(哲蚌寺)와 그 밑의 3대 사원에서 밀종을 배워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심히 어질고 가히 대덕이라 할 수 있도다…… 에르크도르지에게 “에르데니 다르칸 도르지”(額爾德尼達爾罕綽爾濟)의 봉호를 수여하여 그를 파견한다. 람치무바 호톡투(拉姆齊木巴胡圖克圖)에 속하는 샵나르(沙畢那爾, Shabnar)와 우루스(兀魯斯)의 전체 민중은 여기 창고의 가축 무리같이 평소 공물로 취급받아 왔다. 이밖에 좌우익 등은 약탈하여 자기 소유로 삼아서는 안된다. 노얀 등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잘 관리하고 행정의 힘으로 공물과 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관련 사무는 갈단 홍타이지가 책임지고 실행함이 마땅하며 연관이 있는 단진(丹津) 홍타이지 역시 이대로 실행해야 한다. 승려와 일반 민중들은 누구든지 칸이나 대인들 앞에서 망언을 하거나 이간질을 해서는 안되며 악한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망녕되게 행할 경우, 세상을 관할하는 팔부신품(八部神品)들이 엄청난 벌로 죄를 물을 것이 두렵지 않은가? 이를 바로 행하는 자는 공덕이 성인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에 특히 글로써 밝히 알리는 바이다. 토마년(土馬年) 4월 첫 길일. 토번(土伯特) 금강좌대궁전 홍산(紅山)에서 씀함.¹³

1640년의 회맹 이후, 몽골 각 부 수령들은 저마다 라싸에 가서 달라이 라마 5세를 배알하였으며 17세기 70년대 즈음하여 달라이 라마의 위망과 권력은 절정에 달한다. 사료의 기록에 따르면, 1669년에 달라이 라마가 개최한 신년 연회에는 청조, 카르카, 오이라트, 티베트의 각지에서 온 귀족들이 3천 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에는 접준담바, 투스트 칸과 같은 대수령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¹⁴ 달라이 라마의 이러한 접견은 이미 관례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그의 교주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다.

(3) 정치사무 처리

17세기의 몽골사회에서 각 부족 간의 분쟁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 달라이 라마 5세의 지위가 확립되고 나서부터는 그가 각 지역에 파견하여 주재시킨 승려 대표가 각 부 몽골의 정치와 종교 고문으로 되었다. 이 승려들은 달라이 라마를

13 齊光, 앞의 책 pp.57-58.

14 張雙志, 앞의 논문 참조.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몽골 각 부에 상시 주재하여 있으면서 분쟁들을 해결하였다. 특히 협상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일 경우, 달라이 라마는 특파원을 보내어 “법령”을 전달하여 중재하여 분쟁을 무마시킴으로써 최고 중재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달라이 라마 3세가 몽골에 대한 주요 영향을 알탄 칸과 같은 몽골 수령들더러 신앙을 개종하게 한 데 있다고 한다면, 달라이 라마 4세부터는 몽골정세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 4세가 티베트에 가서 불경공부를 하려고 행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익 삼만호와 좌익 삼만호가 말을 풀어 싸움을 준비하여 두 대국의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므로 뛰어난 스승이신 달라이 라마께서 친히 육만호를 불러 모으셔서 기쁨으로 석가모니 앞에 부르셨다. 똑같은 자비의 마음으로 변치 않는 금강과도 같은 뜻을 내리시니, 교묘한 불법으로 그들 육만호를 화해와 친선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선조들이 세운 정교의 제도를 가지런히 고치심으로 즉시 대국의 정세를 평안케 하시니라.”¹⁵

달라이 라마 5세 때에 이르러서는 라싸 종교조정이 몽골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이르렀다. 1640년 이후 즉 17세기 후반, 달라이 라마 5세는 당시 몽골사회에서 최상의 권위를 누렸으며 오이라트, 카르카의 여러 칸들은 목지 분배, 관위 계승 등 중요사안에 있어서 모두 달라이 라마의 명령을 좇았다는 증거들이 남아 있다.

달라이 라마가 몽골의 정치사무에 개입한 사례로는, 1671년 청해 호쇼트 부의 중타이지(衆台吉)가 청조 관원에 대한 답변에서, 달라이 라마의 지령이 없는 대초원에서 나가기를 거부한다고 하였다. 1672년, 청해 호쇼트 부의 달라이 칸은 강희제한테 달라이 라마의 칙령에 따라 자신이 칸 위에 올랐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1678년, 달라이 라마는 칙령을 반포하여 칠기(七旗)의 카르카 수령들더러 카르카 몽골의 자삭트 칸을 칸왕에 즉위시키도록 하였다. 1682년, 달라이 라마는 칙령을 반포하여 호쇼트 부의 아랍탄(阿拉布坦) 더러 족속들을 이끌고 알라산(阿拉善)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명하였다. 1682년, 달라이 라마는 칙령을 반포하여 집준담바 및 카르카 수령들더러 혼도른사카르(昆都倫楚庫爾) 노안을 지지하여 그를 집정노안으로 임명할 것을 명하였다. 1683년, 달라이 라마는 칙령을 반포하여 칠기더러 자삭트 칸을 존중하여 좌익에 도망친 그의 족속들을 반환하여 줄 것을 명하였으며 “자삭트 세첸 칸”이란 칭호를 수여하였다. 1685년, 달라이 라마는 칙령을 반포하여 카르카 몽골의 베수트(巴蘇特) 노안들과 자삭트 칸 등 수령들이 함께 회맹하여 영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하였다. 1686년, 달라이 라마는 카르카 몽골의 좌익에 속하던 일지긴(額勒濟根) 노안을 우익으로 고칠 것을 명하였으며, 동시에 집준담바에게 명하여 카르카 몽골의 좌우익 분쟁은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몽골의 훌륭한 예법에 따라 서로 화해할 것을 요구하였다. 1687년, 달라이 라마는 카르카 몽골에 명하여 이르기를, 자삭트 칸이 죽은 뒤 세첸 아하이(車臣阿海) 족속의 인구와

15 『阿勒坦汗傳』, pp.172-173. 중국어 원문, 「右翼三萬戶與左翼三萬戶多控馬於樁, 兩大國之政局又將動搖, 於是勝師達賴喇嘛親自召集六萬戶於歡樂召釋迦牟尼之前. 以等慈悲之心降不壞金剛般之旨, 以巧妙之法使彼等六萬戶歸於和好親善, 整治先祖所建政教之制, 立即致大國之政於平安.」

가축 손실이 심하므로 투시트 칸더러 반환하게끔 하였다.¹⁶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달라이 라마는 17 세기의 몽골 지역에 있어서 최고 권위를 수립하였으며 비록 “커칸” 이란 공식적인 신분은 없었지만 몽골의 모든 봉건주들을 초월한 세속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조 정세에 대한 라마교의 영향력

(1) 청나라 정책에 대한 영향

황교집단 및 달라이 라마 5 세가 청조 정세에 대한 영향력은 우선 국가정책 면에서 나타난다. 청조는 라싸 황교집단과의 관계 건립을 매우 중시하였다.

청태종 때부터 티베트와 청조는 모두 상대방과의 관계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료에 따르면, 후금이 티베트와 최초로 우호적인 관계 건립에 성공한 것은 티베트 측의 주동적인 움직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황태극은 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난다. 비록 달라이 라마 5 세를 성경(盛京)에까지 초청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이는 후일 중원에 입주한 뒤 티베트와 연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청세조실록』에 기록된 순치 연간 청조와 달라이 라마 5 세의 왕래기록을 보면, 순치제가 재위한 18년 동안 달라이 라마 5 세가 북경에 온 사건 이외에도 양측의 사신 왕래는 50여 차례에나 달하며 달라이 라마 측에서 훨씬 더 주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치 9년, 달라이 라마는 3천 여 명의 수행인원과 함께 북경에 와서 순치제를 알현하였으며 열렬한 환영을 받고 “西天大自在佛所領天下釋教普通瓦赤喇但喇達賴喇嘛”로 책봉되어 금첩, 금인까지 받았다. 머무는 기간 동안 달라이 라마가 받은 알현과 헌례 규모는 만인 이상이었으며, 이로 하여 중국 내지와 몽골 사회에서 달라이 라마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졌다.

황교집단 및 달라이 라마의 몽골과 티베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의식한 청조 통치자들은 라마교에 대한 종교적 인식을 능동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며 라마교에 대한 존숭과 지지를 병행하기 시작한다. 청태종으로부터 시작하여 티베트 측에서는 청조황제에게 “전륜성왕”, 문수보살 등 종교적 칭호들을 수여하였으며 청조황제의 종교화된 형상을 선양하려 하였다. 순치 11년부터 시작하여 순치제는 은을 보내어 부다라궁을 비롯한 황교사원 62곳을 수선 및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로부터 당시 티베트 지역의 모든 사원 3070곳을 향하여 매년 청나라 조정에서 운영경비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중원 내지에서 가져온 금으로 계록과 사원 13곳을 건축하였으며,¹⁷ 동시에 부단히 척조 황족사원을 세움으로써 종교를 국가체계에 융합시키고 종교적 관료체계를 확립하였다. 예를 들면 자샹트 라마기(喇嘛旗)의 설치와 서북지역의 승관토사(僧官土司)는 조정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하여 지방 백성들을 다스리는 승려귀족으로 되었다.

16 이상의 내용은 齊光 앞의 책 pp.50-52의 표 3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張雙志, 앞의 논문 참조.

하지만 17세기 후반 강희제 시기에 이르러, 달라이 라마 5세가 몽골 지역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정도에서 몽골 왕공귀족들과 청조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좌우지할 뿐만 아니라 지어는 청조 조정을 향한 카르카 몽골의 조공까지도 달라이 라마 문서의 유무를 근거로 행하여지게 되었다. 이밖에도 외몽골, 신강, 청해 몽골, 나아가 오삼계(吳三桂) 문제에서까지 청조는 달라이 라마의 협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였기에 티베트와 청조의 관계에 있어서 달라이 라마는 주도권을 잡고 부단히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청나라는 종교적인 수요로 인해 정책과 제도 상으로는 달라이 라마의 요구를 맞추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달라이 라마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벤첸(班禪) 라마, 접준담바, 창카(章嘉, Changkya) 활불 등 종교수령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 변강통제 정책에서의 “라마효과”

청조 통치자들은 몽골과 티베트에 대한 라마교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청태조 누르하치가 라마교를 예우한 뒤로부터 황태극은 라마교를 명확하게 “번국 통제의 도구”(馭藩之具)¹⁸라고 하였다. 그들은 라마교의 거대한 정치적 역량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몽골 신자들이 대라마를 “천신”으로 추앙하는 것 자체가 몽골인과 티베트인들의 정치적 문화적 동질감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초기의 청조 통치자들의 눈에 라마교는 절대적인 정치도구였다. 이 사실은 17세기 황태극과 순치제 부자가 달라이 라마의 북경 방문을 극구 초청한 동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순치 연간에 달라이 라마를 북경에 초청하였을 때, 달라이 라마 일행을 어떻게 접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순치제를 위수로 한 청조 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청조와 몽골 관계에 대한 영향이었다.

순치 9년 9월 임신(壬申), 순치제는 각 왕후, 대신과 관료들에게 내리는 칙지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태종황제 때부터 카르카 지역은 여태껏 복속하지 않고 있고 그밖에 외번 몽골들도 오직 라마의 말만 듣는다. 전에 달라이 라마를 불렀지만 그 사신이 도착하기도 전에 태종황제가 붕어하였다. 후에 예왕(睿王) 섭정 때에 사람을 보내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여 진년(辰年)에 오기로 하였다. 짐이 친정한 뒤 달라이 라마를 부르니 바로 차비하여 오니 수행 인원이 3천이라. 오늘날 짐이 친히 변외(邊外)에까지 이르러 맞이하고 라마더러 변외에 머물게 하리라. 외번 몽골 왕공들이 라마를 만나려 하거든 변외에서 만나게 하라…… 만일 나아가 라마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내가 불려서 왔으되 가서 맞이하지 않는다고 필시 중도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카르카 역시 귀순하러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마중하러 가야 될지 여부에 대하여 경들은 저마다 의견을 말하여 조서를 올리라. 만주인 대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초청하여 라마가 오는 것이므

18 『瀋陽縣誌』권13.

로 주상이 친히 변외에까지 나아가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라마로 하여금 변외에 머물게 하고 내지에 들어 오고자 하거든 적은 수종들만 데리고 들게 하며 밖에 있으려거든 라마 자신이 편한 대로 하게 하소서. 주상께서 친히 가서 맞이하시면, 카르카 또한 라마를 따라서 귀순하리니 큰 익이 될 줄로 아옵나이다. 만일 청하고 맞이하지 않으면 사리에 부합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가 예로써 라마를 존경하나 라마의 교에 들지 않으니 무슨 해가 있겠사옵니까.” 한인 대신들이 말하기를, “황상은 천하 국가의 주인이요, 나아가 라마를 맞이하는 것은 가당치 아니 하옵니다…… 특별히 초청한 고로, 각 왕공 대신들 중에서 한 사람을 파견하여 황제를 대신하여 맞이하게 할 수 있사옵나이다. 라마더러 변외에 머물게 하고 금은 등 물품을 내리시면 그 역시 라마를 공경하는 것이 되옵나이다.” 두 가지 조서가 모두 아뢰어지니, 주상이 가로되 짐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하였다.¹⁹

순치제가 갑작스레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달라이 라마는 호미난방의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원래 계획 대로라면 변외에서 순치제를 만나 “밀담”하려던 열정이 급격하게 식어 버렸다. 북경에 도착한 뒤에도 청조 조정은 달라이 라마의 접대 문제에 있어서 대처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 바, 라마를 존송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몽골과 티베트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달라이 라마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쟁론의 초점으로 되었다. 사후에 달라이 라마가 잠시만 머물다가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신들이 달라이 라마가 “노여움을 품고 가서” “카르카, 울드(厄魯特, Uld)는 필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걱정하는 등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청조 조정이 티베트 라마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한 목적은 변강의 통제에 있었으며 달라이 라마가 몽골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리보우원(李寶文)은 순치 9년에 성공적으로 달라이 라마를 책봉하게 된 결과로, 청조와 막북 카르카 몽골, 청해 몽골 지간의 동맹이 성사되게 되었으며 청조의 북부와 서북 변강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²⁰

17세기 80년대, 강희제는 감숙 변경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달라이 라마에게 서신을 보내 이르기를:

울드의 여러 영주들은 모두 당신네 라마교를 믿어 라마교의 법도에 따르며 당신의 가르침을 좇는다. 그들은 짐과 조정과 교법을 같이 한 후로부터 성실하게 조공하러 오기를 역대로 끊김이 없었다…… 고로 우리들은 더불어 사신을 파견하여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키며 아랍탄과 바투르 에룩치논(巴圖爾額爾克齊農)을 한 군데로 합하여 거주하게 하려 하니, 이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는 라마와 천하의 태평과 행복을 바라는 짐의 마음에 참으로 합당하게 될 것인 줄로 안다.

19 『清世祖實錄』 권68, 순치 9년 9월 임신. 지면상의 관계로 원문은 생략.

20 李寶文, 「順治皇帝邀請五世達賴喇嘛考」, 『西藏研究』, 2006-1.

만일 짐의 뜻이 맞다고 생각되거든 라마도 거기로부터 한 라마를 파견하여 이번에 짐이 보내는 사신과 기일을 약정하여 다녀오게 하라. 짐은 이 시간 뒤로 다시 한 대신을 파견하여 약속한 지역에 가서 라마의 사자와 서로 만나 일을 행하게 하려 한다.²¹

강희 25년, 달라이 라마의 사신인 롑상(羅卜藏, Lobsang)과 리번원 시랑(理藩院侍郎) 라두후(拉都虎), 온다(溫達)는 용두산에서 합류하여 바투르 예룩치논과 로리(羅理)에게 목지를 지정하였으며 그 범위는 대체적으로 오늘의 알라산 좌우 두 기(旗)에 상당한다.

요컨대, 달라이 라마가 청조를 존숭함으로 인하여 호쇼트 몽골이 청조에 대한 구심력이 강화되었으며 카르카, 오이라트 몽골이 청조에 반기를 들었을 때 호쇼트 부는 동참하지 않았으며 이는 달라이 라마의 태도와 관계된다. 카르카 몽골 역시 황교집단의 종교세력의 영향 하에서 달라이 라마의 말 만은 청중하였다. 때문에 달라이 라마가 살아 있는 동안, 청조와 주변의 몽골 각 부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협력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중국의 정치-종교 관계의 주도권은 기본적으로 라싸의 달라이 라마 5세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으며 중가르와 호쇼트 칸의 권력교체, 카르카의 내분 및 오삼계의 반란 등 사건에는 모두 달라이 라마 5세가 개입되어 있었는바 청조와 몽골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처하여 있었다. 달라이 라마의 원적 소식이 정식으로 공개된 후에서야 이러한 세력균형은 완전히 청조 편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강희 45년, 달라이 라마 5세가 원적한 지 15년이나 됄을 알게 된 강희제는 “전일 달라이 라마가 살아 있을 적에 새외 변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조용히 있었으니 이로부터 그 소행이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도다”²² 라고 하면서 달라이 라마가 청조 변강 지역의 안정에 대한 공로와 그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긍정하였다.

(3) 대 러시아 관계에서의 라마의 활약

17세기 80년대 말로부터 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러시아와 카르카 몽골은 변경 문제로 충돌하였으며 상호 관계가 매우 긴장하였다. 러시아의 브랑스크(勃良斯克) 총독 골로빈(費·阿·戈洛文)은 대사의 신분으로 시베리아에서 청조와 담판할 동안에도 줄곧 카르카 몽골과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여러 번 사람을 파견하여 집준담바 호톡투를 방문하려 하였으나 호톡투는 모두 “예의” (즉 러시아 사신이 집준담바의 안수 축복의 의식을 받아 들이지 않음)가 다르다는 이유로 방문을 거절하였다.

그중의 한 사례로 1687년 4월, 골로빈이 보조군역 귀족 바실리 페르필예브를 파견하여 서신과 예물을 가지고 호톡투를 방문하려 할 때, 호톡투는 먼저 사

21 『清內閣蒙古堂檔』(몽골어) 제4책, pp.317-324. 齊光 앞의 책 pp.77-78 참조. 지면상의 관계로 원문은 생략.

22 『清聖祖實錄』권 227, 강희 45년 10월 병오. 중국어 원문, 「昔日達賴喇嘛存日, 六十年來, 塞外不生一事, 俱各安靜, 藉此可知其素行之不凡矣。」

람을 보내 바실리에게 “우리 몽골의 관습대로 호토투에게 예를 갖추고 그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에 몽골의 관습대로 예를 갖추고 호토투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호토투는 즉시 명을 내려 당신더러 서신과 예물을 가지고 그를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물었다. 하지만 바실리는 자신은 러시아의 관습에 따라 예를 갖추는 것이며 몽골의 관습에 따르지 않을 것이고 호토투의 축복도 받지 않겠다고 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호토투는 바실리와 만나는 것을 거절하였다.²³

호토투의 규정은 이러하다. 중국의 큰 인물들과 각 지역 타이지(台吉)들마저 배알하러 올 때에도 몽골의 관습에 따라 예를 행하며 호토투의 축복을 받는다.²⁴

『서일승일기』(徐日昇日記)에 기록하기를, 니부추조약이 체결될 즈음에도 카르카 몽골과 러시아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청조의 담판대표가 약 6, 7천 명의 귀순을 원하는 카르카인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들 카르카인들을 인솔한 자는 한 라마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라마는 카르카인들의 깊은 존경을 받는 성인이다”.²⁵

17세기 후기, 러시아 역시 카르카 몽골 왕공들과 접준담바를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달라이 라마 및 그 라마교가 외몽골에 대한 영향력을 인하여 카르카 왕공들은 대부분 남쪽과 화친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특히 카르카 몽골의 우익 자샷트 칸 부의 알탄 칸은 카르카 3대 부족의 수령들 중에서 달라이 라마와의 관계가 제일 밀접하였으며 그 영지도 시베리아 남쪽에 잇닿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자주 충돌하였고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도 자주 하였지만 끝까지 러시아 황제한테 귀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달라이 라마와 밀접하게 연관된다.²⁶

(4) 청조 황제의 종교적 경향에 대한 영향

쿵링웨이(孔令偉)에 의하면, 황태극이 세운 “대청국”의 정통성의 절반은 몽골제국의 유산과 티베트불교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청조는 티베트불교의 보세성(普世性) 위에 그 정통성의 기초를 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1644년 중원의 주인이 된 순치제는 그 즉시로 몽골왕공들의 협력 하에 달라이 라마 5세를 북경에 초청하여 몽골제국 시기 쿠빌라이가 파스와 함께 구축한 ‘시주-복전(施主-福田)’의 정치종교 모델을 본받으려 하였다. 그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²⁷

청나라 시기, 청조 통치자들이 자신의 종교신앙에 대한 태도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티베트 지역의 라마교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만주 지방에서는 라마교를 제한하였다. 이는 후일 일부 학자들이 라마교가

23 『十七世紀俄中關係』 제2권 제1책, p221.

24 『十七世紀俄中關係』 제2권 제2책, p450.

25 『十七世紀俄中關係』 제2권 제4책, p1067.

26 齊光, 앞의 책 pp.48-49.

27 孔令偉, 「1724-1768年間拉達克,西藏與清廷間的歐亞情報網—以清代中國對莫臥爾帝國的認識起源為核心」, 『清史研究』, 2018-2.

몽골 지역의 정치, 경제 발전에 대한 거대한 위협성을 청조 정부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청나라 시기의 국가형성과 왕조재건 과정은 뚜렷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있다.

청나라 초기, 청조 통치자들은 라마교의 수호신으로 자처하였다. 1615년, 누르하치가 “대금” 정권을 건립하기 한 해 전, 그는 이미 허투알라(赫圖阿拉)성의 동쪽에 유명한 “칠대사원”(七大廟)을 세웠는데 이는 신흥 만주정권이 불교를 대폭적으로 지지하는 서막이 되었다. 1621년 붓창 대라마(烏斯藏大喇嘛)는 코르친(科爾沁) 몽골을 거쳐 성경에 와서 만주인들을 위하여 사원을 세우고 불법을 널리 전하였으며 초기의 승단 건립을 지지하였고 그가 원적한 뒤로는 백라마(白喇嘛)가 그의 정치종교적 사업을 계승하였다.²⁸ 청태조 재위 기간에 만주인의 불교 정치종교적 사업은 이미 일정한 규모를 이루었다.

1634년, 차하르 립단 칸(察哈爾林丹汗)은 후금에 패하였으며 그에게 복속하여 있던 메르겐 라마(墨爾根喇嘛)는 “마하가라 불상을 신고 와서 귀순”²⁹ 하였다. 이 보물은 몽골제국 시기 파스파가 주조한 불상으로서 몽골제국 후예의 정치종교 법통 중 “종교”의 상징물이 만주인의 손에 넘어왔음을 표징한다. 그후로 청조는 달라이 라마 5세를 초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 바, 그 의미인 즉 “자고로 제왕들이 창제한 정교적 도통의 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³⁰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만주인들은 명확한 정교적 “법통”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치 연간, 달라이 라마 5세는 초청을 수락하고 북경을 방문하였으며 청조 황제와 나란히 “동, 서방 커칸”으로 칭하였으며 힘을 모아 “정체일체”(政體一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³¹ 청조 황제는 처음으로 “전륜성왕”의 칭호를 얻음으로써³² 청조 황제 형상의 종교화의 절정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687년, 창카 호투투 2세가 북경에 도착하자 “성조는 심히 존중하여”(聖祖深器之) 그를 청조 불교사업의 건설과 몽골, 티베트에 불법을 선양하는 “자삭트 라마”로 받들었다. 18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강희제가 창카에게 “황교의 일에 있어서 티베트 이동의 모든 것은 당신 한 사람의 관할에 맡긴다”고 명하였으며³³, 당시의 정치종교 형세는 강희제도 말했다시피 “만국이 모여 한 사람을 섬기니 이 또한 예로부터 없던 것이라”³⁴고 한 바와 같았다. 마침내, 청조는 정치종교 체제 내에서 최고지위를 지닌 종교수령을 자기 세력으로 갖추게 되었으며 티베트의 달라이, 벤첸 교주들과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만주와 몽골이 지속적으로 티베트불교를 접수하고 만주의 정치적 법통이 점차적으로 확립됨에 따라, 만주-몽골-티베트 삼측은 정치종교 관계상 점차 새로운 “신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백성들의 눈에 만주 황제는 부처의 화신이 되었으며 불교의 수령과도 같았다. 불교승려 봉건주들과 수많은 사원

28 李勤璞, 「白喇嘛與清朝藏傳佛教的建立」, 『中研院近代史研究所集刊』, 1998-30.

29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上)』, 光明日報出版社, 1989, p.126.

30 希都日古 編譯, 『清內秘書院蒙古文檔案匯編漢譯』,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p.28. 중국어 원문, 「不致中斷自古帝王所創政教道統承續之事」.

31 希都日古, 앞의 책, p.144.

32 阿旺洛桑嘉措 著, 陳慶英 등 번역, 『五世達賴喇嘛傳』, 中國藏學出版社, 2006, p.242.

33 釋妙舟, 『蒙藏佛教史』, 廣陵書社, 2009, p.187. 중국어 원문, 「黃教之事, 由藏向東, 均歸爾一人掌管」.

34 張羽新, 『清政府與喇嘛教·清代喇嘛教碑刻錄』, 西藏人民出版社, 1988, p.278. 중국어 원문, 「合萬國以事一人, 又從古所無也」.

과 라마들도 자연스레 만주 황제를 신앙의 광명과 축복 증진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마음에서 우러러 귀순하게 되었다”³⁵.

요컨대, 청조의 입장에서 티베트불교는 이른바 단순한 “황교를 발전시켜 여러 몽골 부족들을 안정시킨다”는 전략적 사용책이 아니었다. 종교적 요인은 17세기 초기의 다민족 국가에 있어서 민족 “접착제”였으며 만주와 몽골과 티베트를 위하여 공동의 신앙기초를 구축하여 주었다.

남은 논제 : 17세기 종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17세기는 종교의 “성세”였다. 17세기의 종교적 영향력은 16세기나 18세기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비록 티베트불교의 영향력이 유난히 특출하게 나타났지만, 동시에 이슬람교, 기독교와 민간종교들도 비교적 좋은 사회발전 환경에 처하여 있었으며 하나같이 발전하고 팽창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는 가히 종교의 황금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통 불교와 도교는 쇠퇴하여 지고 진일보로 세속화되었다. 교리적인 불교, 도교로부터 신앙적인 불교, 도교예로, 승려의 불교, 도사의 도교로부터 서민의 불교, 도교로 변모하여 갔다.

이슬람교는 당나라 때부터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청나라 중기(건륭)에까지 이르는 기나긴 시간 동안 역대 왕조의 출경 제한정책으로 인하여 이 시기의 이슬람교는 내부적으로 자체 교리의 보호와 전승과 교파의 통일에 주목하였으며 옛 관습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신앙과 의식에 변함이 없었다.

청조가 건립된 후, 이슬람교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강희제는 각지의 무슬림들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허락하였으며 이로부터 각지의 무슬림들은 공개적으로 모스크를 짓고 교리를 연구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 나가기 시작하였다. 건륭 중기, 성지에까지 멀리 순례를 간 중국의 무슬림들은 서방 이슬람교가 종교행위와 의식 등의 면에서 중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귀국 후 중국의 이슬람교가 잘못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개혁을 주장하였다. 하여 구교, 신교, 신신교 사이의 분쟁이 일어났다. 교파 간의 분쟁은 이로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어 정치종교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기독교(동정교, 천주교, 신교 포함)의 경우, 중국에서의 전파 경과는 이슬람교와 비슷하여 당나라 때 경교(景敎)의 형태로 전해지고 원나라 때 매우 흥하였다가 원나라 말기에 완전히 소멸당하였다. 기독교의 제3차 중국 선교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이다.

17세기는 서방 종교가 중국에서 큰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이 시기, 중국의 천주교 신도는 수천 명에서 24.5만 명까지 성장하였다. 1692년, 강희제는 “용교령”(容敎令)을 반포하여 종교 포용정책을 펼쳤으며 공식적으로 천주교의 합법적 지위와 선교 권리를 인정하였다. 천주교의 교인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였으며 중국 선교의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강희제와 접촉했거나 왕래했었던

35 블라디미르초브(Vladimirtsov), 『蒙古社會制度史』, pp.299-300.

천주교 선교사만 하더라도 30여 명에 이른다.³⁶

그후 18세기, 이러한 종교들은 하나같이 제한이나 핍박을 받게 된다. 17 세기의 종교가 보여주는 이러한 시대적 특징은 흥미로운 주제로서 학계의 더 많은 주목과 더 깊은 연구를 기대해 본다.

36 胡鐵生, 慕天柱, 「基督教文化在明清的境遇及文化的相互影響」, 『學習與探索』, 2015-8.



일본의 근세화와 토지·상업·군사

마키하라 시게유키 (牧原成征, 도쿄대학)

(원문: 일본어, 번역: 홍성민, 와세다대학)

요지

16세기, 명(明)의 거대한 은(銀) 수요와 일본의 은 증산으로 인해 국제 교역 붐이 일어났다. 도요토미 정권과 만주족의 청조는 이를 기반으로 성립하여 중화를 정복하려고 한 신흥 상업-군사 정권이라는 견해가 정착해 가고 있다. 한편 일본사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석고제(石高制)라는 토지제도, 촌청제(村請制)에 의한 쌀의 연공수취(年貢收取)를 기층으로 한 이른바 농본주의적인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는 전통적인 견해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우선 이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도요토미 정권은 기나이(畿内)의 사회, 경제를 기반·기준으로 삼고 당초부터 대륙침공을 표방하여 전국을 통일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이묘(大名)와 가신[給人]을 병력으로 총동원하였고, 백성에게는 병량=연공미(年貢米)를 생산, 공급시켜서 병량, 물자, 금은 등의 교환과 수송을 초닌(町人)에게 맡기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급진적이면서도 집권적으로 사회의 재편성을 추진하였지만, 대륙침공에는 허망하게도 좌절한다.

히데요시의 사후, 정권은 조선에서 철병을 하지만, 이를 지탱해 온 다이묘 상호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合戦)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천하인(天下人)이 되지만, 모든 다이묘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쉽게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오사카의 진(大阪の陣)에서 도요토미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무력 발동을 동결시켜서 전국의 '평화'를 실현하였다. 특이한 형태로 체제의 계승과 전환이 진행되었고, 이들 모두가 이후의 오랜 도쿠가와 시대를 특징짓는 요소가 된다. 본 보고에서는 이상의 변용 과정을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시작하며

본 보고에 주어진 과제는 임진왜란(일본명: 분로쿠·게이초의 역 文祿・慶長の役)이 일본 국내의 경제·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일찍이 '대륙 침입(唐入り)'을 표방하였고, 이에 따라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대륙 침입은 도요토미 정권 그 자체의 성격

과 따로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거대한 은 수요와 일본의 은 증산에 의해 국제교역 붐이 일어났다. 도요토미 정권과 만주족의 청조는 이를 기반으로 성립하여 중화를 정복하려고 한 신흥 상업-군사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¹ 한편, 일본사에서도 최근 20년 간 동아시아의 움직임을 시야에 넣은 화폐사 등이 크게 진전되었지만, 도요토미 정권은 고쿠다카 제도(石高制)라는 토지제도,² 무라우케 제도(村請制)³를 통한 쌀의 연공수취(年貢收取)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농본주의적인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는 전통적인 견해도 강고하다.⁴ 본 보고에서는 우선 이들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도요토미 정권의 ‘대륙 침입’ 구상은 그 때 그 때 변화하였고, 조선 침략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침략 전쟁은 최종적으로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인해 끝났지만, 그 뒤에도 도요토미 정권은 존속하였고,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 등을 거쳐서 도쿠가와 정권으로 계승 혹은 전환을 맞이한다. 도요토미 정권이 대륙침공을 위해서 구축한 지배체제·동원체제는 출병이 실패한 뒤, 도쿠가와 막번체제(幕藩體制)에 어떻게 계승되었고 어떻게 전환하였는가? 그 과정을 ‘봉공인(奉公人)’⁵ 문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것을 본 보고의 두 번째 과제로 삼고자 한다.

1. 도요토미 정권의 재정 — 공조미(貢租米)와 금은 화폐의 연관 구조

도요토미 정권의 경제·재정기반을 고찰할 때 이용하는 사료가 『大日本租稅志』(大藏省 租稅局)에 실린 「慶長三年藏納目錄」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도요토미 정권의 재정 특징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히데요시가 사망한 1598년(慶長3)에 전국의 고쿠다카(石高) 약 1850만 석 중에서 도요토미 정권의 직할령[藏入地]은 222만 석 정도로 추산된다.⁶ 이에 대해 금·은광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運上]이 금 3400매 미만과 은 79415매 미만이고, 잡세 명목의 세금[諸役運上]이 금 1000매 정도와 은 13950매로, 합계 금 4400매 미만과 은 93361매 여(餘)이다.⁷ 직할지 222만 석의 토지세[物成]는 세율 50%로 치면 110만 석 정도일 것이다. 비축미 환금 가격은 기나이 주변 지역[畿内近國]에서 금 1매 = 40석 정도로,⁸ 당시 금 1매 = 은 10매였기 때문에, 금은 수입은 쌀 55만 석 정도에 해당한다. 도요토미 정권 말기의 경상수입은 금은광·제역 세금[諸役運上]이 연공수입의 50% 정도였다. 이를 확인한 뒤에 아래에서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1 岸本美緒, 「東アジア・東南アジア伝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 世界歴史13』, 岩波書店, 1998.

2 역주: 토지 생산력을 쌀로 환산하는 제도이다.

3 역주: 연공과 부역의 상납, 토지와 인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촌락의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청부하는 방식이다.

4 岸本, 앞의 논문에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평가를 하였지만, 두 견해 간의 관계는 다루지 않았다.

5 역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6 山口啓二, 『山口啓二著作集 第二卷 幕藩制社會の成立』, 校倉書房, 2008, 51-52쪽.

7 금·은 1매 = 10냥, 금 1냥 = 4.4문[匁](165g), 은 1냥 = 4.3문(161.25g), 1문 = 3.75그램.

8 脇田修, 『近世封建社會の經濟構造』, 御茶の水書房, 1963년, 30-31쪽.

직할령 [藏入地] · 연공 수입

우선 직할령은 전국에 배치하면서도 기나이 주변 지역 [畿内近國] 과 조선출병의 병참기지인 북규슈에 집중하였고, 다이묘 (大名) 와 현지의 유력자들을 다이칸 (代官) 으로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다이칸은 직할령의 마을로부터 연공 등을 주로 쌀, 일부는 쿡 (대두) 로 거두어들였고, 정권의 지시에 따라 현물로 바치거나 교토 (京都) 등지로 보내어 지정된 가격으로 환금 (換金) 하여 바쳤다. 도호쿠 (東北) 의 원격지의 경우, 환금 가격이 금 1 매 = 240석 등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었다.

금 · 은광

두 번째로 금 · 은광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도 역시 다이묘와 다이칸 · 상인들에게 납입을 담당하게 하였다. 오다 노부나가 (織田信長) 의 부하로 있었던 하시바 히데요시 (羽柴秀吉, 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는 1580년 (天正8) 무렵에는 다지마 (但馬) 지역을 지배하여 두어서 노부나가로부터 이쿠노 (生野) 은광을 하사받자, 다이칸을 두고 상납은 [上納銀] (= 공용은; 公用銀) 을 바치게 하였다.⁹ 이후 히데요시 직할 은광으로 1598년에는 어마어마한 은 헌납 액 (6.2만 매 여) 를 자랑하였다. 은 9천 매 여의 세금을 부과받은 이나바 (因幡) 은광도 히데요시의 심복 미야베 케이준 (宮部 繼潤) 밑에서 1593년 (文祿2) 에 개발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거의 히데요시 직할이었던 듯 하다 (『稻場民談記』).

한편, 이쿠노 은광에 필적하는 거대 은광으로 알려진 이와미 은광 [石見銀山] 은 일관되게 모리 씨 (毛利氏) 의 지배 하에 놓였다. 모리 씨는 1581년 (天正9) 에 연간 은 3652매의 수입을 이와미 은광에서 얻었다 (『毛利家文書』三四六號). 조선 출병 시기에는 할당 세액 [納所高] 이 1만 매,¹⁰ 1598년 (慶長3) 에는 2.2만 매, 다음 해는 3만 매로 정하였지만 미납이 발생하여 그 다음 해 (1600) 는 2.3만 매로 정하였다.¹¹ 그 중 은채굴에 관한 역 (役) 이 1.4만 매 여로 이 밖에 약 9천 매는 은광 마을 [銀山町] 이나 항구 (溫泉津 (유노즈)) 지역으로 보내는 유통과세 (영업세 · 통과세 [關稅]) 였다. 은 2.3만 매는 당시의 직할령 11만 석 여 수입의 2.5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추계된다.¹² 도요토미 정권보다도 훨씬 은광 수입, 유통 과세의 의존도가 높았다.

게이초 3년 장납목록 (慶長三年藏納目錄) 으로 돌아가면, 「주고쿠 (中國) 의 여러 은광」 에서 은 4869매의 세금을 야나기사와 겐모쓰 (柳澤 監物) 가 담당하였다. 이는 이와미 은광에서 얻은 세수입이 아니라 1594년 (文祿3) 에 모리 씨가 히데요시로부터, 사키 은광 [先銀山] (이와미 은광 등 구래의 은광) 이외의 새 은광에 대한 세금 헌납을 명한 것이다.¹³ 같은 해, 도요토미 정권은 나가사키에서 탄약의 원재료인 납과 연초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와미에 연공쌀을 보내

9 小葉田淳, 『日本鑛山史の研究』, 岩波書店, 1968.

10 本多博之, 『天下統一とシルバーラッシュ』, 吉川弘文館, 2015, 176쪽.

11 이상, 村上直 외 편, 『江戸幕府石見銀山史料』, 雄山閣, 1978, 70-81쪽.

12 秋山伸隆, 「豊臣期における石見銀山支配」, 『龍谷史壇』 132, 2010.

13 秋山, 앞의 논문.

서 은으로 바꾸게하였다(「駒井日記」). 이 임진왜란 후의 휴전기에 도요토미 정권은 ‘시국[時節柄]’을 강조하여 다이묘 영지를 포함한 각지에서 광산을 적극적으로 발견, 개발하기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¹⁴ 정권이 관여하여 각지에서 토지조사[檢地]가 널리 시행된 시점도 이 시기이다. 대외전쟁을 계기로 집중화가 진행되었으니, 장납목록(藏納目錄)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금은 화폐

세 번째로 장납목록에서 제역 세금[諸役運上]은 대부분이 고토의 판료[後藤判料](금 1000 매)·조제의 좌중[常是座中]이 헌납한 은(1만 매)이다. 히데요시는 1594년(文祿3) 4월에 ‘오사카 은 후키토모(大坂銀ふきとも)’를 ‘조제(常是)’라는 명칭의 동업조합[座]으로 정하였다(「駒井日記」). 유통이 있었는지, 정권이 소유한 회취은(灰吹銀)을 정련시키고 품위·규격이 일정한 은을 주조하게 하여, 그 차액·취임(吹賃)에서 세금을 내게 하였다고 보인다. 다음 해에는 고토 토쿠조(後藤 徳乗) 밑에서 금자취(金子吹) 27명을 부속시켰다. 그들이 만든 금화(大判, 小判도 포함?)를 고토에게 검정시켜서 오동나무의 극인(極印)을 찍거나 묵서(墨書)를 해서 판료(判料) 수취를 인정하였고, 그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게 하였다고 생각한다.¹⁵ 이들은 후대의 긴자(金座), 긴자(銀座)에 해당한다. 각지에서 다양한 금화, 은화를 주조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권으로서 검정·보증업자를 하나로 공인하였고, 금은화폐의 공인에 나섰다.

그런데 중세 일본에서는 중국산 동전이 화폐로써 이용되었지만, 15세기 후반에는 악전(惡錢)이 증가하여 전화(錢貨) 간의 가치에도 차이가 벌어져서 유통도 불안정해졌다. 한편, 1530년대까지 회취법(灰吹法)¹⁶이 도입되어 일본에서 은이 증산되자, 중국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거대한 은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에, 1540년대에는 은이 무역 통화(通貨)로써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일본에는 생사(生糸), 다기·도자기, 연초(煙硝), 금 등을 수입하였다. 1570년대에는 은이 금과 함께 일본 국내에서도 통화로써 유통될수 있게되어 .이제껏 동전이 담당하였던 기능을 대체하였다.¹⁷ 다만 금은의 통용은 도시와 그 주변이 중심이었고, 이 단계에서는 지방과 농촌[在方]까지는 퍼지지 않아서, 중국처럼 토지소유자로부터 직접 은으로 납세하게 하는 제도를 채용하는 조건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도요토미 정권은 기나이 주변 지역[畿内近國]의 거대한 쌀 생산에서 취하는 연공을 재정의 최대 제원으로 하여, 이를 군대의 병량과 노동력의 값(米穀)으로 치르고 남은 부분을 도시 등의 시장에서 금은으로 바꾸어서 값을 치르고 비축하였다. 또한 이쿠노를 비롯한 은광의 금은 생산에서 얻은 세금을 두 번

14 小葉田, 앞의 책; 本多, 앞의 책.

15 小葉田淳, 『日本の貨幣』, 至文堂, 1966; 藤井讓治, 「近世貨幣論」,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11巻 近世2』, 岩波書店, 2014; 本多, 앞의 책을 참고하였다.

16 역주: 회취법이란 高爐 바닥에 재를 채우고 그 위에 금은 광석과 납을 얹어 풀무로 가열함으로써 납과 불순물은 녹아서 재에 흡수되게 하고 순수한 금·은만을 남기는 제련법이다. 이 기술의 계보에는 중국 전래설, 조선 경우 전래설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후자 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17 本多, 앞의 책.

쌀 재원으로 삼았으니, 또한 금은을 화폐로 제조·검정하게 하였다. 히데요시는 일찍부터 기나이 주변 지역〔畿内近國〕에서 이 수입원들과 그 연관성에 주목하였고, 토지조사에 의한 쌀 연공수취, 도시의 건설·변영, 광산의 개발, 금은의 통용을 더욱 추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금은이 채굴되어 가치를 가지게 된 이유는 국내·역내에서 식량(특히 주곡〔主穀〕)의 생산과 유통이 어느 정도 발달하였기 때문이다.¹⁸ 역으로 많은 쌀이 생산되어 정권이 쌀 연공을 아무리 수취·집중시킬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금·은과 교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비축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반감된다. 히데요시는 1586년(天正14)초두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 家康)를 공격할 의사를 나타냈을 때, 병참능력을 선전하고 군대에게는 병량을 지급하며 시코쿠(四國)·규슈〔西國〕의 군대의 뭍은 배로 수송하고, 미노, 오와리〔濃尾〕지역의 군대에는 금은으로 지급한다고 서술하였다.¹⁹ 또한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각지로부터 연공의 쌀·상인 소유의 쌀의 수송태세를 정비하고, 하카타(博多)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하카타와 나고야(名護屋)에서 이보다 비싼 가격의 은으로 쌀을 구매하기로 상인들에게 포고하였다(『淺野家文書』二六一號).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도 조선출병도 쌀은 물론이거니와 금, 은을 충분히 사용하여 가능하였으니, 이는 국제적인 교통·교역으로 금은의 통용이 촉진된 결과이다.

무역이윤

장남목록으로 돌아가면, 네 번째로 사카이(堺)로부터 토지세〔地子〕와 여러 동업조합의 잡세〔役錢〕를 수취하였는데, 모두 합하여 은 1250매(53관 750문)인데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니다.²⁰ 문제는 무역에 의한 이윤인데, 이러한 임시 수입²¹은 장남목록에 기록되지 않았다. 선교사 사비에르는 방일(訪日) 초기에, “수도로부터 이틀 간의 거리에 있는 일본의 주요 항구인 사카이에(중략) 물질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관(商館)을 설치합시다. 왜냐하면 이 사카이는 일본에서도 가장 부유한 항구로, 여기에는 일본 국내의 은과 금 대부분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²²라고 제안하였지만, 상관의 설치는 실현되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1587년(天正15), 사쓰마(薩摩)의 시마즈 씨(島津氏)를 공격하던 도중, 히고(肥後) 지역에서 포르투갈 사람을 접견하고는 포르투갈 배가 사카이 주변에 입항하기를 강력하게 원했다.²³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을까,²⁴ 규슈 평정후 나가사키를 몰수하여 직할로 삼았다.

18 『當代記』1608년(慶長13)4월21일 조 뒤의 기사에서는 오슈〔奥州〕남부에서 금이 나오자 금 채굴자들이 사도(佐渡) 지역에서 내려갔고, 더 멀리 마쓰마에(松前) 지역으로 내려가서 금광을 채굴하려고 하였지만, 마쓰마에 씨가 이 지역에는 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19 名古屋市博物館 編, 『豊臣秀吉文書集 三』, 吉川弘文館, 2017, 1835쪽.

20 1579년(天正7) 이전에 나가사키를 영유하였던 오무라 씨(大村氏)는 은납 토지세〔地子銀〕와 포르투갈 배에서 걷는 정박세를 합하여 연간 은 23~24관의 항상적인 수입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武野燾子, 『藩貿易史の研究』, ミネルヴァ書房, 1979, 46쪽.

21 이 밖에도 다이묘 들의 현상이 있었지만, 그 물량·액수의 집계는 불가능하다. 히데요시의 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2 『聖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全書簡3』, 平凡社, 1994, 162-163쪽. 1549년 11월 5일자, 말라카의 돈 페드로 다 실바에게 보낸 편지.

23 岡本良知, 『十六世紀日欧交通史の研究』, 原書房, 1974년 복각판(원판에 해당되는 증보판은 1942년), 470-72쪽.

24 高瀬弘一郎, 『キリシタン時代の文化と諸相』, 八木書店, 2001, 11-13쪽.

다음 해 여름, 나가사키로 포르투갈 배가 내항하자 고니시 류사(小西立佐)²⁵에게 은 2천 관(4651 매) 이상을 준 뒤 파견하여서 대량의 생사를 우선적으로 매점하게 하였다. 이 거래가 끝나기까지는 다른 누군가가 포르투갈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금하였다.²⁶ 또한 이후에 사쓰마(薩摩) 지역의 가타우라(片浦)에 흑선(포르투갈 배?)이 도착해서 실 무역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시마즈 씨가 히데요시에게 보고하자,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다. — 봉공에게 은 2만 매를 준 뒤 파견하여서 합당한 가격을 매겨서 사들여라. 그 전에는 거래하지 말라. 만약 실이 남는다면 다른 상인들에게도 사들이게 하라. 또한 이후 배가 몇 척이나 오더라도 모두 사들여라. 이는 상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으로 배가 더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함이다(『島津家文書』三八四). 아사오 나오히로(朝尾直弘)가 지적하였듯이, 이윤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라쿠시·라쿠자령[樂市·樂座令]과 같이 방문한 상인을 천하인(天下人)이 보호하고 은충을 내린다는 측면이 있었다.²⁷ 이 때문에 관세를 징수하지도 않았다.

정권이 사들인 생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권 공인 하에서 히데요시의 아내(정실 네네)가 지은 실을 교토의 초닌(町人)에게 강매시켰음을 알 수 있다(足守木下家文書). 또한 1594·95년(文祿3·4)에는 필리핀에서 건너온 ‘루순단지’를 정권이 독점적으로 사들여서 상인들에게 강매시켰다(『當代記』·組屋文書). 다만 도요토미 정권이 직접 무역에 관여할 수 있었던 시기는 규슈(九州) 평정 이후로 서일본의 다이묘들과 비교한다면 무역 자체에는 불리한 조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지세(地稅)·유통세의 면제

다섯 번째로 게이초 3년 장납목록을 보더라도 도요토미 정권은 교토·오사카 등의 직할도시에서 토지세[地子]와 상업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일견 기이하게도 보이기 때문에, 도요토미 정권이 ‘상업’에 기반을 두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논점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오다·도요토미(특히 도요토미) 정권의 조카마치(城下町) 건설, 초닌의 집단 거주 촉진을 위한 정책, 즉 라쿠시·라쿠자(즉, 임시 잡세[座公事] = 상업세 면제)와 지세 면제[地子免許]의 결과이다.²⁸ 히데요시는 1585년(天正13)에는 교토 등지에서 임시잡세를 기본적으로 철회·부정하였고, 1591년(天正19)에는 교토·오사카(大坂)·야마토코리야마(大和郡山)라는 직할 조카마치에서 거의 일제히 토지세를 면제하였다. 이들은 에도(江戸) 막부의 삼도(교토 오사카 에도)²⁹ 지배에서도 계승되어, 상업세는 부분적으로 부과되기도 하였지만 지세 면제는 막말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영주·성주가 부과한 다양한 공적인 업무[御用]와 역에 종사하게 한 대가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지만, 그 뿐만 아니라 삼도의 초닌은 정권과 영

25 고니시 유키나가의 아버지이다. 사카이 상인 출신으로 여겨지며, 히데요시의 사카이 부교 겸 감정두[辨奉行兼勘定頭]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鳥津亮二, 『小西行長』, 八木書店, 2010, 7쪽, 31-35쪽).

26 岡本, 앞의 책, 488-89쪽.

27 朝尾直弘, 『朝尾直弘著作集 第五卷 鎮国』, 岩波書店, 2005, 216-218쪽.

28 牧原成征, 「近世の社會秩序の形成」, 『日本史研究』644, 2016.

29 역주: 도쿄, 교토, 오사카를 가리킴.

주층이 매각하는 연공미를 원격지에서 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을 사실상 강제하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비싼 쌀값 지불의 대가로서 — 명확하게 이와 같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 토지세가 계속 면제되었다고 이해하여서 이 일견 극단적인 우대책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처럼 도시[町方]와 지방[在方]을 구별·분리하여 최대 상품인 쌀을 지방의 백성에게 공급하게 하고, 그 상당 부분을 과대한 이윤을 취하여 초닌에게 매각·환금한다는 농업과 상업(광공업) 간의 분업 편성이 중세³⁰와는 다른 근세 국가재정의 기본원리로서 정착하였다. 이로써 도시 및 유통이 현저하게 발달하여 금은광의 세금과 무역이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격감하였고, 대신에 17세기 말 이후 금은화 발행이익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어갔다.

2. 병사의 동원과 고용노동의 전개

덴쇼(天正) 19년령

도요토미 정권이 대륙 침공을 목표로 구축한 지배체제·동원태세를 논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1591년(天正 19) 8월의 히데요시 주인장(朱印狀)이다(『淺野家文書』二五八號 등). 이 사료는 일찍이 무사·백성·초닌이라는 근세적인 신분을 정한 ‘신분법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카기 쇼사쿠(高木 昭作)는 그 첫머리의 ‘봉공인’은 무사를 가리키지 않고 무사의 종자(從者)를 의미하며, 이는 조선 출병을 목표로 봉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으로 전시(戰時)의 시한입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³¹

중세에는 봉공(奉公) / 봉공인(奉公人)이란 조정이나 권문·무가를 섬기는 것 / 또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 주인을 섬기는 사용인은 ‘下人’, ‘下部’, ‘被官’ 등의 용어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에도시대에는 무가·공가(公家)·초닌·백성을 막문하고, 주인을 섬기는데 일정 기간[年季] 동안 고용된 노동자를 널리 봉공인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전환의 기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법에 있다. 히데요시는 1585년(天正 13)에 지배 영역 전체에 영지 개편을 단행하였고, 다음 해에는 정권의 기본법을 정하였지만(近江水口加藤家文書 등), 이러한 법령에서는 규닌(給人, 상급가신)을 섬기는 시종[侍 = 若黨]과 중간급 하인[中間]·하인[小者]을 ‘봉공인’으로 불렀고,³² 품격 있는 호칭을 부여하여 백성들과 구별하였다.

게다가 조선 출병을 앞둔 덴쇼 19년령에서는 이하의 세 가지를 명하였다. ① 지난 7월의 오슈(奥州) 출병 이후에 봉공인이 새롭게 초닌·백성이 되었다면, 고을[町]과 마을의 책임으로 바꾸고, (그를) 두어서는 안된다. ②농촌의 백성들이 논밭을 버리고 장사나 임금노동[賃仕事]을 했을 경우, 그 당사자는 물론

30 무로마치 막부의 제정은 단전(段錢)·동별전(棟別錢), 무역 이윤, 교토의 토창역(土倉役)·주옥역(酒屋役) 등에 의존하였다.

31 高木昭作, 「いわゆる身分法令と「一季居」禁令」, 『日本近世国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90년(1984년 初出).

32 이러한 호칭법이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소속한 마을 전체를 징계한다. 봉공도 하지 않고 전답도 경작하지 않는 자는 규닌·다이칸으로 임명해서 두어서는 안된다. ③봉공인으로 주인에게 사전의 양해 없이 그만둔 자는 고용해서는 안된다. 이전 주인에게 돌려보내도록 하라. ③은 이전에도 많은 다이묘·영주가 취한 법이었는데, 보증인[請人]을 세우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엄벌규정을 두었다. 또한 교토에서는 봉공인·백성을 숨겨 두어서는 안된다는 뜻의 보증서[請狀]를 고을[町]이 제출하도록 하였다(大中院文書). 보증인·보증서는 이후 인구 이동에 관한 법규제의 기본 수단이 된다.

관백(關白)을 물려받은 도요토미 히데쓰구(豐臣 秀次)는 다음 해인 1592년 정월에 봉공인들의 결락 금지를 엄명하는 주인장(朱印狀)을 공포하였다(『淺野家文書』二六〇號 등). 그 첫머리에 “대륙 침략 시에 진중에 있던 중에(唐入に就いて御在陣中)”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카기 쇼사쿠는 이 법이 시한입법으로 덴쇼 19년 정도 동일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만 히데요시가 전쟁 종결의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고 ‘시한’이라는 표현에도 어폐가 있다. 조선 출병 무렵에 봉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법’으로 보아야겠다. 다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공인이 초닌·백성이 된다’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봉공인·백성·초닌을 구별하였음을 전제로 하였다. 그 배경에는 전국 통일의 완료와 전국적인 토지조사(檢地), 고쿠다카(石高)의 산정(御前帳徴收), 곧 있어서 이루어지는 교토·오사카·야마토코리야마의 지세 면제 = 도시와 지방의 분리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지금까지의 히데요시 신분정책의 집대성이라고 일컬어지며, 덴쇼 19년령은 그 일환이기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³³

인원 동원과 약탈

봉공인들은 특별히 대외전쟁에 반드시 나아가서 종군하지도 않았고, 히데쓰구령(秀次令)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제법령에 의해 다이묘·상급가신[給人]의 봉공인 확보라는 권한을 부여 받아서, 고을[町]과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배체제는 강화되었다. 한편, 정권·다이묘와 민중 사이의 모순도 심화되었다. 봉공인이라고 하여도 실체는 농민·초닌과 유사한 면도 많아서 특히 주력인 규슈·주고쿠·시코쿠의 여러 다이묘는 다수의 백성을 군진의 노역자[陣夫]·인부로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596년(文祿5) 12월에 시마즈 가문에서는 정유재란을 맞이하여 군역 인원수 등의 추산치를 작성하였지만(『島津家文書』九六四號), 여기서는 350기(騎) 외에 인원수가 15097명으로 되었는데, 후자 가운데 하급 사무라이 집단에게는 1명에 2~3명 씩 총계 1900명의 인부[夫丸]가 부속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직할지에서 차출할 인부가 2000명, 노꾼[加子]이 2000명으로 계산되었다(모두 총 인원수에 포함됨). 히데쓰구령에서는 봉공인에 더하여 “인부 이하에 이르기까지” 결락을 금지하였고, 또한 군진으로 징발된 백성의 논밭을 소속된 마을에게 책임지고 경작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어부들도 광범위하게 노꾼으로 동원되었으니, 해당 지역의 생산을 황폐화시켰다.

33 牧原成征, 「兵農分離と石高制」,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10巻 近世1』, 岩波書店, 2014.

영주의 지역성도 여전히 강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동원태세로 인해 오히려 마을의 상급가신[給人]과 봉공인이 확대된 측면도 있었다.³⁴

조선 출병에서 백성의 약탈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겠다. 전국시대의 전쟁에서는 무사와 잡병(히데요시가 말한 봉공인을 포함함)에 의한 물자만이 아니라 백성의 약탈도 널리 자행되었다. 약탈된 백성들은 사노비[譜代下人]·노동력으로서 소유 대상이 되었고, 또한 매매되었다. 전국시대 다이묘는 아군이 된 특정한 세력이나 지역에 신청을 접수해서 ‘금제(禁制)’를 발령하여, 아군의 공격이나 약탈 등을 금지하였다. 히데요시는 규슈 정벌 시부터 한 지역[一國]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령 및 백성의 귀환을 명하는 법령을 발포하였고, 광역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정주와 경작을 명하였고, 백성의 약탈, 인신매매를 금지하였다.³⁵ 이들 법령이 이속고 전국으로 확대되었지만, 관철되지는 않았다. 명을 목표로 한 임진왜란에서는 ‘고려국(高麗國)’을 대상 지역[所付]으로 한 히데요시의 금령이 전선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나베시마나오시게(鍋島直茂)들에게 전달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투의 전개와 함께 백성의 약탈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유재란에서는 조선 전라도를 무력으로 정복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학살이나 백성의 약탈이 격심하게 이루어졌다. 다이묘들의 의도는 조선에서 약탈한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어 경작자로 삼고, 일본의 백성을 병사로서 동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된다.³⁶

도요토미에서 도쿠가와로

그럼 히데요시가 대륙침공을 목표로 구축하였던 동원태세는 침략전쟁이 끝난 뒤 도쿠가와 정권으로 계승되지 않았던 것일까? 혹은 도요토미 정권의 지배체제는 어떻게 도쿠가와 정권으로 계승되었던 것일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 후의 논공행상에서 사실상 영지 하사[領地宛行]를 대규모로 실시하였는데, 여러 다이묘 주군으로서의 지위를 확립 한것은 아니었다. 다이묘들의 종주 가문이었던 도요토미 가문이 오사카 성에서 아직 존속하였기 때문에, 그의 존재·영향력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교토·후시미(伏見)·사카이·나라(奈良)·나가사키 및 오사카 성 주변의 영지 이외의 도요토미 정권 직할령, 주요 금은광을 입수하였고, 외교·무역권도 장악하였다. 또한 여러 다이묘에게 부역[普請役]을 부과하여 후시미 성(伏見城)·니조 성(二條城)·에도 성(江戸城)·스푸 성(駿府城)·나고야 성(名古屋城) 등을 조영하였다. 1603년에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에 임관하였고, 1605년에는 장군직을 아들 히데타다(秀忠)에게 물려주었다. 그 사이 여러 다이묘에게 각 마을의 고쿠다카(石高)를 기록한 향장(郷帳)과 국회도(國繪圖)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여러 다이묘는 조선 출병 시기의 동원태세에서 벗어났고, 세키가하라 전

34 稻葉繼陽, 『兵農分離と侵略動員』, 『日本近世社會形成史論』, 校倉書房, 2009년(2003년 初出).

35 高木昭作, 『亂世』, 『歴史學研究』 574, 1987; 小林清治, 『秀吉權力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1994년; 藤木久志, 『雜兵たちの戰場』, 朝日新聞社, 1995.

36 『朝鮮王朝實錄』 宣祖三十年 十月 庚申條. 조선 포로가 된 가토 기요마사의 신하 후쿠다 간스케(福田勘介)의 공술.

투 이후에 영지가 이전[轉封]된 경우도 많았으니, 재정지출에 곤란해 하면서도 영지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쿠가와 정권에 의한 오사카 포위망 형성과 더불어, 각지에서 각각 성과 조카마치의 형성을 추진하였다.³⁷

도쿠가와 씨의 봉공인(奉公人) 법제

도쿠가와 정권은 당시 여러 다이묘의 영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을 공포할 수는 없었다.³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도 막부의 봉공인 법제로서는 1610년(慶長15) 4월 2일자의 「定」 3개조가 중요하다(『御當家令條』『御制法』). ①무사들은 시종[侍 = 若黨]은 물론 중간급 하인[中間]·하인[小者]에 이르기까지 ‘일시적 고용자[一季者]’를 일체 고용해서는 안된다. 봉공을 바라는 자는 일계(一季)(일년간 혹은 반년간)를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신참자는 기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가급적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근무하라. 그 해의 급료[切米]를 받은 경우는 다음 해 여름까지는 근무하고 그 뒤에 사직을 신청하라. ③평시의 부역·출진·교토 상경[御上洛] 공양(御供) 등의 경우(이하 ‘전시(戰時)’라고 하겠다)에는 퇴직을 신청해서는 안된다. 간토(關東)안의 여러 봉공인(여기서는 도쿠가와 씨의 직참가신[直參家臣]³⁹)은 시정의 임금노동자(六尺; 로쿠샤쿠)를 일체 고용해서는 안된다.

이 법은 에도에서 히데타다(秀忠)를 보좌하는 원로(元老)[秀忠付年寄]가 연명하여 포고한 법으로 간주되는데, 도쿠가와 씨의 영지인 간토 지역의 무사(「諸奉公人」)와 시종[侍]·중간급 하인·하인 간의 관계를 설정한 법이다. 백성·초년의 일시적인 고용을 금지하고, 신참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서 가급적 인내하면서 봉공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봉공인’의 어법이 히데요시의 법과는 다르지만, 히데요시가 봉공인과 백성을 구별하였던 방침 자체는 계승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실제로는 백성·초년에서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가 상당한 정도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봉공을 끝낸 자가 백성·초년이 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시’에는 퇴직 신청[暇乞い] 자체를 금지하여 고용을 강제로 지속시키는 특별조치를 발동한다고 규정하였다.⁴⁰ 이는 이후에 에도 막부의 기본 방침이 된다.

그 전해인 1609년(慶長14) 정월 22일자 「條々」 5개조(『條令』)에서는 첫 번째 조목에서 ‘일시적인 고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이전부터 상인이었던 자 이외는 봉공을 그만 둔 자 또는 백성이 행상(行商)이나 이발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자는 마치부교(町奉行)⁴¹의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라’라고 규정하고, 이하 에도의 치안에 관한 무사층의 금지사항을 열거하였다. 역시 히데타다를 보좌하는 원로가 하타모토(旗本)·고케닌(御家人)를

37 여러 다이묘의 도시·상업정책은 통일정권인 에도 막부와는 다른 면이 많은데, 상업세를 부과하거나 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38 藤井謙治, 「「法度」の支配」, 『日本の近世3支配のしくみ』, 中央公論社, 1991.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처럼 여러 다이묘에게 일제히 주인장(朱印狀)·자필 문서[直書]를 보내는 경우도 없었다.

39 초기 에도 막부 법령에서는 ‘봉공인’이 무사의 신분[士分]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40 오사카 겨울의 진 시기에 히데타다를 보좌하는 원로가 공포하였다고 보이는 1614년(慶長19) 10월의 「定」(『條令』)에서는 시종[若黨]·하인·인부의 결락을 엄금하고, 숙소[宿]와 마을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군전에서 돌아올 때에는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명하였는데, 히데쓰구 령과 유사하다.

41 역주: 에도 시내의 행정, 사법, 경찰을 담당하였다.

대상으로 제정한 법령으로, 에도의 거리에도 방문을 게시하였고, 참고하라는 뜻으로 다이묘에게도 전달되었다(上杉年譜)고 생각된다.⁴² 첫 번째 조목은 히데요시의 덴쇼(天正) 19년령의 두 번째 조목을 계승하였는데, 마치부교에 의한 증명서 발행을 규정하여,⁴³ 에도의 치안유지에만 관련된 법으로 바뀌었다.

단기 봉공인 고용관행

중세 말에는 일시[一季]적인 봉공 계약 관행이 이미 존재하였다. 사료상 빠른 예는 아와(阿波) 지역 미요시 가문(三好家)의 중신으로 기나이에도 오랫동안 출진하였던 시노하라 나가후사(篠原 長房)가 1560년대 무렵에 제정한 분국법(分國法)「新加制式」의 제13조인「一季奉公輩事」이다. 여러 주인 밑을 몇 달 까지를 기한으로 전전하는 봉공인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토에서도 2월, 8월에 교대하는 임금노동자가 많이 존재하였다.⁴⁴

에도시대 초기의 일계봉공인(一季奉公人)에 관해서는「元和年錄」의 1618년(元和4)의 기사가 자주 인용된다. ①무사의 봉공인은 연계(年季)와는 별도로 일계(一季)란 2월, 8월로 1년에 두 차례 교대한다. 이게 부산스럽기 때문에, 근래부터 2월 2일로 교대일을 정하였다. 농촌은 2월에 경작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봉공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농촌으로 돌아와서 경작을 개시하기 위해 명하였다. ②그러나 무사의 봉공인들이 상당수 실직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꺼리고, 봉공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탁발[勸進]하는 종교자로서 에도에 체류하여 치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명령이 되었다. 무사가 고용한 중간급 하인[中間](이 될 수 있는 자)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다. 즉 에도에서 봉공인 실직자를 단속하고 봉공인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①로 돌아가면, 이는 지금까지 2월, 8월 매년 두 차례의 교대를 빈번한 교대를 기피하는 고용주 = 무사 측의 형편을 고려하여 2월 한 차례로 한정시킨 조치였다. “연계와는 별도로 일계란 2월, 8월로 매년 두 차례 교대한다.”라는 표현에서 지금까지 일계란 기본적으로 반년을 의미하였을 가능성이 있겠다.⁴⁵ 또한 ‘근래[近頃]’, 즉 1618년(元和4)보다 조금 앞서서 이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가 니시노토인 도키요시(西洞院 時慶)의 일기『時慶記』1610년(慶長15) 2월 2일·5일 조가 주목된다. 교토 쇼시다이(京都所司代) 이타쿠라 가쓰시게(板倉 勝重)가 봉공인의 교대일을 이후로 2월 2일로 공식

42 『大日本史料』第十二編之十一, 64-66쪽을 참고.

43 시기가 내려와서 1637년(寬永14) 10월에 막부가 간토, 고신[關東甲信] 지역 영주에게 지시한 법령(『御當家令條』)에서는 마을[郷中]에서 봉공을 하거나 장사를 하러 떠날 경우, 새 거주지를 쇼야(庄屋)·오인조(五人組)에게 연락하도록 요구하였고, 백성의 상행위를 인정하였다. 한편 메이레키(明暦)의 대화재 이후에는 무가 봉공인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에도에서 행상인에게 표찰을 교부하여서 취업 규제를 강화하였다.

44 1613년(慶長18)에 교토 주변에서 기록한 수필『寒川入道筆記』에는 “교토의 임금노동자라도 2월, 8월의 교대 철에 서로 모여서 ‘이전 계절에 그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하였다.

45 『言經卿記』1594년(文祿3) 11월 16일 조에서는 야마시마 토키쓰네(山科 言經)가 아와즈(粟津) 지역의 요지로(與二郎)에게 은 25문을 대여하였고 그 중에서 20문을 1년 3개월 동안 하인[小者]으로 연계봉공(年季奉公)하여서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을 한 증명서가 있다. 여기서는 1년 3개월을 ‘二季半’으로 표기하였으니, 一季=반년이다. 1652년의 에도 마치부레[江戸町觸]에서는 ‘一季·半季에 주거를 교대하는 자’라고 표기하였으니, 一季=1년인 듯하다(『江戸町觸集成』八四號).

으로 정한다는 기사이다. 『時慶記』에서는 그 이전에는 2월 초~3월 초, 8월 초~9월 초의 교대 기사가 많다. 이 이타쿠라의 조치도 매년 두 차례의 교대를 한 차례로 바꾸었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반년 단위(=一季)의 교대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 일시적 고용의 금지라고 할 수 있는 방침이 에도의 방침을 따라서 1610년에 교토에서도 제정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상으로 도쿠가와 정권은 2월·8월의 봉공인 교대 관행이 있는 가운데, 막신(幕臣)에 대해 백성·초년의 일시적인 봉공인 고용을 금지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한 차례의 교대로 한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에도의 방문 게시[高札]

그럼 오사카의 진(大坂の陣)에서 도요토미 씨를 멸망시키고 히데타다로 세 대교체를 한 뒤, 1616년(元和2) 10월에 막부는 에도에서 다음과 같은 방문을 붙였다. 즉 각각의 무사들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행위 금지, 인신매매 금지, 연계(年季)를 3년으로 한정, 흡연·담배 제작의 금지, 이 밖에 에도 거리의 치안에 관한 항목을 열거하였다. 게이초(慶長) 14년령과 15년령을 포함한 여러 법령을 통합한 내용이지만, 인신매매 금지, 3년계(年季) 제한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전국시대의 종결[元和偃武]을 실현시킨 히데타다 정권이 도요토미 정권의 인신매매 금령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3년까지 연계제한을 둔 것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막부의 신하에 대하여는 일계 봉공인의 고용을 금지 하였는데 백성·초년에 대한 장년계 봉공도 금지하였기에 거기에는 모순되는 일면도 있었다.⁴⁶

이후 이 법령을 1618년(元和4), 19년, 1621년, 22년, 25년, 27년, ...으로 거의 매년,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다시 공포하였다. 이들 중에는 다이묘 가문의 사료에 기록된 법령도 있지만, 이는 본래 에도에서 게시한 방문[高札]이니 다이묘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초는 다이묘의 영지와 가신[家中] 전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은 아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1619년(元和5)에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의 히로시마 영지를 몰수하였을 때 공표한 히데타다 흑인장(秀忠黒印狀)에서는 “백성이 미납한 연공미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혹은 일시적 고용으로 후쿠시마 가신(의 무사)에 봉공하고 있을 경우, 모두(영지 몰수와 함께) 계약을 파기하니 그 곳에 머무르도록 하라”라고 명하였으니(『毛利家文書』一一六二), 후쿠시마 씨 가신이 백성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경우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계봉공인의 공인

막부는 1636년(寛永13)에 이르러서, 장군 이에미쓰(家光)의 닛코(日光) 참배를 앞두고, ‘일계거봉공인(一季居奉公人)’을 그 해는 그대로 계속해서 고용해야 한다고 명하고, 오메쓰케[大目付]⁴⁷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게 하였

46 전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지않아 폐지되었고, 후자도 1627년(寛永4)에는 10년계 제한(年季制限)으로 수정된다.

47 역주: 다이묘를 감찰하는 직무이다.

다(江戸幕府日記). 오메쓰케를 통해 여러 다이묘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아도 좋겠다. 이 때의 닛코 참배는 간에이(寛永) 년간의 대개축[大造替]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 대규모 참배로 공가·하타모토 직참(直參) 외에 도쿠가와 일족·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⁴⁸ 도자마 다이묘(外様大名)⁴⁹의 일부(동행 집단)를 거느리고 성대하게 치뤄졌다. 또한 전년에는 참근교대(參勤交代)를 무가의 여러 법도에 포함시켜서 제도화하였다. 구마모토(熊本)의 번주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 忠利)는 그 전 해에 봉공인의 부족, 임금 양등을 탄식하고, 참근교대는 2월 2일 교대 후에 봉공인을 확보하고 나서 3월에 적은 인원수로 에도에 상경[出府]하는 제도로 삼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막부의 최고 수뇌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밝혔다.⁵⁰ 시마바라(島原)·아마쿠사(天草)의 난이 한창인 1638년(寛永15) 2월에도 막부는 작년부터 있는 일시적 고용자를 8월까지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다이묘에게 전달하였다(『細川家史料』四〇四三號).

이 시기 시모쓰케(下野) 지역의 영주 미나가와 다카쓰네(皆川 隆庸)가 가신 중에 일시적 고용자를 일체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상신서(上申書)를 제출하였으니,⁵¹ 간토의 하타모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시적 고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한편 1627년(寛永4)령(『御當家令條』)에 의하면, 금령을 위반한 고용주는 지위에 따라 벌금을 낼 뿐이었는데, 방문의 계시에서는 1661년(寛文元)까지 계속 금지시켰지만, 꼼꼼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에도막부는 참근교대를 제도화하고 다이묘 통제를 강화한 결과, 오히려 다이묘의 일계 봉공인 고용의 현실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하타모토·고케닌에 대한 일시적 고용의 금령도 이윽고 방기하기에 이른다.

이상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자. ①적어도 교토·기나이 주변에서는 중세 말부터 무가·공가, 사원, 신사의 여러 권문이 고용한 하인(비숙련노동력)에 대해서 일시적, 단기 계약에 의한 노동시장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②히데요시는 무사의 종자를 ‘봉공인’으로 불러서 백성과 구별하였고, 방대한 상비군을 만들어냈다. 특히 침략전쟁기에는 병사와 종군노동력의 확보책을 강화하였지만, 이는 상급 가신[給人]과 재지사회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③도쿠가와 정권도 간토의 직참가신에 대해서는 당초 일계봉공인을 금지하고, 상비군이라는 명목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④그러나 여러 다이묘는 일시적인 봉공인에게 의존하였고, 막부도 거대도시를 지배하여 다이묘를 거지반 에도에서 모여 살게 하는 과정에서 단기 봉공 관행이란 현실에 대응해 갔다. ‘평화’를 전제로 일상적으로는 백성이나 시정의 노동자를 고용하였고(傭兵), 전시(戰時)에만 그 고용을 강제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처럼 방대한 상비군이 창출되자, 평시가 되면 이를 ‘용병’이 대체하였고, 특수한 남자노동시장의 비약적인 확대를 낳았다. ‘병사’가 될 수 없었던 여성

48 역주: 세키가하라 전투 전부터 도쿠가와 가문의 신임이 두터웠던 다이묘를 가리킨다.

49 역주: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 복종한 다이묘를 가리킨다.

50 『部分御舊記』所收, 寛永11년 11월 18일자 永井直清에게 보내는 書狀(『熊本縣史料 近世篇 第一』, 187-189쪽). 永井直清は、上方八人衆の一人で、幕閣を構成していたといえる。吉村豊雄, 「参勤交代の制度化についての考察」, 『文學部論叢(熊本大學)』29, 1989은 이 제안이 장군 이에미쓰(家光)에게 계승되었고, 막부의 제도정책에 상당수 도입되었다고 하였다.

51 高木, 앞의 책, 263-65쪽. 1633년(寛永10)~1645년(正保2)의 기록.

의 법적 지위는 낮았고, 노동력 수요도 부족하여서, 몸을 파는 관계가 잔존하였다. 일본 근세의 노동관행에는 도요토미 정권에 의한 상비군의 창설과 그 모순, 전쟁상태 하의 무가 봉공인의 신분보증 제도, 인신매매·장년계 봉공(長年季奉公)의 금지, 집권화와 분권화의 상극 등의 역사 과정이 깊고도 복잡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다.

맺으며

마지막으로 대외 전쟁 이후의 역사 과정이 일본 사회에 가져온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야스 정권이 도요토미 가문의 존재를 전제로 삼아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것에 비해, 이를 극복한 뒤의 히데타다 정권·이에미쓰 정권은 정권의 계승·다이묘 통제는 물론이고, 조정과의 관계조정, 대외관계의 조정 등을 큰 과제로 하였지만, 특히 기독교 신앙 금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1642년(寬永19), 나가사키 히라도 초(平戸町)의 호적[人別帳]은 초년의 가족과 하인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연령, 이름, 출생지, 나가사키로 이주한 해, 부모 등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특히 고려인과 옛 기독교도로서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자에 대해서는 친족을 조사하여 조직(組)에서 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보증서를 받아 두었다.⁵² 한편 1649년(慶安2) 오미(近江) 히코네 조카(彦根城下) 시모사카나야 초(下魚屋町)의 종문개장(宗門改帳)은 더욱 자세한 기재항목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도 외에도 세키가하라 전투·오사카의 진에서 부대 대장의 자손, 고토케[御當家](이이 가문[井伊家]인가?) 삼대 파문을 당한 자와 그 자손이 없음을 특별히 보증하게 하였다.⁵³ 이처럼 기독교 신앙 금지를 주안으로 하는 종문인별 개제도(宗門人別改制度)가 정비되어 갔지만, 기독교도와 함께 세키가하라 전투·오사카의 진 때의 적측 대장이 반체제 분자로 간주되었고, 조선인이 감시가 필요한 인물이 된 예도 있다.

도요토미 정권은 “대륙 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이른바 적을 만들어서 권력을 집중해 나갔고, 공납제·영주제·위계질서를 재구축하였으며, 실제로 조선에 출병하였다. 그 실패 후, 도쿠가와 정권은 그 사이에 사람의 이동이라는 면에서도 유동성이 늘어난 사회상황을 맞이하여, 도요토미 가문의 부정, 기독교의 금지를 계기로 민중 한 명 한 명의 소속, 내력, 이동, 신앙까지 집단을 매개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 갔다.

일본 근세의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풍만한 달성과 변영을 보여 주지만 종교거나 사회집단의 특질도 경제거나 노동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의한 국가 체제 구축 방식에 의해 깊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2 武野要子 校注, 「寛永十九年長崎平戸町人別生所紀」, 『日本都市生活史料集成 六 港町篇Ⅰ』, 学習研究社, 1975.

53 齋藤純, 「近世前期彦根城下町住民の來歴について(上)(下)」, 『専修人文論集』 55・57, 1994・95.

발표논문 8



임진왜란~병자호란기 唐糧의 성격에 대한 검토

최주희 (崔姪姬, 한국국학진흥원)

요지

唐糧은 임진왜란기 명군을 위한 군량미로 중국 내지에서 수송해 온 곡식을 일컫는다. 명군은 군량을 본국에서 직접 수송해 와 의주에 비축해 두었는데, 명나라 군사가 양남(호남, 영남)에 주둔하면서 조선정부는 의주에 비축해 두었던 당량을 남쪽으로 운반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당량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광해군 10년(1618) 명에서 후금을 공략하기 위한 지원군 수천 명을 징발하라는 칙문이 내려오고, 광해군 14년(1622)에는 명의 毛文龍이 철산의 가도에 주둔하면서 조선 정부에 군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조선 정부는 양서 지방, 즉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별도의 結稅를 추가로 거두어 이를 毛文龍의 진영에 바쳤다. 모문룡의 군대에 지급하는 군량이라 하여 毛糧, 혹은 양서 지방의 양곡을 바친다 하여 西糧이라고도 불렀다. 1634년(인조 12)에 갑술양전(甲戌量田)으로 삼남의 토지 결수가 늘어나고 병자호란 이후 군량으로 소비되는 곡식이 감소하자, 토지에 추가로 거두었던 결세가 대부분 혁파되었는데, 서량만은 이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며, 1646년(인조 23) 무렵에서야 폐지되었다.

1. 머리말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주요 변수는 공격과 방어에 효과적인 전략·전술, 기술적으로 진보한 신무기의 도입, 그리고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군량의 조달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철도, 항만과 같은 근대적인 수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전근대 전쟁에서 군량의 조달과 수급은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592년 征明假道를 명분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공함에 따라 7년여간 한반도에는 조명연합군과 일본 사이에 무력 충돌과 강화협상이 지난하게 이어졌다. 일본은 전쟁 초기 군량을 본국에서 공수해 왔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도성으로 가는 주요 기지를 함락시키고 군량을 현지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명 역시 조선에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식량을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조선정부와 군량을 수송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지에 부족한 군량과 마초를 조선 조정애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명군의 참여로 전란이 국제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군량의 조달은 조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에서는 명군에게 제공할 양곡을 따로 ‘唐糧’이라 칭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종식되고 광해군대로 접어들면서 당량은 ‘毛糧’ 혹은 ‘西糧’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었으며, 병자호란이 종식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부세의 일종으로 계속 수취되었다.

그간 군량 조달에 관한 연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정부에서 군량을 어떻게 마련하였으며,¹ 군량이 제때 조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과 조선의 갈등이 어떻게 야기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강화교섭의 배경으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하는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²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임진왜란기 조달된 군량은 명군이 입국하기 전 8만여석과 명군 입국 후 (1592.12~1593.8) 10만여석, 그리고 정유재란기 (1598.5~1599.9) 20만여석을 합한 38만여석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중 명에서 직접 조달한 곡식은 195,180석으로 전체 양곡 중 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³ 한편 평양성 전투 이후 군량의 수급의 문제로 명과의 갈등이 야기되어, 이것이 일본과의 강화교섭을 주도하게 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⁴ 그러나 군량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료에 제시한 군량이 그대로 집계되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군량의 조달과 징수의 문제는 임진왜란 당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후금이 성장하여 조선에 위협하던 광해군대와 정묘·병자호란이 일어나는 인조대까지 명칭을 달리하면서 지속되었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을 거쳐 병자호란이 종식되기까지 대외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소위 ‘당량’, ‘모량’, ‘서량’으로 불리던 군량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되었으며, 이것이 조선왕조의 재정 운영에 어떠한 부담을 야기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임진왜란기 명의 파병과 唐糧의 조달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20여일 만인 5월 13일 한양을 점령하였다. 이어 6월 11일에는 평양성을 공격한 후 한동안 공세를 멈추었다. 선조는 4월 29일 저녁 신립이 충주에서 패전하여 전사하였

1 李章熙, 「壬亂中 糧餉考」, 『史叢』 15·16합집, 1971; 1996, 「壬辰倭亂中 屯田經營에 대하여」, 『東洋學』 26, 1996; 金鎔坤,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壬亂 當時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32, 1981; 李貞一, 「壬亂時 明兵에 대한 軍糧 供給」, 『研究論文集』 16, 울산대학교, 1985; 김강식, 「壬辰倭亂中の 軍糧 調達策과 影響」, 『文化傳統論集』 4, 慶星大學校 郷土文化研究所, 1996; 최두환,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慶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2 柳承宙, 「壬亂後 明君의 留兵論과 撤兵論」,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史, 1985; 김경태, 「임진왜란 후 明 주둔군 문제와 조선의 대응」, 『東方學志』 147, 2009; 2014, 「임진전쟁 초기의 군량 문제와 강화교섭 논의」, 『역사와 담론』 70, 2014;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명군 지휘부의 조선에 대한 요구와 간섭」, 『韓國學研究』 36, 2015

3 이정일, 앞의 논문, 6~7쪽.

4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의 군량 문제와 강화교섭 논의」, 『역사와 담론』 70, 2014

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인 4월 30일 피란길에 올라 평양에 留住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6월 11일 왜군이 수심이 얕은 왕성탄을 따라 대동강을 건너오자 평양성을 버리고 다시 가산과 정주, 선천을 지나 의주로 파천하였다.

당시 선조는 피란 길에 오르면서 명에 請援使를 보내 지원군과 군량을 요청하였다. 요동으로부터 조선의 상황을 전해들은 병부상서 석성은 황제에게 아뢰어 2개 부대의 군사와 군량을 마련할 은도 요청하였다. 이에 명나라 장수 대조변과 유격장군 사유가 병사 1천 29명과 말 1천 93필을 거느리고 의주에 도착하였다.⁵ 광녕유격 왕수관과 원임 참장 곽몽징 등도 병사 5백 6명, 말 7백 79필을 거느리고 17일에 강을 건너왔고, 요동의 부총병 조승훈 역시 군사 1천 3백 19명, 말 1천 5백 29필을 거느리고 왔다.⁶ 당시 명 황제는 참장 곽몽징을 통해 특별히 군사들을 먹이는데 쓸 은 2만냥을 보내 왔다.⁷ 그러나 조선에서는 민간에서 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데다가 전란으로 민가가 꺾폐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총병 조승훈 등이 평양을 공격할 때까지만 해도 군량과 마초는 각 군현에서 직접 조달하였다. 7월 6일 유성룡은 군량 조달의 책임을 자처하면서 종사관 신경진을 보내 一路의 군량미와 말풀을 정제하도록 하였다.

“연도 沿道 각 고을에 저장된 현재의 군량은, 의주가 가장 넉넉하고 정주는 이름은 큰 고을이나 현재 2백여 석이 있을 뿐입니다. 구성의 곡식을 날짜에 맞춰 실어온다면 군량을 댈 수 있을 듯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중국 군사가 출발할 때 의주에서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첫날은 良策에서 유숙하는데 龍川에서 하루의 양식을 더 지급하면 3일 먹을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2일에는 林畔에서 유숙하는데 宣川에서도 양책에서처럼 하루의 양식을 더 지급하면 3일 먹을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주 · 가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安州에서는 배를 가지고 龍岡 · 三縣의 곡식 5~6백 석을 운반하여 老江 하류에 대어 놓았다가 중국 군사가 도착할 때에 또 안주에서 지급하게 하면, 이 연도에는 의주에서 안주까지 모두 그 지방의 곡식을 지급하게 되어 의주에서 싸가지고 온 3일 간의 양식은 처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평양에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적이 만일 大軍이 오는 것을 보고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달아나면 평양에 남은 곡식으로 군량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고 중국 군사가 이미 성 아래 도착하였거든 삼현의 곡식을 사람이 저나르고 말로 실어나르면 운반하기에 어려운 걱정이 없을 것이니 이보다 더 편리한 계획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말먹이는 가지고 가기에 무거울 듯하니 各站에서 대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뜻으로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⁸

5 『宣祖實錄』 권 27, 선조 25년 6월 17일(을사)

6 『宣祖實錄』 권 27, 선조 25년 6월 20일(무신)

7 『宣祖實錄』 권 27, 선조 25년 6월 24일(임자)

8 『宣祖實錄』 권 28, 선조 25년 7월 6일(계해)

유성룡은 명군이 3일간 먹을 양식을 수송하되, 안주까지는 각 고을에서 준비한 양식을 소비하고 안주·속천·순안 세 고을에는 양식이 전혀 없으므로 의주에서 수송해 온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하면 평양까지 진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순안까지 군량이 끊기지 않으면, 평양성을 탈환한 후 비축해 놓은 양식을 회수하여 군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애초에 국왕 일행이 한양을 떠나 평양에 도착하였을 때, 식량 조달 문제를 걱정하여 여러 고을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곡식이 10만 석에 달했기 때문에, 유성룡은 이를 염두에 두고 군량 마련의 방책을 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7월 19일 조승훈 등이 평양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전투에서 명의 유격장군 사유가 조총을 맞고 전사하자 전쟁은 장기전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8월 1일 순찰사 이원익과 순변사 이빈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결국 순안에 주둔하였으며, 유성룡 역시 안주에 계속 머물면서 중국에서 대규모 병력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다. 명은 왜군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 유격장군 심유경을 보내 평양성에 들어가 고니시 유키나가, 소 요시토시, 겐소 등을 접견하였으며, 11 월에는 요동도사 장삼외를 의주에 보내 10만 명의 파병 계획을 알렸다. 조선에서는 파병할 명군의 숫자를 48,585명으로 예상하고 의주에서 평양까지 직로로 열 고을과 三縣 등지의 여섯 고을에서 쌀 51,488석과 콩 33,127석을 마련하였다. 이는 명군이 50여 일을 지탱할 수 있는 군량이었다.⁹ 그런데 명 조정에서 출병을 결정하면서 이번에는 병력 뿐 아니라 군량도 함께 조달하였다. 소위 唐糧으로 불리는 군량이 마련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도사(장삼외)가 또 물기를 ‘중국에서 그대 나라의 군량이 넉넉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8만 석을 준비하였는데 쌀과 콩이 반씩으로 이미 江沿堡에 쌓아 놓았다. 그중 2만 석은 車輛에 실어 오늘밤에 이미 강가에 도착하였다. 내일 아침에 官倉으로 실어와야 하니, 그대 나라에서는 監納官 3員을 정하여 우리가 거느리고 온 委官 3인과 함께 입회하여 捧納하라. 나머지 6만여 석은 그대 나라에서 힘닿는 대로 수송하여 安定에 도착시켜야 한다.’ 하므로, 신들이 답하기를 ‘우리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미 군사를 보내고 또 군량까지 주니, 皇恩이 망극하다. 다만 우리 나라 전란을 겪은 후여서 物力이 고갈되어 사세가 매우 어렵다. 人夫를 다 동원하여 수송하더라도 다하지 못하며 노야께서 별도로 조치하여 다 운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더니, 도사가 이르기를 ‘이 곡식을 만약 다 수송해다가 軍興에 쓰고도 다행히 남는게 있으면 그대 나라의 명년 救荒에 쓰도록 할 것이니 힘을 다하여 운반해야 한다. 만일 전 수량을 다 운반하지 못하면 나도 별도로 조치하겠다.’ 하였습니다.¹⁰

12월 12일 요동에서 집결하여 의주에 당도한 명군은 실제로 5~6만 명 정도

9 『宣祖實錄』 권31, 선조 25년 10월 26일(임자)

10 『宣祖實錄』 권33, 선조 25년 12월 12일(무술)

였으며, 이들을 먹일 군량은 8만석 중 2만 석이 먼저 의주에 도착하였다. 장삼외는 의주에서부터 당량을 수송하는 책무를 조선에 요구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각 鎭堡의 소와 말 5백 필을 조발하여 군화 등 각종 병기를 운반하고, 중국에서 실어온 군량도 진보에서 사람을 뽑아 나누어 수송할 계획을 세웠다.¹¹ 그러나 전란으로 군현이 휩쓸려진 상황에서 군량과 군기를 제때 수송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군현에서 군량을 수송하라는 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군기의 수송 역시 지체되어 문제가 조정에 보고되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0일 이어송이 이끄는 명군은 평양성을 탈환하는 쾌거를 거두었다.¹³

문제는 이어송 제독이 이끄는 부대가 벽제관 전투에서 패한 후부터는 개성에 머물러 군량을 소비하기만 하면서 조선 조정에 마초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정부는 강화에서 배로 곡식과 말먹이를 수송하는 한편 충청도와 전라도의 전세미도 조금씩 조달하였지만 명군에게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선조 26년(1593) 4월 1일 강화교섭이 타결되자 명 조정은 조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군의 추가 파병과 군량의 조달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때 제독 이어송과 여러 장수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강화교섭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내지에 주둔하는 명군에 대해 조선정부는 군량을 계속 제공해야 했다. 이에 호조에서는 1592년 12월부터 1593년 8월까지 명에서 조달한 당량의 액수를 산출하고 집계할 방법을 모색하였다.¹⁴

의주 所捧米	50,610 餘石	50,310 餘石	4,780 餘石
평양 所捧米	13,790 餘石	16,180 餘石	-
소계	64,400 餘石	66,490 餘石	4,780 餘石
총계	130,890 餘石		4,780 餘石

1 <표> 임진왜란 초기 당량의 규모(1592.12~1593.8)

<표 1>에서 8월 7일 현재 소미 64,400여석, 콩 66,490석 중에서 명군에게 지급하고 남은 군량은 소미 4,330여석, 콩이 7,660여석 정도였다. 같은 해 8월 비변사에서는 명의 주둔군을 대략 2만 명으로 잡고, 이들에게 月給과 月糧 등의 비용으로 1년 동안 지급할 은의 합계를 1백만 냥으로 산출하였다. 여기에 명군이 1년 동안 먹는 쌀로 최소 12만 석을 예상하였다. 비변사에서는 명군을 집계할 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둔군을 5천 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관철되지는 못하였다.¹⁵ 결국 호조는 강화교섭기 내내 의주에 남아 있는 당량 일부와 전국 군현에서 중앙에 바치는 田稅米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1 『宣祖實錄』 권34, 선조 26년 1월 2일(정사)

12 『宣祖實錄』 권34, 선조 26년 1월 6일(신유); 선조 26년 1월 7일(임술)

13 『宣祖實錄』 권34, 선조 26년 1월 10일(을축)

14 기존 연구에서는 의주에서 거둔 소미와 콩만을 계산하여 명군이 입국한 후 10만여 석의 군량이 조달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이정일, 앞의 논문), 실제 사료 상에 의주와 평양에서 받은 소미와 콩을 합산하면 <표 1>에서 보듯이 130,890석이 된다. 여기에 말먹이 4,780여석이 추가로 조달되었다. 그런데 위의 <표 1>에 집계된 소미와 콩의 수 안에는 선조 25년(1592) 12월 12일 요동도사 장삼외가 마련하였다고 한 곡식 8만 석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장삼외는 8만석 중 2만석만이 의주에 도착하였고, 이를 수송할 책임을 조선에 요구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6만 석은 추후에 의주와 평양으로 수송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선조 26년(1593) 8월까지 수송한 군량의 총수는 미두를 합한 130,890여 석으로 추산된다.

15 『宣祖實錄』 권41, 선조 26년 8월 10일(신묘)

강화교섭이 결렬되고 선조 30년(1597) 1월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명군이 증액되었으나 명조정에서 보내온 군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우선 군인수를 살펴보면, 도성에 주둔한 명군만 28,223명으로 늘어났으며, 비변사에서는 이들을 접제할 군량미가 부족하자 주둔군을 서로로 옮겨 접제하였다.¹⁶ 한편 양남에 주둔해 있는 명군의 숫자는 훨씬 많았다. 같은 해 경상도에 분파된 중국군의 수는 4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었는데, 군량이 동이 나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즉, 경상좌도에는 함경도와 강원도의 米豆 2만 5천여 석을 해운으로 조달하고, 경상우도에는 강화도 이남의 독운어사로 하여금 의주의 당량을 싣고 금강 하류에 수송한 이후 충청도에서 따로 차사원을 정하여 금강 상류를 통해 양곡을 수운하고 이어서 인근 고을의 夫馬로 육운하도록 하였다. 반면 전라도는 경상도보다 군병수가 많지 않고 군량도 6~7만석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내지에서 군량을 자체 조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선조 31년(1598) 호조판서 金睟((1547~1615)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1597년 5월부터 1598년 2월까지 명군이 다시 조선에 들어온 이후 군량으로 방출한 米두는 240,863석이었으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경비로 쓴 27,413석을 제외한 213,450석을 명군에게 제공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이중 중국에서 들여온 소미 6,866석과 콩 9,656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방출한 米豆와 大麥은 196,928석에 달했다.¹⁸ 그런데 선조 31년(1598) 9월 徐給事에게 회촉한 내용에는 1597년 5월부터 1598년 9월까지 명에서 보내온 곡식의 양이 크게 늘어나 있다.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정유재란기 조선과 명에서 마련한 군량은 총 396,090석으로 집계되었다.¹⁹ 그런데 용산창과 강화 해구에 비축된 곡식을 보면 조선에서 마련한 곡식이 명에서 보내온 곡식보다 46,870석 많게 나타난다. 충주와 여주의 소미와 콩은 총액만 기재하여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양을 조달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한 조선의 곡식만 합해해도 이미 207,470석(52.3%)에 달한다.

龍山倉 江華 海口	大米/稻米	54,910石	3,120石	2,310石	5,900石	66,240石
	小米	19,140石	960石	31,700石	32,670石	84,470石
	豆	81,720石	4,410石	22,550石	22,260石	130,940石
소계		164,260石		117,390石		281,650石

16 『宣祖實錄』 권97, 선조 31년 2월 15일(경오)

17 『宣祖實錄』 권99, 선조 31년 4월 10일(갑자)

18 『宣祖實錄』 권98, 선조 31년 3월 3일(무자)

19 『宣祖實錄』 권104, 선조 31년 9월 28일(경술) 서급사에게 보내는 회자 내용에는 군량의 총액을 395,350석이라 하였으나 실제 합산액은 <표 2>와 같다.

忠州 수송	大米/稻米	3,490 石	3,710 石	7,200 石
	小米	21,970 石		21,970 石
	豆子	16,290 石		16,290 石
驪州 수송	小米	5,050 石		5,050 石
	豆子	3,010 石		3,010 石
恩津 수송	稻米		1,190 石	1,190 石
	小米		16,880 石	16,880 石
	豆子		2,930 石	2,930 石
全州 수송	稻米	2,800 石		2,800 石
	小米	27,840 石		27,840 石
	豆子	4,100 石		4,100 石
羅州 수송	稻米		200 石	200 石
	小米	4,980 石		4,980 石
소계				114,440 石
계		396,090 石		

2 <표> 정유재란기 군량의 규모(1597.5~1598.9)

물론 명에서 조달한 군량도 적지 않았다. 앞서 선조 31년(1598) 3월 호조 판서 김수의 보고에 따르면, 전달인 2월 그믐까지 명에서 보낸 米豆는 16,522 석에 그쳤지만, 이후 3월에서 9월까지 실제 용산창과 강화해구에 비축된 곡식만 117,390 석에 달할 정도로 비축량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명군에게 지급한 곡식은 명에서 수송해 온 곡식보다 액수가 컸다. 9월 당시 명군에게 지급한 액수는 충주와 여주에서 마련한 소미와 콩의 수를 감안할 때 전체 396,090 석 중 앞서 밝힌 207,470 석(52.3%)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²⁰ 결국 임진왜란 전 기간 동안 명에서 조달한 군량은 전쟁 초 130,890 석과 정유재란기 142,300 석(+@)을 합한 273,190 석(+@)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충주와 여주에서 수송한 소미와 콩의 총액이 46,320 석인 점을 감안하면, 실록에 실린 당량의 최고 액수는 최대 319,510 석을 넘을 수 없다.

요컨대, 임진왜란기 명 조정은 조선에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이들을 부양할 군량을 요동에서 마련하여 수송해왔다. 그러나 의주에서부터 조선 내지로 군량을 수송하는 책임이 조선 정부에 주어지면서, 조정에서는 각 진보의 우마와 인부를 동원해 군량을 수송하고자 하였으나 전란으로 꺾여진 상황에서 군령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웠다. 특히 벽제관 전투 이후 명군은 군량과 마초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교전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호소하면서 강화 교섭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²¹

문제는 강화교섭 이후 명 조정에서 군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성과 양남에 주둔한 군사에 지급할 군량은 각도에서 거두는 호조의 田稅米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이 발발하여 군량이 추가로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조선에서 마련한 곡식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소위 ‘당량’으로 불렸던 곡식은 임진왜란 초기 의주에 비축한 곡식과 정유재란기 명에서 추가

20 이정일은 충주의 소미·콩, 여주의 소미·콩을 절반으로 나누어 조선과 명에서 마련한 군량의 총액에 각각 합산해 넣은 후 조선과 명의 군량 조달 비율을 대략 50:50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조선과 명군에서 마련한 군량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임의로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21 김경태, 앞의 논문 참조

로 보내온 곡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광해군대에 들어서면 당량은 더 이상 명 조정에서 지원하는 군량이 아닌 조선에서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군량미로 성격이 변하였다. 다음 장에서 광해군대 당량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3. 광해군 ~ 인조대 모문룡의 주둔과 毛糧·西糧의 형성

임진왜란의 종식으로 왜군이 퇴각하고 명군이 철수한 후에도 조선정부는 명 사신의 접대와 전란의 복구로 인한 비용 마련에 고심해야 했다. 더욱이 광해군 8년(1616) 建州左衛의 누르하치[奴兒哈赤]가 만주를 통일하고 後金을 세우면서 명과 후금을 둘러싼 대외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자,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군량 조달을 위해 임시적으로 운영하였던 分戶曹와 調度使를 유지시키면서 필요한 물력을 그때그때 조달하였다.²²

광해군 11년(1619) 무렵에는 후금의 奴酋가 胡差를 보내 중국 조정에 대한 원망과 조선에 대한 화친의 바람을 담은 서신을 보내오면서²³ 조선과 명 조정을 압박하였다. 이에 毛文龍이 철산의 假島로 들어가 세력을 집결하고 요동의 백성 20~30만 명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명 조정에 帑銀 20만 냥을 끌어내는 한편, 평안도 철산 앞바다의 楸島에 주둔하여 조선 조정에식량을 요구하였다.²⁴

조선에서는 초반에 황해도·평안도로 하여금 메밀 3백석을 毛文龍의 군대에 수송해 주었으며, 전투에 쓸 마소 가죽을 요구하자 兩西의 감사를 통해 장만해 주었다.²⁵ 특히 광해군 대 말부터는 모문룡에게 제공하는 양곡을 管餉使에서 주도하여 마련하게 하였다.²⁶ 관향사는 이전부터 西路의 사신 접대를 위한 물력을 조달하는 한편, 船隻과 夫馬를 감독하여 가도에 군량을 수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인조 2년(1624) 모문룡의 糧餉 요청이 거세지자 안악군수 南以雄(1575~1648)을 兩西管餉使로 임명하고 양곡의 조달하는 데 주력하게 하였다. 관향사는 삼남과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양곡을 거두어 모문룡을 접제하는 한편 직사 접대 등에 필요한 외교비용에 소비하였는데, 이를 ‘당량’ 혹은 ‘西糧’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명군에게 제공되는 양곡은 각 군현에 비축된 곡식과 전세미를 대신 거둬 쓰는 것 외에도 요동지방에서 직접 수송해 오는 양이 상당하였다. 唐糧은 바로 명군이 직접 수송해 와 의주에 비축해 놓은 곡식을 일컬었다. 그런데 광해군대 말부터 당량은 ‘서량’, ‘모량’이라 불리면서 조선 조정에 전적으로 조달의 책임이 전가되었다. 특히 인조대 毛糧은 일시적으로 거두는 군량의 성격을 넘어서서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거두는 과세로 변질되었다.

실제로 조선정부는 매년 1결당 1두 5승씩 각 도에서 서량을 거두었는데 총

22 최주희, 「광해군대 京畿宣惠法の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韓國史研究 176, 2017

23 『光海君日記』 권139, 광해 11년 4월 9일(임술)

24 『光海君日記』 권183, 광해 14년 11월 11일(계묘)

25 『仁祖實錄』 권6, 인조 2년 5월 21일(갑술)

26 『備邊司謄錄』 3책, 인조 2년 5월 11일

청, 전라도의 경우 거리가 멀어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황해도와 평안도의 공물을 參酌하여 충청, 전라도에서 중앙에 대신 상납하게 하고 대신 충청, 전라도가 마쳐야 하는 서량은 황해, 평안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²⁷

인조 6년(1628) 9월 경기감사 崔鳴吉(1586~1647)이 경기의 재해가 심한데도 오로지 양서지방의 진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례로 결당 1두 5승을 거두는 毛糧을 서로에 들여보내지 말고, 각읍에서 1결당 피곡 3두씩을 따로 거두어 고을에 비축해 두었다가 種子穀으로 쓰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²⁸ 이에 대해 호조에서는 “唐糧은 서쪽 변방의 군량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호조에서 멋대로 처리할 성격이 못 된다”고 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모문릉이 제거된 후에도 서량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수취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정부는 칙사접대와 군량 확보, 각종 역가 지급을 위해 전세와 공물 외에 별도의 稅目을 창설하여 수취하고 있었으며, 공물을 作米하여 쌀 수요를 충당하고 있었다. 예컨대 五結收布, 軍需木, 皂隸價米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조 12년(1634) 삼남지역에 量田을 대대적으로 행하면서 과세할 수 있는 전결수가 10만결 정도 늘어나자²⁹ 이러한 추가 징세 항목은 서서히 혁파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별도의 징수항목이 혁파되는 과정에서 서량은 정부의 필요로 인해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아래 기사를 살펴보자.

호조에서 아뢰기를, 접때 金尙이 탐전에서 아뢴 것에 대해 云云事를 전교하셨습니다. 양전 이후로 삼남지방의 전결이 다소 넉넉하므로 五結收布 · 軍收木 · 皂隸價米를 모두 혁파하고 西糧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삼남지방은 서량의 수량을 줄였으나 강원도는 미처 양전을 실시하지 못한 까닭에 수량을 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唐糧이니, 毛糧이니, 西糧이니 하는 칭호를 붙인 것인데 정축년 이후에 다른 명목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진실로 유사의 불찰입니다. 다만 이미 서량이라는 명목을 사용하여 이를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 비록 다른 명목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그 만큼의 수량을 징수해야 하니 이는 끝내 구차하게 끌어들 때우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대로 서량의 칭호를 붙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³⁰

갑술양전 이후 삼남지방의 전결에서 거두는 오결수포와 군수목, 조예가미를 모두 혁파한 데 반해, 서량에 대해서는 수를 일부 줄이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호조의 입장이었다. 호서대동법 시행에 앞장 섰던 金堉(1580~1658) 역시 “서량미는 대개 피도의 군량을 위한 것으로, 지금은 폐지해야 하지만 서쪽 변경에 잇달아 군량을 쓸 일이 있어서 즉시 혁파하지 못하였으니, 이 역시 국가에서 중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서량의 중요성을 강조

27 李裕元, 『林下筆記』 권 21, 文獻指掌編, 양서의 공물가를 다시 정하다

28 『인조실록』 권 19, 인조 6년 9월 18일(을해)

29 『인조실록』 권 41, 인조 18년 9월 24일(임인)

30 『비변사등록』 6책, 인조 19년 6월 3일

하였다.³¹

갑술양전 이후 삼남지방의 전결 514,976 결에서 거둔 서량미는 총 51,497 석에 달하였으며,³² 이는 중앙으로 수취되는 호조의 전세 수입에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더욱이 경기와 강원에서도 서량미를 거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량의 총액은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정묘호란 이후 후금에 보낼 물품을 마련하는 데에도 서량이 사용되었으며,³³ 병자호란 당시에는 남한산성에서 군량으로 쓰기 위해 西糧督運使를 차정하여 수송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였다.³⁴ 병자호란이 종식된 후에는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 일행을 위해 심양에 보내는 양식 역시 서량을 활용하도록 하였다.³⁵ 서량은 이처럼 조정에서 폐지하기 아까운 세목이었다.

조정에서 서량을 폐지하는 논의가 수용된 것은 인조 23년(1645) 무렵이다. 당시 흉년이 크게 들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領相이 서량을 혁파하는 방안을 제기하자 인조 역시 서량을 감한다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³⁶ 그런데 이때 논의된 것은 비단 서량 뿐만 아니라 세폐에 대해서 그 액수를 줄이는 안이었다.

歲幣는 전에 本色木 · 雜物價木을 합한 숫자가 1천여 同에 이르렀으나, 청나라에서 숫자를 줄이고 제한 것이 아주 많아서 이후 매년 받아들 일 바는 마땅히 本色木 1백 40여 동, 잡물가목 4백 90여 동인데, 명년에는 금년에 받아 들여 쓰고 남은 무명을 옮겨 숫자를 채우게 되면, 本色木 50동과 잡물가목 2백 동만 받아도 됩니다. 이로써 미리 외방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⁷

주지하다시피 세폐는 병자호란에서 패한 조선이 청에 바치는 징벌적 歲貢이었다.³⁸ 정태화는 본래 歲幣價木으로 1천 여동을 수취했으나, 청에서 세폐량을 줄여 주었기 때문에 매년 本色木으로 받아들이는 本色木과 雜物價木을 각각 140동과 490여동만 수취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역시도 값이 남아 내년에 바칠 세폐 물자를 마련하는 데 보태 쓸 수 있기 때문에 本色木과 잡물가목을 각각 50동과 200동만 거두고자 하였다. 세폐를 줄여받는다는 것은 청과의 긴장관계가 완화되었음을 뜻하며, 정규세 외에 민간에 징수하는 稅目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대변한다.

인조 23년(1645) 서량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조정에서는 그 마지막 조치로 평안도와 황해도 공물[兩西條貢物]에 대한 변통안을 마련하였다. 인조 24

31 金堉, 潛谷遺稿 권8, 書狀, 西糧待秋成捧置本道狀

32 『仁祖實錄』 권41, 인조 17년 12월 10일(임진)

33 『備邊司謄錄』 4책, 인조 12년 1월 4일

34 『備邊司謄錄』 5책, 인조 16년 1월 27일

35 『備邊司謄錄』 7책, 인조 20년 1월 16일

36 『備邊司謄錄』 9책, 인조 23년 8월 25일

37 위의 기사와 동일함

38 홍선이, 「歲幣·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인조대 歲幣·方物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55, 2014

년(1646) 비변사에서는 양서의 공물을 다시 설치하는 일로 啓目を 올렸다.³⁹ 앞서 언급한 대로 광해군대 말 각도에서 서량을 수송해 갈 때, 충청과 전라도는 길이 멀어 운송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양서지방[평안 · 황해]에서 양호[충청 · 전라]의 서량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해 쓰는 대신 양호에서 양서의 공물을 중앙에 대신 상납해주고 있었다. 이를 ‘兩西條貢物’이라 한다. 서량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양호 지방에서 대신 상납하던 양서조 공물 역시 폐지하고, 양서지방에 원래대로 공물을 다시 상납케 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여기에 평안도에서 貢物價木 320동을 상납하기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양호에 다시 17결 당 1필의 무명을 내도록 하는 안도 같이 모색하였다.

양호에 17결당 1두를 거두기로 한 조치가 실제 시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양서조 공물 자체는 인조대 이후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서량으로 충당하였던 북변의 군량은 다른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結布에서 西糧을 감해 준 이후 해조에서 관리하여 징수하는 것은 田稅와 三手糧뿐입니다. 이는 항상 이어 나가기도 어려움을 걱정하는 형편이므로 덜어내어 남겨 둘 수 없는 일이니 더는 손댈 곳이 없습니다. 다만 右邑 등지에서 旬管廳을 위해 징수하여 쌀로 바꾼 것 및 己丑條의 歲幣를 위한 무명 등의 물건을 市勢에 따라 쌀로 바꾸어 旬管米와 함께 그대로 該邑에 남겨두면, 본邑에서는 상납의 병폐에서 벗어 날 수 있어 실로 公私가 모두 편의합니다. 이 밖에 또 상평청에 공물을 바꾸어 납부하는 일이 있으므로, 값으로 내는 무명의 수를 계산하여 한결같이 大同詳定에 따라 이를 참작해 쌀로 바꾸면, 그 수량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이들 쌀로 바꾼 것을 모두 남겨 두어 糶糴하게 하되, 한편으로는 흉년에 진휼하는 곡물로 삼고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불우에 대비하면 事機에 맞습니다. 상평청의 경우는 주관자가 있으니 臣曹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헤아려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⁴⁰

인조 26년(1648) 12월 비변사에서는 西糧을 감해 준 이후 호조에서 징수하는 것이 전세와 삼수량뿐이라고 하면서, 쌀로 바꾸어[作米] 거둘 수 있는 세를 모두 고을에 남겨 두어 조적하게 하되, 흉년에는 진휼하는 재원으로 삼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군량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효종대부터 賑恤廳, 常平廳과 같은 권설아문에서 지방에 구관곡을 비축해두고 조적하기 시작하였다.⁴¹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기는 했지만 명과 후금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벗어나 대외적인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늘어난 외교비용과 군량 마련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창설한 각종 稅目이 이 무렵 점차 소멸되어갔다. 그중 西糧은 가장 늦게까지 유

39 『備邊司謄錄』 10책, 인조 24년 7월 6일

40 『備邊司謄錄』 12책, 인조 26년 12월 23일

41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1.

지되었던 稅目으로 인조대 말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요컨대, 서량의 폐지는 조선정부가 안정된 대외 정세를 바탕으로 부세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湖西大同法の 시행 논의가 효종 즉위년(1649) 무렵부터 제기될 수 있었던 것도 잡다한 부세 항목의 폐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동법 자체가 본래 民役의 부담을 개선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대동세 안에 잡다한 부세와 역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임진왜란 초부터 인조대말까지 유지된 서량[당량]은 조선이 대외적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되었으며, 이로써 조선후기 부세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임진왜란 초기부터 병자호란이 종식되는 인조대 말까지 唐糧 혹은 毛糧, 西糧으로 불리던 군량미의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임진왜란 초기 당량은 명의 파견군을 접제할 용도로 중국 본토에서 실어온 군량미를 뜻하였다. 조선에서는 의주까지 실어 온 당량을 내지로 수송하는 한편 각지에서 부족한 군량을 조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전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군량을 수송할 우마와 인부를 동원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량을 내지로 수송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벽제관 전투에서 패전한 이후 명군은 조선의 군량 수급 문제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한성으로의 진격을 멈추고 강화교섭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명 조정에서는 강화교섭 기간에 군사와 군량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의주에 남아있는 당량과 조선 내지의 비축곡, 전세미 등을 수팔하여 명군을 접제해갔다. 강화교섭 초반까지 국내에 수송된 당량은 130,890석 정도였으며, 정유재란기에 명에서 추가로 보내온 군량은 142,300석을 상회하였다.

임진왜란이 종식되면서 명에서 수송해 오는 당량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반면 명군을 위해 조선 내지에서 마치 세금처럼 바치는 당량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광해군 14년(1622) 모문룡의 군대가 가도에 주둔하면서 조선에 양식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조정에서는 각도에 1결당 1두 5승의 추가세를 거두어 가도에 수송해주었다. 모문룡에게 제공하는 군량이라 하여 毛糧으로도 불리던 당량은 모문룡이 제거되고 난 인조 7년(1629) 이후에도 계속 수취되었다.

문제는 인조 12년(1634) 갑술양전이 시행되고 삼남의 전결이 10만 결 이상 확보되면서 五結收布, 軍需米, 阜隸價米와 같은 잡다한 세목은 폐지된 반면, 서량[당량]만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서량은 대외정세의 위기 속에서 그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었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서량은 병자호란기에는 남한산성에 비축하는 군량으로 쓰였으며, 병자호란 이후에는 소현세자 일행이 머무는 심양관에 종자곡으로 보내졌다. 이에 인조 23년(1645) 무렵이 되어서야 西糧의 폐지가 공론화되었다. 서량이 폐지됨에 따라 양호에서 대신 상납하던 양서조 공물이 폐지되었으며, 서량을 대신해 大路의 읍에 군량을 비축하고 조적하는 조치가 대대적으로 취해졌다.

임진왜란 초기 명군의 군량미로 조성된 당량은 이처럼 대외정세와 급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조선왕조가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외교, 군사비용으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따라서 당량이 소멸하는 17 세기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조선왕조는 비교적 안정된 대외정세 속에서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부세제도를 정비하는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발표논문 9



청대 전기 중조관계와 ‘동아시아’의 질서 구조

자오 이평 (趙軼峰, 동북사범대학)

(원문: 중국어, 번역: 하나미 미와, 와세다대학)

요지

‘동아시아’가 유행 단어가 된 역사적 연구에서는 ‘조공체제’가 자주 사용되는 하나의 통섭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공체제’가 청나라 시기는 주요하게 청나라와 조선, 류큐, 안남 등 나라의 관계속에 체현되었는데 그중 청나라와 조선관계는 특히 더 밀접하였지만 ‘동아시아’를 일반화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청대역사 연구 자료를 정리 사고하는 것을 통해 청과 조선의 봉공관계의 특징을 체현해 내었는데 그중 칙봉·도장 수여·반역·일반적인 상태의 예절활동의 참여·일월식구호·재해구제·일반적인 상태의 상호무역·조선인의 팔기 참여 등을 통하여 청대 청과 조선의 관계가 청과 기타 봉공국·무번봉 관계의 기타 조공나라 간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청과 조선관계가 ‘동아시아’에 포함되지만 청과 국교가 없는 일본과의 관계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중국·조선·일본은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적 관계에서 모두 다 중요성을 구비하였기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고찰에 근거하면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어느 한 단일제도화 체제하에 존재한 것이 아니므로 ‘조공체제’ 또는 “조공무역체제” 등은 시대적 ‘동아시아’지역의 국제관계와 질서의 전체 구성에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된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돌이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어록 중 ‘동아시아’는 하나의 지연 정치 구역으로서 17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차례 중대한 변천의 역사시점에 놓여 있었다. 중국에서는 명청 두 개의 왕조통치의 교체가 일어났고, 사회조직 및 방식·정치제도·종족관계·문화 풍토 등 여러 방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청과 외국 간의 외교질서의 재수립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명왕조와 조선·류큐·안남·란쌍의 책봉관계는 청조와 이러한 나라들의 책봉관계로 바뀌었다. 명대 중후기는 일본과의 국교가 없었고 일본은 에도 바꾸후시대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쇄국’ 정책을 실시하였기에 명청 교대도 이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청·일 양국의 정

부는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약 200년 동안 정부간 왕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청과 조선 등 국가들의 조공관계 구축 및 일본의 ‘쇄국’, 이는 모두 17세기 중엽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평화의 시대적 배경이다. William T. de Bary는 당시의 기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청왕조의 평화는 근 2세기 동안 유지되었다. 청은 결코 전통적인 외부국경선을 초월하지 않았다……제도상 성숙과 안정, 문화상 정치(精緻)에 도달하여 다른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주변 국가들도 이와 같은 상태의 청에 도전할 수 없었다. 조선의 이씨왕조는 같은도교의 자율철학—‘수기이치인’—을 통치의 기초로 삼아 수용하여 5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켰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Toyotomi Hideyoshi)의 동아시아를 통치하려는 야심을 배제하고 자신의 국경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도쿠가와 (Tokugawa) 장군의 통치하에 힘을 모아 내부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였다. 이는 2세기 반 동안 대외전쟁과 내부소란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이었다……”¹이 긴 평화시대에 ‘동아시아’ 각 나라들은 여러 방면의 사회발전을 실현하였으나 동아시아 이외의 세계에서 발생한 전세계적 역사 운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동아시아와 서양의 실력이 이 시기에 철저하게 역전되었다. 이러한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가 심하게 변하게 된 기본배경이었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보는 역사학 연구는 20세기 전반 일본학자들이 한 연구가 제일 많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 학파가 새로 돌연히 나타나 국제학술계에서 ‘동아시아’ 문제를 연구하는 주도적인 학술군이 되었다.² 최근 몇 십년 동안 ‘동아시아’는 더욱 큰 범위에서 국제화의 화제가 되었다. ‘동아시아’는 유효한 역사연구 단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를 초월한 역사적 주요개념으로서 학술계에서의 주목은 증가되었다. 그런데 만약 국가를 단위로 하는 역사는 한계가 있고, 혹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연구가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연구라고 한다면 ‘동아시아’를 단위로 하는 연구도 역시 한계가 있으며 상상적이고 구축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역사의 일부 측면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해석하면 되돌아 가지 못하고 허다한 역사적 오판과 오해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청시대의 청과 조선의 관계를 시작으로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 및 ‘동아시아’ 기타 나라와 지역간의 관계를 비교하고, 청과 조선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6개 방면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청시대의 청과 조선·청과 일본 관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차이의 역사적 함의를 제시한다. ‘조공체제’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조를 논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조공체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는 이 글을 기초로 하여 별도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William T. de Bary (허 자오우·허빙 번역) 『동아문명—5개단계의 대화』 남경, 강소인민출판사, 2012년, 64-65쪽.

2 미국, John King Fairbank (두지등 번역) 『중국의 세계질서—전통 중국의 대외 관계』 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0년, 1쪽.

1. 청대 청조관계의 특징

청조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번이나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공격하였는데 중원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명조와 조선의 조공관계는 청조와 조선의 관계로 전환하였다. 이와 비교하면 이전 명조와 조선 사이의 조공관계의 건립은 정벌과는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 건립된 이씨 조선왕조가 자발적으로 여러 번 요청한 정황 하에 형성된 것이었다. 자발적인가 수동적인가, 평화적인가 살벌한가, 명청 두 시대의 조선왕조와의 책봉관계 건립방식의 이러한 차이점은 조선왕조의 문화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조는 중원문화의 국가적 체현이라고 여겨졌으며, 청조는 예악(禮樂) 문화가 조선보다 못한 “호(胡)” 혹은 “이적(夷狄)” 이라고 여겨졌다. 비록 전술한 차이가 있지만 명도 청도 조선왕조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한 지연적으로도 정치, 경제상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청조는 중원의 국세를 안정시킨 후 조선에 대한 정책을 명대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게 하고 유가 문화전통에 대하여서도 숭배하는 태도를 표시하였으며, 양쪽 모두 신중하게 책봉관계를 유지하여 19세기 말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하였다. 청조와 조선 간의 관계와 청조와 아시아 기타 나라 간의 관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책봉·도장 수여·역법 반포·상설 사관

승덕 2년(1636), 청군이 조선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군주를 조선 국왕이라고 봉하고 거북 단추 금인을 하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왕의 아내를 왕비로 봉하고 왕자를 세자로 하며 가족모자, 모피, 안마 등을 하사하였다.”³ 황태극이 말하기를: “……만약 책봉하면 새로운 명을 받아야 한다. 소전국의 인을 받고 같은 문지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파된 사신에게는 인호를 봉하고 이종이 조선 국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봉한다. 고분고분 받아들이고 금장보책과 같이 다시 나의 장벽이 되니 고쳐지지 아니하고는 강산을 수양할 수가 없고 한때의 명분만 세울 수 있으며 만개의 감강오상을 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 천지는 무사하고 관모는 쉽지가 아니하다. 왕은 마음을 비워두고 걱정을 뺏어내고 직공지상을 대대로 써내려가면서 선시선종하고 평강지복을 영원하도록 보호하고……”⁴ 청조는 초기에 수많은 조공 국왕들에게 모두 금인을 하사하였으며, 그 형태는 “평대방 세치 오분, 두껍이는 일촌구이다.”⁵ 그러나 유일하게 조선 국왕의 금인만, 거북 단추, 지영전으로 되어 있었고, 안남, 류큐, 섬라 세 나라의 국왕의 인도는 금장식으로 된 은인, 낙타 단투, 대전 상방이었다.⁶ 청조 국내 규칙과 비교하면 친왕에게는 금인도를 내리고 군왕에게는 금장식으로 된 은인을 내리는데, 조선 국왕을 존중하여 친왕으로 보고 안남, 류큐 등의 국왕들은 군왕으로 보았다.⁷

3 『흙정대청통일지』 제421권.

4 건륭척찬『황조문헌통고』 제293권, 『4계고일』.

5 건륭척찬『흙정대청회전조례』 제63권.

6 『흙정대청회전』 제28권.

7 앞글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쇄되어 있는 글씨체는 건륭시기에 제정한 제도에 의거한 것이다.

책봉지국인 조선은 청조의 역법을 따라 행하여야 했다. 순치 18년 (1661), 제정에 의거: “조선국은 매년 시월 초하루에 의논을 통해 사자를 파견하여 헌서를 받아와야 했다. 함천감봉 공문서를 의제사로 보내려면 본 사자는 청조와 조선은 사수의 반포에 복종하여야 하며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⁸

모든 봉공국중 조선이 유일하게 청나라 경내에서 상설인 사신 접대 기구가 있었고, 성경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조선 사관은 덕성문 안에 있고 성경예부에 속한다.”⁹고하였다. 봉황성에도 영송관 3인, 주객관 1인, 조선 통사 2인, 중강 세무 감독 1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선 왕래 직관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였다.¹⁰ 건륭 황제는 건륭 8년 (1743), 19년 (1754), 43년 (1778), 48년 (1783)에 성경으로 수차례 갔었으며 조선 왕조도 배신을 파견하여 영접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건륭 황제는 어서 “식표동변” 편액을 하사하기도 하였다.¹¹

책봉관계의 설립 초기에는 조선이 청조에 입공하는 규칙이 형성되었는데, 강희시기 이후 점차 감면되었다. 승덕 2년에는 매년 조공할 물품들을 이와 같이 정하였다: “황금 백냥, 백금 천냥, 주부 이백점, 각 가지 색의 목화 견사 사백점, 목면천 사천사 백점, 용 무늬 좌석 2개, 꽃 좌석 20개, 녹피 백점, 수달가죽 400점, 표범가죽 140 여점, 청기장 300, 패도 10, 크고 작은 종이 5천 권, 쌀 백석.” 만수성결 선물은 각기 주부 30점, 각 가지 색의 목화 견사 칠십점, 용무늬 좌석 2개, 갖가지 색의 꽃 좌석 육십, 표범가죽 십, 수달 가죽 이십, 백면지 2천 권, 두꺼운 유지 십부. 원단이나 동지 두 명절에는 면견사 삼십점, 수달피, 유지 2종으로 감한다. 황후천추절에는 주부 삼십점, 꽃 좌석 삼십, 원단이나 동지 두 명절에는 나전류함 1구를 더한다.”¹² 이후 점차 감면하기 시작했다. 강희 3년 (1664)의 규정은 “외국에서 조공해온 방물을 들어온 만큼 받고 선례에 구속되지 않는다.”¹³고 하였다. 강희 32년 (1693)에는 조선이 따로 새총 3천 자루를 들여와서 이를 “년공내 황금 백냥 및 남청홍목이 따라서 영구적으로 정지한다”¹⁴고 명령하였다. 강희 51년 (1712) 조서에는 “조선국이 신중하게 지키고 경계하고 봉쇄하니 질서의식을 삼가하는 것을 사십여 년 이래 일찍이 해결하지 못하여 짐이 가미하여 이 나라의 조공 경전을 여러 차례로 나눠 가벼워질 때까지 삭감한다. 지금 조공물에 백금 천냥, 붉은 표범 가죽 142점이 있어 이를 준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여 사후에 두 가지 항목을 영구적으로 조공을 정지하였다.”고 하였다.¹⁵ 옹정 원년 (1723) 의준에는, “조선 조공 물품은……명조때 조공물을 이미 반 이상이나 면하였고, 지금 조공에서 청기장 삼백, 수달 가죽 백, 목면천 팔백점, 백면지 2천 등을 감면할 수 있다.

8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62권.

9 『대청일통지』제35권.

10 『대청일통지』제37권.

11 『대청일통지』제421권.

12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93권.

13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93권.

14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93권.

15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93권.

기타 조공은 평상시와 같다.”¹⁶ 고 하였다. 옹정 오년 (1727) 에는 명을 받들고 “조선 년공의 예를 들면 매년 공미 백석. 짐은 이 나라의 여정이 먼 것을 고려하고 운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 벼 삼십석, 찹쌀 삼십석, 찹쌀을 매년 사십석 조공하여 들어오면 제사용으로 충분할 것이며 이를 영저예례로 삼아야 한다.”¹⁷ 고 하였다.

2) 상태화 예의 참여

재경 조공 사신은 청조의 여러 외교적 예의 활동에 자주 안배되어 참여하였다. 이에 관한 기재들도 많이 있었고 조선의 사신이 예의성 활동에 참여한 범위는 기타 조공 사신들보다도 더 많았으며 거의 상태화(常態化)에 근접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국자감어강, 시학에 참여하고, 청황제는 친히 임하여 강학지예를 행할때 조선 사신은 참여하고 기타 국가 사신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건륭 오십년 (1785) 2월, “벽옹 공성을 짓는 조서, 황제가 친히 국자감석 모선생이 되어 옹강학을 어신개척 하였다……상친발어론, 제왕공경 이하 및 다사 조선국 사신들이 모여 강의를 들었다.”¹⁸ 사학지왈, “……일상 생활관 네명, 서남 한 모통이에 위치하여 있고, 동면 복의였으며; 시중, 어사 각 2인에게 처마 기둥 밑에서 청강하게 하였다. 각 관위는 다리남쪽 길, 동서육당에서; 사생은 순위에 따라 강당계단 밑에서; 조선국 수행사신은 길 서쪽 각 관원의 말단에서 청강하게 하였다……”¹⁹

황실의 장례에 참여하였다. 청조 태종황태극이 승하하였을때, “천자의 행차 행렬이 모든 곳에 있었고, 내외 친왕이하 좌령이상 및 조선국 세자와 석복진이 하 좌령 명부이상인 상복을 입었다.”²⁰ 순지 제왕의 장례 때, “조선국왕은 수행사신을 파견하여 향을 올리고 제사문 1편, 침향 3냥……제사문은 내각에서 번역하고 예부에서 서류와 공물을 바치고 사서에서 제사물을 첨가하여 차려 놓았다. 백금은 내무부에, 예부는 제사음식을 차렸다.”²¹ 강희황제가 승하하여 “조선에서 제물을 조공, 향축을 설기하기 전, 승선격료 왕 이하 만족 한족 문무사품관 이상, 수황전 문 밖에 모여 등급 순서에 따라 안배하였다. 조선 사신은 날개를 단 편감투를 쓰고 소복을 입고 장교관이 우익말단에 서서 삼계구경례를 찬행하고 원래의 위치에 물러갔다.”²² 옹정황제가 승하하고, 그당시 세종 선황제 천자 행차 행렬은 옹화문 밖에 있었고 독촉관이 조선국 제문을 공손히 받들어 옹화문을 들어와 영우전 아래 황안위에 설치하려 하였다…… 조선 수행사신은 날개를 단 편감투를 쓰고 소복을 입고 장교관이 우익말단에 서고 내부관은 제사물을 차리고 조선국에서 바친 향을 피웠다. 의식이 끝난 후 장교관은 조선국 수행사신 등 관원들을 의장 남쪽으로 안내하고 북쪽을 향해 서서 예의를 찬행하였

16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93권.

17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93권.

18 『흙정국자감지』제8권,『예학2·임용』.

19 『흙정국자감지』제8권,『예학2·임용』.

20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85권.

21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85권.

22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85권.

는데, 옹정원년의 예의와 같았다.”²³ 황태자의 장례식 및 미 칙봉 황자가 승천시 “재경 조선수행사신은 소복 7 일.”²⁴ 황태후 승하, 역시 조선에 유고를 전하고 유고를 받은 날자로부터 소복 27 일 후 해제하였다.”²⁵

천감연의 참여. 건륭 50 년 (1785) 정월 초엿새날 천감연을 건청궁에서 사하였다. “종실왕 베이러 이하 모든 문무대사관원들은 대신관원에게 사전 고지 하여야 하고 성은을 받고 문무관 계신사병 농공상업을 봉하고 외변왕 공대길은 회부 판부 토관 토사를 행하고 조선에서 수행사신을 보내었는데 총 삼천인이다. 좌석은 각기 등급에 따라 석차를 배치하고 도합 팔백석이다.”²⁶ “조선 정사 배신 이위지, 부배신 강세황은 이에 예연하여 시를 짓고 하사품도 상당하였다.”²⁷

시호를 내리었다. “조선 국왕 이종 시장목 (순치 6 년 8 월), 조선 국왕 이호 시중선 (순치 16 년 9 월), 조선 국왕 이원 시장각 (강희 14 년 정월), 조선 국왕 이진 시장공이다 (옹정 3 년 정월). 조선 국왕 이금 시장순 (건륭 41 년 7 월), 조선국 왕세자를 왕작 이성 시각민으로 추봉하였다 (건륭 41 년 7 월).”²⁸

3) 일월식구호

강희 60 년 (1721) 에 흙천감이 윤년 유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다고 추측하여 의정, “경사, 성경, 조선 일식 사분오분 나머지 구조, 그 일식의 이삼분은 행하지 않는다.”²⁹ 건륭 13 년 (1748) 상주, “사후 일월교식을 발견하면 일분이거나 또는 이분 삼분이던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 건천감 전기 오월에 구체적 문제를 청하고, 칙부 직속 보정 사시, 성경 봉천부를 통해 부지전 장군소속 각 아문과 조선국에 전달되어 일체함존하였다. 삼분 이상자는 구조하고 삼분미달자는 구조를 행하지 않았다. 진행사항은 도면으로 올렸다.”³⁰ 이러한 구호는 청과 조선 이외의 임의의 국가, 기타 책봉국, 조공국들을 포함하여 전부 관련되지 않았다.

4) 팔기 참여

청조 건립 초기에는 여러 조선인들이 청조에 들어오고 점차 팔기 계통으로 융합되었으나 장기적으로 그들의 원래 조선인 신분은 보존하고 있었다. 그 중 명분이 비교적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정황기와 정홍기 내설 조선좌령이었다. 정황기 만주 네 번째 참령 제9 좌령은 “나라 초기 조선에서 온 사람으로 편입되었다”³¹. 정홍기는 첫 번째 참령 제12 좌령과 제14 좌령 및 기타 비슷한 홍기 제1 참령 제12 좌령과 제14 좌령과 비슷한데, “즉 나라 초기에 조선에서 온 사람으로 편입되었다.”³² 그 중 정황기는 내무부 삼기중의 하나로서 “순치 초년에 내

23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86권.

24 『흙정대청회전』제53권.

25 건륭칙찬『흙정대청회전조례』제87권.

26 건륭칙찬『황조통전』제57권.

27 건륭칙찬『황조통전』제60권;『팔순만수성전』제32권.『성사 8』.

28 『황조통지』제53권.

29 『흙정대청회전조례』제92권.

30 『흙정대청회전조례』제92권.

31 『흙정팔기통지』제5권.

32 『흙정팔기통지』제8권.

부 삼기……정황기에 조선좌령 1인을 설정하였다.”³³ 처음에는 영사위내 대신에 속하였고, 강희 13년 (1674)에 내무부 총관으로 바뀌어 강희 34년 (1695)에는 또 영사위내부 대신에 속하게 되었으며 옹정 원년 (1723)에는 여전히 내무부 총관으로 소속시켰다.³⁴ 조선 좌령은 청황제 친신부대에 속하였고 이것은 궁정사위를 위하여 복무한다는 것을 체현할 뿐만 아니라 장비면에서도 확실히 보아낼 수 있다. 조선 좌령 관할부대는 전문적으로 새총을 연습하였는데 이는 내무부군 중의 정예이다. 강희 6년 (1667) 제정, “기병에게 각기 궁 하나, 채찍 일매, 화살 오십개를 주었다. 기병 2인 마다 각기 장창 한자루씩 주고 유일하게 정황과 정홍기 조선 좌령 기병에게는 각기 새총을 주었다.”³⁵ 강희 16년 (1677) 제정, “선발된 삼기 좌령, 정황기 조선 좌령, 및 내관 령사하 갑병 총 육백명이었고, 반드시 하나를 정지하고 다시 임명하여야 했고 전문적으로 새총을 학습하는 것을 명하였다.”³⁶ 강희 30년 (1691) 의준, “설식삼 두냥 양두목 칠명, 식 2냥 새총인이 서른세 명, 각개인은 매달 말식량비를 한냥 오전을 주었다. 또한 식 2냥을 응기포인 네 명에게 주었다. 전사 성가 순행자는 새총을 휴대하고, 납탄, 철탄, 화약, 심지를 예비하고 총포의 시연을 하였으며 남원타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조선 좌령의 관할에 속하였다.”³⁷ 정황기·정홍기의 조선 좌령 직위는 초기에는 각 1명씩 배치하였다. 강희 34년 (1695)에는 정황기에 조선 좌령 일인을 추가하였다.³⁸ 조선 좌령은 기병영에 속하며: “내부 삼기 제도는…… 기병영에서 방비를 장관하고 참령삼기 각 5인, 사관 겸 부참령으로 각 5인, 만주 좌령 각 5인, 기고 좌령 각 6인, 정황기 조선 좌령 2인,……”³⁹이었다. 옹정 9년 (1731) 의준, 내무부 삼기는 “각 기에 호위군 이백명을 새총 호위군으로 편성하여 증설하였다……새총 기병이 육백명이나 되어 윤번으로 호위군한테서 기술을 배웠다. 신구 호군 총 천이백명으로 좌령 부록 수량에 따라 만주 십오 좌령, 조선 두 좌령 산하에 각 이십오명씩 기고를 정하였다……”⁴⁰ 이듬해 재차 내린 승지에 의하면 “정황기 조선 두 좌령을 세관 좌령으로 임명하였다. 사후 인원 보충을 해야 할 경우 참령이 합당한 자손 및 족보를 올려 내무부에서 그에 따라 보충수여한다.”⁴¹ 건륭 9년 (1744) 의준, “조선 좌령인원 보충을 해야 할 경우 좌령세습제에 의해 상소 및 보충수여한다. 조선좌령 산하 기병교원을 보충해야 할 경우 조선 좌령 산하의 무품급 두목이나 영취내에서 택하여 보충한다. 연차에 따라 순번위로 보충수여한다.”⁴²

33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34 『황조문헌통고』 제181권.

35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74권.

36 『황조문헌통고』 제181권.

37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38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02권, 제164권. 『황조문헌통고』 제86권에 의거하면 “신등근안”에 “처음 좌령을 설치하여 매기 만주3인, 기고4인. 강희 34년에는 각 2인을 추가한다. 정황기는 또 조선 좌령을 2인 추가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조선 좌령 2인”은 1인의 실수로 오해를 한 적도 있었다.

39 『흙정대청회전』 제91권.

40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41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42 『흙정대청회전조례』 제164권.

5) 재해구제

강희 36년(1697)에 조선 국왕 이순이 국내 재해로 청조 황제에게 상서를 올려 중강지방에서 양식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청하였다. 예부에서는 비준을 하지 않았으며 강희 황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 국왕은 세세로 동반을 지켜왔고 그 직책을 다해 봉공하니 그 효과가 경신하다. 연년 흉재로 백성들이 굶고 있어 짐은 심히 마음이 아프다. 그쪽에서 쌀을 청구하여 흉재를 구하려 하기에 현재 성경에 축적된 양이 많으니 청구에 따라 중강지방의 무역을 행하도록 하라.”⁴³ 그리하여 호부시랑 배화노를 봉천에 파견하여 조선의 송미사무를 독찰하였다. 강희 37년(1698) 정월, 사부 우시랑 도대를 파견하여 조선에 쌀 삼만석 중 만석을 보내고 이만석은 정상가격으로 방출판매하였다. 그후 조선 국왕 이순은: “황제께서 해도를 창설하여 쌀을 운송하여 동국을 구해 주시어 해자 지민을 소생시키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유량자들이 귀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현재 밀이 익어가니 구제할수 있고 팔로생령하오니 살린 백성이 헤아릴 수 없다.”고 상소하였다. 강희 황제는 이로 인하여 어제를 만들었는데 『해운구제조선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듬해 이월까지 신하에게 명하여 천진으로 운송하는 하남 조세곡미를 억류하여 상선으로 대고 해구를 걸쳐 산둥 등주로 운송 도중 심지어 계두선이 길 인도를 하고 공금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운임을 넉넉히 주어 염세납부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상인을 고무격려하고 성경에 저장한 해운미를 평가무역으로 수륙운송하였는데, 총 삼만석이였다. 그 중 증정미 만석을 포함한다. 조선의 모든 신하와 서민이 굶주림을 받고 있을 때 황제가 하사한 쌀을 받고 성경에 온 것 같은데 그 쌀을 먹고 기쁨에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왕은 사례를 표하면서 주은에 감격하며 백성의 목숨이 이어지고 멸망의 변두리에서 운세가 바뀌어 구제로 재생활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고소미유이다……짐은 조선이 황조로 지정된 후로부터 사직안정, 국경온정, 세세로 동반을 지켜왔고 봉직을 수공하였으니 그 은혜가 깊다. 현재 기근에 처해 있으니 수천리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수만석의 쌀도 아끼지 않고 온 나라 집집에 나눠주도록 하라. 이는 한번의 구제가 아니라 실은 반봉국을 도와주는 것으로 선덕의 광채를 빛내려는 데 있다.”⁴⁴ 구체적인 수자의 기재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진일보 증실여부가 있지만 조선의 재해를 구제한 사실은 확실하다.”⁴⁵ 이러한 구제는 청조와 기타 나라들 사이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6) 일반적인 상태의 호시

번봉국이 입공할 때, 유한 특허 무역을 수반한다. 이 것을 제외하고 청과 조선사이의 청조 초기부터 일반적인 상태의 호시가 존재했다. 송덕 년간 “봉황성 등 곳의 관병인 등 이주시오 향하는 자는 매년 두번으로 한정하고 봄에는 2개

43 『성조인황제성훈』 제 60 권, 『유원인 4』.

44 건륭칙찬 『황조문헌통고』 제 33 권.

45 이번 진멸에 관하여 앞의 글 『황조문헌통고』에서는 수륙 이도를 경과하여 쌀 3만석을 제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성조인황제어제문집』 제 2 집 17 권에 기재된 초기 운송한 쌀 숫자와 같았다. 그러나 『성조인황제어제문집』 제 2 집 33 권 중 기재된 『해운 구제 조선기』에 기재된 숫자와는 다르다. 연구가 필요하다.

월, 가을에는 팔월으로 규정 하였다. 녕고탑인들은 회녕 지방시로 가려면 매년 한 번씩 밖에 갈수 없었다. 쿠어각 인들이 경원 지방시로 가려면 이 년에 한 번씩 갈수 있었고, 부차 조선 통사관 이인, 녕고탑 관원이 소기고 필첩식으로 일인이 가서 감시를 하여야 한다. 무릇표범, 오소리, 친칠라, 노루, 개 등의 가죽, 호시지역 외, 담비, 수달, 시라소니, 원숭이, 수달 등의 가죽은 무역을 진행하지 못 하였다. 무역기한은 20일에 한정하여 돌려 보냈다.”⁴⁶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에 와서 무역을 진행할 수가 있었기에 주요하게 청인의 조선에 대한 무역 진행 요구를 체현하였다. 순지 구년 (1652) 제정에 의하면, “조선 나라인이 북경에 와 무역을 하려면 신고 후 무역 비준을 받아야 했다.”⁴⁷ 이로 보아 조선인은 신고를 하면 북경에서의 무역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 강희 이십팔년 제정 (1689) 에 의거하면 “내지 상민의 배가 조선으로 가려면 해경을 정지하고 원래 금했던 화물외 그의 발매를 듣는다. 회적은 여전히 당지인의 인수에 맞게 화물을 조공하여 경내로 들어올 때 보고를 하여야 했다. 배가 바람에 의해 파괴되거나 하면 회적을 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나라 국왕에게 인구를 북경으로 해송해 달라고 청할 수 밖에 없었다.”⁴⁸ 이로 보아 내지 상민은 조정의 관리와 감독 하에 조선에 가서 무역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더욱 상태화 된 것은 중강 지방의 청과 조선 무역이었다.⁴⁹ 압록강 서안의 중강 부근 팔기대역 거민들은 조선에서 쟁기 보습 등 농경 용품을 구매하는 것을 필요로 하였기에 무역을 요구하였다. 순치4년 (1647) 중조 쌍방은 봄계절 2월과 가을 계절 8월을 무역기로 확정하고 매년 두차례 개시하였다.

가을 시장 상품은 주로 은과 면포, 삼베, 염석, 소, 말, 농기구이고, 봄시장에는 종이 남초 등이 추가되었다.⁵⁰

옹정 12 (1734) 에 제준되어 상세정액을 매년 백은 삼천이백구십네냥을 받았다.⁵¹ 이러한 액수는 청조 내지 상인에게서만 징수하였고, 조선인은 세금을 면하였다. “조선 공사가 내지 객상과 상호 무역을 진행할 때에 어떠한 종류의 화물임을 막론하고 내지 상인에게 한냥 당 세금으로 은 세품을 받았으며 조선인은 세금을 면하였다.”⁵² 강희, 옹정시기에 조선인이 중국 상인 호가배 등 사람들에게 거액의 체납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 하였다. 호가배 등은 공금이 모자라 조선인이 지불하지 못 한 은 육만여냥의 보충을 신청하였다. 옹정황제는 호가배 등의 서면 보고가 사실이 아닐지 걱정하여 “행문으로 문의할 것을 명하였고 내지 무역인과 조선외 상인이 중강지방에서 만나서 사실을 명백히 하여 중외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방해를 받지 않았

46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봉황성은 현재 료녕성 봉성시 범위내에 있는 곳이고 당시 청속 성경 장군 관할 하에 있었다.

47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48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49 『흙정대청회전』 제65권. 학술계에는 ‘중강’의 구체 지점에 관하여 원래 부동한 견해가 있었다. 장제의 연구에 근거하면 중강의 지점은 압록강 하류를 흐르는 세 줄기 강물 어간에 있는 어적도에 있다. 서강과 소서강 어간에 있기에 중강 이라고 한다. 참조, 장제『청대 흥경 만족과 조선 중강 무역 신론』, 『중국 변경 사지 연구』, 2013년, 제2기.

50 참조 장스준『청대 중강 무역과 중강 세수』『상업연구』 2010년 제6기.

51 『흙정대청회전조례』 제48권.

52 『흙정대청회전조례』 제47권.

다.” 이후 성경 예부 승상 조선 국왕 이금의 자문을 받아 조선인이 확실히 이러한 빛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더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 조선 국민은 응당 은을 돌려줘야 하는데 관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면한다.”⁵³ 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국 측 무역자 호가배 등은 공금을 받았으니 응당 어떠한 의미에서는 특히 상인이고 또한 팔기 관병과 보통상인들도 포함한다. 건륭 원년 (1736) 상서에는 “팔기대 관병은 매년 이월 팔월에 화물을 가지고 중강으로 가서 조선과 무역을 진행하였다. 짐은 기인이 모두 감시 순찰의 책임이 있으므로 무역을 하면 안되므로 즉 그것을 무역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과 떨어져 수호하지 못하여 곤란하다. 사후에 내지 상인과 조선인의 무역은 중강 관세관의 실력도찰도 반드시 평등교역을 해야 했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이듬해, 조선 국왕은 “상서하여 청하여 중강무역을 내지 상민들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여 낡은 조례에 따른다. 황명은 그 청에 따라 낡은 규율을 계속하여 따르면서 병정과 일정한 기일에 따라 교역하게 하였다.”⁵⁴ 봉황성 동류 조변문은 조선 사신이 북경에 갈 때 반드시 경유하는 길이 되어 그리하여 강희후기 규모가 큰 무역지였다. 강희 51년 (1712) 에 조선사신단을 인솔하여 북경에 간 김창업은 봉황성 변문에서 본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문은 잔디집으로 이루어지고 문 안에는 술집, 민가 총 십여집 있고 모두 잔디로 뒤덮였다. 몇 리 밖에서 바라보면 문안에는 하얀 물질은 언덕처럼 쌓이고 그것은 모두 구입한 면화이고 그 수는 무려 10만 근이나 된다. 장하도다.”⁵⁵ 청조와 조선 사이에는 조공과 무역을 병행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외하고 청조와 조선 사이에는 기타 여러 가지의 왕래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양쪽에서 상대방 측 상인의 배가 표류하여 도달한다면 모두 구제를 제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호송하였다. 해상에서 고기잡이 배가 국경을 넘으면 대방의 수사에 협조하여야 했다.⁵⁶ 조선국왕 이순이 눈병에 걸리게 되어 사람을 파견하여 중국으로 가서 약품을 구매하여 오도록 하고 특파 인원을 보내어 약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⁵⁷ 청조는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북경 절령 축하 예의를 인입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부담을 줄이게 됐다.⁵⁸ 청조에서 이전에 사람을 불러 조선으로 가서 시가를 채집하여 오게 하였다.⁵⁹ 양국 간의 교류가 광범위하고 밀접하면서 청조 정부 체제 내에 설치된 조선과 관련되는 기구 및 직위도 어떠한 다른 조공국보다도 더 많았다. 예를 들면 예부에 속하는 회동 사역관, “조선 통사관을 처음에는 여섯 명을 배치하였고 그 후 십십육명까지 추가하였다……조선번역학 번역생은 이십명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오기 조선 자제 중에서 내선으로 선거하여 충족시켰다.”⁶⁰ 성경에 속해있는

53 『세종선황제상유내각』 제61권;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54 『흙정대청회전조례』 제94권; 『황조문헌통고』 제33권.

55 김창업 『연행일기』 텃기중 편 『연행록전집』 제31권,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년, 319쪽.

56 『성조인황제어제문집』 제4집 1권.

57 『성조인황제성훈』 제60권.

58 『성조인황제성훈』 제60권; 『성조인황제성훈』 제35권; 『서종선황제상유내각』 제87권; 『서종선황제상유내각』 제114권

59 『흙정국자감지』 제62권; 왕시진: 『지복여담』 제18권.

60 『흙정역대직관표』 제11권.

봉황성 영송 조선 관원이 세 명 있었다.⁶¹ 이 밖에도 청조 이외에 조선, 안남, 류큐에서 과거제를 행하고 동시대 일본에서는 거행되지 않았다.

2. 청과 조선의 관계로부터 보는 청대 ‘동아시아’ 질서 구조

앞 절에서 고찰한 바에 의거하면 청대에 청과 조선 사이는 청과 다른 어느 국가간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였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양국의 통치자 사이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양자 사이의 관계의 성질이 기타 국가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청대 조공국들은 회전에 들어 있었는데: “사방이 인접되어 있는 조공국가, 동은 조선, 동남은 류큐, 소록, 남은 안남, 섬라, 서남은 서양, 미얀마, 란쌍이고 모두 배신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조공을 납부하였다. 봉국 국왕이 조공국의 계승자를 만나게 되면 먼저 사신이 조정의 명을 받들고 파견을 나가게 하였다. 조선, 안남, 류큐를 정부사로 칙명하였고 왕봉으로 봉하였다. 기타 제국들은 오가는 사신들을 여수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파견하여 조공으로 고마움을 답해드렸다.”⁶² 여기에서 소위 ‘책봉 국왕 조공 제국’은 바로 봉하고 또 조공하는 책봉국이고 청이 관료를 그 나라에 파견하여 책봉의 예를 한 곳이다. 공만하고 봉하지 않은 곳에는 청은 그 나라에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전에 조선 국왕, 왕비, 세자들의 사절을 봉할 때에 “삼품 이상을 받은 관직에 정부사를 대체하고 옷의 색상이나 의종면에서 그 춤을 갖춘 사람을 본다.” 안남, 류큐는 “한림원, 과도, 예부오품 이하의 관직으로 정부사를 대체하였고, 특별히 일품 기린의복을 입었으며 이것으로써 그 중요함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품으로 보여졌다. “사귀는 또한 속하는사에 복종하였다.”⁶³ 조공 기간에는 “조선세지, 류큐간세일지, 안남 육세 재지, 섬라 삼세, 소록 오세, 란쌍 십세 까지 서양, 미얀마 도원은 정기적인 조공이 없었다.”⁶⁴

건륭 43년 (1778)에 교정 후 상송하여 올린 《황청직공조》중에는 “내외를” “외국”의 각 인류 모양이나 장신구로 보여지는 것과 같다. 1권은 “외변”에 속하며, 그 다음 순서는: 조선, 류큐, 안남, 섬라, 소록, 란쌍, 미얀마, 대서양제국, 소서양, 영국, 프랑스【입서】, 일본, 반자르, 마신, 브루나이, 조호르, 화란, 러시아, 송【월거】【월로】, 캄보디아, 루손, 가바, 마육갑, 소라, 애리조나. 이러한 순차를 심사하는 데는 아래의 두가지를 보아야 한다: 1, 조선은 “외변”의 시초며 이는 앞에서 서술한 조선과 청조의 관계가 특별히 친밀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2, 청조는 “조공” 사무를 사고할 때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없었다. 현인들은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일본을 “동아시아”에 속하는 조선이나 류큐와 함께 그 뒤에 열거하였으며 또한 섬라, 루손, 란쌍, 미얀마 뒤에 놓여 있었는데,

61 『황조문헌통고』 제 84권.

62 『흙정대청회전』 제 56권.

63 『흙정대청회전』 제 56권.

64 『흙정대청회전』 제 56권.

심지어 유럽주의 대서양, 소서양, 영국, 프랑스(실제로는 포르투갈을 가리킨다) 뒤에 있었다. 『황청직공도』는 또한 각 궁의 남녀 그림 뒤에 글을 더하여 조공 대사를 그 사이에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 중 유럽주 국가를 얘기할 때에는 억지스럽게 유입되어온 조공이나 기타 일들을 서술하였고, 일본을 얘기 할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다: “송나라 시대 이전에 다 중국을 통하였는데 명홍무초, 만물을 자주 조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적의 성질은 교활하였고 연해주현에 와서 약탈하고, 배신하고 복종하는 반복이 무상하였고, 무당을 믿으며……”⁶⁵ 이와 같이 청조에 인입하고 나서도 청조와 일본관계에 어떠한 조공이나 다른 어떠한 방식의 정부간 양변관계에 대하여 한글자도 제시하지 않았다. 청조 시대의 외교관계도를 보면 조선은 특수한 친밀대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류큐, 안남, 섬라, 소록, 란쌍, 미얀마 등 수많은 속지국들이 있었으며 또 그 다음으로는 청조가 조공관계로 여겼었던 대서양의 국가였는데 일본은 청조 이전의 역사에서 조공 배열에서는 제일 마지막 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당연히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범위를 단위로 사용하지 않았고, 17, 18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국제질서에서도 이러한 국제관계 질서가 ‘조공체제’와 겹쳐질 수는 없었다. 만약 중국, 조선, 일본을 ‘동아시아’의 주요한 국가 성원으로 한다면 건륭시기의 청정부는 ‘동아시아’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 및 그 외부와 구별된 “동아시아” 질서가 존재할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다.

명조 사람들은 원래 ‘아시아’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 단어는 명조 말기 유럽주 전도사가 세계 오대주 지식을 소개할 때 명으로 들여온 것이다. 애유락이 저작한 『직방외기』 중에는 ‘아시아 총설’이 있는데, 이렇게 서술하였다: “아시아는 천하 제일대주이며 인류 탄생의 성지이며 성현의 고향이기도 하다……”⁶⁶ 마테오가 중국에 『곤우만국전도』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도 오대주설을 이야기하였다. 청조 때 관직에 임명된 남회인 (Ferdinand Verbiest) 이 저작한 『곤우도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시아, 천하 제일대주, 인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현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세계는……”⁶⁷ 그리하여 명조 말기 사람들은 이미 ‘아시아’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 ‘동아시아’는 아시아 동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오대주설을 이해하고 나서는 논리상으로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지만 명사람들이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청조인들도 물론 ‘아시아주’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관련된 지리 지식 같은 것에 반신반의 하면서 장기적으로 ‘아시아’라는 것을 자신의 주동적 사유 속에 운용하지는 못하였으며, 또한 ‘동아시아’를 하나의 국제관계의 지리적 단위로도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건륭시기 편정된 『명사』에서는 오대주를 제기할 때도 이렇게 말하였다: “넓고 인적이 드물었으나 그 경우 국민은 중도를 충족시키고 기타 고유지는 안 될 수도 있다.”⁶⁸ 『곤우도설』 총목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천하를 오대주로 나눈다는데 일왈 아시아주, 기타 서기나타리아……등 서술이 기이하고 더는 파고들어 물을 수 없어 여개가 되어 있는 듯하다. 천지는

65 건륭칙찬:『황청직공도』제1권.

66 예유락:『직방외기』제1권,『아시아총설』.

67 남회인:『여우도설』하권.

68 장정옥등:『명사』제326권, 열전제214권, 외국7.

크고 가지고 없는 것이 없으나 이를 충분히 보존하여 더 널리 퍼질 수도 있다.”⁶⁹ 이것은 일종의 “말하는대로 들어두는 것”으로서 비교의 태도가 의심된다. 현인들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원으로 ‘아세아주’에 넣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아직 확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더욱더 국제관계 영역의 사유나 말의 체계속에서 시대의 국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당사의 관심을 역사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아진다. 이것은 일종의 현대적 해석으로는 안될 것도 없지만 계속 사용하거나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역사의 기본 상황정도를 잊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청대의 청과 조선 관계 속의 세부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도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책봉, 수인은 책봉관계의 정식 표징이다. 청대 조선을 제외하고 안남, 류큐 등 국가에도 책봉, 수인을 하였으나 규격을 감살하였다. 중요한 것은 비록 청조가 ‘직공’ 항목 하에 유럽주의 수많은 국가들을 청조로 입공하는 국가로 열거했지만 대응되는 책봉이나 수인 등은 없었다. 이것은 ‘직공’과 ‘조공’의 관계는 일종의 광범위한 국가교류의 개념이며 청조의 주변 질서 관계인 “책봉” 체계와는 겹쳐지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면 ‘책봉’은 청나라 때의 국가간 관계질서의 함의를 더욱 명확히 해준다.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청조로 말하자면 단지 청조의 숭배적 지위를 승인하는 기초적인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속적이고 상태적인 유대관계는 되지 않으며 청조는 이러한 국가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고 또한 어떠한 권리도 기대하지 않는다; 단순한 조공국이 입공을 정지하는 것과 같이 청조는 이를 돌려놓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즉 공으고 봉하고 청조의 변속국이 되어 청조는 이러한 국가들에게 일정한 책임감을 가진다. 앞 문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강희년간 조선의 재황에 대한 구제는 그 표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조공 행위는 일종의 예의성 행위로서 횡수, 규모 및 부수적인 무역행위는 자연히 조공횡수, 규모의 제약을 받았고, 청조와 조선 간의 무역은 오히려 지속적인 경로가 있었으며 또한 조공예의의 규정을 전부 따르지는 않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청조의 대외관계 중 책봉, 수인, 하사 역법에서 속지국이 제일 친근하고 조공국은 그 뒤이고 비조공국은 또 그 뒤이다. 책봉국 중 조선과 제일 친밀하였고 상주하는 청조 사신도 있었고 청조의 중요 예의활동에도 참여하였으며 비외교 성질의 예의 축전도 포함되었다. 앞 문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인이 팔기조직에 참여하는 데에 관하여 약간의 비교적 미묘한 정황들을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이러한 조선인은 청조 초기 팔기로 편입되어 오면 다시는 조선 왕조를 대표하지 못한다, 즉 청조와 조선 국가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조선인의 신분 인증을 유지하고 만주, 몽골, 한인들 사이에 동화되지 아니하며 여전히 청조와 조선 왕조관계에 관섭하며 현대의 교민과 비슷하다; 셋째, 이러한 조선인들은 청조에서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으며 만족이나 몽골족과 비슷하고 한인보다도 높으며 황제의 신임을 더욱 받기도 하였다. 앞 문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의 좌령들은 내무부 삼기에서 황제의 근친 호위사를 대체 하였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앞에서 서술

69 『흙정사고전서총목』 제71권.

한 세 점들을 표명하기도 한다. 이 밖에 강희 17년(1678)에는 좌도어사 과스해가 이렇게 청하였다: “만주, 몽골, 조선인은 한인군, 한인, 팔기 각좌령하 출호인 출신 좌령 이외의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금지령이라 적어야 한다. 조서부탁.”⁷⁰ 이 또한 조선인과 만주, 몽골인의 지위가 동등하고 한군과 한인보다 높은 것을 설명한다.

저명한 역사학자 John k. Fairbank 는 ‘동아시아’ 개념을 아래와 같은 세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리상 아시아는 높은 산과 사막에 의하여 하나가 둘로 나뉘어진 동부 지역이다. 인종학적으로 몽골인종 (에스키모인과 미주 인디언인 을 제외) 이 사는 구역이다. 문화적으로 중국 고대 문명의 영향을 깊게 받은 지역이다. 마지막 하나의 개념은 제일 범위가 작은데 중국과 일본, 조선, 베트남을 포함하고 아래의 다른 두 큰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중 하나는 중아시아 지역으로서 특히 몽골 신강과 서장이다. 이 지역 유목민족의 역사는 상업 전쟁과 점령을 통하여 중국의 역사와 융합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서 이 지역 문화는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근 몇 세기 이래 이 지역과 동아시아의 경제, 문화와 군사전략상의 연계도 날마다 간밀해지고 있다.”⁷¹ 이 세 가지 측면은 완전히 서로 겹쳐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포괄하는 사람집단도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Johk. Fairbank 는 이 세 가지 간의 차이를 깊게 논하지 않고, 일부분 모호성을 남겨놓았다. 그러나 Johk. Fairbank 의 ‘동아’ 개념은 필경 그가 논하는 세 삼중 즉 문화 상의 함의이며, 중국, 조선, 베트남을 포함한다. 만약 Johk. Fairbank 의 동아 개념에 의거한다면 청대부터 19세기 중엽 중일 간은 어떤 형식의 정식 국교—책봉관계나 조공관계를 막론하고 또한 현대 국가간 평등 왕래와 비슷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대 ‘동아시아’ 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외교관계상의 질서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히 청조 전기에 ‘동아시아’ 내에서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국 간의 거리가 멀지 않고 역사상에서 전에 정부와 민간사이의 왕래도 있었으며 전쟁도 있었고 모두 조선과 밀접한 관계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상호관계가 존재하였다. 명청 교체시기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국내로 주의를 돌렸으며 아시아 대륙에 대한 추진을 계속해서 진행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천주교의 침투를 막는 등,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쇄국’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는 청조 때 청조와 일본 정부 간에 정식 왕래가 없었을 뿐더러 무장충돌이 없었던 기본 배경이다. 이 시기에 청조와 일본의 국제관계를 제일 잘 체현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역이다. 마쓰우라 아키라는 “에도 시대의 일본과 청왕조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었으며 17세기 상반기부터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비공식적인 무역을 나가사키에서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 기간 중국 상선은 매년 나가사키에서 무역하였다.”⁷²

그는 『화이 변태』 중의 기록에 근거하여 1687년과 1688년 중국 대륙에서

70 『흙정팔기통지』 제 165권.

71 Johk. Fairbank 저, 장페이번역 『중국: 전통과변천』 북경, 세계지식출판사, 2012년, 4쪽.

72 마쓰우라 아키라 저, 정제시 번역 『명청 시대 동 아시아 해역의 문화 교류』, 남경, 강소인민 출판사, 2009년, 304쪽.

출항하여 일본으로 출발한 배를 나열하였는데 194 척의 선박과 승무원 9291 명이였다.⁷³

청조때 중국에서는 백은, 구리주화 복선 화폐 체제를 시행하였으나 국내에는 동이 결핍하였다. 청조 정부는 상인들이 일본으로 가서 동무역을 하는 것을 격려하였고 심지어 관청 은을 발포하여 이러한 무역을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일본 상인들이 중국에 와서 무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강희 32년, “일본의 양동으로 유복하게 살고 안휘, 강소, 절강 등 성에 각 상인들이 비단이나 천, 사탕, 약들을 이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서 각 성으로 분해되어 매 시에서는 443만 여근을 들어오기도 하였다.”⁷⁴ 역사기재: “일본은 당시 명나라 내지에 길들이려고 하였는데 지금 서양에서 시장으로 들어오고 상인이 많아졌다.”⁷⁵ 일본도 이러한 무역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보고 중국 상인이 일본에 올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청조 문헌에서는 이를 “왜조” 라고 칭하였다. 양쪽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만약 일본의 배가 중국으로 표류해 온다면 청정부에서는 방법을 내어 그들을 본국으로 호송하여 돌려보냈다. 강희 32년 9월, “병부 의복 광동광서 총독 석림의 상소에 따르면 바람이 일본국의 배를 양강현 지방까지 떠내려오게 하였고 인원은 약 12명인데 본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아래의 청과 같았다. 상왈: ‘외국인의 배가 바람에 떠내려 광동까지 왔었는데 정황이 특수하고 슬프니 그들에게 적당량의 음식과 옷들을 내려주었으며 절강성으로 호송하고 그들을 귀국하도록 한다.’⁷⁶ 이것은 절강과 일본이 가까운 점을 빌어 그들이 귀국하는 데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순지 2년(1645)11월, 청조 황제는 조선의 국왕 이종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다: “전에 일본 국민 13명이 바다 위에 배를 띄워 여기까지 떠돌아 왔었는데 그 사주들한테 양식과 옷들을 내려준 적이 있었다. 그들은 부모나 아내와 아득히 먼 곳에 떨어져 있고 매우 간절하고 슬펐했으며 목숨을 다하여 사신과 같이 조선으로 향하여 일본이 배를 준비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공문을 통해 그 나라 군민을 이송하도록 할 것을 바란다는 황제의 뜻을 밝혔다.”⁷⁷ 이로써 일본인이 청조와 조선 간의 사신과 같이 조선으로 향했고 조선이 책임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안배하였다. 후자도 마찬가지로 청조 전반기 청조와 일본 간 정부 간의 제일 의미있는 소통이었고 이는 매우 우호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청조와 일본 사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중개자로 하였다. 조선은 청조와 일본 간의 소통의 중개 역할로 담당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당시에 평면화된 ‘동아시아’ 중, 일, 한 등 나라간의 직접적인 왕래가 없었지만 정보 소통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조는 완전히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접촉을 이해하고 인정

73 마즈우라 아키라 저, 정제시 번역『명청 시대 동 아시아 해역의 문화 교류』, 남경, 강소인민 출판사, 2009년, 18-25쪽.

74 『황조통지』 제93권.

75 『황조문헌통고』 제283권.

76 『성조인황제성훈』 제59권.

77 『황조문헌통고』 제295권.

하였다.⁷⁸ 건륭 13년 (1748), 조선 국왕은 일본에 대해 간파쿠를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청나라 청원서를 보냈고 건륭황제는 “이 나라의 예통사”⁷⁹라고 비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조는 일본에 대하여 여전히 방어적 심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옹정 6년 (1728) 8월, 절강 총독관 순무사 이위가 상소하였는데 일본이 내륙인들을 불러 일본으로 구치하여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고 배의 제조, 예규행적을 설명하였다고 알렸다. 이를 조사한 인원들은 국내 가족들도 행적이 의심이 가고 “다 때를 기다렸다가 빈 공간이 생기면 바로 연해로 가서 약탈할 것을 계획”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청은 명조와 다르게 연해에 수군이 별처럼 사방에 분포되어 있고 전함 운전 실력도 능통하고 관병들이 모두 목숨을 걸고 노력하여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하고 있으나 비밀리에 해관 관원이 왕래하는 일본 상인, 선함 화물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⁸⁰ 청조는 이 때문에 동남 연해에 대한 경계 감찰을 더욱 강화하였다.

옹정 6년 9월, 이위가 올린 하나의 상소문도 당시 청조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나 양측 관계의 대체적인 요점을 아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수운: “그러나 덕운을 방문할 때 등 모두 오랑캐들이 욕심을 부리고 서로 무역을 경쟁하고 있고 그 환심을 잃는 것을 두려워 하여 어쩔 수 없이 억눌러야 하였고 그러므로 무릇 모색하라는 지명을 내리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만약 그 나라에 가면 다른 상인들과 같이 토고에 있고 유일하게 가서 교섭을 청하는 등 하였는데. 그러나 다른 곳에서 살고 다른 계책을 도모하기도 하여 모두 그 바닥을 훤히 알고 상인들도 어떠한 일인지 대개 알지만 감히 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또한 녕파의사가 보내주신 문장에 의거하면 파의사에게 위왕의 병을 고치도록 하였는데 후에 사례를 많이 하고 돌아갔었고, 현재는 왜진 무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다. 신하가 병을 청탁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그 되살아난 비밀을 찾고 싶게 하였다. 근래의 재방문을 통하여 알았는데 위이가 민 상인 덕경의 옷을 걸치고 대략 9월 말에 보타에서 하선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고 사원 개장을 하고 보타에 가서 복청현 백사만장 승인의 향발을 청할 수 있도록 기다리려고 하였다. 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 사실을 정확히 하도록 하였다. 이에 사람을 기다린 뒤 수처에 알아보도록 한 뒤, 만약 필증지리를 알아내면 즉시 질주하는 것으로 하였다……소문으로 전해오는 것에 의하면 이는 중국의 토산품이었으나 대부분이 없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내지 화물자에게 극진히 대접하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급속히 금한다면, 용도가 불편하게 되고, 많은 일에서 걱정을 하게 된다. 이는 외국인이 강희 54년에 창조한 나가사키 번역사였으며 내지 상인들의 화물 운송을 책임졌다. 그때 다른 감사의 의견과 해관의 의견이 달라 성조가 천지 도량을 하여 특별히 포용하고 그의 말을 따르도록 하였다. 지금은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편이 낫다고 여겨 다른 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여전히 낯은 규칙을 따르고 무역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유일하게 간신에 대하여 엄하게 살피고 고찰하였으며 해안방비 수륙의 실력도 정비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

78 조선은 중국에 대해 “사대” 자태를 취하고 일본에 대해 “교린” 자태를 취하였다. 참조 김지남 『통문관지』 3-4권 “사대 상 하” 5-6권 “교린 상 하.”

79 『흙정대청회조례』 제 94권.

80 『세종선황제주필어지』 제 174권 8편.

도록 하였다. 천조의 위덕은 오히려 자족적으로 사심에 의해 두려워 떨었고 감히 교활한 자들을 반대하지 못하였다. 가라바 러송 등의 처지는 서약 화물 선착장과 같다……비록 서양인은 교활하고 거칠다고 하지만 가라바 등은 중토 상원과 같이 동양 일본과 밀접해 있으면서도 방비하였다. 그리하여 전 성조 정렬에 의거하면 서남양에서는 내부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동양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금지시키는 등 형세의 다름에 따라 그 정책도 달리하였다. 만약 조선이 오랫동안 현존하는 왕조의 천은이 있다면 공직무를 삼가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강한 것을 알수 있고 이를 두려워 하지 않는 이웃나라는 없었다. 조선은 이와 비슷하여 자연스럽게 왕래가 좋아지게 되었으며 그 친밀도는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⁸¹ 이위가 애기한 정형은 그 속에 상세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건은 반드시 사실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 상소문은 청조 전기 조정에서 일본에 대하는 심리태도, 방침 및 조선, 일본, “홍 모” 차이 등 면에서 그 배후에 대한 고려를 비교적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그 중 요점은 아래와 같다: 일본과의 민간 무역 활동을 인정하고; 비록 남양의 서방 상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무역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일본에서 중국으로 와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과 일본이 친밀한 왕래가 있다는 것을 묵인하였지만 일본에 대한 고도의 경계는 유지하였다. 이러한 시각하에 당시의 “동아시아” 질서, 구조는 “조공체제”와 “조공무역체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및 설명과는 현저히 달랐다.

조선은 비록 일본과 사절의 왕래와 무역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또 이에 대해 방비를 행하였고 어떠한 때에는 심지어 과장하여 일본이 조선에게 불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청조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순지 7년 정월과 같이 조선국왕 이호는 청조에 이렇게 보고하였다, “의정부 보고에 의거하면: 왜국 사람들의 상황이 무섭다. 작년 가을에는 사신에게 채찍질하고 태도가 불손하였다. 신관은 사신을 파견하여 자주 밀서로 소식을 알렸는데 언사가 사리에 몹시 맞지 않았다. 우리 나라는 좋은 곡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에서 모두 반입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신관에 쌓여있고 이를 기다리는 바가 있다. 또 말하였다: 이라크 국가 역적이 한족 상인의 배 안으로 잠입하여 연해지방에 출몰하고 우리나라로 사자를 파견하고 양선이 만약 표류해 오면 집송을 바로 집송한다고 말한다. 오늘 한족인 선박이 표류하여 이리로 왔으니 왜관을 지척에 보내지 않고 바로 해송하여 상국에 보내야 한다. 이러한 일에 대비해 반드시 일찌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을 전후하여 이미 큰 간극을 소탕하였다. 미리 대비하여 계획을 짜야지 늦으면 아니된다. 신하가 작은 국가의 임성년부터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성곽 곳곳이 모두 허물어져 있고 병기가 완정하지 않은 지가 십여년이나 지속되었다. 금일 왜국의 교활한 정경을 보니 몹시도 우려가 된다. 만약 사태가 긴급하면 어쩔수 없이 천조의 지원군을 믿을수 밖에 없다. 동래부까지는 십여일의 여정이 걸리어서 왕경이 황성과 많이 멀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은 나라가 천왕조의 원병을 청할 때에 어떠한 성곽기계를 믿고 원군을 기다릴 수 있는가? 금일

81 『세종선황제주필어지』 제174권 8편.

수축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군수의 의전 준비를 하고……⁸² 청황제는 이호가 남에게 미혹되고 말이 과장이 되고 사실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엄하게 꾸짖는 것으로 여겼었는데⁸³ 그 결과는 그런 일은 없었다.

3. 맺음말

거자오광 선생은 ‘아시아’가 하나의 역사상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아는 무엇으로 형성될 수 있었고 또 언제 서로를 인정하고 공동의 역사 연원이 있었으며 공통적인 ‘타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식과 역사 심지어 정치공동체가 된 것인가? 현재 대체적으로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국가와 민족은 별개로 본다고 해도, 또 문화와 역사상 동아시아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별개로 본다고 해도, 단지 이른바 동아시아, 즉 중국, 조선, 일본을 얘기한다면 언제 누가 이러한 공동공간을 인정할 적이 있는가?”⁸⁴ 이러한 의견은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마시타 타케시 교수는 ‘아시아의 자아의식’을 ‘아시아의 정체 역사의 과정을 다시 건립’하는 관건으로 보는 주요 학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근대 아시아의 역사는 서양의 현대화이론인 ‘발전단계’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지역 내부의 복잡한 관계, 아시아의 자아의식, 아시아의 역사적 사회 체계의 본질로 정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주 역사를 하나의 총체계적인 역사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체계의 특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권의 조공관계이다. 이 조공관계는 후에 출현한 ‘근대’ 아시아의 전제이며 또한 그 영향은 당대 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방면에도 어느 정도 체현되었다.⁸⁵ 그의 주장에서 조공체계는 아시아 전체의 제도적 축이며, ‘근대’ 아시아 발생의 전제이기도하다. 여기에서의 서양 중심론을 돌파하려는 ‘아시아’관의 의식은 찬양할 만 하지만 아시아를 하나의 총체적인 역사과정으로 고찰하려는 노력도 아시아 역사를 인식하는 새로운 도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시아 정체성적인 ‘아시아의 자아의식’은 경계를 긋고 실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다가 그 총체가 지탱하는 ‘조공체계’는 청대 전기 약 2세기 동안 일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체계는 하마시타 교수의 설명처럼 아시아 통합에 있어서 역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마시타 교수가 인용했던 만력 『명회전』 105권 중의 기록에 의하면, 명대의 조공체계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사료의 분석방법과 결론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⁸⁶

일본은 유일하게 영락 초부터 가정 30년 (1551) 사이에 명시기 조공 체계

82 『청세조실록』 제 47권, 순지 7년 정월 을축.

83 『청세조실록』 제 47권, 순지 7년 정월 임오; 『황조문헌통고』 제 295권.

84 거자오광 『택지중국』, 북경: 중화서국, 2011년, 제 170-171쪽.

85 하마시타타케시 (왕위루 등 번역) 『중국·동아와세계경제』 북경, 사회과학출판사, 2009년, 16-17쪽.

86 하마시타타케시 (왕위루 등 번역) 『중국·동아와세계경제』 북경, 사회과학출판사, 2009년, 20쪽. 조오이평 『명청 군주제시대 농상 사회 연구 초판』 북경 과학출판사 2016년 57-59쪽.

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제한이 많았으며, 도중에 좌절도 많았고 그후에는 중국과의 조공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⁸⁷ 치메이친은 하마시타의 중국 조공권 범위와 특징에 대한 견해는 명조와 청조의 구별, 조공체제와 조공 무역 간의 관계를 홀시하였다고 한다. 청대 조공은 종속국에만 제한되어 있었으며 청조는 “조공 정치 의존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조공과 통상관계를 구분 하였으며 번속관계와 통상관계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⁸⁸ 이런 의문은 14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가 그 어떤 국가를 초월한 네트워크가 존재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공 무역은 그 시기 아시아 혹은 ‘동아’ 네트워크의 총괄적 체제의 기능을 구성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공 체제에 대해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주장은 장기간 유행되어 왔고, 조공체제로 전근대 아시아 국제관계 구조를 개괄하는 것은 학술계의 습관처럼 되었다. 양넨췌는 그가 최근에 발표한 투시력 있는 문장에서 ‘동아시아’ 개념의 형성은 ‘근대적 사건’이며 유럽의 근대역사가 대상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는 하마시타 타케시가 조공체제를 근대 ‘동아시아’의 기초라고 보는 주장과는 구별된다. ‘동아시아’는 명청조공체제의 직접적인 체현이 아니라 조공체제 대체물을 모색한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의 최대의 공헌은 ‘동아시아’의 근대구축의 성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에 입각해서 양넨췌는 여태까지의 학자들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총체로 해서 논의하는 데 너무나도 익숙해서 ‘동아시아’ 내부 각 지역과 서양 간의 충돌 경험의 차이성을 홀시했다고 지적하고, 서양 발흥 관계의 각도에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내부의 정치지도 및 질서 재편성의 각도에서 ‘동아시아’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점도 ‘동아시아’ 의식과 ‘동아시아’ 구조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각도에서보면 양넨췌는 조공체제와 ‘동아시아’ 화이질서 관념을 근대의 ‘동아시아’가 지양할 역사 대상으로 연구할 때, 너무나도 간단히 지금까지의 학자들이 인용한 조공체제의 경계를 믿고 근거로서 채용한다. 16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즉 “근대상상”의 “동아시아”가 형성되기 전인 300년 간, 일본은 근본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 내에 속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직시하면, 조공체제를 근대 ‘동아시아’ 형성원리의 핵심 개념으로 해서 토론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⁸⁹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시아’ 개념은 ‘오대주’ 설에서 유럽주 예수회 사람이 명대에 중국으로 유입한 것이다. 지구구체설과 오대주 설이 전해지고 난 뒤, 약 두세기 사이에 중국인들은 이러한 개념이나 지식에 대한 계통적이고 엄밀한 추구가 없었으며, 단지 적당히 들여두고 의문만을 남기는 식이었다. 사실 명조 후반 및 청조 전반의 중국의 지식, 사상계의 유럽주 및 기타 부문 지식에 대한 태도는 직접적인 실용가치를 발견하는 것—화기 제작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중국문화는 실용을 중하게 생각하고 순수한 지식만

87 만역『명회전』105권,『주객청리사·조공——일본국』

88 치메이친「청대 조공 체제직위에 대한 재 인식」,『중국 변강사지 연구』,2006년 제1기.

89 양넨췌「‘동아시아’라는 것은 무엇인가?——근대 이래 중·일·한의 ‘아시아’ 상상에 대한 차이와 그 후과」『청화대학 학보』2012년 제1기 참조.

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실용적이고 직접적 경험에 기울어 있는 중국인에게 있어서 글로벌화가 명백하게 일상생존방식에 미치지 않을 때, ‘오대주’ 지식의 허실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 도 글로벌 의식이 형성되고 그 기초 위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 된다. 그렇기에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청의 통치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가 스스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지 않을 것이다.

청조 전반기의 주변관계 처리와 구축은 정치적 각도에서 보면, 봉공관계로 체현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각도에서 본다면 무역 속에 체현되어 있었다. 전자는 공식적이고 비교적 엄격하고, 후자는 공식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혼합형태이며, 모호하고 양자의 범위도 겹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자주 ‘조공체제’를 사용하여 군주제시대 후기 중국의 대외관계를 개괄하는데, 그때, 흔히 ‘조공’의 의미를 과장하기에 ‘조공’의 자연적 범위에 대하여 오해를 하기 쉽다. 청조의 국제 관계 중 제일 긴밀했던 국가는 조선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류큐, 베트남 등 ‘봉’ 하고 ‘공’ 하는 국가였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일반 ‘조공’ 국가였다. 무봉공 · 조공 관계의 무역국들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봉공국도 아니고 조공국도 아니며 마지막 종류에 속한다. 때문에 최근에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동아시아’의 범위를 청조 전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는 평화시기에 놓여 있었고 주로 민간에서 행하였던 무역활동이 상호 연계되었으며 이 시기에 청조와 일본은 국교가 없었지만 조선은 청조와 일본과도 직접 정부 간의 왕래가 있었다.

청조 전반기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 구조에 대하여 이와이 시게키는 다른 견해를 제출하였다. 그는 명조 전기에 명조가 추구한 조공체제에 근거한 천하 질서 실현의 구상은 16세기에 이미 파탄되었고, 청대에는 ‘침묵 외교’의 방식으로 무역과 이주 분쟁에 관계되는 국제관계를 처리하였는데, 18세기의 ‘호시체제’는 이러한 관계의 구조를 체현한 것이었다.⁹⁰ 그가 말하는 ‘침묵 외교’는 아주 모호한 개념으로 그 전제는 ‘외교’의 함의를 모호하게 한 것이다. 즉 외교는 국가 사이에 사절을 통하여 왕래하는 행위이며 외교가 없다고 하여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다고 하여 꼭 외교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이는 결국 그의 시점에서 조공체제는 18세기 중일관계를 포괄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당시 아시아 국제 질서 체계 인식,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질서 혹은 관계의 네트워크는 조공 체제를 포함하지만 조공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각도에서 사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쨌든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중일 간의 관계는 필경 평화로웠으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하여 계속해서 깊이 탐구해야 하며 기존의 인식상태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90 이와이 시게키 「청대의 호시와 침묵 외교」 브마 스스무 『중국 동아시아 외교 교류사의 연구』 교토, 교토대학학술출판회, 2007년, 379-382쪽.

자유토론

사회 : 류지에 (와세다대학)

초대토론자 :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학), 김보광 (가천대학교) 외

총괄 : 미타니 히로시 (아토미학원여자대학)



류지에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지금까지의 세션 논의를 바탕으로 전체에서 토론하는 세션입니다. 저는 사회를 담당하는 와세다 대학의 류지에 (劉傑) 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에 참가하는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지만, 플로어 여러분으로부터도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션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속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대화의 주제는 17세기 동란에서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안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왜란 · 호란이란 것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것도 큰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평화가, 또는 안정의 시기가 동아시아는 꽤 오래 지속되는데, 그 안정은 어떤 형태로, 혹은 어떤 조건에서 실현됐는가 하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과 어제 선생님들의 발표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를 모두 정리하고 이번 메인 테마와 관련하여 논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여러가지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우선은 제 쪽에서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조금 논의를 제기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논의의 첫 제안으로서 문제 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션 4의 마지막에 자오 이평 선생님이 제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는 이번 주제와 관련된 큰 문제입니다. 동아시아라는 개념 그 자체는 조공 시스템이라는 것과 어떻게 관련을 지으면 좋을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조 선생님께서 동아시아라는 개념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봉체제 혹은 조공 시스템 속에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형성되었다는 논란에 선생님들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하마시타가 제기한 책봉체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만, 저의 이해는 오히려 조 선생님은 중국의 여러 가지 논의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본이 조공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일본이 동아시아를 논의할 때에도 이것을 의식한 논의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조공체제 · 책봉체제 체제가 존재했던 동아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라는 것을 하나의 문제로 삼고자 합니다. 이는 역시 아시아라는 지역은 근대에 들어섰을 때부터 강하게 아시아를 의식하게 되었고 동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강하게 의식했던 아시아주의라는 것이 대두되고 중국도 혹은 한국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라는 것이 강하게 의식될 "근대"의 전제로서 17세기의 안정이라는 것을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파악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의 논의 중에 동아시아의 시점에서 임진왜란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아시아의 시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조 선생님의 문제 제기와도 밀접히 관계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동아시아의 시점에서 왜란 · 호란의 역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것, 일국의 역사가 아닌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논의할 때의 논의 방법이라는 것을 첫 번째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앞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 왜란, 혹은 이른바 조선으로의 출병 등을 포함해 도대체 그 시대의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분석되고 판단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큰 전쟁이 시작될 때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 재료로서의 정보, 그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수집 · 관리 그리고 운용되었는지가 말입니다. 이것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계실거라 생각하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란을 거치면서 매우 안정된 국제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왜란과 호란 이후 안정시기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전란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평화로운 이백수십년이라고 하는 것

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내외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요소와 그리고 각국의 국내적인 요인 등도 포함해, 한층 더 논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최근 들어 있었던 최주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른 '당량' 등의 식량문제나 마키하라 선생님의 발표에서 나온 일본의 노동력, 봉공인과 상비군의 창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 국내 요소와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시기에 대한 연관성이죠. 이 쪽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 교섭에 대해서도 두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교 협상에서 예를 들면 대마도와 조선과의 협상, 어떤 의미에서는 동아시아 전체에 관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외교 협상 담당자와 정치의 중추와의 관계, 현대적으로 말하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군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청나라도 말기가 되면 외교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주도권을 잡게 되지만, 중앙과의 관계는 아직 분명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 이전의 역사인 17세기의 외교 협상의 기본 방향, 즉 중앙과 지방 현장과 중앙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당시 인식되고 운용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논의해야 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교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17세기 전반에 걸친 라마 5세의 영향력에 대해 치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아시아 내륙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중국 전체의 대외인식, 대외관계에 과연 얼마나 관계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면 좋을지, 저도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저의 문제 제기와 관계된 것도 괜찮고, 혹은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4 세션까지는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서로 질문하고 꽤 세세하게 논의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5 세션에서는 가급적 관점을 넓히고 큰 시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줄에 앉은 선생님부터 지금까지의 논의나 조금 전의 문제제기와 관련한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1시간 반이라는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발언할 때는 가능하면 3분 이내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시오데

교토대학의 시오데 히로유키(塩出浩之)라고 합니다. 일본의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제 관심 분야로부터 몇 명의 선생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만, 이 회의는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사라는 용어를 실마리로 삼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사라는 단어는 아마 지금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역사, 즉 국가 혹은 왕조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근현대에 만들어진 역사, 즉 국민의 역사, 민족의 역사, 혹은 내셔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사는 이 두 가지의 의

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 세션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만, 이 회의의 두 번째 세션에서 최영창 선생님이 보고하신 임진왜란을 둘러싼 민족의 기억에 대해서, 임진왜란 직후부터 오늘까지 형성되어 온 과정을 매우 비판적으로 검증하신 데 대해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흥미를 가진 것은 기억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계신 듯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의 두 가지의 국사라는 것과 관련됩니다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근대 이전과 근현대의 국가와 민중 혹은 인민과의 관계가 달랐습니다. 전근대, 근대 이전의 국가는 군신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군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의 여러 보고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군신관계를 기초로 한 국가는, 민중 혹은 인민을 반드시 완전하게 포섭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영창 선생님은 조선시대 전쟁의 기억이라는 것이 민중 차원에서도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전쟁이 국가와 민중의 관계를 바꿔 놓았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계급제도와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역시 근대와 근대 이전의 단절을 더 크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민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허태구 선생님의 보고에서는 조선의 정치인들이 명나라에 대한 예의라든가 문명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그러한 가치관은 조선의 군신, 사대 부들과 공유되었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때에, 민심(민的心)을 중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심은 어떤 범위까지를 포함하는지, 과연 그것은 실제로 민중의식과 같은 것을 포함해 봐도 좋을 것인지에 대한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마키하라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도요토미 · 도쿠가와 정권에 있어서의 전쟁 동원 체제의 성립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방금과 같은 관심사로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와 민중, 인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만약 변했다면 전쟁의 기억이라는 것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문제의식입니다만, 17 세기 전반의 전란 동란이라는 것이 국가와 민중의 관계를 바꾸었는지, 혹은 그 기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와 같은 영향력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중국사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지에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보광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김보광 가천대학교의 김보광입니다. 저는 오늘 하는 이번 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한국 중세시대가 전공입니다. 대략 11 세기 12 세기에서 한 13 세기 정도까지를 정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참석을

하지 못했고,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해주신 세 분의 글을 읽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코멘트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6개의 글을 읽고 든 감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시다만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아니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설정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는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비교하자면, 13세기, 14세기의 고려와 몽골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예전의 한국사 입장에서서는 몽골이라고 하는 외적에 대한 어떤 극복이라고 하는, 저항과 극복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살펴보다가 최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시각에서 좀 벗어난 입장에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려-몽골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립된 단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자료가 있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까 그 스즈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와 관련된 각국의 각종의 언어로 작성된 자료들이 어떻게 공유돼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연호의 사용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자오 이펑 선생님께서 조공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증거, 그 질서의 증거 중의 하나로 책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책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호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주로 책봉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명이나 청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중의 연호를 사용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즉, 청의 책봉을 받은 이후에도 명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역과 관련해서 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공식적인 조공관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사키에서 일본이 청의 교역을 위한 무역선이 들어올 때 발급해주는 “주인장” 이라고 하는 문서에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강희제 시기로 기억을 합시다만, 청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일본의 연호가 작성된 문서를 쓰지 못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청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조공 책봉이라는 것과는 일정 정도 연관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맥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지 하는 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허태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제가 한국사다 보니까, 한국어 글이 조금 더 익숙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중화인식, 또는 보편문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쉽게 잘 정리해 주셨습시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무지한 입장에서 궁금한 점은, 중화인식이나 또는 보편문명으로서의 실체, 또는 실체는 분명히 없겠지만 어떤 것이 중화문명으로 설정되는가에 대한, 어떤 것이 설정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 즉 어떤 것을 중화문명이라고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인식에 대한 것이 좀 다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글 속에서는

아마 조선 초기부터 나타난, 어떤 그런 인식이 형성되어서 강화되어 갔다 라는 입장에서 서술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인식 과정에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지금 주로 다룬 시대는 병자호란입니다만, 그렇다면 그 이전의 임진왜란과 같은 사건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을지 하는 것도 더불어서 궁금함을 자아냅니다.

그 다음에 치메이친 선생님께서 17 세기의 라마교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티베트불교, 라마교라고 하는 티베트의 불교가 어떻게 만주족이나 더 나아가서 몽골에게까지, 티베트에서 가졌던, 어떤 종교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방식이 만주족이나 몽골족에게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어떤 요소 때문이었을까 하는 부분이 다소 궁금했습니다. 티베트불교를 몽골이나 만주족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지에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에 대해 관련이 되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각각 3분 정도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자오 선생님부터 부탁할 수 있을까요?

자오 이평 동북사범대학의 자오 이평(趙軼峰)입니다. 오전에 회의 주최측 관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발언하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내용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류지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명청 시기의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조공체제가 핵심적인 개념인지 아닌지에 대해 일본 주류 학계의 의견은 부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적어서 향후에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이해에 기초하여 말씀드리자면, 조공체제가 명청 시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라 주장하는 학자 중 제일 중요한 분이 하마시타 다케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일본 학자라는 말씀입니다. 중국 학계에서 "동아시아"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 세기 90년대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9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걸까요? 이 용어의 전파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하버드 학파에서 자주 사용하던 것을 90년대부터 관련 저서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 학자들의 관련 연구의 번역과 중일 양국 간의 직접적 학술교류의 증가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에 유입되었으며 학계에서도 "동아시아"라는 용어가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용되었지만, 핵심적인 전문개념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공체제"라는 용어 자체는 하마시타 선생께서 제기한 것으로서, 이분의 저서 중 최소 두 권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 학자들이 이 문제(동아시아)를 거론할 때 반드시 이 개념(조공체제)을 인용하는 것은

사실상 하마시타 선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하마시타 선생의 학설이 일본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중국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분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17 세기의 난세에서 치세로의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문제는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어떠한 한 가지 요소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사의 시각에서 “17 세기 위기”를 들여다 보려는 움직임도 이 중 하나입니다. 즉 17세기 위기의 근원은 환경적 변화이며, 환경적 변화는 태양흑점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아시아 및 글로벌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사의 시각으로 17세기 위기를 설명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 하였는데, 저는 가끔 이러한 해석들이 너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그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가끔은 일부 구체적인, 인위적인 변화들마저 환경 등 자연적인 요소에 귀결시키려는가 하면, 또 가끔은 억지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환경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합니다.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반의 기후가 추워지고 농업에서 흉작이 많아진 것은 적어도 중국의 농민봉기와 농민전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리 보중(李伯重) 선생이 청이 명을 대체한 것은 상당부분 17세기의 환경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지나친 확대해석 경향들은 제가 보기에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해당 시기에 난세가 치세로 바뀐 것은 여러 국가들에서 각자의 내부요인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새롭게 통합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경우는 내지 본토와 변강지역의 보다 큰 범위적인 질서통합이 요구되었고 청의 체제 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일본 도쿠가와 쇼군의 폐관쇄국 정책은 내부요인도 있고 약간의 외부요인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부요인이 더 중요하였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해한 바가 적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일본의 해당 시기 일련의 정책들—폐관쇄국, 대륙포기정책, 대륙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과 내부적인 여러 정비 등—이 중국의 존재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여지는 증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관계를 논할라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 지는데요, 완전히 연관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고 간접적인 연관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조선과의 연관도 간접적입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외향적인 움직임을 멈추고 내부를 통합하는데 몰두하였고, 마침 이 시기의 지구환경적인 요소 등 영향도 있었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0년 간의 평화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관련 자료명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문헌에 청나라가 일본의 선박들이 청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어떤 자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간

단히 말씀드리면, 청나라가 일본을 관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이러한 요구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선에서는 확실히 두 가지 연호가 사용되었었는데,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정부문서에는 청의 연호를 적고 사적인 저서에서는 명의 연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화문명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조선인들의 실록과 문집을 읽어 보았지만 이러한 기록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하게 거론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학(儒學)인데 이것이 중화문명의 표징으로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학과 연관되지만 같다고는 할 수 없는 예제(禮制), 예의 등인데, 이러한 것들도 조선의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허 교수님께서 “예”가 조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여 정권을 초과하였다고 하시면서 정권은 바뀔 수 있어서 오늘은 이 정권에 충성하고 내일은 저 정권에 충성할 수 있지만, “예”는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핵심으로써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에 방금 일본학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미타니 선생님께 말씀을 부탁해도 될까요?

미타니 아토미학원여자대학의 미타니 히로시(三谷博)입니다. 동아시아라는 말이 일본의 학자, 그중에서도 하마시타씨가 주창하였고, 그것이 중국에 유포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 학계에서는 하마시타씨의 설은 대개 지금부터 20년쯤 전부터 부정되고 있어 지금 단계의 일반적인 학설은, 중국사, 명청사 전공자인 기시모토 미오의 이른바 “기시모토 미오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시타씨의 설은, 저 자신 역시 처음 읽었을 때는 놀랐습니다. 놀랍다고 할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마시타씨의 머릿속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일본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무시한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이는 사실 일본의 중국사학자 전원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일본을 작게 본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내셔널리스트가 아닙니다만 자신의 연구 대상이 “없다”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19 세기의 세계 속에서 일본의 인구는 세계 5 번째인가 7 번째 정도로 인구로 말하면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그걸 무시한 논쟁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기시모토설의 중요한 점은, 이 분은 경제사 전공자이므로, 은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은의 유통으로 동아시아의 명나라, 조선과 일본이 연계되어 있었고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이 16세기 말경의 상황이라는 것이며, 그 후 왜란 · 호란을 통해서 각국이 뿔뿔이 흩어져 갔다는 것이 기시모토설로,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까지도 도전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첨언하자면, 아시아라는 말이 특정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실체화한 것은 대체로 1880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기는 류큐의 귀속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하여, 아차하는 사이 전쟁으로 발전할 뻔했던 적이 있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일부러 사용하

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중국 · 일본 · 조선을 '동문동종(同文同種)'의 나라라 칭하며 공통성을 강조하고, 그 바깥에 적으로서 백인국가인 러시아를 상정하여, 다시 말해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 하고,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완화하는 조작이 두 나라 모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지리서를 볼 때도 나라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였고 정리된 특정한 지역으로 보는 발상은 없습니다. 서유럽에서 들어온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하는 지역 명칭은 있지만, 그 명칭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1880년경에 갑자기 바뀌어 그것이 나중에 아시아주의로 불리는 주장에 결합된 것입니다.

류지예

고맙습니다. 지금 미타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일본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활발히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 있어서 받아들여지기 쉬운 저작이 대부분으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기분 좋게 받아들여질 만한 연구 성과는 중국에 꽤나 소개되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시타 선생님의 조공시스템을 설명한 그림은 매우 유명하여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일본도 그려져 있는데, 그림에서는 시스템 밖에 있다는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조공 시스템 안에 일본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공 시스템에 대해 논의한다면 일본은 당연히 들어오지 않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趙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조공시스템 이외의 것으로 아시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것 그 자체가 일본의 존재를 강하게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趙 선생님과 미타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일본의 전근대 혹은 근대에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역할이라는 것, 혹은 영향력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조공 체제가 존재하는 동시에, 물론 그 논의도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 외의 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타니

최근의 연구 성과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쯤 전에 나온 책인데 <바다에서 본 동아시아사>라는 책입니다. 일본은 쇄국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역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주장입니다. 상업교역이란 점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중국 · 조선 · 일본은 국경 관리의 시스템이 매우 엄격하고, 국가간 관계는 매우 소원함과 동시에, 일본은 특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경제면에서 보는 것과 정치면에서 보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는 화인(華人)이 많지만 동북아시아를 보자면 조선이나 일본에는 거의 들어온 이가 없다는 차이를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류지예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주희 선생님 부탁 드립니다.

최주희 한국국학진흥원 최주희입니다. 저는 전체 토론 주제에 관련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공시스템 안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가 큰 주제 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조선사회의 시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 구조 안에서 보자면, 조공시스템에 조선 사회는 잘 정착한 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오이핑 선생님께서 앞서 발표하신 내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공시스템 자체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각각의 독자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을 인정하고 각국 간의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표방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사회 역시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위상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19세기까지 중국이나 일본, 혹은 조선의 해게모니 담론으로 이어지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선의 경우에는, 경제구조에서도 일본과 중국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조공체제 안에서 중국의 경제구조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일본의 요구에 저희가 많은 재정을 할애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관계를 외교정책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후기의 숙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경우는 그러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상업을, 대외무역을 부분에서 특히 보수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재정 분야에서는 전체 8도 안에서 평안도는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외교비용을 할당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경상도 같은 지역은 일본의 대마도 지역에 공작미라고 하는 쌀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서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이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조공책봉 체제에서 얼마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거기에 외교비용을 썼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조선의 경우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비용을 정기적으로 국가 재정 안에서 할당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지에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마키하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마키하라 도쿄대학의 마키하라 시게유키(牧原成征)입니다. 저로서는 이번 논의를 통하여, 역시 일본은 흔히 이야기 되는 부분이지만, 원래부터 동아시아에서 극히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7세기에 율령 국가 형태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일단 왕조 권력이 성립한 것이지요. 다만, 역시 그 후 대외적 긴장이 한반도 등에 비해서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 체제라는 것이 이를테면 느슨해지고 무사들이 각지에 대두한다는 그러한 사회 체제가 정착되었다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조선과 비교하면 과거(科擧)나 학문 사상을 중시하는 정도라는 것이 눈에 띄게 다른 사회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16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이전부터 이어져 느슨해지고 형체도 없어지던 왕조 체제를 재건할 것인지, 새로 만들 것인지, 아무튼 새로운 통일 정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중과 권력 사이에, 어떤 형태의 분리, 두

번째의 분리라고 할까, 그러한 형태가 일본 열도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성 방식이 역시 일본 특유의 특수한, 실리적인 국가와 사회의 틀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었지만 일단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타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시모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도 그것을 일본사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하였습시다만, 16세기에 이르러 국제 교역 등이 활발하게 되는 가운데, 은의 유통만을 다룰 수 있을 것인지, 다른 지역적인 요소도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변동이 일어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새로운 권력이 성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임진왜란이라는 형태로 폭발했다고 할까,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 거기에서부터 어떤 형태의 반동이 일어나 정치적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안정이 되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나 그런 전쟁의 기억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조선과 비교하면 무사들이 무사의 가문 내력 속에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민중들 중에는 그렇게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억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특징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지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치 메이친 인민대학의 치 메이친 (祁美琴)입니다. 류지에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종교가 외교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세기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중국”이라는 개념을 제외시킨다면 당시의 청, 명, 몽골, 티베트는 각자 독립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 자체는 외교관계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후일 역사의 발전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중국이라는 강역 안에 통합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종교가 일본과 한국에 대한 영향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 생각에는, 명이 멸망하고 나서 한국의 소중화 인식은 크게 강화되는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청이라는 정권이 가지는 국가성격의 변화와 관계되는지, 한국이 이때문에 중화문명의 전승자로 되었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는지, 이러한 연관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오데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인데요, 왕조역사에서 국민역사로 이행하는 이 과정 중에서 역사적 기억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 하는데 관해서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역사적 기억은 현실적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조시대든 국민시대든 사람들은 종종 역사적 기억을 통하여 민족의 공동인식을 환기시키려 합니다. 혹은 민족적 역량을 응집시키기 위하여 역사적 기억이 발굴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시대인지를 떠나서, 관건은 현실상황이 해당 역사적 기억을 자극하는지, 해당 역사적 기억을 이용하여 일부 현실적 사건을 유발하려고 추동하는지에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물으신, 라마교가 어떻게 만주와 몽골 사회에 영향을 주었는지, 라마교의 어떠한 요소로 인해 라마교가 널리 접수되었는지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라마교는 몽골사회에 인입된 후 몽골사회를 전반적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청나라 때의 몽골사회는 고도로 종교화된 사회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사원건축과 같은 경우, 라마교가 인입되기 전에 몽골초원에는 이러한 유형의 고정적인 건축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초원에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건축물은 바로 사원이며 사원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후일의 도시나 무역 같은 것들도 출현하게 되는 등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교육체계인데요, 몽골사회의 교육체계는 티베트의 종교교육체계와 완전히 일치하며 티베트의 종교교육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신앙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몽골의 남성 중 약 절반 이상이 출가하여 라마 승려로 되었는데 이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몽골사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라마 인구가 방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서는 몽골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서술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몽골지역의 민족법률과 지방법률 중 종교 관련 법규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라마교와 몽골사회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제 반면에 걸친 전면적인 과제이지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보충하여 말씀드리자면, 17 세기는 사실 중국역사에 있어서 종교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시기였습니다. 라마교의 요소를 제외하고도, 17 세기에 전통적인 불교와 도교는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진일보로 세속화되었습니다. 제가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강희 6년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승려와 도사 인구는 총 14만 명이었습니다. 유불도 세 종교는 중국의 전통종교로서 영향력이 크고 민중적 기초 역시 튼튼할 터인데, 당시에는 14만 명밖에 안되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17 세기에 기독교가 중국에 진입했을 초기에 천주교 교인수는 이미 30만 명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이 두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당시 기독교의 교세 역시 중국에서 크게 확장되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92년 강희제가 “용교령”(容教令)을 반포하여 천주교의 합법적 지위와 선교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그뒤로 교인수가 100만 명까지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 천주교는 가히 중국선교의 황금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교 역시 마찬가지인데, 당나라 때 처음 중국에 진입하고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은 줄곧 더디었으나 강희, 옹정 연간에 이슬람교에 대하여서도 존중 혹은 비교적 포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18세기 건륭제 이후에 다시 제한과 탄압의 시기로 변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종교를 놓고 볼 때 17세기는 아주 관용적인 시기였으며 중국사의 해당 역사에서 종교가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지애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즈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스즈키 스즈키 가이(鈴木開)입니다(※회의 개최 당시의 소속은 시가현립대학). 우선, 김보광 선생님께서 자료에 대해 여쭙어보신 것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 시기를 전공하고 있습니

다. 조선·후금관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때의 국서라는 것이 만주어의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청나라 한문 자료도 있습니다. 조선에서 보내온 국서와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보내온 국서로서 한문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것이 청나라 시기 심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러일전쟁 후에, 나이토 코난이 외무성에서 파견되어 발견이랄까,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와서 현재 교토 대학에 있습니다.

원본 사료는 산실된 상태로,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교토대학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과 서울대학교에 남아 있는 일부입니다. 다만 전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있어,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에 의해서는 좀처럼 일차 자료를 가지고 이 시기의 외교 관계를 연구하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하나의 상징적인 예로서 거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란 연구자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조공과 호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원래 호시라고 하는 것은 조공사절로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에서 그 혜택으로서 허가한 무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에 걸쳐, 특히 일본의 경우입니다만, 조공을 위해 북경까지 오지 않고 중국의 변방에서 교역만 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구의 영국 등의 경우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에 의한 변경에서의 교역도 호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과 청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가 꼬일 것 같지만, 정묘호란 때 무엇을 시작되느냐 하면, 먼저 변경에서 조공과는 관계없는 무역, 즉 호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묘호란 다음 해부터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조선과 후금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묘호란 이후에 조공관계가 - 사실 책봉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조공이라고 해두겠습니다 - 그러한 호시, 국경에서의 호시라고 하는 것이 청대를 통해서 계속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하건대, 결코 조선과 청의 관계는 책봉 관계가 메인이 아니지 않을까, 혹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의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세폐(歲幣)에 대해서입니다. 몇 번이나 나왔지만, 이것도 조공은 아닐 것입니다. 원래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요나라와 송나라 사이에서 전연의 맹(澶淵の盟)을 맺게 되는데, 그 때 송나라에서 북방의 왕조에 가지고 간 것을 기본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명나라에 대한 평범한 조공과 별개로 세폐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조선과 청나라 관계의 특징도 조공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0년 간 형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현단계에서의 저의 결론입니다. 책봉관계, 조공관계, 모델조공시스템 등이 있지만 실제의 움직임과 다르다는 것을 꼭 의식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지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태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허태구

가톨릭대학교의 허태구입니다. 히로유키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에서 조선의 척화론, 대명의리론의 기반을 조선 사람들이 중화

문명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드렸는데요, 히로유키 선생님의 질문은 그럼 그 조선 사람들의 범위, 레인지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지를 묻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지금 수준에서는, 조선의 임금과 조정에서 출사한 관료들,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에 있는 양반 사대부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추상화시키면, 당시의 한문 자료를 읽고 해독할 수 있었던 지식인층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범위에 있는 평민이라든지 노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까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랄까요, 실증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김보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보편적 중화문명에 대한 인식을 제가 논문에서 강조했는데, 그러면 그 보편 중화문명이란, 조선사람들이 보편으로 인식한 그 중화문명의 내용, 실체가 무엇이나 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아마 이전 같으면, 제가 10년 전, 20년 전의 대학원생이었으면 여기에 대한 모범답안은 있죠, 성리학 사상, 화이관, 그 다음에 천명사상, 종법제, 유교질서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은 보편적 중화문명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한국 학계에 계시는데, 거기서 동덕여자대학교의 최종석 선생님과 저의 입장은,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문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편으로 인식했다는 그 태도와 지향이랄까요? 이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명의 압력이라든지 국제 정서 때문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 내부에서 자발적이고 아주 당위적으로 인식했다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중화, 보편적 중화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보편적 중화 문명이 뭐냐 하면, 중세 기독교 문명이 무엇이나, 중세 이슬람 문명이 무엇이나, 서구 근대 문명이 무엇이나 약간 이런 질문처럼 저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저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예수 그리스도나 고타마 싯다르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국적을 떠올리지 않듯이, 당시 조선사람들도 아마 공자 주자를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중화라는 것을 떠올릴 때, 중국이라는 어떤 내셔널리티를, 적어도 조선 사람들은 강하게 물론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요소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진왜란, 그럼 이런 조선의 중화인식의 변형에 있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임팩트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 학계의 통설은, 조선 전기에는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스피릿을 갖고 있다가, 점차 성리학 이해가 심화되면서 점점 경직되는 중화인식, 그리고 그것의 결정타를 가한 임팩트가 임진왜란의 명나라 파병과, 여기서 형성된 재조정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설명들이,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중화의 주체가 공백이 생기니까, 그것의 계승자랄까요? 내지는 그것의 대체자로서 조선이 중화를 주창하게 되고, 여기서 조선의 프로토타입 내셔널리즘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 학계의 중화인식에 대한 통설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마지막 장에서 서술한 결론은 이런 통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사실은 보편적인 중화문명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이나 1644년 명의 멸망이라는 것은 그다지 지금 학계 통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로서의 명을 생각하는 인식하고, 보편 문명을 상징하는 명이 일종의 기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식은 두 가지가 조선 초부터 공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지예 고맙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서요, 이미 15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3분씩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아라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아라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입니다. 제게는 구체적인 질문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시오테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근대는 군신관계를 기초로 한 국가이며, 그것이 국제관계에도 군신관계라는 것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16세기까지의 역사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신 관계를 국제관계에 가져온다는 것은 역시 명나라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명나라 때라면 책봉이라든가 조공이라든가 아니면 호시라든가 모두 하나로 묶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려 어느 것이든 하나라도 빠진다면 국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일본으로서는 무로마치 시대에 명과 무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을지라도, 책봉을 받은 후에 조공이라는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 없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명대는 군신 관계의 질서라는 것이 동아시아에 꽤나 미치고 있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일본과 조선의 관계라든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관계, 그러한 것은 군신관계에 의하지 않는 국제관계로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화적인, 중화의 논리, 화이의 논리, 군신관계의 논리로 성립되고 있는 부분과, 그것과는 다른, 조선 왕조의 말을 빌리자면, "교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교린 관계로 성립되고 있는 부분, 그것이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7세기 이후, -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지만 - 청조의 경우에는 명나라와는 달리 아마도 유연한 국제 관계의 옵션을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결이 아닐까 라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책봉을 하고 조공을 하라고 하는 경우. 혹은 책봉은 하겠지만 조공은 없는 경우, 혹은 책봉도 조공도 없이 호시만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일본처럼 군신관계는 쌓고 싶지 않지만, 무역은 하고 싶다는 나라와도 호시라는 옵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청나라 특유의, 즉 명나라에 비하면 매우 유연한 형태라는 것이 있었고, 이러한 것이 동아시아의 안정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하는 것이, 비전공자의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류지에 감사합니다. 최영창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의 최영창입니다. 일단 시오데 선생님이 질문한 것부터 대답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선후기의 역사인식에 관해서 <역사소설 임진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민중의 임진왜란>이라는 항목을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국문학계에서 한 성과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린 것인데, 저희가 이 때 말하는 민중이라는 것이, 현대적 의미에서의 민중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계에서도 상투적으로 쓰는 감은 있는데요, 일단 당시 <임진록>이라는 것 자체가, 한문은 못 읽지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조선후기에 들어오면 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소설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도 들을 수는 있겠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사실은 저도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중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임진왜란이란 전쟁 자체가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가고 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일반 민중까지 골고루 다 피해를 입는 그런, 특히 일반 백성들이 받는 피해가 훨씬 더 참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이 신분변동의 주요한 계기가 되어서, 제가 어제 발표했던 선무원종공신에 9,060명이 책봉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의 3등공신은 일반적인 노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전쟁의 군공의 차원에서 신분을 상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연속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강조한 감이 있는데, 제가 그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 특히 양반 사대부들, 특히 영남, 이런 영호남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의 중앙 단계로의 진출이 거의 뭐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영호남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향촌 사회에서의 일종의 자기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의병장의 후손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도 사실 제가 지역에 가 보면, 지금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력가로 행사하는 사람들 보면 본인이 의병장 후손임을 강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에 감사합니다. 정 지에시(鄭潔西)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정 지에시 영파대학에서 온 정 지에시(鄭潔西)입니다. 저의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없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토론하신 문제들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견들도 많습니다. 주로 시오데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물음들에 대하여 저의 생각들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시오데 선생님께서는 동아시아 연구에 있어서의 시야의 문제, 특히는 어느 한 국가에 구애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대해서 저 역시 동감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감수와 이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아시아에 대한 시야는 시간과 공간 두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오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청조 때의 동아시아 조공체제에 대한 해석은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동아시아 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경 동아시아는 대단히 넓습니다. 명조 때에는 아마 비교적 완전한 동아시아 체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조 때에 이르러서는 이전과 다른 일련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뚜렷한 변화는 바로 청이 명을 대체한 이후로 여러 개의 동아시아 체제가 출현하였다는 점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해석이 비교적 쉬워집니다. 청과 기타 국가들 사이에 확립된 것은 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책봉-조공 체계로서 “책봉”과 “조공”의 관계가 있습니다. 혹은 “조공”만 있고 “책봉”은 없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방금 허 선생님께서도 조선에 소종화 체계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동시에 일본에도 대중화 체계가 나타났고, 베트남에도 대중화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베트남 국왕은 청조 황제에 대하여 자신을 “왕”이라 자칭하였으나 베트남 국내나 주변의 작은 국가들에 대하여서는 “황제”라고 자칭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확립하였으며 자국을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설정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 소견으로는 시간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며 또한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에도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체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1401년 일본 무로마치 막부가 중국 명조의 조공체제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150여 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뒤 왜구 문제로 인하여 일본은 점차 중국의 조공체제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된 임진왜란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의 이 체제에 도전하려고 일으킨 전쟁이지만 전쟁이 진행됨과 아울러 외교적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도요토미가 이 체제로 다시 복귀할 의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래의 무로마치 막부의 왕권체제로 복귀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유 체계의 내부적 조정을 바라는 것이며, 조정을 통한 최대의 목적은 일본이 이 체계에서 조선에 대한 우위를 점하며 조선보다 더 높은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이로하여 일본은 다시금 이 체제를 이탈하게 됩니다. 저는 그 뒤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하였는데 이 문제 역시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쉽습니다. 아라키 선생님의 연구는 1607년에서 그치고 있는데, 조선과 일본은 다시 새롭게 외교관계를 건립하게 되며 명 역시 이 관계를 묵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는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은 조선이 일본에 조공 사신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식은 그 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도, 즉 동아시아 질서 중에서의 일본이 가져야 할 위치에 관하여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609년을 보면, 일본어로는 “류큐침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은 유구를 멸망시키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유구의 국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여 유구는 두 왕조에 복속하는 국가로 되는데요, 한 권으로는 명조의 번속국이며 다른 한 권으로는 일본의 번속국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본이 점차적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세워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봉”의 일면은 확실히 이루어졌으며 “조공”의 면에서

는 유구는 정기적으로 일본에 조공을 바쳤지만 조선은 통신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간으로든 공간으로든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하여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선생님들의 질문과 논의는 제가 정리할 수 없으므로, 미타니 선생님께 바통을 터치해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타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주제 자체가 왜란과 호란과 전쟁이 주제이기 때문에 각국 사람들이 상당한 정색을 하고 뜨겁게 토론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께서 매우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왜란때의 명군의 역할에 대해서, 최 선생님의 발표와 鄭 선생님의 발표는 상당히 의견이 다른 듯해 보였지만, 특히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 하나 짚어 놓을게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매우 미시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과 거시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쪽인가 하면 미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동아시아 학계의 유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미시적인 자료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젊은 세대에게는 정착되어 있고, 저희와 같은 연장자들이 항상 질려하고 있다는 것,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불만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개인차가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국경에서 오는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역사학의 이상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역시 연구테마라는 것은 자료를 읽다 보면 문득 생각이 떠오르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업에 임하게 되는 순서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을 말한다면, 해석하기 위한 틀을 개발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즉 옛날에는 이론이라든가 모델이라 불리던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 어쩌면 그 세계별 시대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허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정말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즐기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보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 매년 대학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의 위원이 3년 정도 전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만, 어떻게하면 제3자인 납세자를 설득할 것인가하는 것인데, 이는 재계 쪽이 전문적인 분야일 것입니다.

일반인 초보자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이곳과 같이 다른 분야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면, 역사학과 전체, 그리고 나라를 넘어서도 발언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드문 기회, 전공 외의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타니 선생님께서는 이 회의의 내용자체보다는, 더 큰 역사학의 본연의 자세, 연구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역사학의 존망은, 이것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세계 전체의 역사가에게 있어서 큰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역사속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학의 본연의 자세를 찾아 가는 것도 향후의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세션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올해 국사들의 대화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내년 이후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혹은 역사대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다음의 '역사화해' 세션에서 논의를 심화해 가길 바라겠습니다.

화해를 위한 역사가공동연구네트워크의 검증

사회 : 류지에 (와세다대학)

논점정리 :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총괄 : 미타니 히로시 (아토미학원여자대학)

발표자 : [일본] 미타니 히로시 (아토미학원여자대학), 아사노 도요미 (와세다대학)

[한국]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박훈 (서울대학교)

[중국 · 대만] 양 바오 (화동사범대학), 왕 웬룽 (대만정치대학)

재일연구자 : 단 즈이소 (게이오의숙대학)



류지에 그러면 ‘제3회 국사들의 대화’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와세다대학의 류지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세션1에서 오늘의 세션5까지 벌써 5세션까지 오면서 주로 17세기의 국제관계와 임진왜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17세기의 전란에서 안정으로 향해가는 역사를 통하여, 3국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매우 유익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휴식시간에 통역사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온화하다”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더 재미있고 격한 논의를 기대하고 왔는데 싸우지를 않으시네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투적인 논의를 좀 더 통역하고 싶었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한 느낌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션도 내용면에서 보자면, 격한 싸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므로 약간 부족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매우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션의 주제에 관해서, 이 세션은 역사의 화해를 향한 역사공동연구의 네트워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션을 마련한 이유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어제 세션 1을 할 때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요점은 패널분들이 역사의 대화에 대해서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역사가의 대화”라는 의미와 지금까지 대화로 얻어진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역사대화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국사들의 대화 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사대화라는 장면에서 직접 활약하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발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역사가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화하는 의미와 향후의 전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한 분씩,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당 6분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타니 선생님부터 시작하시죠.

미타니

아토미학원여자대학의 미타니 히로시(三谷博)입니다. 시간을 조금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역사인식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편의 당사자이며, 다른 두 나라가 또 다른 한편의 당사자라는 관계이므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인식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2001년 이후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일본 국내와 한국/중국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편으로는 류지예선선생님께서 제창하신 중일간의 ‘역사가 교류’, 또 하나는 한국의 임지현선생님과 일본의 이성시(李成市) 선생님이 제창한 ‘한일 역사대화프로젝트’, 이 2그룹에 참가했습니다. 둘 다 민간차원의 교류였으며, 저는 정부가 기획한 사업에는 일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실은 그 이전에도 윗세대들이 동아시아 내부에서 베트남 등을 포함한 역사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동료였던 독일사를 전공한 니시카와(西川正雄)씨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었지만, 저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류지예선선생님의 중일교류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교과서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 장쩌민 시대 때 일본과 중국의 정부가 역사를 둘러싸고 대립을 일으켰습니다. 그 정부 간의 대립을 역사가가 이어받아 역사에 대해서는 냉정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죠. 그 때의 목표는 일본측에서는 역사적인 사실, 특히 일본의 이웃나라에 대한 가해 사실의 인식을 일본이 가져 졌으면 좋겠다는 것. 동시에 중국측에는 일본은 실제로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 그렇게 하면 이 역사라는 것이 중일간의 분쟁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류선생님의 목적이었으며, 저는 먼저 말씀을 듣고 곧장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민간교류만 해왔는데, 류선생님의 중일 공동연구는 방법으로서는 사료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중국에서는 사

료를 중시하지 않았으나, 직전인 십수년간에 역사학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 사료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료를 토대로 연구를 해 온 일본인의 역사가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것이 그들의 예상이었으며 확실히 그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초대하는 사람은 연장자로서 머리가 굳은 사람은 사양하고 젊은이들로 한정시킨다는 것. 저는 당시에 그렇게 젊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젊은이들을 그룹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측에서는 본토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계신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가 쉬워졌던 점은 있습니다.

그 성과가 2006년에 간행된 “국경을 초월하는 역사인식”이라는 책이며, 도쿄대학출판회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의 양쪽에서 동시에 출판되었습니다. 각각의 문제점에서 해석이 다른 점은 분명히 있었지만 처음에는 양쪽 다 과연 이야기가 성립되는지 매우 우려하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매우 긴장하면서 참가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실제로는 얘기를 해보니 이야기가 통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가 매우 사이가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일본과 중국 동시에 출판되면서 특히 그때까지는 중국 분들이 읽지 못했던 일본의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해석을 중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표회는 베이징에서 있었죠. 그 때 저는 혼자서 가게 되어 이 또한 긴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회의에 참석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편인데, 그 때만은 상당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측 사람들이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어판도 출판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앤드류 고든(Andrew Gordon) 선생님이 협력해 주셨는데요, 이는 영어권에서 중일의 역사교과서문제를 생각할 때의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류지에선생님은 이번에는 더 젊은 중국사 전공의가와시마(川島真) 씨들과 함께 중국본토의 학자도 초빙하여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몇 편의 성과를 냈습니다.

한일관계 얘기를 해보자면 경향은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에 큰 특색이 있습니다. 조광선생님이 관련하신 정부측 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다지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3기째도 하자는 얘기가 어디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참가했던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는 잘 되었습니다. 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선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재일교포인 이성시(李成市) 선생님이었다는 점, 그리고 양국 모두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들이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탓에 참가한 멤버들은 그들이 선택한 만큼,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국의 내셔널리즘에 대해 극히 비판적인 사람들만 모여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셔널리즘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는데, 참가하면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이 사람들은 매우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과 살짝 그런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큰 발견인 셈이죠.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 ‘내셔널리즘의 탈구축’이 한창이어서, 그런 풍조가 이 기획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실로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론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자체는 어떻게 되긴 했고, 자 그럼 국내에 그 성과를 환원할 수 있었냐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동아시아 대화에 참가했던 동기는 정치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교과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여론의 일부에서 “태평양전쟁은 아시아해방의 전쟁이었다”는 논조가 당당하게 통하면서, 그럼 중국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거냐 하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죠. 이쪽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냐, 학자로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말이죠, 중국과 한국에서는 일본의 교과서가 잘 못되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사실에 관한 것은 제대로 적혀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한국 측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죠.

대화의 초점이 교과서를 향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일본의 성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더 큰 문제인데, 그쪽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저로 출판한 것이 “어른들을 위한 근현대사”라는 제목의 동아시아전역에 관한 근현대사 책입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사, 중국사, 한국사와 관련된 일선에서 일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분담해서 집필해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저 혼자서 다시 고쳐 썼습니다.

19세기편이 처음에 나왔지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20세기편도 곧바로 널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오래 끌다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채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는 가와시마(川島真)님, 류지에님 그리고 한국사 전공의 고인이 되신 나미키(並木真人)님, 이렇게 세 분이 집필자였고, 90% 정도 원고가 나왔지만 멈춰버렸습니다. 아마도 저는 금년 가을부터 한가해 질 것이기 때문에 1권이 나온 지 10년 쯤 되는 내년에는 출판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어서 일본학술회의라는 학자들의 단체가 있어 그 멤버 중 한 사람으로써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에 역사기초라는 필수과목을 신설하자는 제안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의도는 일본인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일본과 그 외”라는 머리 속의 공간분단,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사와 세계사를 하나의 책으로 쓰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2015년에 두 번째 제언을 정부에 대해 하는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커리큘럼의 골자는 제가 썼습니다. 근현대사로 범위를 좁히고,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의미, 사실이 당사자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가해자 쪽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피해자들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내용 뿐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도 집어 넣고, 또는 젠더라는 현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토픽도 같이 넣자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를 채택해주지 않았죠.

이와 비슷하게 근현대라는 범위로 “역사종합”이라는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

합하는 과목을 만들었으나, 그 내용은 우리들이 제안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실제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모범을 제시하려고 했더니 출판사로부터 참가를 거절당하는 심한 일을 겪게 되어 지금 힘이 쭉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정치와의 관계가 2010 년대에 들어와 극히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들처럼 민간인으로써 대화를 하던 학자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친구가 되었지만 반대로 국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중일관계사 전공인 歩平씨는 중국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에서 하신 강연에서 “학자간의 국경을 초월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정부나 여론으로부터 우리들은 고립되었다”고 매우 한탄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영토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에 한국대통령이 다케시마(독도)에 상륙하고,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국유화했습니다. 둘 다 국경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땅이며, 그 전까지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깨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두 케이스 모두 일본의 여론은 자신들은 피해자이며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금세기 초까지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 일본인들은 호감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문제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를 들먹여 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굳이 20세기 전반에 일본인들이 과오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말을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매우 소수가 되었습니다. 역사문제, 역사인식문제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도 금세기 초엽 이후, 일본인으로서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상들의 과오를 굳이 정시하고 반성한 후에 그것을 차세대에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보답은 없었다. 이웃 나라들은 그런 노력을 평가해 주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한번에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며칠 전에도 나가노, 시즈오카 등지에 가서 고등학교 교사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지만 여전히 20세기 전반에 일본이 근린국가들에게 가해를 했었던 사실을 교실에서 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아직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그런 역풍에 맞서 저항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 그것을 지원하는 일은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전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야말로 우리나라의 이익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민간학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저는 와세다대학, 푸단(復旦)대학, 서울대학교의 선생님들 구체적으로는 이성시(李成市)선생님, 박훈 선생님, 거 자오광(葛兆光) 선생님의 세 분과 공동으로 젊은 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3국의 역사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는 예전에는 근대만, 즉 일본이 가해자였던 시대만을 다루었는데, 그 이전인 전근대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세 번 만에 끝나 버렸지만 그 성과의 일부는 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 안이나 또는 내년 초에는 도쿄대학출판회에서 출판될 것입니다. 박훈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어판은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국어판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경을 초월한 공동연구의 성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저는 각국 6편, 합치면 18편의 논문을 모두 읽고 중국의 고대환경사에서 2차대전 후의 사할린의 역사까지 읽어보았는데, 이들은 매우 우수한 논문이었으며 지금 동아시아의 젊은 역사가들은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쁩습니다. 서로 절차탁마하면 세계나 구미의 역사가들과 충분히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학술차원의 전근대를 포함한 ‘역사의 대화’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역사인식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일본인들은 왜 우리들은 피고석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냐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국가 이름만 들어도 혐오감을 느낀다거나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합니다. 실제로 공포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역사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20세기 전반에 일본인들이 과오를 일으킨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그것을 반성한다는 행동은 반성을 하면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신뢰감이나 혹은 상대방의 판단력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 20세기 초반보다 좀 나았던 동아시아의 역사를 상기시키거나 아니면 깊은 관심을 갖는다거나 혹은 그런 자리에 나온 국경 너머의 동업자들이 매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등 그런 다른 방편으로 바탕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임자체, 아쓰미재단 덕분에 열 수 있는 ‘국사들의 대화’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이후 아시아 각국에서는 역사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져서, 각국에서 자기본위의 역사해석이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시 방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동을 걸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선 관련국들의 역사가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계속하는 것이 아마도 미래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화해를 향해 세상을 역전시킬 수 없지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이번에 기뻐던 것은 젊고 유력한 역사가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솔직하게 좋은 논의를 해주신 점입니다. 이는 진짜로 기대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예 네 감사합니다. 미타니 선생님은 최근 10년 20년 정도 계속 일본과 중국, 한국 간의 역사대화에서 일을 많이 해 오셨는데, 그 내용은 매우 풍부한 것이었으나, 오늘은 그 중의 에센스만 조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와세다 대학의 아사노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사노 선생님은 지금 와세다 대학을 중심으로 ‘화해학의 창성’이라는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 중의 역사화해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도 가급적 5,6분 이내로 부탁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사노 소개 감사합니다. 이 회의의 공동개최단체로서 가장 먼저 “과학연구비 신영

역연구/화해학의 창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와세다대학의 아사노(淺野豊美)입니다. 우선 화해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화해학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어떻게 즐겼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해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미타니 선생님의 “국경을 초월하는 역사인식”의 프로젝트에 10년 전에 참가하게 되어, “대만을 둘러싼 일중 역사인식의 충돌”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싸움하는 논의가 없었다”고 통역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컨대 역사가가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 국민들의 갈채를 받을 만한 기세 좋은 발언을 해 주기를 역사가에게 바라는 사회현상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학자들도 그 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고, 좀 더 차원이 다른 국민적인 감정을 다가가게 하는 논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해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애기와 관련되지만 국가 · 사회 · 민족이라는 말 자체는 거의 오늘과 어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역사가자체가 어떤 개념으로 그 역사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의식하는 것이 화해학적인 수법에서의 역사공동연구의 첫 단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해라는 것은 지식인들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정치 · 외교 · 미디어 · 시민운동 등 다양한 팩터들이 필요해집니다. 주로 이 4개의 팩터에 주목하면서 국민이라는 존재가 우리들 머리 속에 상상하는 것처럼 국민과 국민 사이의 화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 머리 속에서 상상하는 사회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과제에 대응해가고자 합니다.

인쇄기술이 있고, 나아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대중이 있고, 그리고 국민적인 문화라는 것이 의무교육을 통해서 배우면서 비로소 우리들의 머리 속에 국민이나 민족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SNS가 있고, 인터넷도 있고,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국민이라는 집단을 넘어설 수 없는가. 그것은 역시 언어 문제가 가장 크다고는 생각하지만, 적어도 국민과 국민이 화해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 속에 상상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지식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은 류지에 선생님을 편집위원장으로 하여 ‘역사 분쟁화해사전’이라는 것을 지금 인터넷상에 구축하는 중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매우 감정적인 논의가 만연되기 마련이지만, 이는 오히려 이성적이고 냉정한 논의라는 것을 인터넷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해의 주체는 일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젊은 연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함께 손을 잡고 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타니 선생님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어느 정도 차갑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머리와 차가운 심장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될 것이고,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듣고 느낀 점인데, 국민이란, 국가란, 사회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지역이나 시대라는 범위를 잡는 것이 최대의 메리트라 생각합니다.

앞선 논의에서 류큐왕조의 관점이 있었는데, 사쓰마가 류큐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쿠가와에게 세키가하라의 전투 이후 부탁했다는 것은 바로 “조선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사쓰마가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고 싶었던 새로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그것을 부분적으로 실현한 것이, 류큐를 양속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또 나아가 남만과의 접촉, 즉 서양인과의 접촉이라는 관점이 거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을 매개로 한 스페인의 무역권과의 접촉에 관해서는 조금 나왔지만, 역시 소총과 기독교라는 것은 크고, 새로운 기술은 남만인들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재빨리 국내생산한 일본이 한반도나 류큐로 세력권을 늘렸다는 구조이며, 여기에는 19세기의 개항기와 완전히 같은 구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글로벌 히스토리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전면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또 호란에 관해서는 1만명 이하의 몇 천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10만명 이상의 군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는 한반도를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왜란을 통해 소총기술이 한반도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호란 때는 단기간에 더구나 1년이나 전부터 북방의 여진족과의 관계는 긴장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충분한 전쟁준비를 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점령당했습니다. 도대체 이는 왜 그런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도 역시 부디 전공하시는 역사가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쇄국령을 발표했던 것이 1636년이며, 마침 호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즉 쇄국령 그 자체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큰 관계가 있었던 것이며, 평화적인 형태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퇴거시키고, 네덜란드하고만 관리무역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의 상식이 되고 있으나, 자세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모문룡(毛文龍: 명나라 말기의 장수)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무역을 하다가 문책되어 살해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毛糧」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모문룡이 어떤 무역을 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이 정도로 해두겠지만 다음에는 4년째이며, 근대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마도 주제는 개항기가 될 것이므로 17세기의 남만인과의 접촉과 19세기의 개항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달랐는지, 증기선이나 암스트롱포(Minié rifle)라는 새로운 소총이 큰 테마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디 비교를 의식하면서 개항기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지에 감사합니다. 이 양일간의 논의를 계속 아사노선생님께서 들으시고 아마도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조금 이야기를 하실 시간을 드렸으면 좋았겠다 싶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조광 선생님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광 선생님께서도 한일 공동연구,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사들의 대화’에서 계속 중심적인 역할

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디 부탁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광 감사합니다. 한국국사편찬위원회의 조광입니다. 국사학의 대화 및 역사학의 대화에 제가 직접 참가한 것은 2002년부터였습니다. 그 때 당시 고이즈미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간의 상호협의로 누적된 역사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의 이해를 깊이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1회 일한/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일한/한일역사공동연구회의 경우는 제1기와 제2기,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1기의 첫 번째부터 위원장 대리를 맡았습니다. 2기부터는 한국측 대표의 입장으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대화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유네스코에서 문헌 번역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유네스코 회원이 아니라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아르바이트로 자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의 대화라는 것을 접하고, 역사학자로서 역사학생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 당시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일한역사공동연구회에 참가하기 전에 역사대화에 관한 유럽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저 나름대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의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양국간의 ‘역사대화’는 우선 국가적인 공식기관에 의한 대화였습니다. 이런 국가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일본측 연구자, 한국측 연구자의 경우, 국가의 대표로 뽑힌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만큼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대표를 자임하고 필요이상의 충돌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국가적인 국가 간의 역사라는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인가 하는 회의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국간의 대화, 멀티플러그의 대화를 할 수 있었을 때, 올바른 대화에 이르게 된다. 민간차원의 대화, 다양한 NGO를 중심으로 한 기관, 민간차원에서의 대화를 종합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가간의 대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대화를 수용하고, 대화의 결과를 실천하지 않으면 민간차원의 대화는 좋은 추억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추진할 때 국가간의 대화를 시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상호대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를 임명하여,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10년 동안 제1기, 제2기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가간의 대화 뿐만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 것은 NGO 단체를 통한 대화, 개인의 영역의 대화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대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유럽의 가해자 국가였던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체코슬

로바키아, 러시아, 북유럽 등 많은 국가와의 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대화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서 합의한 내용을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공통교제도 낼 수 있었고, 서로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런 유럽의 좋은 사례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2002년 당시, 한일 역사대화에 참가했던 NGO 단체는, 제 기억이 맞다면 7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7개의 단체에서 실제로 대화가 지속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대화의 결과가 실천으로 수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일본측 입장에서 특히 일본의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가해자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해자라 하더라도 사죄를 매년같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피로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죄를 반복함에 따른 커다란 피로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얘기를 계속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죄는 하지만 사죄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을 잃는 사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죄의 반복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게다가 피곤에 빠졌다고보다는 서로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에 대해 새로운 실천이라고 할까 사죄 이후의 서로의 보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유용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학회는 학회대로 또 국가가 주관하는 대화의 집단에 있어서는 그들대로의 대화만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일간의 대화는 대부분 흉내만 내다가 끝나버렸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참가하고 진행된 온 한일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대화의 주제를 정할 때는 겹쳐진 관심사항, 충돌이 없는 문제만 골라서 대화를 해왔습니다.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죠. 다케시마, 독도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문제, 그런 다양하게 산적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 외의 문제에서 먼저 접근하려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외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깊이 없는 대화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이기 때문입니다.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난관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세와 자세를 계속했을 때 또 가급적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 과거의 피해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보상, 혹은 사죄,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죄가 있었을 때, 문제는 지나버린 과거가 됩니다. 현재의 과거로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쓰미재단은 역사의 화해를 생각하고, 국사와 국사의 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며, 각국의 국사와 국사, 매우 내셔널리즘적인 입장에서 용어를 하나의 테마로써 대화하고 있는 것 자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대립적인 용어라 하더라도 서로 화해를 구하고, 거기에서 일치된 대화의 내용을 모색한다는 면이 세 번에 걸친 이 대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NGO적인 차원에서의 대화도 앞으로 계속되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겹치는 관심사 중에서 가해 도는 피해 언젠가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역사의 화해를 통해, 현실적으로 국가/민족 간의 화해도 보다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는 아시다시피 사료와 그 사료의 해석의 결합이라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는 혹은 그런 무관심 등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석이 올바르게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역사학자로서의 자세를 계속 가지는 것, 그로 인해 끊임없이 이 대화가 지속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쓰미재단에 의한 이 대화에서는 각자가 국가의 대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민간차원의 대화를 모아서 일본의 정부를 움직이고, 한국을 정부를 움직이고, 가해자 · 피해자라는 과거의 사실을 이제는 과거로 돌려버리고, 과거의 일로써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상호 간의 정부가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에

조광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역사대화에 참가하고 계신 역사가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지적해 주셨으니, 우리들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역사대화를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훈 선생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선생님도 몇 군데의 역사대화, 공동연구에 계속 참가하신 분으로 오늘도 그 이야기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훈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훈입니다. 역사의 화해라든지 역사인식의 문제, 역사의 분쟁이라는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이며, 해결의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 기자가 나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역사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고, “그것은 나에게 물어서는 안되죠. 나는 모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분쟁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든지 역사학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든지 언론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대학신문 기자처럼 사회구성원들은 역사가들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역사가 들어가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잘 생각해보면 실은 역사가의 문제가 아니다 라기 보다는 현재와 같은 역사학 상황에서는 그것에 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역사학자들이 고도의 정치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세기 후반, 이 역사학이라는 것은 사료가 정말 새롭게 발굴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실증하는데 집중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테마를 하나 가지고 그것을 실증하면서 나쁘게 말하면 그것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것이죠. 일어에서 말하는 스미와케(구분),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자신의 영역을 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입한다고 하면 좋게 들리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매니악한 덕후. 그런 역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를 매니아라든지 덕후들에게 해결을 요구하게 되면, 좋은 답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경향은 자국사 혹은 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더 실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먹고 살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돌아보면 약 50년 60년 전에 가령 일본의 중국사 전공의 미야자키(宮崎市定) 선생님 같은 분, 또는 일본사 전공의 도야마(遠山茂樹) 선생님, 또는 중국의 陳寅恪 선생님, 傅斯年 선생님 등은 매우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런 역사의 전체상과 문맥을 잘 파악하면서 설득력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그 지혜를 사회에 발신하고, 사회를 통솔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 60년이 지나자 그런 역사학자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역사학이 폐업에 다가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많은 것을 사회에 요구하기 보다는 역사학자들 각자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자신의 분야 또는 자신의 시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기반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변명삼아 “이것은 내 영역이다” 라며 다른 것이 나오면 “전혀 모른다” 라고 답하거나, 장벽을 만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는 더 이상 21세기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은 각각의 영역을 파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보는데,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3, 4년간, 한중일 역사학자의 포럼을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해도 또 다시 들어가버리고, 또 나가려고 해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역사학자들은 앞서 누군가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자신의 시대라든지 자신의 분야가 아닌 비전공자에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힘이 남아있다면 일반 교양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역사학을 전공했는가 하면 당시는 역사학이라는 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역사학의 교수들도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이 20대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일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절망적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저는 모든 연구자가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바꿔가면 역사학회에서 적어도 10%, 20%, 30% 이런 형태의 역사학자들이 배출되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점에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전문감각은 갖고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포괄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임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공을 발표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학문적인 교류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는 너무나 돌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역사인식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10%、20%의 높은 능력을 가진 역사학자들의 모임, 그것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시간을 확보한 역사가들의 포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처음으로 참가했지만, 그런 형태의 모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애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학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나아가 “역사 덕후”가 정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요구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문제이지요. 이는 사실은 역사가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이는 역사학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과 많이 상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양선생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양(楊) 선생님은 중국에서 동아시아국가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경험이 있고, 그 교과서를 통해 각국의 역사인식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든지, 혹은 역사학 자체의 정치나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양바오 화둥(華東)사범대학의 양(楊彪)입니다. 한중일 3개국의 화해에 대해서 역사 그리고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각종 논의는 저 개인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실은 20년 이상 계속해 왔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주 중국과 일본의 논의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보충설명으로 중국과 한국과의 화해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국가차원에서 역사공동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있었지만, 한중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화해의 성과에서 본다면 한중 민간차원의 대화의 효과에 대해 평가를 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화해의 성과라는 점에서 1993년에 상하이에서 실시된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둘러싼 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중국국내 중에서도 가장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1990년대에 역사교과서 체도를 개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서를 폐지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그 때부터 독자적인 교과서를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한국은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이라 불리지 않고, 남조선이라 불렸습니다. 변한 것은 1993년도였습니다. 1992년의 한중 국교정상화 후 1993년부터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정부차원의 교류가 아니라, 민간차원의 중국과 한국의 역사가가 모인 교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직 젊었지만 이 대화에 참가했습니다. 대화의 결론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성립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하이의 역사교과서에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표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법통’ 인식과 관련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국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기술도 바뀌었습니다. 본래 남쪽에서 시작했다는 식으로 써오던 전쟁에 관한 서

술을 그만두고, 모년 모월 모일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식의 중립적인 서술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이던 당시, 서울시의 한자표기를 ‘漢城’에서 ‘首爾’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중국의 민간인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일본에서 일어난다면 중국의 민간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연호를 쓰게 되는데 만약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중국 고전에서 연호를 정한다는 전통을 그만두면, 중국 여론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이 국회나 법원에서 한자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민간인들은 그다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지정하려고 했었지만, 현 대통령이 곤장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국정교과서를 취소한 시기와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서서히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국정교과서의 내용에서 보면 2016년의 첫판에서는 당과 신라의 관계를 한 구절로 넣었지만 2017년의 버전에서는 이 구절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회의 전에 제가 2018년도 최신판을 확인해봤지만 당과 신라의 구절이 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더 자세하게 첨가되어, 최치원 등의 인물도 교과서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정부차원이 공동연구가 없어도, 한중의 역사연구와 컨센서스는 중일보다는 순조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많은 마찰을 경험해 오면서 역사의 부담 외에 정치 개입도 하나의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치 개입은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로 플러스면도 있고, 마이너스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20년 동안을 생각하면 전기는 비교적 플러스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20년 동안 후반부에서는 특히 고이즈미총리 때부터 정치의 힘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중일간의 정부차원의 교류가 멈췄을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교류가 잘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정부차원의 역사공동연구는 1기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1기도 최종보고서를 잘 쓸 수 없어서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도 2기가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일본과 한국과는 2기의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개입이 화해의 진전을 악화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 문제를 교과서에 집어 넣거나 교과서에서 이웃국가와의 조약을 삭제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것도 국가에서 오는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가상적국, 외부의 압력이 존재하는 것이 화해보다 헌법개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의 개입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최근 2년동안에는 플러스 효과를 낳았습니다. 가령 내년 일본에서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먼저 중국의 국가정상과 면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이 정치상, 역사상으로 새로운 단계에 올라왔다고 인식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상황 하에서 중

국과 일본은 몰래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내각 멤버가 이 2년동안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에 없는 드문 일입니다. 이는 일본도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도 센카쿠열도 문제, 역사인식 문제를 양국 정상회담과 연결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본래 고이즈미내각 때와 제1차 아베내각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중요했습니다. 이는 양국 정치적 차원에서 수면 밑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중국의 수석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신천황과 중국의 정상과의 역사적인 면회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정치관계 하에서 적어도 앞으로의 2년간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화해가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화해’라고 할 때 그것을 굳이 정의하자면 이는 법률상의 의의를 지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최종적인 화평협정, 혹은 중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법률상의 화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사의 화해는 법률상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를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대화에 의해 양국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신뢰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화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의 일체화와 문화의 일체화가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중일의 자유무역협정이나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가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는 것 등이 화해를 긍정적으로 촉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국 자체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계속하는 것이 화해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해에 대해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우선은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근년 지정학은 학계의 교류와 화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다른 국가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 중국과 타국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분명히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대립은 없는데 공통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른 역사화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데올로기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민족주의는 국가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화해는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화해를 위한 일은 학술계 뿐만 아니라 민간을 향해서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술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간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역사가로서의 매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화해야말로 진정한 화해라 생각합니다.

류지예 특히 선생님은 역사교과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과서와 정치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이고, 정치력의 개입으로 역사인식의 문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신 듯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王文隆(Wang, Wenlung)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왕선생님은 현재 대만에 있는 ‘국민당 당사관(국민당의 역사에 관한 사료관)’의 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많은 중국 혹은 일본이

나 한국의 연구자가 중국근대사를 연구할 경우 이곳 사료관을 방문하므로, 그곳이 학자들이 교류의 장이 되어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평소에 잘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대만의 당사관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봐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왕웬룽 대만정치대학의 왕(王文隆)입니다. 저는 「국민당 당사관」의 전 관장입니다. 오늘 하루 세미나의 보고를 들은 가운데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 연구자로서 역사의 진상을 탐구하고,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사의 일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내 아내에게 있어서 역사는 드라마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드라마 ‘대장금’에서 한국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역사책보다 드라마를 더 보고 싶겠죠. 그렇다면 우리들 역사학자들이 교과서 편찬이나 드라마 제작에 참가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학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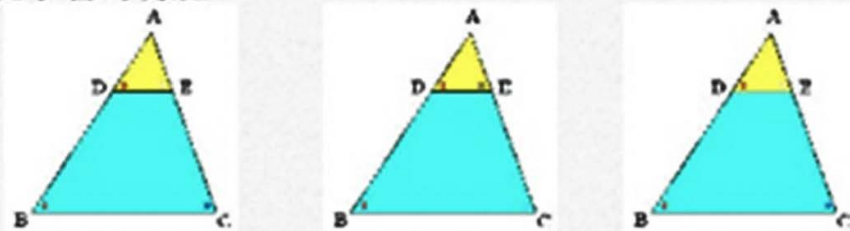
역사 연구에는 도서관과 사료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학술적인 훈련을 경험한 후에 학자들이 어떻게 사료를 찾는지, 어떤 식으로 사료를 해석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역사학은 앞서 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후들이 하고 있는 특수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기능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역사학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특수한 역사가의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민족주의의 생각이 약하고 대신에 동정과 이해, 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빈번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삼각형이 하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가장 위에 있는 노란 색 삼각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파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유할 수 있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료도 있고, 남과 다른 견해를 제언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도서관이나 공문서관 등의 장소는 역사사료를 찾기 위해 가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당사관에 있었을 때, 매일같이 전세계에서 대만으로 사료를 찾아 온 학자를 접대했습니다. 중국, 홍콩은 물론이고, 파키스탄에서 방문하는 학자도 있어 그들과 함께 사료를 찾거나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연구테마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자가 있어 같은 시기에 당사관에서 사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료수집의 시기부터 이미 서로 합의(컨센서스)에 도달하는 가능성으로 방향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학자들은 하나의 기초개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이자 사상가인 호적(후스:胡適)의 말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그만큼의 이야기를 합니다. 70%의 증거밖에 없다면 80%의 결론은 안됩니다.” 이와 같은 학술적인 훈련이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감정

學者所能扮演的角色

- 人文學科研究的依據與檔案館、圖書館
- 學院式的訓練與論文發表、學者間的客觀溝通或是尊重與了解
- 跨境學者的功能



슬라이드 1

과 입장에 제한을 받아 역사를 해석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에게는 다른 이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동아시아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양한 국가가 있고 각각의 국가에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령 한국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일본측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을 하죠. 우리들이 역사연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정치선전으로 인해,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선전을 위한 방해에 대해서 여기에서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은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입니다. 일본군이 중국에서 하는 전쟁에 대해서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를 위해 중국에서 전쟁을 하고 장제스라는 나쁜 놈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이에 대해 충칭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치선전에 의해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본다면 많은 정치인물들은 각자의 정치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이용하고, 왜곡시키고, 곡해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학자들은 이와 같은 정치선전의 방해를 가급적 돌파하여 학술을 정치에서 지켜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쟁에는 피해자의식이 존재합니다. 충돌이 반드시 피해자의식을 초래합니다. 왼쪽 사진은 상하이사변 때, 어린이가 전쟁터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사진의 아이는 누가 안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 사진은 가짜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쟁에 의한 피해자의식을 표현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원폭투하된 히로시마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번이나 원폭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을 말할 때 일본도 피해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전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자 역사의 피해자의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논할 때 우리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학자가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가. 어떻게 화해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료관과 도서관에는 방대한 사료가 있고, 이 사료들을 학자이든 일반인이든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역사상의) 모든 논술, 모든 대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료 수집은 생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요한 모델입니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일부에서는 정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독립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입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역사사실을 논할 때 서로의 감정이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가령 최근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과 일본의 국민감정이 상처 입는 것은 아닌지,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각국의 국사를 “작은 역사”로 본다면 지역의 역사를 “큰 역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사들의 대화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야를 넓혀서 이른바

민족주의의 논조를 배제하고 보다 넓은 시점에서 역사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연구방법이 계속된다면 낙관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역사상의 사건은 용서되지만 잊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역사가 잊혀지지 않는 한 우리 역사학자들이 사료를 수집하거나 논하거나 프레임을 짜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역사를 어떻게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수용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면 그 때 비로소 화해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류지예 감사합니다. 왕 선생님은 사료관, 역사사료관이지만 거기서 많은 연구자들과 접하면서 연구자는 화해를 지향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시니 거기서 느낀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매우 힘있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즈이소 선생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단 선생님은 중국 근대사, 특히 장제스의 기록을 많이 읽으신 선생님이시며, 그 중에서 느끼신 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단즈이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오대학의 단즈이소(段瑞聰)입니다. 아마 예정된 시간이 이제 2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몇 분 동안 얘기하면 될까요? 어제 밤 이은민(李恩民) 선생님께 10분 동안에 몇 글자 정도 말할 수 있는지 여쭙 보니, 2500자 정도 말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그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간결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6분의 선생님들께서 매우 훌륭한 대단히 시사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틀 동안 쪽 이 세션에 와서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근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가 이번 테마인데, 이 세션의 테마는 국사들의 대화로, 한중일 3개국이며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한중일, 특히 중국과 한국인데, 분단국가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1949년 이후 오늘까지 분단된 채입니다. 남북한은 최근 완화조짐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별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은 역시 역사적으로 남은 유산이기 때문에 본래는 정부간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들도 연구자로서 혹은 민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왕(王文隆) 선생님이 대만에서 와주셔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오실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북한의 연구자들이 이 자리에 온다면 여러 의미에서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분단국가라는 문제는 없지만 과거의 전쟁을 두고, 전쟁의 기

역, 오키나와와 본토와의 관계 혹은 현재의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오키나와현과 일본정부 간에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대사를 역임하신 아카시 야스시(明石康) 씨가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일본의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전후 73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 러시아와는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습니다. 북한과는 국교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여기서 화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들이 너무 온화하다는 불만을 말했는데, 우리들은 화해를 위해 모였기 때문에 새로운 대립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들은 역사연구자로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는 화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연구의 국제화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과는 다양한 형태로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류선생님, 미타니선생님, 한일공동연구 혹은 정부주도의 중일역사공동연구. 다만 이들 역사연구가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번째로서는 “역사연구성과의 사회화” 혹은 “역사교육의 대중화”를 제기합니다. “역사연구성과의 사회화”라는 것은 다만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서 보고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사이 좋게 지낼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더 많은 사회의 일반인들에게 더욱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고, 상호이해를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는 이 역사연구의 사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어쨌든 학교교육이라는 생각만 하시겠지만 일어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역시 이 일반인들에게 역사 사실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는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중국에서는 최근 오히려 중화민국사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중국에서 배운 역사와는 다른 형태로 최근 특히 앞서 아사노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뉴미디어, 예를 들어 트위터, 중국에서는 트위터 대신에 위챗이 있고, 이는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많은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전송하거나 발신하고 있습니다. 성가시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사실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부디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 중에 어플이나 LINE, 트위터 블로그를 활용하여 역사연구 혹은 역사교육을 추진해갈 수 없는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에 감사합니다.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션의 시간은 90분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이나 감상이 있으시겠지만 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 또는 감상 등이 있으시다면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안 계신가요?

시오데 교토대학의 시오데(塩出浩之)입니다. 매우 충실한 토론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류지예선생님이 어제 취지 설명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도 유학생이 이 역사대화에 미친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은 듯 합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었던 90년대 말쯤이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의 미타니 선생님의 세미나수업에서 많은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특히 한국,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때까지 하지 못했던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등등, 한국이나 대만이 한 때는 일본이었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대화 속에서 생각할 기회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제 역사에 대한 생각을 시나브로 바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최근까지 일본의 근현대사에서 이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일도 아마 유학생들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아마도 이런 것이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구미의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겠지만 모르는 새에 자꾸자꾸 그런 식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어, 아마 아직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 매우 많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경험 이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류지예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와사키 쓰다주쿠대학(津田塾大学)의 가와사키(川崎剛)입니다. 예전에는 아사히신문 아시아네트워크(AAN)의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어제 진주박물관의 최영창 선생님이 먼저 임진왜란에 대해 북한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라 한다고 소개하셨는데 그것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은 물론 여기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임진왜란 뿐 아니라 동아시아사의 여러 국면에서 북한이 어떤 용어를 만들거나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동아시아사의 전문가가 각주처럼 말씀해주는 것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단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도 북한의 국사가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부르고 있는지 우리들은 알고 싶습니다. 연구자 분들께서 만약 그런 것에 관한 아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각주처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어제부터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신 아카시(明石康) 선생님께 마지막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카시 저는 ‘국사들의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제부터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매우 유익하고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는커녕 어떤 면에서는 다시금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정적인 말을 하는 평론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때에 개개인이 제대로 역사적인 사상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아쓰미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아미래회의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연사는 AI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두 사람의 연사 중 한 사람은 과학자였고, 또 한 분은 철학자였습니다. 저에게는 철학자가 하는 말이 약간 묵은 이야기이면서, 인간이 각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심플한 메시지였으나, 아무리 그렇게 경제가 발달하더라도 우리들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복잡해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은 심플한 몇 가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 시대는 ‘이즘(ism)’이 너무나도 홍수처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전락하고, 세계의 최고의 초강대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글로벌리즘 시대에 들어갔다고 우리들의 대부분이 믿었는데, 전혀 아니고 새로운 의미에서 위험천만한 내셔널리즘이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역사를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는 류지에 선생님과 미타니 선생님께서 매우 설득력있게 이 48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편견에 가득찬 역사가 아니라, 그러나 개개인의 깊은 곳에서의 신조에 따른 역사관이라는 것이 앞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고, 미타니 선생님과 류지에 선생님의 일들은 아직 끝나지 않을 테지만 쓸데없는 정치적인 배려라는 것에서 자유로운 시점과 관점에서 가급적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세계관 같은 것이 부지부식간에 거기에 탄생하는 일이 일어나면 멋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류지에 아카시(明石) 선생님 감사합니다. 매우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로써 “국사들의 대화” 제3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이 회의를 지원해 주신 통역사분들에게 박수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싸움에 가까운 논의도 해보고자 합니다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맺으며

1

제 3 회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보고서

김경태 (고려대학교)

2018년 8월 25일에서 26일, 서울의 더케이호텔에서 「제3회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번의 테마는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였다. ‘壬辰倭亂’과 ‘丁卯·丙子胡亂’이라는 국제전쟁(전란)과 대규모 전란이 종료되고 각국에서 정상화를 추구하던 시기인 17세기 중엽 이후의 사회·경제적 노력(안정)을 살펴보자는 취지였다. 각국이 뜨겁게 맞붙은 전란과,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안정화를 추구한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8월 24일 저녁, 국사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분들의 소개가 있었고,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에 걸친 열띤 회의가 진행되었다. 미타니 히로시 선생(아토미학원 여자대학)의 취지설명에 이어 조광 선생(한국 국사편찬위원회)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는 위기를 여러 방안으로 극복하고자 한 조선을 조명하면서, 17세기 위기론의 무비판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각국의 실제 양상을 내적·외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본다면 세 나라 역사의 공동인식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壬辰倭亂’이었다. 한국의 최영창 선생(국립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에서 조선시대를 포함한 한국 역사상의 임진왜란 인식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정 지예시 선생(영파대학) 「기만인가 타협인가—임진왜란 시기의 외교교섭」에서 ‘기만’으로 대변되던 임진왜란기 강화교섭의 일반적 인식에 대해 다시금 비판을 가하면서, 명이 강화교섭에서도 조선의 이해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아라키 가즈노리 선생(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임진전쟁’의 강화 교섭」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에도 막부 간의 국교 교섭에서 쓰시마의 국서위조와 이를 묵인한 조선의 논리에 주목했다. 본 주제는 세 나라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된 분야이며, 대립점도 비교적 명확하다. 각국 사료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기대되는 바이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胡亂’이었다. 허태구 선생(가톨릭대학)은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명백한 열세에도 청과 대립(척화론)한 이유를 조선이 가진 사상적 기초에서 찾아내고자 하였다. 스즈키 가이 선생(시가대학)은 「‘호란’ 연구에서 주의할 점」에서 한국의 병자호란 연구에서 ‘정묘화약’과 ‘박난영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료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였다. 치 메이친 선생(중국인민대학)은 「라마의 위상—17세기 티베트불교와 동아시아 정국」에서 청조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라마교를 이용하였고, 라마교 역시 이를 이용하여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청조의 중원 지배 과정에서 존재했던 여러 정치체 및 종교체의 실상도 시야에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본 주제는 임진왜란에 비해 세 나라 사이 공동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이다. 사료의 공유와 검토는 물론, 세 나라의 사상적(혹은 종교적) 부분에도 커다란 변동을 가지고 온 사건으로서, 함께 논의할 부분이 많은 연구 분야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발표 주제는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본 17세기의 양상(사회·경제 분야 중심)였다. 마키하라 시게유키 선생(도쿄대학)은 「일본의 근세화와 토지·상업·군사」에서 도요토미 정권 이후 에도 막부까지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었던 수취제도의 변동 양상을 살폈다. 변화의 주요 지점을 명쾌히 지적해주어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수월했다. 최주희 선생(한국 국학진흥원)은 「임진왜란~병자호란기 唐糧의 성격에 대한 검토」에서 임진왜란 당시 명이 지원한 군량을 뜻한 ‘唐糧’이 ‘胡亂’ 전후를 거쳐 조세의 명목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설명해주었다. 자오 이평 선생(동북사범대학)은 「청대 전기 중조관계와 ‘동아시아’의 질서 구조」에서 ‘동아시아’와 ‘조공체제’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본 회의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17세기 이후의 한중관계 특성을 소개하면서 해당 개념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정치 아래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근원에 대한 관심, 사회·경제에 대해서는 본 주제의 발표자 상호 간은 물론 다른 주제를 담당한 발표자 및 참여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분야였다. 정치만큼이나 각국의 경제 구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역시 추후 ‘국사’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분야임을 확인했다. 연구자 사이의 개인적인 교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세션별 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가 생각하는 역사상에서부터 구체적인 논점까지 다양한 범위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보다 열렬한 토론을 기대했던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결코 발표회가 무기력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국사’ 학자들의 외국사 인식이 축적되면서, 나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전투적’ 토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다른 양상을 이해하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재확인하려는 ‘공식 토론’ 외의 개별 토론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목격했다. 세 나라의 참가자들이 정해진 발표와 토론 시간 외에도 장시간 함께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현실에서의 직업과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더 긴 시간을 함께 하기 어려울 것이나, - 세 나라를 제외한 거리가 먼 타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던가 -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 대화와 문제의식의 공유라는 방식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나의 전문 분야의 독특한 용어나 설명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이를 다른 전문분야의 학자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것인가, 나아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 역시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3회까지의 ‘대화’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절감한 것은 언어라는 장벽이 크다는 사실이었다. 세 나라는 대부분 ‘漢字’로 작성된 과거의 사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서 공통된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경험했다. 서로 사용하는 사료로는 소통이 되나 사료에 근거한 나의 견

해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통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세 나라의 연구자들이 서로의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 하기 직전에 회의의 시간이 다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이번 회의의 동시통역은 분명 세 나라 국사들의 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충분하지는 않으나 2회에 비해 한결음, 1 회에 비해 두결음 더 나아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준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에 감사드린다. 5 회로 예정된 ‘대화’ 이나, 이후로도 소규모, 그러나 더욱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으나 깊은 ‘대화의 장’ 이 수시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회의 사진은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sgra/wp-content/uploads/2018/10/Kokushi3Photo-1.pdf>

보고서는 2019년 봄, SGRA 레포트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sgra/research/kokushi/2018/10227/>

<김경태☆Kim Kyongtae>

대한민국 포항시 출신. 한국사 전공.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중인 2010년 ~2011년 동경대학 대학원 일본문화연구전공(일본사학) 외국인 연구생 자격으로 유학. 2014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 전쟁의 파괴적인 본성과, 전쟁이 초래한 황무지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평화 사이에 존재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작 : 임진전쟁기 강화교섭연구(박사학위논문)

맺으며

2

국사들의 대화를 지속, 심화하기 위하여

무라 카즈아키 (도쿄대학)

(번역 : 김경태, 고려대학교)

2018년 9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한국 서울시 더 케이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의 제 3회째 회의인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 전란에서 안정으로」에 참가했다.

각 국 3명의 연구자에 의한 개별 발표로 구성된 총 5개의 세션이 준비되었고, 마지막에는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제4회 아시아미래회의라는 거대한 이벤트 안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많은 청중들이 참여해서 흥미롭게 경청하는 모습들이 인상에 깊게 남았다.

발표는 모두 매우 흥미로웠지만, 발표수도 많았고 또 지면도 부족하므로 이하에서는 전체적인 감상을 전하면서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 보고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도 기술하겠으나, 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왔던 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구하고자 한다.

첫번째 감상은, 당일에도 지적되었던 점이지만, 상호 간의 토론이 부족하여 대화라고 하는 원탁회의의 본래 취지에서 봤을 때 큰 과제를 남겼던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의 문제에 대해서는 첫번째 세션에서 개별적 사실 인정 부분에서 격차가 보였고, 또 한반도를 침략의 목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과예정지로 볼 것인지 등의 역사인식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으나, 특별한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다. 발표 라인업의 문제였을 수도 있으나, 토론 시간이 매우 한정되었던 점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3개의 발표에 대해 다른 두 발표자가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각각 답변을 하는 식으로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벌써 시간이 부족했다. 발표 자체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었기에 그랬을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서로 확인하는 질문이 많았고, 세션 전체에서 볼 때 논의를 심화하여 종합해가는 단계로 이르지 못했다. 본 이벤트의 일관된 강점인 동시통역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진행 방식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특별한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였다.

토론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논의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허태구 씨(가톨릭 대학교)의 보고에서 다루어졌던, 보편적 가치관과 개별구체적인 정치판단이라는 논점은 비교사적인 검토가 크게 기대되는 문제였으며, 자오이핑 씨(동북사범대학)와 같이 광역 지역·문명권의 인식 방식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논의도 토론거리였다. 또한 얼핏 보면 그와 상반되는 듯하나, 대규모 전쟁을 위한 체제가 전쟁 이후 안정기의 국가·사회에 남긴 각인을 다룬 마키하라 시게유키 씨(동경대학), 병참과 그 제도적 변모를 다룬 최주희 씨(국학진흥원)의 보고 등은 물건·사람·돈이라는 요소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정밀하게 살핌으로써, 다른 지역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 실상에 접근하기 편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점으로

로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발표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었어서 이해를 공유하는 레벨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발표 후, 휴식시간 중에 나눈 질의 응답이 꽤나 지적 자극을 주었다는 점은 부기해두고 싶다). 되도록 많은 연구자를 한 자리에 모으고자 하는 것도 원탁회의의 취지이지만, 토론 시간의 문제는 앞으로도 고민거리일 것이다.

앞으로의 논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던 것은, 한국학계에서 왜란과 호란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조광 씨의 기조강연, 그리고 최영창 씨 (국립진주박물관)의 한국에 있어서의 임진왜란의 인식 변화를 다룬 발표였다. 각국 · 지역 · 문화권의 역사관과 방법론의 차이를, 조화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함께 감안하면서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방법으로서, 각국 · 각 지역의 사학사 검토를 통해 차이가 발생하고 변화해 온 과정을 부각시키는 방법이었다. 사실을 하나씩 검증해 가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나, 사상(事象)의 보이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방식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해명하고, 가능한 한 공유해가는 방법도 상당히 유망한 방식이지 않을까.

2일째의 세션과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과거의 교류 형태에 대해 꼼꼼히 살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자들 사이의 상호 이해는 꽤 진전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연구자와 국가 · 사회의 격차가 문제라는 인식이 제시되었고, 총괄 시간에는 약간의 비통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 역시 전일부터 토론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을까.

그 중에서 박훈 씨 (서울대학교)의 발언이 인상깊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역사학의 가치의 문제, 연구자 한사람 한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발신을 지속해가는 작업의 중요성을 제기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논점이었다. 대화도, 학문의 발전도, 그리고 현대 · 미래 사회에 대한 공헌도, 최종적으로는 개인이 짊어질 문제인 것이고, 동시대의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풍일지라도, 개인의 절차탁마와 그러한 방향성은 항상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 있어 이번 기회는, 기획한 취지의 달성도는 제쳐두더라도, 참가한 여러 분들의 쇼윈도로서의 모습만으로도 필자에게는 충분히 흥미로웠고 자극적이었다. 발표의 구성, 얼굴 표정, 몸짓과 손짓 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었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청중의 한 사람이었던 아카시 대사도 요청에 응하여 감상을 들려주셨는데, 온화하면서도 분명한 어조에서 큰 감명을 받았고, 스피치라는 것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다.

한편 남한산성 견학은 한 나라의 흥폐가 집결된 공간을 눈과 발로 체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흥분한 나머지 유도로를 벗어나 돌아다녀서, 다른 분들께 걱정과 폐를 끼쳐드렸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모든 분들, 그리고 동시 통역에 종사해주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감상문의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무라 카즈아키 村和明 Mura Kazuaki>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준교수. 전공은 일본근세사. 동경대학 졸업. 2009년 동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박사(문학). 고대 이래 현재까지 존재하는 천황의 근세에서의 지위와 기능, 그리고 근세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인이었던 미쓰이(三井), 이 두 주제가 주된 연구 테마이며, 내부의 권력투쟁과 제도·의례의 관계, 당사자들의 질서와 역사에 대한 의식 등에 착목해왔다. 단독 저서로 『近世の朝廷制度と朝幕関係』(東京大学出版会、2013年), 주요한 공동 저서로 牧原成征編『近世の権力と商人』(山川出版社、2015年)、三井文庫編集・発行『史料が語る三井のあゆみ』、藤田覚編『幕藩制国家の政治構造』(吉川弘文館、2016年)、木村直樹・牧原成征編『十七世紀日本の秩序形成』(吉川弘文館、2018年) 등이 있다.

맺으며

3

국경을 넘어서는 사학사의 대화

쑨 쑨위에 (도쿄대학)

(번역 : 민동엽, 도쿄대학)

제 3 회 「한중일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포럼은 ‘왜란’ 과 ‘호란’ 이라는 두 ‘란’ 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끝마쳤다. 비전문가인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발표가 흥미로웠고 또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생각이 들게끔 한 것은 ‘조공 시스템’ 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중국대륙과 일본 역사학계에 있어서의 이해의 차이였다.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学)의 자오이펑(趙軼峰) 교수에 의하면, 중국대륙에서는 최근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야기할 때, 1990 년대에 하마시타 다케시(浜下武志) 씨가 제기한 ‘조공 시스템’ 의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과 조공국 조선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했던 것과는 반대로, 청과 일본 사이에는 국교조차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조공 시스템’ 이라는 개념으로 동아시아 전역의 국제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자오이펑(趙軼峰) 교수의 문제 제기였다.

하마시타 다케시 씨가 ‘조공 시스템’ 이라는 아시아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구상한 것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국가의 틀이 상대화되던 1990 년대였다. 종래에는 ‘조공 관계’ 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과 책봉이라는 양자간의 관계로 파악하여 중국과의 관계의 소밀(疎密)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하마시타 씨는 이처럼 중국을 유일한 중심으로 하는 방사상 국가간 관계로서 아시아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중심—주변(소중화권)이 싱가포르나 류큐, 홍콩과 같은 중계지를 통해 연결되어 하나의 느슨한 통일체, 복합적인 광역지역 질서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광역지역에서는 종주(宗主), 번속(藩屬), 주권(主權)과 같은 통치이념 뿐만 아니라, 동지나해(東支那海) 또는 남지나해(南支那海)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교역과 이민, 송금 네트워크와 같은 이질적인 정체(政體)나 사회집단, 혹은 상인 그룹이 병존하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 간 관계의 이념도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근대는 ‘서양의 충격’ 으로 인해 조공 시스템에서 국가조약체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광역지역 질서’ 의 내재적인 변동과 전개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하마시타 씨가 ‘조공 시스템’ 을 종주권이나 주권, ‘비조직 네트워크’ 와 같은 다양한 통치이념을 포섭하고 중계지를 통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인 광역지역질서’ 로서 제시한 것은, 그 내부를 단일화, 균일화, 집중화 하는 ‘주권 국가’ 의 근대적 통치 형태를 상대화하고, 국가 단위가 아닌 미래의 지역 간 관계 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힌트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서양과 서양 근대를 참조의 범주로 한정하지 않고 아시아 그 자체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응시하려고 하는 이른바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과의 결별의지를 80년대 말 이후의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씨, 하마구치 씨 등의 중국 연구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일본 사학사에서의 위치를

무시하고, 또다시 ‘조공 시스템’을 전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아시아의 근대, 중국은 중국의 근대가 있다라는 식의 아시아 혹은 중국 특수론으로 단순화되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될 위험성조차 내포할 수 있다.

일찍이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사상적 전제로부터 분리되어 부품으로 유입된 외래사상이 전통사상과의 논리적 관계나 점해야 할 위치를 확실히 못한 채 뒤섞인 상태로 전통사상과 공존하였기 때문에, 사상이 대결과 축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日本の思想』).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외래사상의 세례를 받아 소화불량 상태에 있는 중국 연구자들은 지금 이러한 점에 통감하고 있지 않을까. 사료와 연구방법, 이론, 학설을 공유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학사를 포함한 역사연구의 교류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사학사 연구 그 자체가 일국사관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진다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변천을 정리한 최영창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임진왜란’을 “민족이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경험한 국난”으로 이해하는 ‘국난극복사관’이 1950년대에 대두했고, 60년대에는 무기력한 관군을 대신해 유격전을 전개한 의병에 초점을 맞춘 ‘의병 중심의 임진왜란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실은 일본의 중세사 연구자인 이시모다 쇼(石母田正)가 1948년에 쓴 글 속에 제일(조선·한국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이와 같은 인식을 소개하고 있다(『堅氷をわるもの』). 마을 노인들을 통해서 읽었거나 들었던 독본이나 추억담을 통해 조선의 소년들에게 의용단의 영웅적 투쟁이 전해졌고, 또 부패한 지배계층에 대한 불신도 심어졌다는 이야기에 이시모다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시모다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의병 중심의 투쟁을 당시 점령 상태에 놓여 있던 일본에서 미제국주의와 요시다내각을 향해 투쟁하는 민중과 오버랩 해 보았던 것은 확실한데 그 배경에는 모택동의 신민주주의의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전문가의 추측이기는 하지만, 1950, 60년대 의병중심의 ‘국난극복사관’의 대두는 단순히 한국 내부의 정치상황이 그 원인이 아니라, 당시 아시아·아프리카에서 발흥한 대외적으로는 민족독립해방, 대내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과 사조와도 호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학사를 포함한 역사연구 간의 대화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와 일반 시민간의 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이번 포럼의 중요한 과제였다.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선생님과 조광 선생님의 발표에서, 정치가 개입되기 가장 쉬운 역사교육 영역에서 공동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 한편, 왕웬룽(王文隆) 교수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역사교과서보다 오히려 드라마, 소설, 만화, 언론 보도 등이 사람들의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나 자신도 인터넷에서 조선사를 조사하면서 한국드라마『정도전』을 재미있게 보았다. 또 우리 오빠는 금융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어로 번역된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라든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책을 애독하고 있으며 전국시대의 역사에 관해

서는 나보다도 더 자세하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최근 일본인 작가가 쓴 중국인 여성작가의 전기를 읽고 있다. 이제는 기타카타 겐조(北方謙三)의 『삼국지』나 『대수호전』을 통해 중국사에 관심을 가지는 중국인 독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한 시대가 아니다. 이처럼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수단이 국제화되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내셔널 히스토리’의 형성과 침투도 학교 역사교육이나 프로파간다 만을 통하지 않고 더욱 복잡해져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고려해 일반시민의 역사적 사고능력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형성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안정된 연구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업적쌓기나 응모서류 작성에 바쁜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훈 교수가 젊은 시절에 동경했던 역사학자로서 도야마 시게키(遠山茂樹)와 푸쓰넨(傅斯年)의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역시 시대의 과제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하는 역사학자에게 있어서는 역사학 그 자체가 가장 생동감 넘치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미조구치 유조 씨에게서 연구실과 현실 사회 사이의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도 나에게서는 격려이기도 하고 또한 고민이기도 하다.

<쑨 쑨위에(孫軍悅) Sun Junyue>

2007년 도쿄대학대학원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후 퇴학. 학술 박사. 현재, 도쿄대학대학원인문사회계연구과 · 문학부 전임강사. 전공은 일본근현대문학, 중일비교문학, 번역론.

맺으며

4

화해를 향한 역사가 네트워크를 위해서

류 지에 (劉 傑, 와세다대학)

(번역 : 민동엽, 도쿄대학)

이번이 세 번째 ‘국사들의 대화’입니다. 제1회와 제2회는 일본의 기타큐슈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만, 이 대화를 전면적으로 후원해 주신 아쓰미재단, 특히 이마니시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도쿄클럽을 비롯해 여러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3회 테마는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입니다. 그리고 대화 마지막에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원탁회의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지금까지의 대화를 총괄하고 이후의 대화를 위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국사들의 대화는 2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20년 간, 한, 중, 일 3개국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역사대화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 대화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 어떠한 문제를 남겨뒀는지, 그리고 반대로 대화로 인해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졌는지, 이제 드디어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공동연구를 되돌아 보면, 우선 국가 간 정부가 주도한 역사공동연구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간에 있었습니다. 각각 불완전했지만 그 성과를 출판하고 각국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민간 레벨에서의 근대사를 둘러싼 역사대화, 공동연구,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아시아의 격한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역사가들은 집요하게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고, 또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역사공동연구의 상호관계나 사회에의 발신과 그 영향, 특히, 국민 간의 상호 이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화해’ 세션에서 이러한 것들을 의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세다대학은 아사노 도요미 (淺野豊美) 교수를 대표로 해서 ‘화해학의 창성 (創成)’ 이라고 하는 테마로 과학연구비를 신청했습니다. 작년부터 5년 간 계획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화해학’이라는 것을 동아시아의 ‘공유지 (知)’ 로서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라는 시도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역사가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그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간의 화해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역사가가 국민 간의 ‘화해’에 어떻게 커밋해 갈 것인가 라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화해와 화평 (和平)이 동아시아의 중요한 테마라면, 역사대화도 이를 의식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사들의 대화’의 착지점, 즉, 최종적인 목적을 어디에 뒀야 좋을까요. 이는 위에서 소개한 ‘역사가 네트워크의 검증’의 목적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3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국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어떠한 것이 있을까, 라는 것

에 어느 정도 이미지도(圖)를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국의 사회변동, 역사교육의 자세, 국제관계의 영향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인식의 문제는 우선 각국의 국내문제라는 점입니다. 국내문제로서의 역사인식문제가 각국에는 존재합니다. 즉, 각국 내부에 다양한 역사인식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국경을 넘어서 대화할 것인가. 역사인식문제는 국내와 국제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역사가가 각각 국내요소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연구에 임하고 있는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역사대화의 역사를 검증하고, 총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개의 시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1기는 1970년대 이전의 역사대화입니다. 이는 이른바 ‘전후 역사가’들의 대화입니다. 이 시기의 대화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논문 등의 연구성과를 통한 대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전후 역사학계의 연구 상황은 70년대 이전 중국에서의 아시아사, 일본사, 중국사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실태의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즉, 국교가 없는 나라들 간의 지적 교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시기는 8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중국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역사가들의 직접적인 대화는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이라기 보다는 ‘아시아의 근대화’에 관한 문제에 큰 초점이 놓여졌었습니다. 이 시기 대화의 성과, 혹은 그 유산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지,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시기는 90년대, 특히 9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 시기의 대화는 그야말로 어긋난 역사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테마로 전개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대화는 정치적 대립이나 사회적 대립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커다란 짐을 지고 대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두해 있는 ‘국사들의 대화’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 시기의 대화는 문제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역사대화 주체의 검증입니다. 제가 연관된 역사대화의 대부분은 ‘월경(越境)하는 역사가들에 의한 대화’였습니다. 특히, 80년대 이후, 중국의 역사연구자가 대거 해외로 진출하여 그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 역사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서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연구자들도 같습니다. 이러한 월경하는 역사가들이 참가하는 대화가 어떻게 발전되고, 또 각국의 역사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상당히 흥미로운 테마입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화해’ 세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역사대화의 경험을 고려해 대화 속에서 무엇이 가능했는지, 혹은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남았는지를 우선 분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또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도대체 역사학 그리고 역사가가 역사의 화해, 국가와 국가의 화

해에 어떻게 관련되어야 하는가, ‘화해를 위한 역사학’의 가능성과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점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현재 역사학을 둘러싸고 ‘사료’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구성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역사학과 역사가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째로 오랄 히스토리와 기억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역사 사료로서 등장할 때, 전통적인 역사학의 연구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다양한 사료가 현재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고, 국경을 넘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역사에 대해 쉽게 발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상(像)의 복잡화가 역사학에 커다란 과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신사학(新史學)’의 창성(創成)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신사학의 이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국경을 넘는 역사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국사들의 대화’이고, 제4회, 5회 이후는 19세기, 20세기 등 근현대가 그 테마입니다. 착지점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보다 선명하게 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은 이를 위한 하나의 준비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 지에, 劉傑 Liu Jie>

북경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도쿄대학에 입학. 1993년 도쿄대학대학원 인문과학 연구과 박사과정수료, 박사(문학) 학위 취득. 현재 와세다대학 사회과학부·사회과학종합 학술원 교수, 와세다대학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전문 분야는 근대일본정치외교사, 근대중일관계사, 현대중일관계론, 현대중국론. 특히, 중일 간의 역사인식문제와 그 배경에 정통함.

주요 저서: 『日中戦争下の外交』(吉川弘文館、1995년), 『中国の強国構想—日清戦争後から現代まで』(筑摩書房筑摩選書、2013년) 등.

저자 약력

■ 조광 / CHO Kwang

1945 년 한국 서울 출생. 조선시대의 사상사, 사학사, 관제사를 전공. 고려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 동국대학교 국사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 문과 대학장 · 박물관장,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사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역사편찬원 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주요 저작 : 『조선후기사회의 전환기적 특성』, 『조선후기사회의 이해』, 『한국사학사의 인식과 과제』,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등.

■ 최영창 / CHOI Young-Chang

1964 년 부산 출생. 1986 년 고려대 사학과 졸업. 1989 년 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1992 ~ 2013 년 문화일보 기자. 2006 ~ 2007 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UBC)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 2013 ~ 2015 년 한국의 문화 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연구실장 등. 2015 년 ~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장. 조선 시대의 수군과 임진왜란 당시 파견된 명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정지에서 / ZHENG Jiexi

2004 년, 중국 영파(寧波)대학 역사학부 졸업. 2006 년, 중국 절강(浙江)대학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 2011 년에 일본 간사이(關西)대학 문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수료. 문화교섭학 박사학위를 취득. 현직은 영파(寧波)대학 인문미디어학원 부교수. 연구분야는 대외관계사, 임진왜란사.

주요 저작 : 『跨境人員, 情報網絡, 奉貢危機: 萬曆朝鮮戰爭與 16 世紀末 的東亞』,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7.) 『歷代正史日本傳考注』明代卷, (공저,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6.)

■ 아라키 가즈노리 / ARAKI Kazunori

2001 년 규슈대학 문학부 졸업. 2006 년 규슈대학 인문과학부 박사후기과정 수료. 박사(문학). 현직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준교수. 전문 분야는 일본중세사, 동아시아 교류사.

주요 저작 :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山川出版社, 2007). 『對馬宗氏の中世史』(吉川弘文館, 2017).

■ 허태구 / HUH Tae-koo

1970 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논문의 제목은 「17 세기 朝鮮의 焰硝貿易과 火藥製造法 발달」이고, 박사학위논문의 제목은 『丙子胡亂의 정치 · 군사사적 연구』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를 거쳐,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사학전공 조교수. 주요 관심 분야는 중화주의와 연관된 조선후기의 정치사, 외교사, 사상사.

발표 논문 : 「丁卯 · 丙子胡亂 前後 主和 · 斥和論 관련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이나바 이와키 치(稻葉岩吉)의 丁卯 · 丙子胡亂 관련 주요 연구 검토」,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胡亂期 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등이 있다.

■ 스즈키 가이 / SUZUKI Kai

2006 년 메이지대학 문학부 졸업. 2014 년 도쿄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박사(문학). 현직은 도쿄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조교, 전문분야는 조선 근세 정치외교사, 한중관계사.

주요 저작 : 「丁應泰의變と朝鮮—丁酉倭亂期における朝明關係の一局面」(『朝鮮學報』제219집, 2011). 「朝鮮丁卯胡亂考 : 朝鮮 · 後金關係の成立をめぐる」, (『史學雜誌』제 123 편 8 호, 2014.) 「丙子の亂と朝清關係の成立」(『朝鮮史研究會論文集』제 55 집, 2017).

■ 치메이친 / QI Meiqin

중국 내몽골 오르도스 출신. 1987 년 중앙민족대학 역사학과(歷史系)를 졸업. 1996 년에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중국인민대학 청사연구소(淸史研究所) 교수, 잡지『淸史研究』의 주편(主編). 주요 연구 분야는 청대정치사, 변강 민족사이고, 연구성과는 주로 내무부(內務府) 및 내무부 삼기(三旗) 보오이 집단의 특징, 청대 변경(邊境) 통치, 청왕조의 특성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 마키하라 시게유키 / MAKIHARA Shigeyuki

1994 년 도쿄대학(문학부) 졸업, 1999 년 도쿄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단위 취득 후 퇴학, 2003 년 박사(문학) 취득. 현직은 도쿄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준교수, 전문분야는 일본근세사(신분제, 토지제도, 유통)

주요 저작: 『近世の土地制度と在地社會』(東京大學出版會, 2004. 編著), 『近世の勸力と商人』, (山川出版社, 2015), 「兵農分離と石高制」, (藤井讓治 외 編, 『岩波講座日本歴史』제 11 권 近世1, 岩波書店, 2014).

■ 최주희 / Choi Joo-Hee

2003 년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문학석사(역사학). 문학 박사(한국중세사). 2014 년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의 전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국학진흥원(the Korea study Institute)의 책임연구원. 조선후기 국가의 재정운영 및 시장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작: 「광해군대 京畿宣惠法の 시행과 宣惠廳의 운영양상」(한국사연구 176, 2017), 「균역법 시행 전후 訓練都監의 재정운영 양상」(역사와 현실 102, 2016), Confucian business ethics in Korea: pre-modern welfare state(Asia Pacific Business Review 22, 2016) 등.

■ 자오이펑 / Zhao Yifeng

1953 년 내몽골 카이루현(開魯縣) 출생. 동북사범대학 역사학 학사, 석사, 캐나다 앨버타대학 역사학박사. 1984 년부터 1989 년까지 동방사범대학 역사학부강사, 조교수, 1989 년에서 1999 년까지 캐나다 브랜튼대학 객원교수, 앨버타대학 방문학자, 강사. 2000 년 이후, 동북사범대학 역사학부교수, 부학부장, 명청사연구소장, 화남사범대학 역사학부 교수, 개남대학 역사학부 교수, 동북사범대학출판사 학술위원회 주임, 역사문화학원 교수, 아시아문명연구원장, 『고대문명』편집장 등을 역임. 연구분야는 명청사, 사학이론, 비교문명사.

주요 저작: 『中国古代史』(공편, 高教出版社, 2002, 2010), 『明代国家宗教管理制度と政策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8), 『明代の変遷』(上海三聯書店, 2008), 『学史叢錄』(中華書局, 2005), 『クリントン弾劾とアメリカの政治文化』(中国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2 판), 『明清帝制農商社會研究(初編)』(科学出版社, 2017), 『<明夷待訪錄>注說』(河南大学出版社, 2017). 번역서로 『グローバル文明史』(中華書局, 2006) 등. 그 외 약 100 편의 논문을 발표.

관계자 명단

	氏名 (ローマ字)	氏名 (日本語)	氏名 (韓国語)	氏名 (中国語)	所属 (韓国語)
発表者					
1	Araki Kazunori	荒木和憲	아라키 가즈노리	荒木和宪	국립역사민속박물관
2	Suzuki Kai	鈴木開	스즈키 가이	铃木开	도쿄대학
3	Makihara Shigeyuki	牧原成征	마키하라 시게유키	牧原城征	도쿄대학
4	Choi Young-chang	崔永昌	최영창	崔永昌	국립진주박물관
5	Huh Tae-koo	許泰玖	허태구	许泰玖	가톨릭대학교
6	Choi Joo-hee	崔姪姬	최주희	崔姪姬	한국국학진흥원
7	Zhao Yifeng	趙軼峰	자오 이펑	赵轶峰	동북사범대학
8	Qi Meiqin	祁美琴	치 메이친	祁美琴	중국인민대학
9	Zheng Jiexi	鄭潔西	정 지에시	郑洁西	영파대학
発表者 / 実行委員					
10	Liu Jie	劉傑 ※座長	류 지에	刘杰	와세다대학
11	Mitani Hiroshi	三谷博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12	Cho Kwang	趙珧	조광	赵珧	국사편찬위원회
実行委員					
13	Ge Zhaoguang	葛兆光	거 자오광	葛兆光	복단대학
14	Mura Kazuaki	村和明 ※座長	무라 가즈아키	村和明	도쿄대학
15	Li Enmin	李恩民 ※座長	리 언민	李恩民	오비린대학
16	Xu Jingbo	徐静波	쉬 정보	徐静波	복단대학
17	Peng Hao	彭浩	펑 하오	彭浩	오사카시립대학
18	Kim Kyongtae	金キョンテ	김경태	金 恩泰	고려대학교
19	Chong Soonil	鄭淳一	정순일	郑淳一	고려대학교
20	Kim Bumsu	金範洙	김범수	金范洙	도쿄학예대학
21	Sun Junyue	孫軍悦	쑤쑤위예	孙军悦	도쿄대학
翻訳 / 編集サポート					
22	Lee Jihyeong	李志炯	이지형	李志炯	제일공업대학
23	Jeon Sangryul	全相律	전상률	全相律	간다외국어대학
同時通訳					
24	Ding Li	丁莉	정리	丁莉	북경대학
25	Song Gang	宋剛	송강	宋剛	북경외국어대학
26	Piao Xian	朴賢	박현	朴賢	교토대학
27	Jin Danshi	金丹実	김단실	金丹实	프리랜서
28	Lee Hyeri	李ヘリ	이혜리	李惠利	한국외국어대학교
29	Ahn Younghee	安ヨンヒ	안연희	安暎姫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
招待討論者					
30	Shiode Hiroyuki	塩出浩之	시오데 히로유키	盐出浩之	교토대학
31	Lee Myungmi	李命美 ※座長	이명미	李命美	한국외국어대학교
32	Biao Yang	楊彪 ※座長	양 바오	杨彪	화동사범대학
33	Hun Park	朴薰	박훈	朴薰	서울대학교
34	Kim Bokwang	金甫桃	김보광	金甫桃	가천대학교
35	Asano Toyomi	浅野豊美	아사노 도요미	浅野丰美	와세다대학
36	Wang Wenlung	王文隆	왕 웬룽	王文隆	대만정치대학
37	Duan Ruicong	段瑞聡	단 루이충	段瑞聡	게이오의숙대학
翻訳					
38	Luo Feng	駱豊	뤄 펑	骆丰	와세다대학
39	Zheng Cheng	鄭成	정 청	郑成	와세다대학
40	Hong Sungmin	洪性珉	홍성민	洪性珉	와세다대학
41	Hanai Miwa	花井みわ	하나이 미와	花井 Miwa	와세다대학
42	Liu Yingwu	柳英武	유영무	柳英武	와세다대학
43	Huang Mingshu	黄明淑	황명숙	黄明淑	와세다대학
レポート編集者					
44	Nagai Ayumi	長井亜弓	나가이 아유미	长井亚弓	아쓰미재단
実行委員 / スタッフ					
45	Imanishi Junko	今西淳子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쓰미재단
46	Tsunoda Eiichi	角田英一	쓰노다 에이이치	角田英一	아쓰미재단
47	Honda Yasuko	本多康子	혼다 야스코	本多康子	아쓰미재단

SGRA レポート バックナンバーのご案内

- SGRA レポート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2 CISV 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 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步」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バート、高 偉俊 2001. 10.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臼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ブ、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蔣 恵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 発行
- SGRA レポート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 7. 8 発行
- SGRA レポート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プレンサイン 2002.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 発行
- SGRA レポート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プートゥラ、孟 健軍、B. 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 1. 31 発行、
韓国語版2003. 3. 31 発行、中国語版2003. 5. 30 発行、英語版2003. 3. 6 発行
- SGRA レポート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 発行
- SGRA レポート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 発行、英語版2003. 6. 6 発行
- SGRA レポート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8.30 発行
- SGRA レポート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榮濬
2003.12.4 発行
- SGRA レポート20 第12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OP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 発行
- SGRA レポート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 2004.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23 第1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ブラムティオノ 200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5 第14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銘、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 発行
- SGRA レポート26 第1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1.24 発行
- SGRA レポート27 第1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ヂ、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8 第17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グ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9 第18回フォーラム・第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
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0 第1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1 第2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 マキト
2006. 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2 第2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留学生―」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パーブ・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3 第22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4 第2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ホ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ー、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
- SGRA レポート 35 第24回フォーラム講演録「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6 第25回フォーラム講演録「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7 第1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8 第6回日韓フォーラム in 葉山講演録「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 SGRA レポート 39 第26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0 第27回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プラチャー・ムシカシントー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1 第28回フォーラム講演録「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ー 2008.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2 第2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新疆講演録「黄土高原緑化協力の15年—無理解と失敗から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 SGRA レポート 44 第29回フォーラム講演録「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45 第30回フォーラム講演録「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
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46 第31回フォーラム講演録「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
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47 第32回フォーラム講演録「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
清水 諭、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 発行
- SGRA レポート 48 第3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
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年」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9 第33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
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0 第8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
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 Web 版 2009.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1 第35回フォーラム講演録「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
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2 第36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世紀の課題」
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ブ・ティ・ミン・チイ、
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3 第4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
TABLE FOR TWO～」近藤正晃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4 第37回フォーラム講演録「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
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玄田有史 シム チュン 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5 第38回フォーラム講演録「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
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木村建一、高 偉俊、
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
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劍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6 第5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
第一部（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7 第39回フォーラム講演録「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井上まどか、
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タ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蘭 進、陳 継東
2011. 12.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平川 均 2011. 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9 第1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
朴 亨國、金 尚泰、胡 潔、李 成制、陸 載和、清水重敦、林 慶澤 2012.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60 第40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
田多英範、李 蓮花、羅 仁淑、平川 均、シム チャン キャット、F・マキト 2011.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61 第4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恵市、黒柳米司、朴 榮濬、
劉 傑、林 泉忠、ブレンサイン、李 成日、南 基正、平川 均 2012.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62 第6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 郭 偉
201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4 第43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
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南 基正、林 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5 第44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
赤堀侃司、影戸誠、吉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 2. 1 発行
- SGRA レポート 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年）」（日本語・英語・中国語）沼田貞昭
2013.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7 第1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
平川 均、加茂具樹、金 雄熙、木宮正史、李 元徳、金 敬熙 201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68 第7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
（日本語・中国語・英語） 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9 第45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ー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ー」
村瀬信也、南 基正、李 成日、林 泉忠、福原裕二、朴 榮濬 2014.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0 第46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
荒川 智、上原芳枝、ヴィラーク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 佳英 2015.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1 第47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ー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
と倫理ー」 崔 勝媛、島藺 進、平川秀幸 2015. 5.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72 第8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
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3 第1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ー
物流を中心に」 李 鎮奎、金 雄熙、榊原英資、安 秉民、ドマン・ホーン、李 鋼哲 2015.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74 第4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劉 傑、平野健一郎、南 基正 他15名 2016. 6.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5 第50回SGRA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ー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
神崎智子、斉藤淳子、李 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 発行
- SGRA レポート 76 第9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二百年ー文化史からの再検討」
劉 建輝 発行予定
- SGRA レポート 77 第15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ー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
の模索」 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78 第5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今、再び平和についてー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え
るー」 南基正、木宮正史、朴榮濬、宋均管、林泉忠、都築勉 2017. 3. 27 発行
- SGRA レポート 79 第5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
劉傑、趙珖、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80 第16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ー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ー」
金雄熙、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 5.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81 第5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ー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
2回ー」 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82 第5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2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ー蒙
古襲来と13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 葛兆光、四日市康博、チョグト、橋本雄、エルデニ
バートル、向正樹、孫衛国、金甫枕、李命美、ツェレンドルジ、趙阮、張佳 2018.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83 第5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を結ぶ？『一带一路』の地政学」 朱建榮、李彦銘、朴榮
濬、古賀慶、朴准儀 2018.11.16 発行
- SGRA レポート 84 第11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からみた中国美術史学」 塚本磨充、呉孟晋
2019. 5. 17 発行
- SGRA レポート 85 第17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北朝鮮開発協力：各アクターから現状と今後を聞く」
孫赫相、朱建榮、文景鍊 発行予定
- SGRA レポート 86 第5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7世紀東ア
ジアの国際関係ー戦乱から安定へー」 三谷博、劉傑、趙珖、崔永昌、鄭潔西、荒木和憲、許泰玖、
鈴木開、祁美琴、牧原成征、崔姪姫、趙軼峰 2019.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87 第6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の高等教育のグローバル化!?」 沈雨香、吉田文、シン・ジョ
ン Chol、関沢和泉、ムラット・チャクル、金範洙 2019. 3. 26 発行

■ レポートご希望の方は、SGRA 事務局（Tel：03-3943-7612 Email：sgra-office@aisf.or.jp）へご連絡ください。

SGRA 리포트 No.0086 (한국어판)

제59회 SGRA 포럼

**제3회 한국·중국·일본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

편집·발행: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Email: aisf-office@aisf.or.jp

발행일: 2019년 12월 00일

발행 책임자: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

한국어판 감수: 민동엽(閔東曄)

인쇄: (株) 平河工業社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본지 기사에 대한 문의나 인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주세요.

SGRA REPORT

SGRA보고서 한국어판

NO. 86

제 59 회 S G R A 포럼

제 3 회

한국 ·

중국 ·

일본

간

국사들의

대화

가

17 세 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 전란에서

안정으로

